

조선시대

강경서 姜景紱 1443년(세종 25)~1510년(중종 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자문子文, 호는 초당草堂이다. 아버지는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77년(성종 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자正字가 되고 1489년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서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1497년(연산군 3) 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가 되었다. 이듬해 무오사화로 결장決杖 100, 유流 3,000리, 봉수군정노우정역烽燧軍庭爐于定役의 처벌을 받아 회령에 유배되었다. 1501년(연산군 7) 방환되어 직첩이 환급되었으나 당시에는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에는 서용敍用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납간納諫, 친현사親賢士, 흥학교興學校 등 12개 향을 건의하였다. 그는 남효온南孝溫·권경유權景裕 등과 더불어 사장詞章·정사政事·절의·효행 등으로 이름이 높

았다. 저서로는 『초당집草堂集』이 있다. 묘는 교하읍 다율리 진주 강씨 선영 묘역에 있다.

강공망 姜公望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곡산군수 중선中善의 증손으로 생원으로서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증직된 순민舜民의 손자이며, 대사간大司諫 경서景紱의 아들이다.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들인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옥昱과 호조판서戶曹判書 심운의 공으로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추증되었다. 교하읍 다율리에 묘가 있다.

강대호 姜大虎 1541년(중종 36)~1624년(인조 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호변虎變, 호는 하음河陰이다. 대사간大司諫 경서景紱의 증손이고,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증직된

공망公望의 손자이며,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옥묘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등용되었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1597년(선조 30) 평양부윤平壤府尹이 되었다. 평양부윤으로 재임 중 유망민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송사를 잘 해결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칭송이 자자하자 김유복金裕復 등이 교체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상소하기도 하였다. 1603년 원주목사原州牧使로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상주목사尙州牧使로 나갔으며, 다시 1605년에는 임천군수林川郡守를 거치는 등 주로 외직을 역임하였다. 1607년에는 차사원差使員에 임명되었고, 1610년(광해군 2)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이르렀다. 효행이 지극하여 정려되었다. 교하읍 다올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강득신 姜得新 생몰년 미상. 원래는 평민 출신이었으나 부모에 대한 효행이 두터워 벼슬을 추증 받았다.

강섭 姜漚 1516년(중종 1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명중明仲, 호는

송월당松月堂·송일松日·낙봉樂峰이다. 할아버지는 대사간大司諫 경서景敍이며, 아버지는 공망公望, 형은 옥묘이다.

1540년(중종 35) 진사가 되었고, 1546년(명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로서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하여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550년(명종 5) 예조좌랑禮曹佐郎에 보임된 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함경도어사咸鏡道御史·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를 역임하고, 만포첨사滿浦僉使로 전임되었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 병조참지兵曹參知가 되었고,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와 도승지都承旨를 역임하였으며, 1562년 회령부사會寧府使로 나갔다. 그 이듬해에 순회세자巡懷世子가 죽자, 행부호군行副護軍으로서 국장도감國葬都監의 주상主喪을 맡아 3년간 수묘관守墓官으로 있었다. 1566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에 임명되었는데 판윤 재직 때 성황제城隍祭의 헌관獻官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병을 핑계하여 제사에 불참하였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로 전임되었다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전 보되었다.

1568년(선조 1) 성절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 으며, 1573년 다시 한성부판윤이 되어 특진관特 進官으로 경연에 참석한 바 있고, 신병으로 판윤 을 사직하자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체직되 었다. 1583년(선조 16) 비변사로부터 재경원수 在京元帥로 추천을 받았으며, 범죄인을 사면할 때 외류外流 이하는 납속納粟으로 속죄시킬 것을 주청한 바 있다. 묘는 교하읍 다올리 진주 강씨 선영 묘역에 있다.

강옥姜晷 1511년(중종 6)~1574년(선조 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광 중光仲이다. 대사간大司諫 정서景敍의 손자이고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증직된 공망公望의 아들이 며,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섬暹의 형이다.

1534년(중종 29) 사마시에 오르고 1540년 생 원으로서 별시문과에 별과로 급제하였다. 그 후 공조좌랑工曹佐郎으로서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 官을 겸하여 동생인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教 섬과 함께 『중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을 거 쳐 1550년(명종 5)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 하고 1554년에는 남원부사南原府使를 거쳐 해남 현감海南縣監을 지냈다. 1556년 승정원 동부승지 同副承旨에 올랐으나 남원부사로 있을 때 청렴하 지 못한 일이 많았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상호군上護軍으로 체직되었다. 1558년 공조참의 工曹參議에 제수되었고, 이듬해에는 관압사管押使 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이준경李浚慶과 더불어 중 국의 정세에 대비할 것을 주청하였다. 그 뒤 우 승지右承旨, 도승지都承旨, 장에원판결사掌隸院判 決事 등을 거쳐 1562년에는 예조참의禮曹參議가 되었고 다시 강원도관찰사로 나갔다. 1566년에 수원부사水原府使에 전직되어 기민飢民을 진휼한 공으로 포상을 받았다. 안홍安鴻, 이지신李之信 등과 함께 전직 호조의 정랑正郎과 좌랑佐郎들이 모인 호조낭관계에 참여한 것을 그린 보물 제 870호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가 국립중 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교하읍 동패리에 묘 와 신도비가 있다.

강잠은姜潛隱 생물년 미상. 조선 시대의 문신으

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이르렀으며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아동동에 묘가 있다.

경구慶絢 1712년(숙종 38)~1781년(정조 5). 조선 후기 의관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문백文伯이다.

1735년(영조 11) 증광의과에 급제하여 수의首醫가 되었다. 그 후 현령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고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다. 교하읍 하지석리에 묘가 있다.

경래운慶來運 1723년(경종 3)~? 조선 후기 무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초명은 봉운鳳運, 자는 여대汝大이다. 환皖의 아들이다.

1751년(영조 27) 무과에 올랐으며 1766년 참하부장參下部將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내종형인 권상은權尙殷과 오위장을 서로 피하여 체직되기도 하였다. 이후 참하수문장參下守門將을 거쳐, 1768년 선전관宣傳官과 1773년 훈련원주부訓鍊院

主簿를 지냈다. 1775년 판관判官으로 승급되었고, 1777년(정조 1)에는 제주통판濟州通判을 역임하였다. 1789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품계가 올라갔으며, 1794년 해산첨사惠山僉使에 제수되었다. 죽은 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품계가 올라갔다. 교하읍 하지석리에 묘가 있다.

경보慶補 1314년(충숙왕 1)~1406년(태종 6).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복흥復興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간 뒤 승진을 거듭하여 상호군上護軍에 올랐다.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이 침입하여 왕이 복주福州(지금의 안동)로 피난 갈 때 호종하였다. 이 공으로 2등 공신에 녹훈되고, 다시 개성을 수복시킨 공을 인정받아 1등 공신의 호가 내려졌다. 1375년(우왕 1) 8월 밀직부사密直副使로서 도순문사都巡問使를 겸하여 국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이듬해 9월 서북면도체찰사西北面都體察使로 제수되어 외적 방어와 민심 수습에 진력하였다. 1377년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를 거쳐 이듬해 12월에는 왕명으로 교주도交州道(강원도의 옛 이름)에 파견되어 호구를 파악하

고 좌우군을 두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1388년 조전원수助戰元帥로서 요동 정벌에 출정하였다가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1390년(공양왕 2) 5월 윤이尹彝·이초李初 등의 옥사와 관련되어 순군옥巡軍獄에 간헐다가 귀양길에 올랐으나 11월에 사면되어 풀려났다.

조선이 개국된 후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에 이어 의정부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역임하였다. 이후 품계가 승정대부崇政大夫로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렀다. 만수를 누렸으나 후사가 없었다.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군되었으며, 성주의 덕천서원德泉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양정良靖이다. 군내면 방목리에 묘가 있다.

경선공주慶善公主 생몰년 미상. 조선 태조의 차녀이다.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소생이며, 남편은 좌의정 덕부德符의 아들인 심종沈淙이다. 문산읍 사목리 군부대 안 야산에 묘역이 있다.

경선행慶善行 1616년(광해군 8)~1690년(숙종 16). 조선 중기의 수학자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초명은 선징善徵, 자는 여휴汝休이다. 주별제인

의籌別提引儀를 지낸 위禧의 아들이다.

활인서活人畧의 별제別提로 당대에 널리 이름을 떨친 산학자算學者였다. 김시진金始振의 『산학계몽算學啓蒙』 중간본이 출간될 때 그 서문에 “지부회사地部會士였던 경선행이 파손된 부분을 본래의 모습대로 바로잡았다”하여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최석정崔錫鼎의 『구수약九數略』에는 “동국東國의 대표적인 수학자”로 기록되었으며, 조선 산학자들의 약력을 소개한 『수학입격안數學入格案』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전형적인 중인 출신 산학자로서 많은 산서算書를 저술하였으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묵사집墨思集』뿐이다. 교하읍 하지석리에 묘가 있다.

경성희慶聖會 1657년(효종 8)~1728년(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중가仲嘉이다. 참판參判을 역임한 취取的 아들이다.

1711년(숙종 3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뒤에 정평도호부사定平大都護府使를 거쳐 길주목사吉州牧使로 나

갔다.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 1726년(영조 2) 4월 부터 다음 해까지 승정원의 동부승지同副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승지右承旨 등을 지내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였다. 그 한 예로 사육신 인 성삼문과 박팽년의 후손들을 돌보도록 왕에게 청하자 이에 영조는 전조銓曹에게 명하여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1728년 관직이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이르렀으나 병을 얻어 사직하고 72세로 사망했다. 적성면 구읍리에 묘가 있다.

경성희 慶聖熙 1785년(정조 9)~ ?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백함伯咸이다.

1809년(순조 9) 증광무과에 급제하여 1815년 부장部將이 되었다. 1820년 충청감영 군기 성첩을 보수하는 공사를 맡아 준공한 후 각무各務도 검찰사都檢察使에 오르고 다시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임되었다. 같은 해 오위장五衛將으로 전임되었다가 1823년 어영청기사장御營廳騎士將에 임명되었다. 1832년 진해현감鎭海縣監에 이어 1838년(현종 4) 충청 중군으로 있다가 이듬해 12월 내직으로 돌아와 충장장忠壯將을 지냈다. 교하읍 하지석리에 묘가 있다.

경세인 慶世仁 1491년(성종 2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이며, 자는 심중心仲이다. 파주 출신이며 아버지는 덕천군수德川郡守 상祥이다.

어려서부터 조광조·김대성金大成 등과 막역하였으며,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다. 1519년(중종 14) 현량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에 들어갔다. 이어 정자正字·저작著作을 역임하고, 박사가 되어 경연에서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기에 힘썼다. 같은 해 기묘사화가 일어나 파직된 뒤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책을 읽고 읊으며 지냈다. 형 세신世愼이 정신병이 있어 자살했는데, 이를 이유로 김안로金安老에게 모함을 받고 명천明川으로 귀양 갔다. 1535년(중종 30) 귀양에서 풀려 파주의 두문리에 농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 '두문농은斗文農隱'이라 부르며 평생을 마쳤다. 저서로 『경재유고敬齋遺稿』, 『경연강독록經筵講讀錄』이 있다. 시호는 경재敬齋이다. 묘가 문산을 장산리 선영 묘역에 있었는데 군사도로 개설로 유실되어 추원단을 설치해 제를 올리고 있다.

경세창 慶世昌 생물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문산읍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무숙茂叔이다. 검교호조판서檢校戶曹判書 지첩의 증손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유근由謹의 손자이고, 덕천군수德川郡守 상祥의 아들이며, 농은農隱 세인世仁의 형이다.

일찍이 사마시에 오르고 1494년(성종 25) 생원으로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올랐고 곧이어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임명되었다. 1504년(연산군 10) 이세좌李世佐의 옥사에 연루되어 온성, 영월 등지로 유배되었다가 중종 때 관직이 회복되어 1506년(중종 1)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教,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을 거쳐 이듬해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올랐다. 1510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듬해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등에 임용되었다가 1512년 다시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대사간으로 있던 1512년에는 간쟁諫爭을 용납할 것, 문교文教를 중시할 것, 무비武備를 엄히 할 것 등의 10개 조에 걸친 정책을 왕에게 상소하였다. 그 후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황해도관찰사黃海

道觀察使,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역임하고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이르렀다. 묘는 문산읍 장산리 선영 묘역에 있다.

경숙 慶榘 1755년(영조 31)~1825년(순조 25). 조선 후기 무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원직元直, 초명은 재粹이다. 내원來遠의 아들이다.

1784년(정조 8) 정시무과에 합격하고, 1790년 장용영초관壯勇營哨官에 이어 이듬해 말 도정부장都正部將에 제수되었다. 1795년 사과司果·참상부장 등을 거쳐 1799년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를 지냈으며 이듬해 판관判官으로 승진하였다. 1801년(순조 1) 사천현감泗川縣監으로 나가 민심을 살폈으며, 1806년 웅천현감熊川縣監으로 부임하였다. 1813년 안변에 있는 지릉智陵 공사를 훌륭히 감독한 공을 인정받아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계제에 올랐다. 이듬해 도정충주영장都正忠州營將에 추천되고, 1816년 공주 중군에 이어 같은 해 내직으로 돌아와 금군장禁軍將이 되었다. 교하읍 하지석리에 묘가 있다.

경순공주 慶順公主 ?~1407년(태종 7). 조선 태

조의 셋째 딸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소생이다. 무안대군撫安大君 방번芳蕃과 의안대군宜安大君 방석芳碩의 동복누이이다.

개국공신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에게 출가하였는데,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남편 이제와 두 남동생 방번과 방석이 죽자, 다음 해 태조가 친히 경순공주로 하여금 여승이 되게 하였다. 묘역은 문산읍 사목리에 있다.

경신옹주 敬愼翁主 생몰년 미상. 조선 태종의 열번째 딸이며, 남편은 전성위全城尉 이완李完이다. 이완은 부직장副直長 이제충李悌忠의 아들로 1430년 경신옹주와 혼인하였다. 1435년에 가정대부嘉靖大夫 전의군全義君에 봉해지고 1436년 궁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왕으로부터 활과 화살을 상으로 받았다. 1442년에 북경 진하사로 차출되어 황후의 책봉을 하례하고 귀국하였다. 1443년 이웃 사람을 구타한 사건으로 직첩이 회수되고 진천鎭川에 부처되었으나 1445년 복원되어 통헌대부通憲大夫 이어 봉헌대부奉憲大夫로 승봉되고 충청도 도절제사都節制使로 나갔다. 문종

이 사망할 때 주위를 경비하던 공로로 황주와 평양의 선위사宣慰使로 나갔다. 1455년 3월 12일 죽으니 시호를 양효良孝라고 하였다.

광탄면 영장리 보광사 못 미쳐 좌측 능선인 고령산 자락의 전의 이씨 종산에 이완의 묘가 있고, 그 아래에 일렬로 경신옹주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경연 慶延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문산읍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대유大有이다. 돈령부정敦寧副正 유선由善의 증손이고, 간侃의 손자이며, 좌랑佐郎 신직臣直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병환을 치유하기 위하여 한겨울에 잉어를 잡아 바친 일화가 전하는 효자이기도 하다. 일찍이 생원이 되었으며 그의 효행을 듣고 세조가 그를 기용하기 위하여 불렀으나 나가지 않다가, 1478년(성종 9) 성종의 특명으로 사재감주부司宰監主簿가 되었다. 성종이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한겨울에 잉어를 잡은 경위와 경서經書 가운데 으뜸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묻자, 마음속에 새기는 성인의 행위 중에는 순임금의

대효大孝와 주공周公의 충성을 으뜸으로 간직하고 있으나 자신은 이를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였다. 성종이 기쁘게 여기고 이조에 명하여 6품직인 이산현감尼山縣監에 임명하도록 하였다. 청주에 양수척楊水尺의 세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는데, 그의 효성을 듣고 개과천선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후에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춘천부사春川府使에 제수되고 이조판서吏曹判書, 지경연사知經筵事, 춘추관사春秋館事, 의금부사義禁府事에 증직되었다. 중종 대에 청백리로 녹훈되었으며 청주 신항서원莘巷書院에 배향되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인 송시열이 유허비遺墟碑의 비문을 지었다.

경유근 慶由謹 1408년(태종 8)~1480년(성종 1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강릉부사江陵府使를 역임하였으며,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오르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사후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경연참찬經筵參贊에 증직되었다. 문산읍 장산리에 묘가 있다.

경욱 慶楡의 처 **의령 남씨** 宜寧南氏 1775년(영조 51)~? 조선 후기의 열녀로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아버지는 이하履夏이고, 참판參判을 지낸 태호泰皐의 증손녀이다.

다섯 살이나 어린 지아비를 지혜롭게 내조하고, 시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항상 마음을 헤아려 봉양하니, 친척과 향리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남편이 병을 얻자 손가락을 끊어 주혈注血하였으나, 끝내 세상을 떠나자 발인을 하루 앞두고 몸을 깨끗이 한 후 굶어서 순사殉死하였다. 사림의 선비들이 부인의 효열孝烈을 알리고 포상褒賞을 청하는 글을 올려 1812년(순조 12) 3월 13일 조정에서 마을에 열녀 정문을 세웠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경의 慶儀 ?~1395년(태조 4).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대승大升의 5대손으로 시중侍中을 역임한 복흥復興의 아들이다.

1377년(우왕 3) 4월 밀직부사密直副使로서 서경도순문사겸서북면부원수西京都巡問使兼西北面副元帥가 되어 출몰한 왜구를 격퇴하는 공을 세웠다. 이듬해 문하평리門下評理로 승직하고 하정사

로서 중국에 다녀왔다. 1379년 4월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재직하면서 양광楊廣·전라全羅·경상도慶尙道 조전원수助戰元帥가 되어 상원수上元帥 우인열禹仁烈 등과 함께 진주晉州에 침입한 수천의 왜구를 격퇴하는 전공을 올렸다.

1388년 4월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조민수曹敏修 휘하에서 계림원수鷄林元帥로서 요동 정벌에 출정하기도 하였다.

위화도 회군 뒤 이성계의 집권 과정에서 일시 소외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으나, 다시 기용되어 1390년(공양왕 2) 4월 전원주등처병마절제사前原州等處兵馬節制使로서 무진회군공신戊辰回軍功臣에 녹훈되었다. 1392년(태조 1) 6월 문하평리로서 남경南京에 가서 성절을 축하하였으며, 1393년 7월에는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로서 회군이등공신回軍二等功臣에 녹훈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하정사로서 요동에 다녀왔다. 그 뒤 외직으로 나아가 서북면병마도절제사西北面兵馬都節制使로 평양윤平壤尹을 겸하던 중 사망하였다.

재직 시 후덕한 인품으로 많은 선정을 베풀었고 청렴한 생활로 일관하여 태종 대에 청백리로

녹선되었다. 또한 수차례 왜구를 격퇴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 힘썼다. 사후 성주의 덕천서원德泉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순절順節이다. 군내면 방목리에 묘가 있다.

경정 慶禎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한 유근由謹의 이들이다.

음보로 등용되어 세조 때 선전관宣傳官과 군관軍官을 두루 거쳐 내외직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1474년(성종 5)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대구도호부사大丘都護府使에 제수되고, 1477년 창원부사昌原府使로 부임하였다. 임기를 마치고 1483년 순천부사順天府使로 이배되었다가 내직으로 옮겨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급되었으며, 관직이 중추부사中樞副使에 이르렀다.

근검한 성품을 지녔으며 가는 지방마다 깨끗한 목민관으로서 백성의 입장에서 공정한 정치를 행하여,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면 고을의 백성이 그 공덕에 감사해 마지않았다고 한다. 교하읍 하지석리에 묘가 있다.

경준 慶俊 1437년(세종 19)~1489년(성종 20).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이선以善, 호는 서봉西峰이다. 대장군大將軍 습첩의 증손이고, 검교호조판서檢校戶曹判書 지지의 손자이며, 돈령부정敦寧副正 유선由善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종8품인 승사랑承仕郎에 올랐다가, 1466년(세종 12) 강원도에서 실시한 문과별시에 2등으로 급제하여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왕명으로 홍문관의 서적 보관 상태를 점검하였고, 태평관에 나아가 체류 중인 유구국琉球國 사신을 접대하였다. 예종이 즉위하자 공조좌랑工曹佐郎으로 승진하였다. 공조좌랑으로 재임하던 1469년(예종 1) 2월 숙직 근무를 하다가 은기銀器를 도난당하여 의금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죄가 가벼워 사면되었다. 1472년(성종 3) 1월 예조의 가낭청假郞廳으로 부묘제사祀廟諸事を 성심껏 봉행하여 승진하였다. 그 뒤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을 거쳐 1476년 11월 통훈대부通訓大夫로서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이 되어 관리의 기강 확립에 특히 힘썼다. 1477년 2월 형조정랑 허선許諤의 직무 부정을 탄핵하였고, 그해 윤2월

경연에서 연소한 최영호崔永灝가 사재감정司宰監正에 제수된 것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4월에는 삼천포 만호인 이한생李漢生이 재주가 없는데도 용천군수에 제수된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또한 서거정徐居正이 부경사행赴京使行에서 사물私物을 마음대로 적재한 사실을 고발하였으며, 충신으로 비행을 자행하던 현석구玄碩圭와 임사홍任士洪을 탄핵하였다. 이어서 1478년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양성지梁誠之가 백관의 규찰 책임자인 대사헌에 제수되자 마치 짓지 못하는 개를 키움과 같다고 논박하며 그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권력을 농단하며 살인을 자행한 창원군昌原君 성晟을 탄핵하였으며, 당시 지방 행정관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공정한 수령의 포폄을 요청하였다.

그 밖에 공주들의 가옥이 너무 화려함을 논박하였고 강원도민의 자염煮鹽 폐단을 지적하였으며 대신 김광국金光國의 탐오함을 탄핵하는 등 직간直諫을 서슴지 않았다. 1483년 충주목사忠州牧使로 부임하여 3년 동안 재임하면서 형옥刑獄과 농정 등에 선정을 폈다. 그 공로로 당상관에 올랐고, 1486년 7월 다시 내직으로 옮겨 장예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가 되었다. 이듬해 10월 승정원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로 선임되어 왕명을 출납하였고, 1489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승진하였다. 그해 신병으로 중추부의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체직되었다가 사망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였으며 직무에 밝고 성실하였다. 문산읍 장산리에 묘가 있다.

경지 慶智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호는 호암湖庵이다. 좌시중左侍中 복흥復興의 증손이고, 서북면병마도절제사西北面兵馬都節制使 의儀의 손자이며, 대장군大將軍 습첩의 아들이다.

1404년(태종 4) 의랑議郎으로 재직 중 파직되었고 그 후 다시 등용되어 한림원에 들어갔다가 1452년(문종 2) 4월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로서 기로소耆老所에 소속되어 문종에게 가요歌謠를 지어 바쳤다.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등을 역임하였고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검교호조판서檢校戶曹判書에 이르렀다. 90세로 장수하였다고 전한다. 문산읍 장산리에 묘가 있다.

경취 慶取 1626년(인조 4)~1688년(숙종 1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낙선樂善, 호는 신강新江이다.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시성時成의 증손이고, 호조참판戶曹參判 섬邏의 손자이며, 좌랑佐郎 유준有俊의 아들이다.

일찍이 사마시에 올라 1653년(효종 4) 진사로서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1656년 성균관학정成均館學政으로 재임 중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는 등 문명이 알려졌다. 1660년(현종 1)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된 뒤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임하고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호남경시관湖南京試官을 거쳐 사헌부장령司憲府掌書에 올랐다. 1667년 사은사 겸 진주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다시 사간원정언에 임명된 후 사헌부장령,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1676년(숙종 2)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나갔다가, 1678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전직하였다. 그 후 승정원의 여러 승지를 거쳐 도승지都承旨에 올라 왕명의 출납을 총관하고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に 이르렀다. 적성면 구읍리에 묘가 있다.

경흔 慶渾 1498년(연산군 4)~1568년(선조 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언희彦晦이다. 지평持平을 지낸 세청世淸의 아들이다.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으로, 1522년(중종 17) 진사가 되었고 153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검열檢閱을 거쳐 1543년 장령掌令, 헌납獻納, 직강直講을 지냈다. 이듬해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으로서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조광조 등의 신원을 청하였다. 그 뒤 시강원우필선侍講院右弼善,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 등을 역임하였으며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으로서 춘추관편수관을 겸하여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47년(명종 2) 병조참지兵曹參知, 이듬해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고, 병조참의兵曹參議를 거쳐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이 되었다. 1551년 문정왕후가 승려 보우를 중용하고 선교 양종의 선과禪科를 설치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기신재忌晨齋의 시행도 극력 반대하였다. 그 뒤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거쳐 예조·이조·호조·병조의 참의를 역임한 뒤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으나, 노쇠하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대간의 탄핵으로 체직되었다. 1561년 장예원판결사掌議院判決事로 다시 기용되었으나 곧 체직되었으며 오위장五衛將을 거쳐 사망했다. 네 임금 대에 걸쳐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언관으로서 활발한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적성면 구읍리에 묘가 있다가 여주로 이장되었다.

공혜왕후 恭惠王后 1456년(세조 2)~1474년(성종 5). 성은 한씨韓氏이고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의 딸로 예종의 비 장순왕후의 동생이다.

성종의 원비로 1467년(세조 13) 가례嘉禮를 올리고 1469년 성종이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1474년(성종 5) 19세로 소생 없이 죽었다. 능은 조리읍 파주삼릉 내의 순릉順陵이다. 1498년(연산군 4) 휘의신숙徽懿愼肅의 휘호가 추상道上되었다.

곽경철 郭景喆 생몰년 미상. 조선 순조 때 인물로 본관은 현풍玄風이다. 효자 태의泰儀의 아들이다.

가법을 이어받아 지극한 효성을 다하여 통정대부장악원정(通政大夫掌樂院正)을 추증 받았으며 효자지려(孝子之閭)도 하사받았다. 적성면 답곡리에 묘가 있다.

곽태의 郭泰儀 생몰년 미상. 조선 순조 때 인물로 본관은 현풍(玄風)이다.

부친이 종질로 고생하자 고름을 입으로 빨아 내기를 수십 차례 하여 완쾌시켰고, 모친상을 당해서는 슬프고 비통한 마음에 읍혈한 나머지 피눈물이 흘러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하늘이 내린 효자라 하여 먼 곳까지 칭송이 자자하였다. 향당의 유사들이 통문하여 그 효행의 포상을 청하는 계문을 조정에 올렸으며, 1804년(순조 4) 경기감사(京畿監司) 서영보(徐榮輔)도 국가에 상소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호조판서(戶曹判書)의 직을 받았다. 적성면 답곡리에 묘가 있다.

구원서 具元書 생몰년 미상. 모친이 병이 들자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를 마시게 하는 등 병구완에 힘썼다.

권근 權近 1352년(공민왕 1)~1409년(태종 9).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초명은 진평,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이다. 적성현 구연(龜淵)에서 거주하였다.

1368년(공민왕 17) 성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급제하여 춘추관(春秋館)검열(檢閱), 성균관(成均館)직강(直講), 예문관(藝文館)응교(應敎), 좌사(左司)의대부(議大夫), 성균관(成均館)대사(大司成), 지신사(知申事) 등을 역임하였다. 정몽주·정도전 등과 함께 배원친명(排元親明)을 주장하였다. 1389년(창왕 2)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로서 문하평리(門下評理) 윤승순(尹承順)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을 때 명나라 예부(禮部)자문(咨文)을 도당(都堂)에 올리기 전에 몰래 뜯어본 죄로 우봉(牛峯)에 유배되었다. 그 뒤 영해(寧海)·흥해(興海) 등을 전전하며 유배 생활을 하던 중 1390년(공양왕 2)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에 연루되어 청주 옥에 구금되기도 하였다. 뒤에 다시 익주(益州)에 유배되었다가 석방되어 충주에 우거하던 중 조선의 개국을 맞았다.

1393년(태조 2) 왕의 부름을 받고 계룡산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가 새 왕조의 창업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올리고, 왕명으로 정릉(定陵)의 비문

을 지어 바쳤는데, 이 글들은 모두 후세 사람들로 부터 유문(遺文)·곡필(曲筆)이었다는 평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 뒤 새 왕조에 출사(出仕)하여 예문관대학사(藝文館大學士)·중추원사(中樞院使) 등을 지냈고, 1396년 이른바 표전문제(表箋問題)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귀국한 뒤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으로 화산군(花山君)에 봉군되고, 정종 때 정당문학(政堂文學)·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대사헌(大司憲) 등을 역임하면서 사병제도(私兵制度)의 혁파를 건의하여 단행하게 하였다.

1401년(태종 1)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으로 길창군(吉昌君)에 봉군되고 찬성사(贊成事)에 올랐다. 1402년에는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신희(申曉) 등을 뽑았고, 1407년(태종 7) 최초의 문과증시에 독권관(讀卷官)이 되어 변계량(卞季良) 등 10인을 뽑았다. 한편 왕명을 받아 경서의 구결(口訣)을 저정(著定)하고, 하륜(河崙) 등과 『동국사략(東國史略)』을 편찬하였다. 또한 유학제조(儒學提調)를 겸임하여 유생 교육에 힘쓰고 권학사목(勸學事目)을 올려 당시의 여러 가지 문교 시책을 개정·보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입학도설(入學圖說)』, 『오경천견록(五經淺見

錄)』 등의 저서를 남겼는데, 『입학도설』은 뒷날 이황(李滉) 등 여러 학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고, 『오경천견록』 가운데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은 태종이 관비로 편찬을 도와 주자(鑄字)로 간행하게 하고 경연에서 이를 진강(進講)하게까지 하였다. 이 밖에 정도전의 『불씨잡변(佛氏雜辨)』 등에 주석을 더하기도 하였다. 시문집으로 『양촌집(陽村集)』 40권을 남겼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김검(金儉)의 처 신평 송씨(新平宋氏) 생물년 미상. 조선 인조 때의 열녀로 본관은 신평(新平)이며 파주 출신이다. 충신 김복경(金復慶)의 자부이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 삼각산 기슭으로 피난하던 중 적군에게 사로잡히자 자결하였다. 1639년 나라에서 그 정절을 포상하여 열녀 정려를 하사하였다. 시아버지 김복경의 정려문과 함께 파주읍 봉서리 산 94-1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수하였다.

김광수(金光遂) 1696년(숙종 22)~?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상산(尙山)이며, 자는 성중(成仲), 호는 상고당(尙古堂)이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

憲을 지낸 덕합德誠의 후손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역임한 동필東弼의 아들이다.

1729년(영조 5) 진사시에 오르고 여러 관직을 거쳐 군수에 이르렀다. 고서화 및 골동품의 감식에 뛰어났고, 마음에 드는 명품이 있으면 가산을 팔아서라도 구입하였다고 한다.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고서화와 골동품들은 천하의 명품으로 평가되었다. 박지원朴趾源은 그를 '감상지학鑑賞之學의 개척자'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림에도 능했으며 유작으로는 먹으로만 그린 <화조花鳥>와 <초충草蟲>(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 4점이 전한다. 탄현면 낙하리에 묘가 있다.

김규 金榘 1699년(숙종 25)~1739년(영조 15). 조선시대 효자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자는 사원士園이다. 월릉면 출신으로 아버지는 성중聖重이다.

그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지극한 효성으로 봉친하는 데 그 뜻을 두었다. 집안이 빈한하여 부모의 끼니조차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dot자리를 짜서 끼니를 준비하였다. 모친이 병으로 고생하자 정성으로 시병하였고, 위독해서는 단지 관혈

하는 효행을 실천하여 3일간이나 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향당에서는 그 효행을 칭송하여 조정에 포상을 청하는 계장을 품의하였고, 이에 정려지각을 하사받았다. 능산리에 묘가 있다.

김남중 金南重 1596년(선조 29)~1663년(현종 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자진自珍, 호는 야당野塘이다. 좌의정左議政 명원命元의 손자이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수렴守廉의 아들이다.

1618년(광해군 1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가주서承文院假注書로 광해군에게 입시人侍하였다. 1623년(인조 1) 검열檢閱, 봉교奉敎, 전적典籍 등을 지내고, 호조·병조·홍문관·사간원 등의 벼슬을 거쳐 지평持平·장령掌令이 되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에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다. 그 후 부사副使로 두 번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대사헌大司憲·대사간大司諫을 거쳐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경천군慶川君에 승봉襲封되었다. 1658년(효종 9)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고, 그 후 예조판서禮曹判書·형조판서刑曹判書를 거쳐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를 지냈다. 시호는 정효貞孝이다. 교하읍 야당리에 묘가 있다.

김노한 金魯漢 생몰년 미상. 정조 이후의 장단 사람으로, 효자로 이름난 정태鼎臺의 증손이다. 부모를 섬길 때 성심 성의껏 모셨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에 들었을 때 두 번 다 손가락을 끊어 피를 진혈進血하였다. 세상은 대를 이어 효행을 다하는 그와 그 집안을 높이 칭찬하였다.

김덕합 金德誠 1562년(명종 17)~1636년(인조 1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상산商山이며, 자는 경화景和, 호는 성옹醒翁이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으나 스스로 문예에 힘써 1588년(선조 21) 진사가 되고 다음 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번 이항복李恒福의 후원을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연안延安에서 초토사招討使 이정암李廷蘊을 도와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는 일을 맡았다. 1594년 군공청軍功廳이 세워지자 도청都廳이 되어 공을 세웠다.

이 밖에 예조와 공조의 좌랑佐郎과 비변사낭청備邊司郎廳, 호조정랑戶曹正郎, 직강直講, 사예司藝 등의 중앙 관직과 선천, 청풍, 단천, 성천, 장단, 안주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때 군기시정軍器寺正에 이르렀으나 1617년(광해군 9) 인목 대비에 대한 폐모론이 일자 이항복 등의 의견을 좇아 반대하다가 남해에 유배되었으며, 명천·온성·사천 등지에 이배되었다. 1622년(광해군 14)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집의執義와 예조·병조·형조·공조의 참의參議, 승지承旨, 부제학副提學, 대사성大司成, 대사간大司諫, 여주목사驪州牧使, 춘천부사春川府使를 거쳐 1636년(인조 14)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그는 왕에게 사치를 경계하고 김공량金公諒의 신원을 반대하여 인조의 미움을 사기도 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호소사號召使로 활약하였으며 청나라에 대한 척화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청백리로 뽑혔으며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사천의 구계서원龜溪書院, 온성의 충곡서원忠谷書院,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 북청의 노덕서원老德書院, 안주의 청천사淸川祠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성옹유고醒翁遺稿』가 전

한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직성면 무건리에 묘가 있다.

김만수 金萬壽① ?~1421년(세종 3). 조선 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개성부윤開城府尹 안주安柱의 아들이다.

1408년(태종 8) 삼도조전절제사좌군동지총제三道助戰節制使左軍同知總制가 되어 충청도 연해로 출전해 왜구를 물리쳤다. 같은 해 경기좌도연흥자월등처수군도절제사京畿左道延興紫月等處水軍都節制使가 되어 경기 서해안 지역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쳤으며, 그해 11월 중군도총제中軍都總制가 되었다. 1411년(태종 11) 강계절제사江界節制使, 안주도절제사安州都節制使를 거쳐 다음 해 개천도감제조開川都監提調, 우이번절제사右二番節制使가 되었다. 1417년(태종 17)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단천부사湍川府使 여하盧遐를 숨긴 혐의로 이산진伊山鎭으로 귀양 갔다가 1419년(세종 1) 평안도병마절제사平安道兵馬節制使로 다시 등용되어 대마도 정벌에 참전하였다. 경기도병마절제사京畿道兵馬節制使를 거쳐 좌군도총제左軍都總制가 되었다. 광탄면 용미리에 묘가 있다.

김만수 金萬壽② 1553년(명종 8)~1607년(선조 40).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덕로德老이다. 아버지는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 대유大有, 어머니는 감찰監察 오세훈吳世勳의 딸이다.

그는 천수千壽·백수百壽·구수九壽의 세 아우들과 함께 용맹으로 널리 알려졌다. 1584년(선조 17) 무과에 급제하고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장례원사평掌隸院司評, 풍천부사豐川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실직失職으로 고향인 봉산에 있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세 아우와 진사 최섭崔涉·이옹李翬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900명을 모으고 의병대장에 추대되었다. 세 아우를 선봉장으로 삼고, 급히 장단長湍으로 나아가 조방장助防將 유극량劉克良과 합병하여 임진강 방어전에 참가하였는데, 백수는 조방장과 함께 파주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흩어진 군졸들을 모아 봉산으로 돌아와 의거할 준비를 하며 오위도총부도사五衛都總府都事인 아들 광협光峽과 함께 황해도 여러 읍의 적정을 탐문하였다.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순찰사巡察使 이일李鎰에 의해 임시로 봉산군수에 임명됨으로

써 안정을 찾게 되었고, 이어 여러 군병郡兵과 합세하여 왜군을 격파하였다. 그 공으로 의병장의 호를 하사받았으며, 선전관에 임명되어 부차 전투富車戰鬪에서 3전 3승을 거두었으나 아들 광협을 잃었다.

1593년 진도군수珍島郡守가 되어 한산도에 진을 친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군대와 광주光州에 진을 친 의병장 김덕령金德齡의 군대에 군량미를 보급하는 데 공헌하였다. 난 중의 공적이 참작되어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추증되고, 봉산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장양莊襄이다.

김명필 金命弼의 처 **광주 노씨** 光州盧氏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열녀로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병자호란 때 자녀와 함께 불에 타 죽었다. 정표旌表되었다.

김문기 金文起 1399년(정종 1)~1456년(세조 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김녕金寧이며, 초명은 효기孝起,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이다. 김알지金閼智의 후손으로 당대에는 본관을

김해金海로 사용하였으나, 후대에 이르러 그 후손들이 김수로왕金首露王의 후손인 김해 김씨와 구별하기 위하여 김녕金寧과 경주慶州로 사용하는 두 파로 갈려졌다. 관觀의 아들이다.

1426년(세종 8)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사간원좌헌납司諫阮左獻納 등을 두루 거쳤다. 1445년(세종 23)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박종우朴從遇의 천거로 함길도도진무咸吉道都鎭撫에 임명되었으나, 1447년(세종 25) 이질로 군무에 장기간 복무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이듬해에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에 임명되었다. 1451년(문종 1) 함길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에 부임하여 안변·정평 등지에 둔전屯田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1453년(단종 1)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외직인 함길도도절제사로 나갔다. 1455년 세조로부터 차사원差使員과 힘을 합쳐 온성의 읍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마치라는 유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공을 세웠다. 그해 공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1456년 성삼문, 박팽년 등이 주도한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되어 모두 주살당할 때, 그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 군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이들 6인을 그 절의節義로 '사육신'이라 하였는데, 남효온南孝溫이 쓴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에 실리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뒤 1691년(숙종 17) 국가에서 공인하여 육신을 복관시키고, 1731년(영조 7) 김문기도 복관되었다. 1757년 충의忠毅란 시호가 내려졌다. 1791년(정조 15)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때 그는 삼중신三重臣(민신, 조극관, 김문기)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법원읍 동문리 월계단과 경상북도 금릉군 지례면의 섬계서원剡溪書院에 배향되었다.

김박연 金博淵 1776년(영조 52)~1822년(순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검산동에 우거하였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호는 백농白濃인데,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학행이 뛰어났고 벼슬이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취몽헌유고醉夢軒遺稿』 4책의 필사본이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과부문학科賦文學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김복경 金復慶 1545년(인종 1)~1592년(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호는 몽운당夢允堂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양주목사겸양주진병마첨절제사楊州牧使兼楊州鎭兵馬僉節制使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주까지 쳐들어온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1633년(인조 11) 조정에서 정려를 내리고 “통정대부행양주목사진병마첨절제사김복경지려通政大夫行楊州牧使鎭兵馬僉節制使金復慶之閭”란 현액을 하사하였다. 파주읍 봉서리에 묘와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된 충신정려각이 있다.

김사철 金思轍 1847년(헌종 13)~1935년.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자유由, 호는 유당由堂이다. 봉수鳳秀의 아들이며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관수觀秀의 양자이다.

1878년(고종 15)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1882년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教를 거쳐 이듬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主事로 임명되어 당시 활발해지기 시작한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다. 1888년 주차미국전권대신駐筭美國全權大臣 이

완용이 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병조정랑兵曹正郎으로서 참무관參務官에 임명되었고, 1892년 경상도암행어사에 제수되어 경상도 일원을 순회하였다. 1893년 일본 주재 변리공사辨理公使로 있다가 귀국 후 형조참판刑曹參判을 거쳐 1894년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에 올라 왕명을 출납하고 실록교정청당상實錄校正廳堂上이 되었다.

1896년(건양 1)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되었고, 1898년(광무 2) 봉상시제조奉常寺提調가 되었다. 1903년 1903년 장례원경掌禮院卿·태의원경太醫院卿, 1904년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에 올랐다. 1905년 비서감경秘書監卿을 거쳐 이듬해 예식원경禮式院卿이 되었고, 1907년 황제의 조칙에 의해 훈동 2등을 받았다. 1910년 강점 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의 작호를 받았다. 저서로는 1884년에 간행된 누에치기와 뽕나무 기르는 법을 모은 『잠상촬요蠶桑撮要』가 있다. 야동동에 묘가 있다.

김상金湘 1453년(단종 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공부상서工部尙書 추鍾

의 손자이다.

문과 별시에 급제하여 통훈대부通訓大夫의 품계를 받았으며 승문원참교承文院參校를 역임하였다. 묘는 월룡면 능산리에 있다.

김석몽金石夢의 처 **남평 문씨**南平文氏 생몰년 미상. 조선 영조 때의 열녀로 본관은 남평南平이며 파주 출신이다.

일찍이 부군을 잃었으나 시부모를 섬기는 데 정성을 다했다. 어느 날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중 악한이 강제로 겁탈하려 하여 반항하자 칼로 온몸을 난자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순절하였다. 1764년(영조 40) 조정에서 대신들이 상소를 올려 정려를 하사하였다. 정려각은 파주읍 백석리에 있으며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설金髡 1595년(선조 28)~1667년(현종 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상산商山이며 자는 순보舜甫, 호는 정현靜軒이다.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역임한 홍洪의 손자이며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낸 덕함德誠의 아들이다.

1615년(광해군 7) 진사시에 오르고 1623년(인조 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24년 이괄의 난 때 인조를 공주로 호종하였고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대교(待敎)·봉교(奉敎)를 거쳐 1625년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으로 시강원설서(侍講院設書)를 겸하였다. 곧이어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 승진한 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1626년 병조좌랑(兵曹佐郎)으로서 한학교수(漢學敎授)를 겸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종사관에 임명되어 세자를 전주로 호종하였다. 그해 사간원정언에 다시 제수되고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수찬 등의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당시 반정 공신 김류(金鑣)와 이귀(李貴)의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인천 유생 김원(金垣)이 김류 부자의 횡포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귀의 사위인 김설은 상소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온성으로 유배되었으며, 1629년 해남으로 옮겨졌다가 이듬해 사면되었다. 1648년 김류가 사망한 후 고산찰방(高山察訪)에 기용되었으나 요직에는 나가지 못하고, 봉상시정(奉常寺正), 사재감정(司宰監正), 예빈시정(禮賓寺正),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연안부사, 풍덕부사, 이천부사 등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1722년(경종 2) 경연관 이진유(李眞儒)에 의해서 무고함이 밝혀졌다. 적성면 무건리에 묘가 있다.

김성중 金聖重 1665년(현종 6)~1728년(영조 4). 조선 후기의 효자로 유명하다.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자는 희천(希天)이다. 효자 규(槩)의 아버지로 파주 월릉면 출신이다.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노모가 꿩고기를 먹기 원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산곡을 헤매었으나 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하늘에 기원하였더니 개가 숲속으로 뛰어 들어가 꿩을 물어다 주어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었다. 후에 다시 꿩고기를 원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데 하늘을 날아가던 독수리가 꿩을 떨어뜨려 주어 이로써 효행을 볼 수 있었다. 병세가 위급하여서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흘려 넣는 효행을 실천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슬픔이 지나쳐 예의에 어긋날 정도였다. 3년여를 시묘하면서 일체의 소채와 염장을 멀리하고 미음으로만 연명하였다. 이에 향당에서는 그 효행을 칭송하여 조정에 포상을

청하는 계장을 품의하였고, 조정에서는 정려지각을 하사하는 한편 1743년(영조 19) 통선랑通善郎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의 증직을 내렸다. 묘는 월릉면 능산리에 있다.

김순종 金順宗 생몰년 미상. 충효로 이름난 세진世振의 손자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가정 사정으로 사관仕官을 그만두었다. 어머니가 종기를 앓을 때 입으로 고름을 빨아 낫게 하였으며,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지성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대신 앓게 해 달라고 빌었다. 아버지의 상을 치른 뒤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상’을 너무 슬퍼하였기 때문이었다고 그의 효도를 높이 칭찬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장계되어 영조는 그에게 호조좌랑戶曹左郎의 벼슬을 추증하였다.

김심 金諶 1445년(세종 27)~1502년(연산군 8).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군량君諒이다. 아버지는 참의參議 우신友臣이다.

1468년(세조 14) 생원시에 합격하고, 1474년

(성종 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479년에는 좌랑으로서 문과증시에 을과로 급제하여 문명을 떨쳤다. 1483년 사삼시첨정司膳寺僉正이 되었으며, 예조를 제외한 5조를 모두 역임한 후 1487년(성종 18) 사간司諫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대책對策에 일등하여 모마장毛馬粧 1부를 하사받았다. 1490년(성종 21)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이문吏文을 제작한 공으로 활을 하사받았으며 부제학副提學이 되었다.

연산군이 어머니인 폐비 윤씨를 위하여 효사묘孝思廟를 세우려고 하자, 여러 대관을 거느리고 그것을 반대하였다. 1496년(연산군 2) 정조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에 부총관副總管으로서 대사헌大司憲이 되었고, 벼슬을 그만둘 것을 청했으나 연산군은 그를 신임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뒤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교하읍 교하리에 묘가 있다.

김안국 金安國 1478년(성종 9)~1543년(인종 13).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이다. 참봉參

奉 연連의 아들이며, 정국正國의 형이다. 조광조·기준 등과 함께 김굉필의 문인으로 도학에 통달하여 지치주의至治主義 사림파의 선도자가 되었다.

1501년 생원시·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03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박사博士, 부수찬副修撰, 부교리副校理 등을 지낸 다음 지평持平, 장령掌令, 예조참의禮曹參議, 공조판서工曹判書 등을 지냈다. 1517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어 향교에 『소학小學』을 권하고 농잠서農蠶書를 언해하였으며 의서醫書도 간행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 때는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있었기에 화를 면하였으나 파직되었다. 1537년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禮曹判書, 대사헌大司憲, 병조판서兵曹判書, 대제학大提學, 찬성贊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세자이사世子貳師 등을 역임하였다. 1541년 병조판서 때에 천문·역법·병법에 관한 서적의 구입을 상소하고, 물이끼[水苔]와 닥[楮]을 화합시켜 태지꺄紙를 만들어 왕에게 바치고 이를 권장하였다

시문으로도 명성이 있었으며 대제학으로 죽은 뒤 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여주의 기천서

원沂川書院, 이천의 설봉서원雪峰書院,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 등에 제향되었으며, 장단군 임강서원臨江書院에 동생 정국과 함께 배향되었다. 저서로 『모재집慕齋集』, 『모재가훈慕齋家訓』, 『동몽선습童蒙先習』 등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김안정 金安鼎 1476년(성종 7)~1534년(중종 2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진경震卿이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우신友臣의 손자이고,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낸 혼訥의 아들이며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안로安老의 형이다.

1501년(연산군 7) 진사시에 오르고, 1509년(중종 4) 진사로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선임되었다. 이어서 승문원박사承文院博士에 오르고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를 거쳐 1514년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서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과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을 겸임하고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병조좌랑兵曹佐郎, 호조좌랑戶曹佐郎, 강원도도사江原道都事, 봉상시판관奉常寺判官, 중추부도사中樞府都事, 예조정랑禮曹正郎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외직

을 청하여 양산군수梁山郡守로 나갔다가 상례를 치른 후 1521년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을 역임하였으며, 1524년 평안도경차관平安道敬差官으로 파견되어 허공교虛空橋에서 야인에게 패한 이함李菡, 한규韓珪 등의 죄상을 추궁하고 이들을 각각 웅천과 순천에 유배하도록 하였다. 그해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승정원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로서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겸임하였고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승진하였다가 체직되었다. 1525년 다시 좌부승지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체직되어 여주목사麗州牧使로 나갔다. 1529년 병조참의兵曹參議와 호조참의戶曹參議를 거쳐 승정원의 우승지·좌승지·도승지를 차례로 역임하면서 왕의 측근에서 왕명을 출납하였다. 1530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서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겸임한 후 이듬해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제수되었다. 1532년 6월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교하읍 교하리에 묘가 있다.

김연 金演 1655년(효종 6)~1725년(영조 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상산商山이며, 자는 사익士益, 호는 퇴수당退修堂이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낸 덕합德誡의 증손이며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한 우석禹錫의 아들이다.

1675년(숙종 1) 진사시에 오르고, 1684년 진사로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86년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를 거쳐 1688년 성균관전적성均館典籍에 제수되었다가 곧 예조정랑禮曹正郎으로 이배되었다. 1689년 강춘도사江春都事로 부임하여 그해 5월 박태보朴泰輔, 오두인吳斗寅 등과 함께 인현왕후의 폐위를 강력히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1690년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으로 등용되었고, 이듬해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로 나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 1693년 병조좌랑兵曹佐郎을 거쳐 병조정랑兵曹正郎으로 승진하였다. 1694년 영천군수永川郡守로 부임하였다가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을 거친 후, 다음 해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이 되어 백관의 규찰과 간쟁을 담당하였다.

1695년 7월 사은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696년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으

로 승진한 후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司副承旨·승정원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에 임명되어 왕명을 출납하고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나갔다. 그 후 병으로 사직하였다가 1699년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를 거쳐 여주목사驪州牧使로 부임하였다. 1700년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제수되었고, 안주목사安州牧使로 나갔다가 이듬해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이배된 후 다시 안주목사가 되었다. 1702년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거쳐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올랐고, 1703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나간 후 이듬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체직되어 『성옹집醒翁集』을 간행하였다.

1706년 사간원대사간大司諫을 거쳐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오르고 1707년 도승지都承旨로 중용되어 왕명의 출납을 총괄하였다. 그해 병조참판兵曹參判, 형조참판刑曹參判, 대사간, 예조참판禮曹參判 등을 역임하고 1709년 다시 도승지에 올랐다가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나가서 선정을 베풀었다. 1711년 병조참판과 도승지를 다시 역임하고 그해 8월 진주사은검동지부사陳奏謝恩兼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1712년 한성부우

윤漢城府右尹과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에 임명되었다. 1715년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나갔다가 병으로 사직하였고, 이듬해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거쳐 1717년 경기도관찰사와 예조참판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721년 호조판서에 제수되었으며, 당쟁이 치열했을 때 소론의 중심 인물이 되어 노론과 대립하였다. 특히 1721년(경종 1) 경종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노론의 이이명李爾命 등이 왕세제 연잉군延昞君(훗날의 영조)으로 하여금 대리청정하도록 꾀하자 김일경金一鏡 등과 이를 반대하여 철회시켰다. 1723년 형조판서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나이 70세가 되어 기로소에 들어갔다. 1724년 예조판서, 의정부우참찬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는데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의 모함으로 사직하였다. 적성면 무건리에 묘가 있다. 공조판서 윤순尹淳이 비문을 짓고 쓴 묘표가 1735년(영조 11)에 세워졌다.

김영 金瑛 ① 1475년(성종 6)~1528년(중종 2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영지瑛之, 호는 삼당三塘이다. 한성판관漢城判

官을 지낸 계권係權의 손자이며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역임한 영수永銖의 아들이다.

일찍이 사마시에 올라 1506년(연산군 12) 진사로서 별시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였다. 그해 12월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서 사가독서하였고, 이듬해인 1507년(중종 2) 6월에는 예문관대교藝文館待敎에 올라 김흠조金欽祖, 정충량鄭忠樑 등과 더불어 사신의 정도를 내세우며 사초 문제로 빚어졌던 무오사화에서 피해를 입었던 인물들의 신원을 상소하였다. 그 뒤 1509년 4월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에 임명되었고 1511년 3월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이듬해 4월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에 올랐다. 1512년 밀양부사密陽府使로 나갔다가 체직되었고, 1515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제수되는 등 청요직을 지냈으며 1518년 7월에는 경상도재상경차관慶尙道災傷敬差官, 8월에는 김제군수金堤郡守로 나갔다. 이때 경차관과 김제군수의 직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았다. 1522년 8월 다시 사헌부장령이 되었으며, 1524년 10월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서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겸임하였다. 1527년 6월에

는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보임되었으나 대간의 탄핵으로 곧 체임되었다.

시문에 능하여 많은 시를 지었으며, 저서로는 1830년(순조 30)에 간행된 시문집인 『삼당집三塘集』 2권 1책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청신설무오제현소請伸雪戊午諸賢疏」는 1507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에서 처형된 김일손·김종직 등의 신원을 요청한 글이다. 탄현면 낙하리에 묘가 있다.

김영 金瑛 ② 1837년(현종 3)~? 조선 후기의 화가로 본관은 분성盆城이며, 초명은 종대鍾大, 자는 성원聲遠, 호는 춘방春舫이다.

뛰어난 필법으로 산수화와 묵죽을 잘 그렸고 시 또한 잘 지어 항상 자신이 그린 그림에 시를 자제自題하였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산수십곡명풍山水十曲屏風〉은 명대오파明代吳派 이래의 전형적인 남종화풍을 모작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화풍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장승업張承業이나 안건영安健榮의 화풍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그 뒤의 조석진趙錫晉과 안중식安中植 등으로 이어졌다. 유작으로는 〈우후산수도雨後山水圖〉, 〈산수십곡명풍山水十曲屏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묵

죽도墨竹圖(일본인 소장) 등이 있다. 파주시에 묘가 있으나 정확한 곳은 알 수 없다.

김용서 金龍瑞의 처 **창녕 성씨** 昌寧成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열행烈行이 현저하여 부친 정혜공靖惠公 성직成稷과 송시열宋時烈的 행장에 기록이 있다.

김우석 金禹錫 1625년(인조 3)~1691년(숙종 1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상산商山이며, 자는 하경夏卿, 호는 귀래당歸來堂이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낸 덕함德誠의 손자이며 이천부사伊川府使를 역임한 설高의 아들이다.

1650년(효종 1) 진사시에 오르고 이듬해 생원시에 합격한 후 문음으로 통덕랑通德郎이 되었다. 1651년 통덕랑으로서 가을의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선보되었다. 1652년 5월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임명되었다가 6월 예조좌랑禮曹佐郎에 제수되어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하고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곧이어 병조좌랑兵曹佐郎으로 옮겼다가 1653년 7월 병조정랑兵曹正郎으로 승진한 후 1654년 1월

예조정랑으로 전직하였다. 그해 6월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 8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9월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12월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 등을 역임하였고, 1656년 1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거쳐 그해 4월 병조정랑이 되어 무반의 인사를 담당하였다. 1657년 1월 평안도도사平安道都事로 나갔다가 1658년 3월 중앙으로 들어와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에 제수된 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병조정랑, 사헌부지평, 세자시강원사서 등을 역임하고 1661년(현종 2) 3월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승진하였다. 그해 8월 성균관사에成均館司藝로서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이 되어 호서지방을 다녀왔으며, 9월에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이 되었다. 1664년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오르고 종부시정宗簿寺正이 되어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임하였다. 1665년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사헌부집의,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승지右承旨·좌승지左承旨를 역임하였다.

이어 1670년 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事로 나갔다가 1672년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를 거쳐 다시 좌승지에 올랐다. 그해 12월 병조참의兵

曹參議로 옮겼다가 1673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거쳐 이듬해 정주목사定州牧使와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지내고, 1676년(숙종 2) 7월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에 다녀와 병조참의에 제수되었다. 1677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서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總府副總管을 겸임한 후 1679년 공조참판에 올랐으며, 그해 11월 병조참판으로 옮겼다가 1680년 사은부사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81년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형조참판, 호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그해 12월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중용되어 왕명의 출납을 총괄하였다. 1682년 호조참판, 예조참판, 도승지, 장예원판결사 등 요직을 차례로 역임하고 1686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여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 1688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거쳐 1691년 다시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목貞穆이다. 적성면 무건리에 묘가 있다.

김위남 金偉男 1563년(명종 18)~1618년(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초명은 종남終男, 자는 자시子始, 호는 낙산樂山이

다. 영동현감永同縣監을 지낸 표彪의 아들이다.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1591년(선조 24) 진사가 되고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인 지남止男과 함께 의병으로 활약하였고 160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06년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된 뒤 공조좌랑工曹佐郎과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역임하였고 1610년 천추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에 다녀왔으며 1617년에는 통례通禮가 되었다. 이때 이이첨 등에 의하여 폐모론이 대두되자 그에 반대하다가 하옥되어 추국을 받은 뒤 관직을 떠났으며 이때부터 이름을 '위남'이라 하였다. 그 뒤 구차스럽게 생을 영위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절식하다가 이듬해 죽었다. 문장은 독창적이었고 시는 도연명陶淵明의 풍격이 있었으며 필법은 안평대군의 것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림 또한 뛰어났다. 탄현면 범흥리에 묘가 있다.

김유 金濡 생몰년 미상. 숙종 때의 장단 사람이다. 성균진사成均進士가 되었다. 효행이 지극하여 조정에 알려지자, 숙종은 영의정領議政을 증하고, 마을에 정문을 세우게 하였다.

김응순 金應淳 1728년(영조 4)~1774년(영조 50).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호는
낙운와樂雲窩이다. 군수郡守 영행승行的 후손으로
목사牧使 이견履健의 아들이다.

1753년(영조 2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
고 1774년(영조 50) 준등과俊登科에 합격하였다.
후에 지평持平, 도승지都承旨, 부제학副提學을 거
쳐 이조참판吏曹參判, 대사헌大司憲, 경상도관찰
사慶尙道觀察使 등을 역임하였다. 1774년 사노비
寺奴婢의 폐지를 상소하였으며, 한성부판윤漢城
府判尹이 되었다. 사후에 예조판서에 추증되었
다. 저서로 『풍계록楓溪錄』이 있다. 장단군 장북
면 조목동에 묘가 있다.

김장생 金長生 1548년(명종 3)~1631년(인조 9).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광산光山
이며,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이다. 아버지
는 대사헌大司憲 계휘繼輝이며, 집集은 그의 아들
이다. 어린 시절 송익필宋翼弼로부터 사서四書와
『근사록近思錄』 등을 배웠고, 20세 무렵 이이李珣
의 문하에 들어갔다.

1578년(선조 11)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창릉

참봉昌陵參奉이 되었고, 1581년 종계변무宗系辨誣
의 일로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와서 돈령
부참봉敦寧府參奉이 되었다. 그 뒤 순릉참봉順陵參
奉과 평시서봉사平市署奉事를 거쳐 활인서活人署,
사포서司圃署, 사옹원司糶院 등의 별제別提와 봉사
奉事に 제수되었으나 모두 병으로 나가지 않다가
동몽교관童蒙敎官, 인의引儀의 직을 거쳐 정산
현감定山縣監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호
조정랑戶曹正郎으로 명나라 군사의 군량 조달에
공이 커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로 승진하고, 1596
년 한때 연산으로 낙향하였을 때 단양·양근 등
지의 군수郡守와 첨정金正, 익위翊衛의 직이 거듭
내려졌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 봄 호남지방
에서 군량을 모으라는 명을 받고 이를 행함으로
써 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이 되었다가 곧 안성군
수安城郡守로 제수되었다. 1601년 조정에서 『주
역구결周易口訣』의 교정에 참가하도록 불렀으나
병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이듬해 청백리로 올려
졌으나 복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1605년 관직
을 버리고 연산으로 다시 내려갔다.

1613년 계축옥사 때에도 관직을 버리고 연
산에 은둔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 뒤 인

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75세의 나이에 장령掌令으로 조정에 나아갔으나, 곧이어 사업司業으로 옮겨 원자보도元子輔導의 임무를 겸하다가 병으로 다시 낙향하였다. 이듬해 이괄의 난이 평정된 뒤 왕을 따라 서울로 와서 원자보도의 임무를 다시 맡고 상의원정尙衣院正으로 사업을 겸하고, 집의執義를 거쳐 낙향하려고 사직하면서 중요한 정사政事 13가지를 논하는 소를 올렸다. 그 뒤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제수되어 원자의 강학을 겸하는 한편, 왕의 시강과 경연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1625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를 임명받았으나 이듬해 사직하고 행호군行護軍의 산직散職으로 낙향하여, 이이와 성혼을 제향하는 황산서원黃山書院을 세웠다. 같은 해 용양위부사직龍驤衛副司直으로 옮기고, 1627년 정묘호란 때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서 의병을 모아 공주로 온 세자를 호위하고 곧 화의가 이루어지자 모은 군사를 해산하고 강화도의 행궁으로 가서 왕을 배알하고, 그해 다시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사직하여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으로 낙향하였다. 1630년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올랐으나, 조

정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늦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거치지 않아 요직이 많지는 않았지만,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의 영수격으로 영향력이 매우 컸다. 또한 예학을 깊이 연구하여 아들 집에게 계승시켜 조선 예학의 태두가 되었다. 1688년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법원읍 동문리의 자운서원, 연산의 돈암서원豚巖書院, 안성의 도기서원道基書院 등 10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시문집을 모은 『사계선생전서沙溪先生全書』를 비롯하여 『상례비요喪禮備要』 4권, 『가례집람家禮輯覽』, 『전례문답典禮問答』, 『의례문해疑禮問解』,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경서변의經書辨疑』 등의 저서가 있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김재찬 金載瓚 1746년(영조 22)~1827년(순조 2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국보國寶, 호는 해석海石이다.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제남梯男의 후손으로,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 상석相奭의 손자이며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익재의 아들이다.

1774년(영조 50) 진사시에 오르고 그해 진사로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80년(정조 4)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다. 그 후 규장각직강奎章閣直講에 제수되었고 이어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 이조참의吏曹參議,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등을 역임하였다.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병조판서兵曹判書,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등의 요직을 차례로 역임하였고, 1796년 다시 이조판서에 제수되어 문관의 인사 행정을 총괄하고 이듬해 대사헌을 겸임하였다. 1799년에 병으로 이조판서를 사임하였다가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한성부판윤 등에 올랐으며, 그해 진하겸사은사進賀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이듬해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임명되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하자 『건릉표석음기健陵表石陰記』를 제술하고 승록대부崇祿大夫로 가자되었으며, 지실록청사知實錄廳事를 겸임하여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802년에 수원유수水原留守와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임명되었고, 1804년에 홍문관제학을 거쳐 정순왕후의 애

책문제술관哀冊文製述官을 겸임하였다. 1805년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부임을 거절하여 황해도 재령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1807년 우의정으로 다시 중용되어 당시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던 과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전국에 퍼져 있었던 잠채광업潛採鑛業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해 좌의정에 올랐으며, 1809년 영의정이 되어 영남지방의 대동미 3분의 1과 호남지방의 대동미 4분의 1을 정퇴停退하도록 조치하였다. 1818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거쳐 다시 영의정에 제수되었고 1823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시문집인 『해석유고海石遺稿』 12권 6책과 54년간의 공사公事를 개인적으로 기록한 『해석일록海石日錄』 30권 15책이 있고, 편서로는 『이문원강의講文院講義』가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문산읍 이천리에 묘가 있다.

김정국金正國 1485년(성종 16)~1541년(중종 3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자

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팔여거사八餘居士이다. 부사府使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된 익령益齡의 손자이며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으로 우찬성右贊成에 증직된 연연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예빈시정禮賓寺正 조유행趙有亨에게서 양육되었으며, 한훤당寒喧堂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조광조, 이장곤 등과 교류하였다.

1507년(중종 2) 생원시와 진사시에 오르고 1509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 후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승문원교검承文院校檢을 거쳐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으며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다. 1510년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선임되어 문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였고 1512년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옮겼다가 이듬해 교리로 승진하였다. 곧이어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었고, 1514년에 사가독서를 하였다. 그해 이조·공조·호조의 정랑을 거쳐 승문원교리로 전직되었다가 1515년 다시 이조정랑에 선임되었다. 1516년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을 거쳐 이듬해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으로 승진하고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1518년 직제학直提學에 제수되었다가 그해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승진하여 왕명을 출납하였다. 우승지右承旨로 승진하여 연산군을 위해 입후立後하기를 청하였고,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재임 중인 1519년 『경민편警民編』을 편찬하는 등 지방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으며,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과의 향약 장려 운동에 호응하여 향약의 보급을 통한 향촌 교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 해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 등 사림과 학자들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사태가 급박하여 상소를 중지하였다. 후에 이러한 일들이 대간에 알려져 조광조 등의 사림파를 옹호한다는 죄목으로 형인 안국安國과 함께 관직이 삭탈되었다. 그 후 고양군 중면 망동으로 내려가 스스로 ‘팔여거사’라 칭하였다. 고양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닦고 저술과 후진 교육에 전심하여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관직에서 떠난 지 20년 만인 1537년 관직이 복구되어 이듬해 용양위대호군龍驤衛大護軍을 거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었다.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 중 수십조에 달하는 편민거폐(便民去弊)의 정책을 건의하여 국정에 반영하게 하였으며, 시골 백성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방문을 수집하여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을 간행하였다. 1539년 병조참의(兵曹參議)와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역임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여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나가서 선정을 베풀었다. 그 후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가 1540년 예조·병조·형조참판 등의 요직을 차례로 지내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성리학과 역사, 의학 등에 밝았으며, 시와 문장에도 뛰어났다. 형인 김안국이나 정광필(鄭光弼)과 같이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지지하였으나 급격한 개혁에는 반대하였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장단의 임강서원(臨江書院), 용강의 오산서원(鰲山書院), 고양의 문봉서원(文峰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성리대전절요(性理大全節要)』 4권 2책과 시문집인 『사재집(思齋集)』 4권 2책이 있으며, 그 밖에도 『촌가구급방』, 『역대수수승총입도(歷代授受承統立圖)』, 『기묘혼적(己卯動籙)』, 『경민편』 등이 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진동

면 하포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정태 金鼎台 생몰년 미상. 장단 사람으로, 효자로 이름났던 천익(天益)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악성종기병(瘰癧)에 걸리자 입으로 빨아 낫게 하였으며, 후일 다시 도져 병이 심해지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바친 효자이다. 묘를 지킬 때 조석으로 통곡하니 호랑이가 묘 근처에 와서 지켜보았다고 전한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조로부터 복호(復戶)되었다.

김정후 金靜厚 1567년(선조 9)~1640년(인조 1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파주 출생이며 장단에 우거하였다. 본관은 예안(禮安)이며, 자는 사외(士畏), 호는 동리산인(東籬散人)·파옥진인(破屋陳人)이다. 사재직장(司宰直長)을 역임한 여정(汝鼎)의 손자이고, 군자감정(軍資監正) 현도(玄度)의 아들이다. 최립(崔笠)의 문인으로 이미 10세 때 『소학』과 『논어』에 능통하였다.

일찍이 사마시에 올라 1605년(선조 38) 진사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후 성

군관전적을 거쳐 1613년(광해군 5) 보령현감保寧縣監이 되었다. 당시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의 아버지인 연흥부원군 김제남이 인목왕후의 소생인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한다는 이이첨의 무고를 받아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었다. 그때 이를 경축하는 전문箋文을 지으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하여 탄핵을 받았지만 조금도 굽히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인조반정 후 예안현감禮安縣監이 되었다가,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직강直講 등을 역임하고 다시 응진군수應津郡守로 나갔으나 고관의 비위에 거슬려 파직 당했다. 타 고난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강직하였다고 한다.

김종서 金宗瑞 1390년(공양왕 2)~1453년(단종 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천順天이며,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이다. 도총제都總制 추鍾의 아들이다.

1405년(태종 5) 문과에 급제하여 1415년 상서원직장尙書院直長을 지냈고, 1418년(세종 즉위년) 11월 감찰監察로 있으면서 강원도에서 답험손실踏驗損實(작황의 손실을 전답에 나가 직접에서 점검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성이 일자 이를

다시 조사하였다. 1419년 3월 행대감찰行臺監察로서 충청도에 파견되어 진휼 상황을 조사하였고, 같은 해 10월 사간원우정언司諫阮右正言이 되었다. 1420년 광주판관廣州判官이 되었고, 봉상판관奉常判官으로 있으면서 의주義州와 삭주도朔州道の 진제경차관賑濟敬差官으로 파견되었다. 1426년 이조정랑吏曹正郎으로서 전라도에 파견되어 침입한 왜인의 포획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며, 1427년에는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황해도경차관黃海道敬差官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세종의 신임이 두터워 1433년 좌대언左代言로서 이부지선吏部之選을 관장하도록 특별히 명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로 제수되어 7~8년간 북변에서 육진六鎭을 개척하는 등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1445년 충청·전라·경상 3도의 도순찰사都巡察使로 파견되어 목마장으로 적합한 곳과 방마放馬가 가능한 곳의 수효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1446년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임명되고 판예조사判禮曹事를 겸하였으며, 이듬해 충청도에 파견되어 태안 등지의 책보柵堡를 자세히 조사하였다. 1449년 8월 몽

골의 오이라트 부족이 침입하여 요동지방이 소란해짐에 따라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평안도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에 소환되었다. 1451년(문종 1) 좌찬성겸지춘추관사左贊成兼知春秋館事로서 『고려사』를 찬진하였고 같은 해 10월 우의정右議政이 되었다. 1452년 『세종실록』 편찬의 감수를 맡았고 『고려사절요』를 찬진하였다. 1452년(단종 즉위년) 좌의정左議政이 되어 단종을 보필하다가 수양대군에게 살해되었다. 1746년(영조 22) 복관되었다. 법원읍 동문리 월계단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김중국 金重國 생몰년 미상.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병자호란 때 평안도에서 전사하였다. 그의 처 덕수 김씨德水金氏는 그 시체를 운반하여 장례하고 따라서 죽었다. 조정에서 벼슬을 추중하고 쌍정려雙旌閣를 표했다.

김중국 金重國의 처 **덕수 김씨** 德水金氏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열녀로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병자호란 때 남편이 평안도에서 전사하자 소식

을 듣고 달려가 시체를 업고 돌아와서 자신도 자결하였다. 쌍정려雙旌閣가 내렸다.

김중성 金仲誠 생몰년 미상.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398년(태조 7)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된 이래 1428년(세종 10) 의금부직사義禁府直司를 거쳐 1445년에 의금부판사義禁府判事가 되었다. 엄정한 기강을 요하는 부서에서 인간적인 포용력을 펼쳤으며, 그런 중에 파직과 임용이 거듭되는 영욕을 겪었다. 말년에는 봉상시정奉常寺正에 이르렀고,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다. 탄현면 낙하리에 묘가 있다.

김중원 金重元 ?~1716년(숙종 42).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선경善卿이다. 어영대장御營大將을 지낸 응해應海의 증손이다. 일찍이 고아가 되었으나 자립하여 학문 수양에 진력하였다.

24세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1697년(숙종 23) 무관으로 윤지선尹趾善의 천거를 받았다. 1711년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가 되었다. 영남에

있을 때 큰 가뭄이 들자 백성의 구휼에 전력을 다했으며 길주에 있을 때도 가뭄의 피해로 백성이 곤경에 처하자 현의 창고를 열어 도와주었다. 글씨에도 뛰어나서 초서·예서를 잘 썼다. 광탄면 방축리에 묘가 있다.

김진 金鎭 1522년(중종 17)~1591년(선조 2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豐山이며, 자는 경인景仁, 호는 진鎭이다.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을 역임한 순정順貞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글이 능숙하여 1543년(중종 38)에 사마시에 오르고 1549년(명종 4)에는 대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춘추관에 추천되었다가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저작著作에 전임, 다시 작위가 올라 수찬修撰이 되고, 다시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역임하였으며 이조좌랑에 전임되었다. 경기도도사京畿道都使에 나갔을 때는 친구들의 분당론分黨論에 가담했다가 파면 당하였다. 여러 해가 지난 뒤 노수신盧守愼이 영상이 되자 사헌부에 탄핵을 풀어 주도록 건의하는 상소문을 올려 석방되어 고향으로 내려왔다. 1584년(선조 17) 봄 이이李珣가

전주鎭注를 주관할 때 비로소 청원이 받아들여져 김제군수金堤郡守로 복직되었다가 3년 후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제용감濟用監에 전임되었다. 다시 상의원정尙衣院正과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에 기용되었다가 중묘中廟동장으로 전임되고, 선조로부터 상격賞格을 받고 품계가 통정通政으로 승진되고 또 대론臺論도 받아들여졌다.

평생에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으며 자제들을 엄숙히 단속하였고 의복에 사치를 금하고 학문과 주연으로 친우들과 모이기를 좋아하였지만 창기娼妓를 대하지 아니하였다. 상제절례喪祭節禮의 법도를 준수하였고 연중 책을 펼쳐놓고 있었으며, 온갖 난관을 겪으면서도 상喪은 언제나 시묘살이로 3년간을 마쳤다. 상을 당하였을 때는 슬픔과 사모함이 다른 것에 비할 수 없어 생일에도 주연을 하지 않았으며 맛있는 음식을 대하지도 않았다. 두 동생을 극진히 사랑하여 집안이 늘 화목하였고, 말은 충직하고 굳어서 움직임이 없었으니 비록 세론世論에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구애치 않고 강직하였다. 조리읍 장곡리에 묘가 있다.

김천림 金天霖 생몰년 미상. 환관宦官이다. 왕언王言을 출납하는 승전색承傳色을 거쳐 중사中使로 재직할 때인 1624년(인조 2) 1월 이괄의 난이 일어 이괄에게 목숨을 잃었다. 정문旌門이 있다.

김천익 金天益 생몰년 미상. 장단 사람이다. 어머니가 병들자 하늘에 쾌유를 늘 기도하자 꿈에 신인神人이 야학野鶴을 먹이면 낫는다고 하여, 구하여 시약施藥을 하니 곧 나았다. 영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김탁 金鐸 생몰년 미상. 장단 사람이다. 효행이 지극하여 조정에 장계되어, 영조가 호조참판戶曹參判 벼슬을 내렸다.

김한규 金漢奎의 처 조씨 趙氏 생몰년 미상. 1812년(순조 12) 3월 13일 왕조실록에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의 경외京外の 충·효·열의 문서를 정부에 보고했는데, 등급을 나누어 초계抄啓하였다.……열녀정려질烈女旌閭秩에 파주 고 사인士人 김한규金漢奎의 처 조씨趙氏를 비롯해 89명이 올랐다”라는 기록이 있다.

김행 金行 1532년(중종 27)~1588년(선조 2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자는 주도周道, 호는 장포長浦이다. 할아버지 사희士熙는 진산군수珍山郡守이고 아버지는 국봉國樁이다.

1558년(명종 13)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56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어려서 백인걸白仁傑과 성수침成守琛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성수침의 아들 성훈成渾과 동문수학하고 평생 형제처럼 지냈다.

벼슬은 내직으로 전적典籍, 형조좌랑刑曹佐郎, 호조좌랑戶曹佐郎, 예조정랑禮曹正郎,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사성司成, 사도시정司鑾寺正을 지냈고, 외직으로는 무장현감茂長縣監, 고양군수高陽郡守, 서천군수舒川郡守, 양주목사楊州牧使, 광주목사廣州牧使 를 지냈다.

성품이 강직하여 주로 외직에 머물고 크게 현달하지는 못하였다. 글씨에도 능하여 필법이 호장활동하다는 평을 들었고, 1575년(선조 8) 무장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증도기證道歌」를 보완하여 간각刊刻하였다. 또한 무예와 지략에도 뛰어나서 1588년 광주목사로 있

을 때 순변사巡邊使 신립申砬이 그를 천거하여 전라도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의 물망에 올랐으나 곧 죽었다. 장보포 서쪽에택지宅址가 있었으며 문산읍 내포리에 묘가 있다.

김효성 金孝誠 1585년(선조 18)~1651년(효종 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적성면 맹곡孟谷에 우거하였다.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자는 행원行源이다. 양양부사襄陽府使를 지낸 수연秀淵의 아들이다.

1613년(광해군 5)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1615년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정조鄭造·윤인尹訥·이위경李偉卿 등이 인목대비를 폐하려 하자 고부천高傅川·김태우金太宇 등 24인과 함께 정조·윤인·이위경 등 3인의 목을 벨 것과 귀양가 있는 이원익李元翼을 다시 부를 것을 주청하였다가 길주로 유배당하고 뒤에 진도로 이배되었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과 함께 복관되어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제수 받고, 이어 청안현감淸安縣監이 되었다. 1625년 잠시 관직을 떠났다가 이듬해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올랐다.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왕비를 호가하였고, 1628년에 괴산현감槐山縣監과 면천군수沔川郡守를 역임하였다.

1634년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형조정랑刑曹正郎,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등 중앙으로 옮겨 있다가 이듬해 여산군수礪山郡守로 부임하였다. 이어 남원·죽산의 부사府使와 공주·청주의 목사牧使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650년(효종 1) 청나라 사신 접대의 대책을 소홀히 하였다 하여 파직되었다가 곧 칠곡부사漆谷府使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오랜 외직 생활 동안 선정을 베풀어 청빈한 목민관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또한 무예에도 조예가 있어 조사오위장曹司五衛將과 위장衛將을 맡기도 하였다.

김후 金垉 생몰년 미상. 효행이 지극하여 조정에 장계되자, 영조가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벼슬을 내렸다.

김흔 金訢 1448년(세종 30)~1492년(성종 23).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문장가·청백리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군절君節, 호는 안락당顔樂堂이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우신友臣의 아들이다.

어렸을 때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크게 칭찬을 받고 사림의 촉망을 받았다. 1468년(세조 14)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1471년(성종 2)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임용되었다. 그뒤 병조좌랑兵曹佐郎·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지내고, 1479년 통신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대마도까지 갔으나 신병으로 인하여 되돌아왔다.

1481년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 1483년 전한典翰, 1484년 직제학直提學으로 승진하여, 충청도 천안 지방의 수령守令·만호萬戶 등의 불법행위를 사찰하였다. 1486년 시강관侍講官·공조참의工曹參議에 이르렀다. 풍질風疾로 여러 차례 사직을 원하였으나, 1489년 행행군行護軍을 역임한 뒤 1490년 행부사과行副司果를 지냈다.

성품은 고결하고 지조가 있었으며 언행이 한결같았다. 문장은 율시에 능하였다. 후에 손자 희禧가 중종의 부마가 되어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청백리에 뽑히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3남 안로安老가 간행한 『안락당집安樂堂集』과 성종의 명으로 저술한 『두시언해杜詩謚解』 및 『황산곡시

집언해黃山谷詩集謚解』가 있다.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교하읍 교하리에 묘가 있다.

김흥윤 金興胤, **김형윤** 金亨胤 생몰년 미상.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파주 출신이다. 판서判書 수현壽賢의 아들들로서 두 형제가 모두 부모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했다. 별당에서 함께 글공부를 하던 중 집에 불이 나자 경황없이 빠져나와 노복에게 부모의 안부를 물었으나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부모가 불 속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구하고자 불 속으로 뛰어들어 형제가 함께 분사하였다. 숙종은 그 효행을 기려 정려 2개를 내렸다.

김희철 金希哲 ?~1592년(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옥천沃川이며, 자는 원명原明, 호는 휴계休溪이다.

무과에 급제한 뒤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올랐다. 딸이 선조의 후궁으로 들어가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자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1583년(선조 16) 사도시첨정司導寺僉正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조헌趙憲의 휘하에서 혈전을 벌이다가 장렬하게 순국하였

다.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에 추증되었고, 영천의 방산서원方山書院에 제향되었다. 탄현면 문지리에 묘가 있다.

남금 南琴 1445년(세종 27)~1487년(성종 18).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성固城이며, 자는 계순繼舜, 호는 도암道庵이다. 사농공司農公 극원極遠의 7대손이며 공안부윤恭安府尹을 역임한 기축의 아들이다.

1463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삭과削科되었다. 1466년 다시 사마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며 1468년에 실시된 문과에 급제하였다.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임명되었다. 본시 성품이 엄하고 기강이 굳세었고, 문장이 뛰어났으며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대광보국승록대부 좌의정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左議政을 증직받았다. 광탄면 창만리 만장산에 묘가 있다.

남덕일 南德一 생몰년 미상. 장단 사람이다. 어버이를 섬길 때 공궤供饋를 잘하였고, 돌아가신 뒤 여묘廬墓 때에는 밤낮으로 통곡하였다.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본시 없던 샘이 솟아났으니, 후세 사람들은 이곳을 '시묘동侍墓洞'이라고 불러 그의 가륜한 효행을 기리었다. 이 소식은 후일 조정에게까지 알려져 선조는 그에게 호조참판戶曹參判의 벼슬을 내렸다.

노공필 盧公弼 1445년(세종 27)~1516년(중종 1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교하 출신이다. 본관은 교하交河이며, 자는 희량希亮, 호는 국일재菊逸齋이다. 우의정을 지낸 한평의 증손이고 영의정에 오른 사신思愼의 아들이다.

1462년(세조 8) 사마시에 합격하여 의영고직장義盈庫直長·사직서령社稷署令을 지낸 뒤 1466년 춘시문과에 2등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부제학副提學을 거쳐 병조·이조·예조의 참의參議와 도승지都承旨를 역임하였으며, 1483년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1489년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된 데 이어 6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으며, 외직으로는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지냈다. 1498년(연산군 4) 의정부우참찬議政府副右參贊, 1503년 우찬성右贊成에 올랐으나, 이듬해 일어난 갑자사화에

연좌되어 무장(茂長)으로 장배(杖配)되었다.

그 뒤 중종반정으로 귀양에서 풀려나와 다시 우찬성이 되었다가 1507년(중종 2)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로 승진하였다. 이때 명나라에 가서 중종 즉위의 경위를 설명하고 명나라 왕으로부터 권서국사(權署國事)의 칙지를 받아 귀국하였다. 그 공로로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올랐다.

충성심과 효심이 지극하고 일가친척의 관혼상제를 두루 살폈으며, 자신은 검소한 생활에 만족하였다. 서거정이 지은 『동문선(東文選)』에 「남포시운(南浦詩韻)», 「장사인벽상운(張舍人壁上韻)», 「광연이시(廣淵以詩)», 「원소기어수(元宵寄漁叟)」 등의 시가 실려 전해지고 있다. 파주읍 백석리에 묘가 있다.

노사신 盧思愼 1427년(세종 9)~1498년(연산군 4).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교하(交河)이며, 자는 자반(子般), 호는 보진재(葆眞齋)·천은당(天隱堂)이다.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물재(物載)의 아들이다.

1451년(문종 1) 생원시, 1453년(단종 1) 문과

에 병과에 급제하여 곧 집현전박사(集賢殿博士)에 선임되었다. 이어 집현전부수찬(集賢殿副修撰)·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예문관응교(藝文館應教) 등을 역임하였으며, 1459년(세조 5) 세자우문학(世子右文學), 이듬해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 1462년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거쳐 1463년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같은 해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을 겸하여 세조가 주석한 『역학계몽(易學啓蒙)』의 주석서 『요해(要解)』를 증보하여 찬진(撰進)하고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1465년에는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어 최항(崔恒)과 함께 『경국대전』 편찬을 총괄하였으며,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충청도(忠淸道)가관찰사(忠淸道假觀察使)를 겸하여 지방 행정의 부정을 낱낱이 조사하였고, 이듬해에는 승정대부(承政大夫)에 올랐다. 또한 1466년에 실시된 발영(拔英)·등준(登俊) 양시에 응시하여 각각 1등과 2등으로 합격하는 영예를 얻고, 이듬해 말에는 건주위(建州衛) 정벌에 대한 군공(軍功) 2등을 받았다. 1468년 남이(南怡)·강순(康純) 등의 역모가 다스려진 후의 논공으로 익대공신(翼戴功臣) 3등에 올라 선성군(宣城君)에 봉하여

졌다. 1469년 의정부우참찬議政府副右參贊·좌참찬左參贊을 거쳐 우찬성右贊成에 올랐다. 우찬성에 재임 중 명나라의 사신 강호姜浩의 접반사接伴使로서 명사와 예교禮交를 맺어 외교적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1470년(성종 1)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올라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겸하였으며, 성종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1471년에는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었다. 1476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는데, 사서史書와 시문의 찬진과 성균관에 서의 강의 등으로 성종의 문치文治를 도와 1482년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으로 진봉進封되었다. 1485년에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서 평안도와 경기도의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진휼사겸호조판서賑恤使兼戶曹判書가 되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487년(성종 18) 말에는 명나라 효종의 즉위를 맞아 등극사登極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오고, 이듬해 우의정이 되었으며 영안도도체찰사永安道都體察使가 되어 국가의 사민정책徒民政策을 담당하였다. 1492년(성종 23) 좌의정左議政, 1495년(연산군 1) 영의정領議政에 올랐으나, 문과독권관文科讀卷官이었을 때 처족을 합격시켰다

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영의정을 사직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 때에는 윤필상尹弼商·유자광柳子光 등이 주동이 되어 김일손金駟孫 등 사림파의 제거를 논의할 때 세조의 총신이었다는 처지 때문에 미온적으로나마 동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자광 등이 옥사를 확대하려는 것을 극력 견제하여 사림파의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사옥史獄이 진행되는 도중인 같은 해 9월에 병으로 죽었다.

호조판서로 재직할 때 『경국대전』의 편찬을 주관하고, 『경국대전』 호전戶典의 편찬을 직접 담당하였다. 1476년(성종 7) 12월 서거정徐居正·이파李坡와 함께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찬진하고, 1481년에는 서거정과 함께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수찬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1482년(성종 13)에는 이극돈李克墩·서거정·어세겸魚世謙 등과 같이 『통감강목痛鑑綱目』을 한글로 번역하는 등의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묘는 서울 노량진에 있다. 1940년 파주읍 백석리로 옮겨 왔다. 같은 묘역 내에 할아버지 한開과 아들 공필公弼 등의 묘가 함께 있다.

노성운 盧聖運 1717년(영조 3)~1796년(정조 20). 효성이 지극하여 친병 중에 눈 속에서 남생이를 구하여 드렸다고 한다. 황승원黃昇源의 기록과 한계증韓繼增의 찬 및 최익현崔益鉉의 비문이 있으나 표창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묘가 법원읍 동문리에 있다.

노성중 盧聖中 1724년(경종 2)~1785년(정조 9). 조선시대의 인물로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자는 양능養能이다. 언익彦益의 아들이다.

1753년(영조 29) 정시갑과에 장원하였다. 정언正言을 거쳐 1763년(영조 39) 장령掌令을 역임하였고 1771년(영조 47) 헌납獻納을 제수 받았다. 묘는 법원읍에 있다.

노언관 盧彦觀 1713년(숙종 39)~1771년(영조 36). 조선시대의 인물로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자는 자빈子賓, 호는 마계摩溪이다. 파주 출신이며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부모를 섬기는 데 평생의 뜻을 두었다. 모친께서 병으로 고생하자 손수 시탕과 수발을 하였다. 설달에 포도를 구하여 바쳤으며, 얼음 속에서 잉어를 구하여 시

약하였다. 또 10여 년을 한결같이 밤낮으로 하늘에 기원하는 정성을 바쳤다. 상을 당해서는 초상을 고례에 따라 행하고 3년간을 여묘하는 효행을 실천하였다.

노승현의 처 파평 윤씨 坡平尹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로 본관은 파평이다. 남편이 죽자 밤낮으로 통곡하다가 남편의 장례 때 순절하였다.

노용규 盧容圭 1802년(순조 2)~1879년(고종 16).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한문漢文의 10대손으로 학문에 힘썼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모친 병환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는 정성을 바쳤고 상을 당해서는 3년간 여막살이를 하면서 『예기』를 읽었다. 정표는 없고 표창장이 있다. 묘는 법원읍 가야리에 있다.

노준 盧峻 1538년(중종 33)~1602년(선조 3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자는 자평子平이다. 아버지는 직제학 한문漢文이다.

1564년(명종 19) 진사시에 합격하고 1566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공조좌랑으로 『명종실록』 찬수에 참여하였다. 1587년(선조 20) 동래 부사·파주목사를 지냈으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법원읍 동문리에 묘가 있다.

노진설 盧震燮 1846년(헌종 12)~1910년. 조선 말기의 학자로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자는 자항子享, 호는 정외靜窩이다. 경규敬圭의 아들로 법원읍 동문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효행과 재예才藝가 뛰어났으며 1862년(철종 13) 최위崔璣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72년(고종 9) 부친의 병환이 위급하자 지혈指血로 구환하여 반일半日이나 희생하였다 돌아가시게 되자 폭풍우를 무릅쓰고 조석으로 시묘하며 애통해 하니 모든 사람들이 효자라며 감탄하였다. 그 후 최익현 문하에서 학문에 전념하던 중 자운서원이 철폐된 것에 대해 늘 안타깝게 여기다가 1907년(순종 1) 김한순金漢純과 함께 유림들과 의논하여 위토를 마련하고 원지院址에 울곡 위패를 봉안하고 설단하여 봉사하였다. 법원읍 오현리 동현단東峴壇에 배향되었으며, 법원읍 동문리에 묘가 있다.

노필 盧弼 ?~1422년(세종 4). 교하현交河縣 사람으로서, 1372년 별장別將에 임용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삼사우윤三司右尹을 거쳐 판전농사재시사判典農司宰寺事를 역임하였다. 1398년(태조 7)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와 공조·예조의 전서典書가 되었다가, 해주목사海州牧使와 우군총제右軍總制로 나가서 우군도총제右軍都總制로 승진하였다. 1422년(세종 4) 병이 들어 벼슬을 사절하고 요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양간良簡이다.

노한 盧閑 1376년(우왕 2)~1443년(세종 2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교하交河이며, 자는 유린有隣, 호는 효사당孝思堂이다. 교하 노씨 공숙공파恭肅公波의 증시조다. 첨의정승僉議政丞 책顛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대리경大理卿 균鈞이다. 좌의정 민제閔霽의 사위로 부인이 태종 비 원경왕후元敬王后的 동생으로 태종과는 동서간이다.

16세에 음보로 등용되어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거쳐 1403년(태종 3) 좌부승지左副承旨, 이듬해 이조전서吏曹典書·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역임하였다. 1405년 동지총제同知總制, 이듬

해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등을 거쳐 1408년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이르렀다.

1409년 처남 민무구·민무질 형제가 신극례辛克禮와 함께 종친을 이간하고 불충의 언동이 있었다고 하여 이화李和 등의 탄핵을 입어 유배되어 사사賜死되자 양주 별장에서 14년간 은거하였는데, 1422년(세종 4)에 상왕 태종이 “노한이 민씨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고신告身까지 거두게 된 것은 그의 죄가 아니니 급히 불러들이라”는 전교를 내려 다시 한성부윤에 복관되었다. 그 뒤 형조판서刑曹判書·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거쳐, 1432년 찬성사贊成事, 1434년 찬성사겸대사헌贊成事兼大司憲, 이듬해 우의정 등을 지내고 1437년(세종 19) 사직하였다.

외교에 남달리 뛰어났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 1439년 모친상을 당하자 현재의 노량진에 안장하고 3년간 시묘한 뒤 그 복편에 효사정孝思亭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어머니를 기렸다고 한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며 묘는 파주읍 백석리에 있다.

노한문盧漢文 1506년(중종 1)~1544년(중종 3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자는 사욱士郁이다. 아버지는 사정司正 자장自璋이다.

1531년(중종 26)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1535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1538년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역임할 때, 권신 김안로金安老의 주장으로 실시된 사관史官의 조보朝報 작성과 이를 재상宰相에 전송傳送하는 일을 혁파하도록 건의, 채택되었다. 1539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거쳐 1550년(명종 5) 통례원우통례 겸 교서관관교로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이듬해 통례원좌통례에 이르렀다. 묘는 법원읍 동문리 못말산에 있다.

류경창柳慶昌 1593년(선조 26)~1662년(현종 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선백善伯, 호는 성탄聲灘·미천薇川이다.

1628년(인조 6)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부정자弘文館副正字, 수찬修撰, 교리校理, 지평持平, 사서司書, 헌납獻納 등을 지냈다. 1647년 이조정랑吏曹正郎이 되었으며 암행어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649년(효종 즉위년) 사간司諫,

승지承旨,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거쳐 대사간大司諫에 올랐다. 현종 때 동지사同知事의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어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재능은 평범하였으나 검소와 청렴으로 일관하여 추앙을 받았다. 숙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교하읍 와동리에 묘가 있다.

류광조 柳光祖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교하읍 동패리에 묘가 있다.

류기후 柳冀厚 생몰년 미상. 극진한 효도로써 모친을 봉양하였다.

류동량 柳棟梁 1620년(광해군 12)~1687년(숙종 13). 조선 후기 소북 계열의 인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대임大任, 호는 호은壺隱이다.

인조반정 이후 과거에 입격하고도 소북 집안이란 이유로 낙방하자 17세기 중반경 교하 동패리 두일동으로 낙향하여 학문 수확과 저작 활동 및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백각白閣 강현姜峴(1650~1733)이 그의 행장을 썼다. 문집으로 『호은

집壺隱集』이 있다. 교하읍 동패리에 묘가 있다.

류복명 柳復明 1685년(숙종 11)~1760년(영조 3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양휘陽輝, 호는 만촌晩村이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역임한 성歳の 아들이다.

1717년(숙종 4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듬해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어 경리청經理廳 비용, 탕춘대蕩春臺 축성, 경기감영 이전의 폐해를 논하였다. 그 후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을 거쳐, 1721년(경종 1)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세제(훗날의 영조) 책봉을 반대하는 소론의 류봉휘柳鳳輝 등을 탄핵하였다. 다음 해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자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소를 올려 김일경金一鏡의 처형을 주장하여 이듬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복직되었다.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에 올라 동지검사는사冬至兼謝恩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7년(영조 3) 정미환국으로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복직되었으며, 1732년 대사간大司諫, 1743년 형조참의에 각각 올랐다. 이후 경기도관

찰사京畿道觀察使,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하였으며 1754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나이 70세가 되자 기로소에 들어갔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 등의 명예직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김산동에 묘가 있다.

류색 柳穡 1561년(명종 16)~1621년(광해군 1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자유子有, 호는 사호沙湖이다. 관찰사觀察使 영립永立의 아들이다.

1582년(선조 15) 음보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고, 이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전설사별좌典設司別坐,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1601년 형조좌랑刑曹佐郎, 정언正言, 호조좌랑戶曹佐郎을 거쳐 1603년 영변판관寧邊判官으로서 선정을 베풀어 표리表裏를 하사받았고, 1606년 배천군수白川郡守에 제수되었다. 이때 소북의 영수 류영경柳永慶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와 근친으로 전랑銓郎 물망에 올랐으나 군수로 있기를 원한다는 진소를 올렸다. 후에 류영경이 물러나고 대북파가 득세하였을 때 그만 이 홀로 화를 입지 않았다. 그 뒤 양주목사楊州牧

使로 승진되고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 선천군수宣川郡守를 거쳐 1614년(연산군 6)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강계부사江界府使가 되었는데, 이때 관직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비단옷을 입었다 한다. 이듬해 호조참의戶曹參議·우승지右承旨가 되고 장단부사長湍府使에 제수되었다. 1619년(광해군 11)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었을 때 권신이자 대북파인 한계남韓繼男의 동생에 대한 포계褒啓를 각하하고 소를 올려 한계남을 탄핵하였다. 오랜 외임外任으로 병이 많은 끝에 한계남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우울하게 보내다가 전주의 영營에서 죽었다. 인조반정 후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묘는 김산동 군부대 안에 있다.

류영립 柳永立 1537년(중종 32)~1599년(선조 3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입지立之, 호는 사송헌四松軒이다. 의정사인議政舍人을 역임한 감칸의 아들이다.

1568년(선조 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사인舍人, 지평持平, 영변판관寧邊判官, 보성군수寶城郡守, 철산군수鐵山郡守, 공주목사公州牧師 등

을 역임하였다. 1582년 종성부사鍾城府使가 되었는데, 이듬해 여진족 1만여 명이 침입하자 장의현張義賢·원희元喜 등과 이를 막았으나 결국 성을 빼앗기고 그 책임으로 투옥되었다. 곧 풀려나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등을 역임하고 1586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1588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1591년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를 거쳐 이듬해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다. 그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산속으로 피신하였다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끄는 왜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때 뇌물로 풀려난 일이 탄로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그러나 류성룡의 변호로 복직되어 관직이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이르렀다. 김산동에 묘가 있다.

류윤창 柳允昌 ?~1647년(인조 2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백옥伯勳, 호는 금은琴隱이다.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색穉의 아들이다.

늦게 사마시에 합격하여 직장直長, 좌랑佐郎,

감찰監察의 내직과 개령·영덕·마전현감 등의 외직을 지냈다. 담백하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관직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권세가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 마찰도 있었으나 한결같았다고 한다. 김산동에 묘가 있다.

류의 柳誼 1734년(영조 1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의지誼이다.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선양善養의 아들이다.

1769년(영조 45)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78년(정조 2) 정언正言, 지평持平 등을 거쳐 홍문관에 들어갔다. 1780년과 그 이듬해에 강원·관서의 암행어사로 나아갔고, 1781년 실록청도청낭청實錄廳都廳郎廳이 되어 『경종개수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듬해에 병조참의兵曹參議, 1786년 대사간大司諫, 1789년 병조참판兵曹參判에서 2년 뒤에 다시 대사간大司諫으로 전임되었고 1797년 승지承旨, 이어 홍주목사洪州牧使로 나아가 관에 대한 백성의 경비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조정에 건의하여 탕감하였다. 김산동에 묘가 있다.

류익 柳益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벼슬이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이르렀으며,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되었다. 조리읍 오산리에 묘가 있다.

류익 柳益 생몰년 미상.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부모에 대한 극진한 효행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복시켜 이름난 효자로 칭찬이 자자하였다. 검산동에 묘가 있다.

류정수 柳正秀 1856년(철종 7)~?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1883년(고종 20) 전환국사사典圖局司事, 이듬해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다. 1894년 탁지아문참의度支衙門參議, 한성판윤漢城判尹을 거쳐 1895년에는 탁지부참서관度支部參書官과 회계국장會計局長, 사계국장司計局長을 역임하였다. 1897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1901년 양지아문기사원量地衙門記事員, 1903년 중앙은행창설위원, 그 이듬해 탁지부협판度支部協辦에 임명되어 종2품에 올랐다. 그 뒤 1905년 문관전고위원장文官銓考委員長, 금고관리장金庫管理長을 거쳐 1906년

에는 검사국장檢査局長과 건축소장을 겸임하였고 지방관전고위원·지방세조사위원을 지냈으며, 서훈3등과 팔괘장을 받았다. 1907년 탁지부차관과 각부 관계개정위원, 1908년 회계검사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검산동에 묘가 있다.

류철 柳澈 1741년(영조 17)~? 조선시대의 인물로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중연重衍의 아들이다. 태어나기 전에 부친이 돌아가자 홀어머니를 모시는 데 그 효를 다했다. 항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시도록 정성을 다하였고 식사와 의복에도 유념하였다. 남원부사南原府使로 외지에 나가 있는 형 홍泓을 모시러 어머니와 함께 그곳으로 가다가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당하였다. 난적들이 온 고을을 포위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산길을 헤매다가 어머니가 병을 얻었다. 이에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은 채 밤을 지새며 시병하였고, 자신이 어머니의 병을 대신하도록 주야로 하늘에 기원하였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연로하여 기력이 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레로 거행하여 아버지 묘에 합장하였고 산 위에서 밤낮으로 읍혈하다가

8일 만에 죽었다. 그 효행을 인정받아 영조 때 조정에서 효자지각을 건립하라는 명을 내렸다. 벼슬은 복야와 판관을 지냈다.

류태명 柳泰明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이 전주全州이다. 관직이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검경연참찬관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으로 그 효행이 만인의 사표師表가 되어 고종 19년(1882) 효자 정려旌闈가 내려졌다. 정려 효자각이 경기도 수원 시 금곡동에 위치한다. 김산동에 묘소가 있다.

류택남 柳宅南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자이다. 부모가 병이 들자 서울에서 고약을 구해 돌아오던 중에 황탄수黃灘水에서 표류하였다. 간신히 물에 당도하였으나 약을 잃어버려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어떤 사람이 자신이 표류하다 얻었다면서 잃어버린 고약을 전해 주었다. 이에 부모에게 시약하였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다. 또 부모가 기이한 병이 들었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두뇌수頭腦水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다 하였다. 그러나 그 약을 얻을 길이 없음에 통곡하면서

하늘에 기도를 드리자, 어떤 사냥꾼이 찾아와 해골의 위치를 알려주어 즉시 그 해골을 구해 부모에게 시약하니 병이 쾌유되었다고 한다.

민무질 閔無疾 ?~1410년(태종 10).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제齋의 둘째 아들이며, 태종 비 원경왕후元敬王后的 동생이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으로 책록되고,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는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으로 여성군驪城君에 봉해졌으며, 좌군총제左軍總制·우군도총제右軍都總制 등을 역임하고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7년 7월 형 무구無咎와 함께 어린 세자를 세우고 권력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힌 후 장단에 송치되었다가 공신녹권功臣錄券을 환수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은 후 대구를 거쳐 제주로 유배된 후 사사賜死되었다.

민신 閔伸 ?~1453년(단종 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호는 돈암豚菴이다.

문종 때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내고, 1453년(단종 1)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김종서 등과 함께 어린 단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왕위를 엿보고 있던 수양대군의 적이 되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그를 부사副使로 지목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따라가지 않았다. 그해 10월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등을 죽인 후 삼군진무三軍鎭撫 서조徐遭에 의하여 현릉顯陵(문종의 능) 비역碑役을 감동하던 중 살해되었다. 정조 때 관작이 회복되어 신원되었다. 삼중신三重臣이라는 예칭譽稱으로 불린다. 법원읍 동문리 월계단에 배향되었으며, 공주 동학사에 있는 숙묘전肅慕殿과 장릉莊陵 충신각忠臣閣에도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민암 閔黯 1636년(인조 14)~1694년(숙종 2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자는 장유長樞, 호는 차호叉湖이다. 아버지는 이조참판吏曹參判 응협應協이다.

1668년(현종 6)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지평持平·승지承旨·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를

역임하였다. 1679년(숙종 5) 고산찰방高山察訪 조지겸趙持謙이 당시의 함경도관찰사인 이원록李元祿이 역마驛馬를 탄다고 탄핵하였는데, 민암은 자기가 함경도관찰사 때의 현지 실정과 경험을 자세히 들어서 이원록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극구 변명하여 도리어 탄핵한 조지겸을 문초받게 하였다. 1678년 동지사겸변무부사冬至使兼辦誼副使 북평군福平君 연煙과 함께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에 귀국하였다. 그 뒤 이조참판吏曹參判을 거쳐 1680년 대사헌大司憲으로 있다가 파직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다시 대사헌에 기용되었으며, 이어 대제학大提學·병조판서兵曹判書를 역임하였고, 1691년 우의정右議政에 승진하였으며,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94년(숙종 20) 김춘택金春澤 등이 숙종의 폐비인 민씨를 복위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고변이 있자 남인의 영수이던 그는 훈련대장인 이의징李義徵과 함께 옥사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숙종이 도리어 남인을 쫓아내고 서인을 등용하는 갑술 옥사를 일으켜 민암은 대정大靜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곧 이의징과 더불어 사사되었다. 탄현면 금산리에 유허지가 있다.

민영달 閔泳達 1859년(철종 10)~?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호는 우당菴堂이다. 군수郡守 관호觀鎬의 아들이다.

1885년(고종 22) 증광문과에 병과에 급제하였고, 1892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거쳐 형조판서刑曹判書·예조판서禮曹判書·좌참판左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1894년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있다가 김홍집 내각의 내부대신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사직하였다.

그는 명성황후의 종형제로서 지혜가 있고 권략權略이 풍부하여 동족同族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당대의 정객인 이완용과 이윤용을 조종할 정도로 수완이 있었으며 이재理財의 재간도 뛰어났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대부분의 대신들이 청국에 구원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고 일본에 구원을 요청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910년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뒤 그에게 남작의 작위를 주려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1921년 동아일보사에 5,000원을 출자하기도 하였다. 교하읍 문발리에 묘가 있다.

박린 朴璘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무안務安이며, 자는 중온仲溫, 호는 남촌南村이다. 현령縣令 인호仁毫의 아들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후 음보로 익위翊衛가 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왕을 평양으로 호종해 검찰종사관檢察從事官이 되었다. 평양이 함락된 뒤 의주의 행재소行在所에서 군기시판관軍器寺判官이 되었으며, 군사를 따라 개성에 이르러 개성부도사開城副都事가 되어 전시의 격무에 시달리다가 49세로 병사하였다. 서예에 능하였고 산수·궁마弓馬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였다.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송천서원松泉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조리읍 오산리에 묘가 있다.

박명원 朴明源 1725년(영조 1)~1790년(정조 14). 조선 후기의 학자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희보晦甫, 호는 만보정晩葆亭이다. 아버지는 예조참판禮曹參判 사정師正이다.

1738년(영조 14)에 영조의 삼녀 화평옹주和平翁主에게 장가들어 금성위錦城尉에 봉하여졌으며 영조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처음에는 순의대부

順義大夫를 받았으나, 뒤에 유록대부_{綏祿大夫}에 승진되었다. 글씨를 잘 써서 나라에 경사나 슬픈 일이 있을 때면 금옥보책명정서관_{金玉寶冊銘旌書官}이 되었는데 모두 10여 차례에 이르렀다. 또한 1776년 이후 178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 정사로 파견되었다. 몸가짐에 절도가 있었으며, 검소하였고 풍류와 운치가 있었다. 묘는 파주읍 파주리 군부대 내에 있으며 화평옹주와 합장묘이다.

박봉령 朴鳳齡 1671년(현종 12)~1718년(숙종 44).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_{密陽}이며, 자는 공서_{公瑞}이다. 성익_{成翼}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부사_{府使} 서정리_{徐貞履}의 딸이다. 현감_{縣監} 민종로_{閔宗魯}의 딸과 혼인하였다.

1699년(숙종 25)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01년 검열_{檢閱}이 되었으며, 같은 해 가주서_{假注書}로 재임 중 경연석상에서 불경스러웠다는 이유로 추고 당하였다. 이후 여러 번 정언_{正言}에 올랐는데, 아전의 잘못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왕의 잘못을 강경하게 지적하는 등 활발한 언론 활동을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실록에 여러 번 기록

되어 있다. 1706년 도당록_{都堂錄}에 올랐으며 문학_{文學}이 되었다. 1707년 부수찬_{副修撰}·수찬_{修撰}이 되었으며, 이때 이유민_{李裕民}을 배척하여 왕으로부터 불경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듬해 경상도암행어사_{慶尙道暗行御史}로 나갔으며, 1710년 이후 헌납_{獻納}, 이조좌랑_{吏曹佐郎}, 이조정랑_{吏曹正郎}, 부교리_{副校理}, 교리_{校理}, 응교_{應敎} 등을 각각 여러 차례 역임하였다. 1716년 이후 전라도관찰사_{全羅道觀察使}, 승지_{承旨}, 이조참의_{吏曹參議}, 대사성_{大司成}, 예조참판_{禮曹參判}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묘는 탄현면 대동리에 있다.

박사정 朴師正 1683년(숙종 9)~1739년(영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_{潘南}이며, 초명은 사성_{師聖}, 자는 시숙_{時叔}이다. 동량_{東亮}의 증손이며, 필하_{弼夏}의 아들이며, 금성위_{錦城尉} 명원_{明源}의 아버지다.

1717년(숙종 4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722년(경종 2)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만형사익_{師益}이 소론의 훈맹_{勳盟}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정에서 쫓겨났다. 이에 그는 향리의 집에 은거하면서 몸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조가

즉위하여 노론이 득세하자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때 신임사회에 희생된 노론 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建命·이이명李爾命·조태채趙泰采 등 4대신의 사당 건립이 논의되었는데, 상신相臣들은 마땅히 4대신이 수명受命한 곳에 각각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그는 한 사당에 4대신을 함께 모실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홍문관에 들어가자 차자箚子를 올려 숙종 묘정에 배향된 소론 남구만南九萬·최석정崔錫鼎·윤지완尹趾完 등의 철향撤享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득세함에 따라 파직되었다.

1728년(영조 1)에 복직되어 부교리副校理가 되었으며, 사은사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경산현감慶山縣監·대사간大司諫·이조참의吏曹參議·도승지都承旨 등을 역임하고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승진하였지만, 소론 이광좌李光佐가 영의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끝내 사양하였다. 묘는 파주읍 봉서리 박응복 묘역에서 북서쪽 능선을 따라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박석명 朴錫命 1370년(공민왕 19)~1406년(태종 6).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천順

천이며 호는 이현顧軒이다.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가흥可興의 아들이다.

1385년(우왕 11) 문과에 급제하여 1390년(공양왕 2) 우부대언右副代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귀의군歸義君 왕우王瑀(공양왕의 아우)의 사위였던 관계로 7년간 은거하였다. 1399년(정종 1) 고려의 구신들이 등용되자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 기용되고 안주목사安州牧使를 거쳐 이듬해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정종이 태종에게 선위하자 그 교서를 가져가서 태종을 옹립하였다. 1401년(태종 1) 좌명공신佐命功臣 3등이 되고 평양군平陽君에 봉해진 뒤, 지신사知申事를 거쳐 1405년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듬해 함경도선위사咸鏡道宣慰使, 전라도도체찰사全羅道都體察使 등을 역임하였다.

그가 젊었을 때 정종과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데, 꿈에 누런 용이 옆에 있으므로 돌아다보니 이방원이었다. 그때부터 기이하게 여겨 서로 친구를 대하듯 더욱더 친근하게 지냈다. 이방원이 임금이 되면서 그의 충애를 받았으며 지의정부사, 판육조사判六曹事에 올랐다. 평소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깊었는데 특히 태종에게 황희

를 승지로 천거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군내면 점원리에 묘가 있다.

박세무 朴世茂 1487년(성종 18)~1554년(명종 9). 조선 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함양咸陽이며 자는 경번景蕃, 호는 소요당逍遙堂이다.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의羲의 증손이며 성균생원成均生員을 역임한 증검仲儉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학문에 힘써, 12세 때 성인의 풍도를 지녔다고 하며 만형 원충元冲을 따라 덕예를 닦았다. 1516년(중종 11) 사마시에 합격한 후 관직에 뜻이 없어 향리에 은거하며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에 힘썼다. 1531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에 들어간 후 성균관전적적成均館典籍과 관북지방의 막료로 근무하는 등 여러 벼슬을 거쳐 1538년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이 되었다. 이듬해 중추부경력中樞府經歷, 사헌부·사간원의 대간臺諫을 역임하고 사관이 되어 직필로 당시의 세도가인 김안로金安老의 미움을 사 마전군수麻田郡守로 좌천당했다. 이때 백성의 조세를 경감하고 부역을 균등히 하며 유망流亡을 막아 농업에 힘쓰게 하는 한편 재정을

충실히 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1544년(중종 39) 전적·승문원참교承文院參校, 이듬해 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을 역임하고 안변부사安邊府使로 3년간 재임하였다. 1548년(명종 3) 내자시정內資寺正을 거쳐 내섬시정內贍寺正, 군자감정軍資監正, 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을 역임한 뒤 지명으로 별세하였다.

선비로서 낙선호의樂善好義하고 부모와 형제에 대한 효행과 우의가 각별했으나 후사가 없었다. 글씨에도 능했으며, 말년에 당시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이기李愷가 불렀을 때 만나보지 않고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지어 자제들을 가르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동몽선습』은 『천자문千字文』을 끝낸 아이들에게 경학과 역사의 개요를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로 엮여져 조선 숙종 조 이래 전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사후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추증되고 괴산의 화암서원華巖書院에 배향되었다. 교하읍 다울리에 묘가 있다.

박세채 朴世采 1631년(인조 9)~1695년(숙종 21).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

이다. 아버지는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의궤이며, 어머니는 신흘申欽의 딸이다. 그의 집안은 명문 세족으로 증조부 응복應福은 대사헌大司憲을 지냈으며, 할아버지 동량東亮은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냈다. 박세당朴世堂, 박태유朴泰維, 박태보朴泰輔 등은 당내간의 혈족이며, 송시열의 손자 순석淳錫은 그의 사위이다. 이러한 가계와 처분에 따라 중요 관직에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였으며, 정치현실의 부침에 따라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1659년(효종 10) 천거로 익위사세마堀衛司洗馬가 되었는데, 5월에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 문제가 크게 거론되었다. 그는 3년설을 주장한 남인 계열의 대비복제설을 반대하고 송시열·송준길의 기년설非年說을 지지하여 서인측의 이론가적 인물이 되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기해복제 때 기년설을 주장한 서인의 여러 신하들이 추죄追罪를 받게 되었다. 이때 박세채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양근·지평·원주·금곡 등지를 돌며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도리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1680년(숙종 6) 다시 등용되어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知府使, 공조참판工曹參判, 대사헌大司憲, 이조판서吏曹判書 등을 거쳐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다. 1684년(숙종 10) 회니檄尼의 분쟁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의 대립과정에서 박세채는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을 발표하여 양편의 파당적 대립을 막으려 하였으나, 끝내는 소론의 편에 서게 되었다.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 이후에는 정계의 영수격인 송시열이 세상을 떠나고 서인 내부가 노론과 소론으로 양분된 상태였으므로, 박세채는 우의정右議政·좌의정左議政을 두루 거치며 소론의 영도자가 되었다. 그는 남구만·윤지완 등과 더불어 이이·성혼에 대한 문묘종사 문제를 확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동법의 실시를 적극 주장한 바 있다. 문묘文廟와 파주 자운서원에 배향되었다. 대표적 저술로 『범학전편範學全編』, 『시경요의詩經要義』, 『학법총설學法總說』, 『양명학변』, 『남계수필록南溪隨筆錄』 등이 있다. 광탄면 남계南溪에 택지가 있었으나 황해도로 옮겨 갔다.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박송질 朴崇質 ?~1507년(중종 2). 조선 전기 문

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중가仲嘉·중소仲素이다. 부윤府尹을 역임한 횡菴의 아들이다.

1457년(세조 3)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였고 내·외직을 거쳐 1490년(성종 21)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93년에는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정조사正朝使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빙자하여 사직하였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502년(연산군 8) 삼도입거도순찰사三道入居都巡察使가 되었고 1504년 우의정右議政, 1506년 좌의정左議政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는 연산군의 폭정이 절정에 달하여 벼슬을 버리고자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석 달 동안 조정에 나가지 않아 추문 당하였다. 중종반정 후 다시 등용되어 1507년(중종 2)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다. 시호는 공순恭順이다. 문산읍 당동리에 묘가 있다.

박연민 朴延敏의 처 **남평 문씨** 南平文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로 본관은 남평南平이다. 집에 도적이 침입하여 남편 박연민이 살해되자 장례를 치른 후 곧 따라 죽었다. 이에 정표를 받았다.

박영문 朴永文 ?~1513년(중종 8).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문무를 겸비하여 처음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한 후 무관으로 진출하였다. 연산군 말년에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유순정柳順汀 등이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을 옹립하려고 할 때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으로 군대 동원의 책임을 맡아 거사를 성사시켰다. 그 공으로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에 책록되고, 함양군咸陽君에 봉해졌으며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올랐다. 이듬해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 평시서제조平市署提調에 이르렀으나 대간의 탄핵을 받아 체직되었다. 1508년(중종 3) 다시 함양군에 봉해지고 이듬해에 삼포에서 왜변이 일어나자 도원수 유순정을 따라 왜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공조판서工曹判書에 특진되었다. 그러나 다시 대간의 계속적인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그러자 항시 자신을 배척하는 사류士類들에게 원한을 품고 신윤무의 집에 드나들면서 조정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마침내 1513년 신윤무 등과 무인들을 규합하여 성종의 열셋째 아들인 영산군寧山君 전손을 추대하고

무신난을 모의하려다가 의정부의 노비인 정막개鄭莫介의 고변으로 발각되어 처형되고 그 아들들도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다. 월릉면 도내리에 묘가 있다.

박영창 朴永昌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함양咸陽이며 아버지는 전한典翰 휘輝다.

1503년(연산군 9) 감찰監察로 있으면서 종친계후노비宗親繼後奴婢의 속공屬公에 반대하였고, 1505년 김포현령金浦縣令으로 있다가 내관內官과 족친族親으로서 궐내의 소문을 퍼뜨렸다 하여 파직되었다. 이듬해 증종반정이 일어나자 반정주동자의 한 사람이던 동생 영문永文의 권유에 따라 반정군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에 녹훈되고 천령군天嶺君에 책봉되어 관직이 목사牧使에 이르렀다. 1513년(중종 8) 동생 영문이 역모에 관련되어 죽음을 당하자 연좌되어 중죄인으로 몰려 훈적勳籍에서 삭제되어 유배되었다. 1522년 아들 유瑜의 호소로 죄가 풀려 방환되었으며, 왕이 공신녹권功臣錄까지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대간의 반대로 삭훈削勳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월릉면 도내리에 묘가 있다.

박은 朴崧 1370년(공민왕 19)~1422년(세종 4).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양지仰之, 호는 조은鈞隱이다. 고려 말의 학자인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상충尙衷의 아들이며, 이곡李穀의 외손이다. 전법판서典法判書 주언방周彦邦의 사위이며, 어효첨魚孝瞻의 장인이다.

문음으로 판승복도감사判崇福都監事를 받은 뒤, 1385년(우왕 11) 문과에 2위로 급제하여 권지전교시교감權知典校寺校勘·후덕부승厚德府丞을 거쳐 1391년(공양왕 3)에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 이듬해에 개성부소윤開城府少尹이 되었다.

조선이 개국한 뒤에도 지금주사知錦州事가 되어 고과考課에 정최政最의 성적으로 좌보궐左補闕에 사용되고, 1394년(태조 3)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있을 때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1397년 사헌시사司憲侍史를 거쳐 이듬해에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 때에는 지춘주사知春州事로서 이방원의 집권을 위하여 지방 군사를 동원하였다. 이어 사헌중승司憲中丞·판사수감사判司水監事를 지내고 1400년(정종 2) 지형조사知刑曹事로 있을 때 발생한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역시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웠

다. 그리하여 방원이 왕세자가 된 1400년에는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으로 그를 보필하고,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에 오른 뒤 1401년 태종의 즉위 후 중용되어 형조·호조·병조·이조의 4조 전서典書를 두루 역임하고, 좌명공신佐命功臣 3등으로 반남군潘南君(뒤에 潘城君)으로 봉하여졌다. 그 뒤 강원도도관찰출척사江原道都觀察黜拓使·한성부윤漢城府尹·승추부제학承樞府提學을 역임하고, 1406년(태종 6)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있을 때는 제주도의 동불銅佛을 구하러 온 명사明使를 예의로 잘 접대하여 칭송을 받았으며, 이듬해에 진향사進香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의정부참지사겸사헌부대사헌議政府參知事兼司憲府大司憲에 올랐다. 이어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가 1409년에는 서북면도순문찰리사겸평양부윤西北面都巡問察理使兼平壤府尹으로 평양성 축성을 마쳤다. 1412년에는 관향인 반남이 나주에 속하게 되어 금천군錦川君으로 개봉되었으며, 검판의용순금사사兼判義勇巡禁司事가 되어 옥무獄務의 신장정수訊杖正數를 1차 30인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형정제도를 시행하였고, 1414년(태종 14) 이조판서吏曹判書 때에는 고공考功 행정제도를 개선하였

다. 이듬해에는 47세의 나이로 우의정右議政이 되었으며, 이어 부원군으로 진봉되고 좌의정겸판이조사左議政兼判吏曹事에 올랐다.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될 무렵부터 심온沈溫과 대립하여 1418년(세종 즉위년) 심온의 옥사 때에는 심온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관여하였다는 세평을 듣고 있다. 1421년(세종 3) 병으로 좌의정을 사직하고 이듬해에 죽었다. 시호는 평도平度이다. 묘는 문산읍 당동리에 있으며 파주시 향토유적 제 25호로 지정되었다.

박응복 朴應福 1530년(중종 25)~1598년(선조 3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경중慶仲, 호는 줄현拙軒이다. 아버지는 사간司諫 소紹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南陽洪氏로 사부士府의 딸이다.

1549년(명종 4) 사마시에 합격하고, 1564년 식년 문과을과에 급제하였다.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춘추관봉교春秋館奉敎, 전적典籍, 감찰監察, 예조좌랑禮曹佐郎, 병조좌랑兵曹佐郎, 정언正言, 지평持平, 헌납獻納, 장령掌令, 사간司諫, 집의執義, 성균관사에成均館司藝,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등을

역임하였다. 동서분당이 되어 당쟁이 일기 시작하자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힐 생각도 하였으나, 1577년(선조 10) 다시 관계에 나와 집의, 동부승지同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공조참의工曹參議, 호조참의戶曹參議를 거쳤다.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있을 때 당시 병조판서이이李珣를 배척하는 상소가 받아들여지고 지지하는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본 뒤 사직하였다. 1589년(선조 22)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제수되어 대사헌大司憲, 호조참판겸동지의금戶曹參判兼同知義禁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조참판겸부총관禮曹參判兼副總管으로서 왕을 호종하였고, 의주의 행재소行在所에서 대사간大司諫·공조참판工曹參判을 지냈다. 1593년 왕을 호종하고 환도하던 중 해주에 이르러 병으로 인하여 뒤에 떨어졌다가, 1595년 왕비를 호종하여 환도한 뒤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서 왕비를 호종하고 수안까지 가서 이듬해 그곳에서 병으로 죽었다. 묘는 파주읍 봉서리 봉서산 중턱에 있다.

박종발 朴宗發 1654년(효종 5)~1704년(숙종 30). 조선 중기 무신으로 본관은 함양咸陽이며, 초명은 경태慶泰, 자는 이능而能이다.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된 상경尙綱의 아들이다.

윤증尹拯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1681년(숙종 7) 무과에 올라 중추원도사中樞院都事에 제수되었다. 1696년 홍덕현감으로 나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직하여 정사를 깨끗이 하였다. 그 뒤 내직으로 들어가 도총부都總府와 비변사의 낭관郎官이 되고 1700년 창원대도호부사昌原大都護府使로 나가 민폐를 혁파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다. 이어 순천영장에 임명되었으나 창원읍민의 간청으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내금위장內禁衛將으로 발탁되었다. 죽은 뒤 25년이 지나 아들 찬신欒新의 공으로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助功臣, 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세자이사,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에 증직되고 함풍군咸豐君에 봉해졌다. 법원읍 갈곡리에 묘가 있다.

박중손 朴仲孫 1412년(태종 12)~1466년(세조 1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密陽이

며 자는 경윤慶胤, 호는 묵재默齋이다. 찬성사贊成事 강생剛生의 손자이고,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 절문切問의 아들이다.

1435년(세종 1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집현전박사集賢殿博士가 되고, 부수찬副修撰·지제교知製敎를 거쳐 사인舍人, 집의執義, 지병조사知兵曹事, 동부승지同副承旨, 도승지都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와 김종서 등을 제거한 공으로 정난공신靖難功臣 2등에 책록되고, 응천군凝川君에 봉해지면서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세종의 아들로 영빈 강씨令嬪姜氏 소생인 사위 화의군和義君 영릉이 수양대군을 반대하다 귀양 가게 되어 한때 난처한 입장에 빠졌으나, 이어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임명되었다. 그 뒤 대사헌大司憲, 공조·이조·형조·예조의 판서判書를 거쳐 밀산군密山君으로 개봉改封되었다. 세조 초에 좌찬성에 승진되었고 세 차례에 걸쳐 고시관이 되어 많은 인물을 등용시켰다. 시호는 공효恭孝이다. 묘는 탄현면 오금리에 있으며 묘역 내 장명 등이 보물 제1323호로 지정되었다.

박춘남 朴春南 생몰년 미상. 노비 출신이나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짐에 단지한 효행으로 특별히 정표되었다.

박태보 朴泰輔 1654년(효종 5)~1689년(숙종 15).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재定齋이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세당世堂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현령縣令 남일성南一星의 딸이다. 당숙인 세후世壘에게 입양되었다.

1677년(숙종 3)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典籍을 거쳐 예조좌랑禮曹左郎으로 임명되었을 때 당인의 모함을 받아 선천宣川으로 귀양 갔다가 1680년(숙종 6) 수찬修撰으로 복직되었다. 이조좌랑吏曹左郎으로서 암행어사가 호남지방을 순회하면서 숙폐宿弊를 적발·시정하고 혁신하니 그곳 사람들이 참 어사라고 칭송하였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킬 때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왕의 노여움을 샀으나, 끝내 굽히지 않아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珍島로 귀양 가는 도중 노량진에서 젊은 나이로 죽었다. 한때 파주목사坡州牧使를 지낸 바 있다. 시호는 문렬公文烈公이다.

박필건 朴弼健 1671년(현종 12)~1738년(영조 14).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경운(景運)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태상(泰尙)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나 질병으로 공부에 힘쓸 수 없어 과거를 포기하였다. 1710년(숙종 36) 음보로 영소전참봉(永昭殿參奉)이 되고, 1713년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를 거쳐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다. 그 뒤 청양현감, 정산현감 등을 지냈으나 번번이 병으로 사직하였다. 이듬해 해주판관을 지내고 남원부사(南原府使)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1724년 이조전랑인 조문명(趙文命)의 천거로 선산부사가 되었다. 1728년 선산부사로 있을 때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우방장으로서 거창에서 반란군을 격파하여 정희량(鄭希亮), 이웅보(李熊輔) 등 반란군의 거물들을 죽였다. 그 공으로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이 되어 금릉군(鎭陵君)에 봉해졌다. 1729년 부총관이 되고 이듬해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지냈다. 1731년 곡산부사가 되어 부임하기도 전에 관사가 불탔으나, 관사를 다시 짓는 일에 농사일에 바쁜 백성을

동원하지 않아 칭송을 듣기도 하였다. 1734년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이 되고 이어 삼화부사(三和府使)를 지냈으며 1737년에는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이르렀다. 그는 공신으로 책봉되었으나 자신의 공훈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당론과 사치가 나라와 집안을 망치는 고질이라고 보고 유언을 남겨 자녀들을 경계시켰다. 사후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양정(襄靖)이다. 적성면 자장리에 묘가 있다.

박필기 朴弼琦 1677년(숙종 3)~1757년(영조 33).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치규(稚圭), 호는 무취옹(無臭翁)이다.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에 오른 태창(泰昌)의 아들이다.

1702년(숙종 28)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724년(영조 즉위년) 목릉참봉(穆陵參奉)을 지낸 뒤 이듬해 장흥고봉사(長興庫奉事)를 지냈다. 1727년 증광시에 합격한 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예조·병조좌랑, 양사의 지평(持平)·헌납(獻納)·장령(掌令)·사간(司諫)·집의(執義), 춘방문학(春坊文學)·보덕(輔德), 성균관사(成均館司成), 봉상시정(奉常寺正)·종부시정(宗簿寺正)·장악원정(掌樂院正), 병조참지(兵

曹參知 등을 역임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봉조하겸지제교奉朝賀兼知製敎, 비국랑備局郎 등을 지냈다. 1756년 나이 80에 이르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고 이듬해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랐다. 파주읍 부곡리에 묘가 있다.

박훤 朴萱 1406년(태종 6)~1487년(성종 18). 조선 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시조인 고려시호장공高麗時戶長公 응주應珠의 6대손으로 문정공文正公 상충의 후손이며 좌의정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의 아들이다.

1454년(단종 2) 음직으로 진무鎮撫를 거쳐 1468년(예종 즉위년)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올라 정조사正朝使로 표문表文을 가지고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73년(성종 4) 사감司監을 거쳐 1476년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냈다. 1487년 사망하자 영의정겸영경연사領議政兼領經筵事가 추증되었다. 문산읍 당동리 산 62번지에 묘가 있다.

배홍식 裒弘湜 생몰년 미상. 1428년(세종 10) 예조에서 전국의 저명 효자孝子·순손順孫·절부節婦를 찾아내어 보고한 중에 장단의 효자로 기록

된 인물이다. 그 내용을 보면 “경기 장단 사람 유학 배홍식은 모친이 죽으니 3일간을 먹지 않다가 대렴을 하고 나서야 죽을 먹었으며, 3년간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 거적자리에서 토막을 베고 지냈고, 춥고 더운 날이나 비오는 날에도 무덤 곁에서 모시기를 날이 마치도록 하여, 그 동내 어귀에 정문旌門을 세워 효행을 표시하였는데, 그 부친이 죽어서는 애통해 하고 파리한 모습에 전의 모친상 때보다 더하였다”고 하였다.

백기진 白岐鎭 부부 생몰년 미상. 파주 출신으로 처 강씨와 함께 천생지효天生之孝를 보였다. 부모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백방으로 시약하는 한편 대변의 맛을 보아 병세를 가늠하였다.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러 여러 날을 연명시켰으며 또 겨울에 계를 구하여 먹으면 효험을 볼 것이라는 의원의 말에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얼음을 깨고 계를 구하여 어머니께 바치는 효행을 보였다.

백동준 白東俊 1724년(경종 4)~1792년(정조 16).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자

는 자홍子弘이다. 사밀師謚의 아들이다.

1752년(영조 28)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고 이듬해 무과에 합격한 뒤 1755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특진되었다. 외직으로 순천군수順天郡守, 홍주목사洪州牧使, 영변대도호부사寧邊大都護府使를 지내고 전라도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 경기도수군절도사京畿道水軍節度使,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내직으로는 훈련원도정겸오위도총부부총관訓練院都正兼五衛都總府副總管 등을 지냈다. 법원을 갈곡리에 묘가 있다.

백시구 白時耆 1649년(인조 27)~1722년(경종 2). 조선 후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자는 덕로德老이다. 원진元振의 아들이다. 적성 사곡社谷에서 태어났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다가 1680년(숙종 6)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1684년 선전관宣傳官이 되어 북로北路의 봉수烽臺를 조사하여 허술한 곳을 수축하게 하였다. 이어 초계군수草溪郡守가 되어서는 교육정책에 힘썼으며, 1708년 황해도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

度使가 되었다. 1717년 함경도병마절도사咸鏡道兵馬節度使를 거쳐,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를 지냈다. 절도사로 있을 때 군기들을 잘 수선하여 갖추어 두고 병사 훈련에 힘쓰며 국방에 주력하였다.

경종이 즉위하고 김일경金一鏡 등이 정권을 잡으면서 노론을 몰아낼 때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평안도병마절도사로 있을 때 기로소耆老所에 백금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 일로 반대파에 의하여 옥에 갇히고 문초를 받았다. 김일경·목호룡睦虎龍 등은 신임사화가 일어날 때 이를 기회로 김창집金昌集의 죄상을 조작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문에 단호히 불복하였다. 결국 고문에 못 이겨 옥사하였다. 1741년(영조 17) 영조가 임인옥안壬寅獄案을 불태우고 탕평책을 쓸 때 그의 관직을 복구하고 몰수하였던 재산도 후손에게 돌려주었으며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추증하였다. 저서로는 『충장부군시고忠莊府君詩稿』 1책이 있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백유함 白惟咸 1546년(명종 1)~1618년(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수원水原이

며 자는 중열仲悅이다. 대사헌大司憲 인걸仁傑의 아들이다.

1570년(선조 3) 진사進士가 되고, 1576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고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승진하였으나 이이가 죽고 조정에 당쟁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용인龍仁에 내려가 제자들을 가르쳤다. 1589년 정여립의 모반사건 때 서울로 돌아와 헌납獻納이 되고, 이어 이조정랑吏曹正郎을 거쳐 검상檢詳·사인습人을 지냈다. 1591년 정철 등 서인이 몰려날 때 경흥慶興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풀려나와 왕을 의주로 호종하고 직제학直提學에 임명되었다가 명나라 군사의 군량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1594년 동부승지同副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를 역임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호군護軍으로 명나라 관리 정응태丁應泰를 맞았으며, 일본과의 강화를 의논하다가 이이첨의 탄핵을 받고 부안扶安에 유배流配되었다가 고향 용인龍仁에 방환放還되었다. 1617년(광해군 9) 신원되어 개성開城에서 사망하였다. 월롱면 덕은리 용주서원에 아버지 백인걸과 함께 배향되었다.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에 묘가

있다.

백인걸 白仁傑 1497년(연산군 3)~1579년(선조 12).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으로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자는 사위士禱, 호는 휴암休菴이다. 아버지는 왕자사부王子師傅 익건益堅이다.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파주 월롱면 아가산峨柯山 아래 택지가 있었다.

조광조의 문인으로 김안국金安國에게도 학문을 배웠다. 송인수宋麟壽·유희춘柳希春·이이李珣·성혼成渾 등 당대의 사림계 인물들과 널리 교류하였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비분강개하여 금강산에 들어가 지내다가 돌아와 153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37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기묘 사림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오랫동안 성균관에 머물다가 이듬해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으며, 이때 예문관의 관리가 이조吏曹 인사 행정의 잘잘못을 기록하는 옛 관습을 복구하여 실행하였다. 예조좌랑禮曹佐郎을 거쳐 남평현감南平縣監이 되었는데 이때 근무를 성실히 하였으며, 특히 학당學堂을 세우고 학장學長을 두어 교육에 힘쓴

공로로 품계가 높아졌다. 1541년에는 홍문록弘文錄에 올랐다.

1545년(인종 1) 지평持平을 거쳐 호조정랑戶曹正郎이 되었으며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하였다. 같은 해 명종 즉위 뒤 윤원형尹元衡 등이 대비인 문정왕후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尹任·유관柳灌 등을 제거할 때 헌납獻納으로 있으면서 대비 밀지密旨의 부당함을 들어 극력 반대하다가 대비의 명으로 파직되고 옥에 갇혔으나 정순봉鄭順朋·최보한崔輔漢 등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그 뒤 1547년(명종 2) 양재 벽서 사건을 기화로 소윤小尹 세력이 대운大尹의 잔존 세력과 사림계 인물들을 재차 축출할 때 연루되어 안변安邊에 유배당하였다. 1551년 사면되어 고향에 돌아간 뒤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정주학程朱學의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였다.

1565년 윤원형이 몰락하자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로 등용되어 이듬해 사도시첨정司鑾寺僉正·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을 지냈다. 1567년 양주목사楊州牧使가 되었을 때는 공납의 폐단을 개혁하는 등의 치적을 쌓아 고을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선조가 즉위한 뒤 1568년(선조 1) 기대승奇大升의 건의로 특별히 뽑혀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공조참의工曹參議·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하고 뒤에 병조참판兵曹參判, 공조참판工曹參判 등을 지냈다. 1568년에는 인순왕후의 수렴청정에 반대하는 소를 올림으로써 오래지 않아 철렴撤簾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조광조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다.

조정에 분당의 조짐이 나타나자 이준경李俊慶의 의견을 좇아 당론을 잠재우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히려 의심을 사서 1571년(선조 4) 파주로 퇴거하였다. 그 뒤 우참찬右參贊에 제수되었으나 소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1579년(선조 12)에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있으면서 이이李珣와 함께 다시 동서 분당의 폐단을 논하고 진정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인을 편든다는 공격을 받았다. 그 밖에도 국경의 상황을 논하여 군비를 닦을 것을 주장하는 등 국정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나이가 든 뒤에도 성리학에 대한 탐구를 열심

히 하였으며 이이·성혼 등과 더불어 학문을 익히고 토론하였다. 기묘사화 뒤 명종 때까지 계속되는 훈구세력의 발호에 맞서 사림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며, 특히 1545년(인종 1) 을사사화 때에는 일신을 돌보지 않고 윤원형의 음모에 대항한 것은 후대에 길이 칭송되었다. 선조 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파평면 늘노리의 파산서원坡山書院과 월릉면 덕은리의 용주서원에 배향되었으며, 남평의 봉산서원蓬山書院 등에도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휴암집』이 전한다. 인조 때 충숙忠肅의 시호를 받았으나 뒤에 문경文敬으로 고쳐졌다.

변이태 邊以泰 생몰년 미상. 효성이 지극하여 인조가 호조판서戶曹判書 벼슬을 내리고,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변취징 邊就徵 생몰년 미상. 이태以泰의 손자로 효행이 두드러져 숙종이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의 벼슬을 내리고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봉석주 奉石柱 ?~1465년(세조 11). 조선 초기 무신으로 본관은 하음河陰이며 자는 군보君輔, 호는 서관墅觀이다. 활을 잘 쏘아 명궁으로 알려졌으며 격구는 당대에 제일이었다고 한다.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김종서 등 단종 추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계유정난 때 공을 세워 정난공신靖難功臣 2등에 책록되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가 되면서 강성군江城君으로 책봉되었다. 1456년(세조 2)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가 되고 이듬해 도진무都鎭撫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됨이 탐욕스럽고 혹독하여 고리대금으로 치부하였다고 하며, 또한 벌목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수많은 철못을 가지고 산골짜기에 올라가 몰래 나무에 못을 박게 하고 뗏목이 흘러내리는 강어귀에 가서 기다리다 자기 나무라고 우겨대며 증거로 못을 찾아내어 함부로 빼앗았다고 한다. 1460년 전라도처치사全羅道處置使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행상호군行上護軍으로서 전라도처치사 재임 시절 선군船軍 30명으로 하여금 황원곶목장黃原畝牧場의 묵은 땅을 경작하게 하여 면화 74석 6두를 거두어 횡령한

것이 문제가 되어 탄핵을 받았다. 또한 전라수사로 있을 때에는 군졸들로 하여금 여러 섬에 참깨와 면화 등을 심게 하고 그 수확을 착복하여 그의 창고는 국고나 다름없이 많은 곡식과 재물로 가득 찼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 난신들의 처첩을 공신에게 나누어 노비로 삼을 때 그중에서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첩으로 삼는 등 비리를 일삼았다고 한다. 그는 탐욕과 흑독함 때문에 1464년 의금부에 갇혔으나 곧 풀려났다. 그러나 이듬해 역모죄로 몰리어 김처의 金處義, 최윤 崔潤 등과 같이 주살당하고 훈작과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 1495년(연산군 1) 자손들의 상소로 죄가 씻기고 훈작인 강성군을 회복하였다. 또 선조 때 훈안 勳案을 증수할 때 이름이 오르게 되고, 1794년(정조 18) 자손들의 상소로 시호를 청하여 허락되었다. 적성면 객현리에 묘가 있다.

상득용 尙得容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장단 출신이다. 본관은 목천 木川이며, 자는 약능 若能, 호는 덕옹 德翁이다. 영의정 진 震의 후손으로 동기 東耆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 守門將이 된 뒤 선전관 宣傳官, 훈련원판관 訓練院判官, 화랑진첨사 花梁鎭僉使 등을 역임하였다. 무인으로서 독서를 즐겨 『육도 六韜』, 『손자 孫子』, 『무자 武子』 등 병서에 해박하였고, 경사 經史에도 밝았으며 천문·주수 籌數에 두루 능하였다. 말년에는 고향에 돌아가 제자 양성에 노력하여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다. 저서로 『성루합편 星漏合編』, 『동국산천고 東國山川攷』, 『주행통보 周行通譜』, 『속장감續將鑑』, 『제자수영 諸子髓英』, 『동인가곡 東人歌曲』 등이 있다.

서명서 徐命瑞 1711년(숙종 37)~1795년(정조 19).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 達城이며, 자는 백오 伯五, 호는 만옹 晩翁이다. 이조판서 吏曹判書에 추증된 종준 宗峻의 아들이다.

음보로 벼슬에 올라 1763년(영조 39) 의령현 宜寧縣監, 1784년(정조 8) 첨지중추부사 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이후 자헌대부 資憲大夫에 올라 지중추부사 知中樞府事에 도총관 都總管을 겸하였다. 저서로는 『만옹집 晩翁集』이 있다. 시호는 정간 貞簡이다. 파주읍 향양리에 묘가 있다.

서명선 徐命善 1728년(영조 4)~1791년(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자는 계중繼仲, 호는 귀천歸泉·동원桐源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 종옥宗玉의 아들이다.

1753년(영조 29) 생원이 되고, 1763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초수超授되었는데, 다음 날 왕의 특명으로 교리校理가 되었다. 1764년 홍문관 관원들이 올린 상소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홍낙명洪樂命 등 8명과 함께 갑산부에 일시 유배되었다. 그러나 곧 재기용되어 지평持平, 헌납獻納, 부교리副校理, 풍산만호豊山萬戶, 응교應敎 등을 역임하였다. 1767년에는 지제교知製敎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우등하여 말을 하사받았고, 중시重試에서 병과로 급제하기도 하였다. 이후 부교리·승지를 거쳐 1769년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으나 삼촌이 피체되자 연루되어 체직되었다. 이어서 이조참의吏曹參議, 대사성大司成, 대사헌大司憲, 승지承旨, 부제학副提學을 역임하고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다.

1775년(영조 51)에 일시 한직에 밀려났으나 세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하는 홍인한洪麟漢 일파

를 탄핵하여 세손의 대리청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크게 노력하였다. 이때의 공으로 세손에 의해 발탁되어 예조판서禮曹判書,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정조가 즉위하자 더욱 중용되어 수어사守禦使·총융사摠戎使를 겸임하여 군사권까지 장악하였고, 우참찬右參贊·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를 거쳐 1777년(정조 1)에 우의정, 다음해에 좌의정 그 다음해에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1783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고 1791년(정조 15)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죽었다. 그는 영조 중반까지는 은인 자중하여 크게 현달하지 못했으나 영조 말년에는 세손의 대리청정을 위해 진력한 결과 정조에 의해 중용되었다. 처음 시호는 충헌忠憲이었으나 정조가 후에 충문忠文으로 바꾸었다. 진동면 동파리에 묘가 있다.

서문중 徐文重 1634년(인조 12)~1709년(숙종 3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成이며, 자는 도운道潤, 호는 몽어정夢魚亭이다. 남원부사南原府使 정리貞履의 아들로 당숙인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 원리元履에게 입양되었다.

1657년(효종 8)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1673년(현종 14)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다. 그 뒤 계속 승진하여 청도군수·이천부사·상주목사를 역임하고, 1680년(숙종 6)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당상관에 올랐다. 다음 해 광주부윤廣州府尹이 되어 남한산성 수축에 힘쓰고 1682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제수되었으나 너무 빨리 승진한다는 말이 있어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 호조참판戶曹參判을 거쳐 경상도관찰사가 되어서 재판을 공정히 하는 데 크게 노력하였으며 백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군액을 감하자고 건의하였다. 그 뒤 예조참판禮曹參判, 도승지都承旨, 좌윤左尹, 공조참판工曹參判을 거쳐 1686년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어 군량미 비축에 힘쓰고 다음 해 형조판서刑曹判書 겸 종묘宗廟·빙고氷庫의 제조提調가 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세력이 득세할 때 우참찬右參贊으로 재직하다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났다. 이듬해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오고 경주부윤慶州府尹과 강릉부사江陵府使를 역임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득세하자 병조판서겸지의금부사

兵曹判書兼知義禁府使로 등용되었으나 희빈 장씨 및 남인에 대한 징계 문제에 온건론을 주장하다 조정에서 배척받아 금천衿川으로 퇴거하였다. 그 뒤 박세채의 건의에 의하여 서용되어 훈련대장訓練大將·형조판서刑曹判書·병조판서兵曹判書를 역임하였다. 1695년에서 이듬해까지 기근 구제사업에 공을 세우고 1698년 우의정右議政에 올랐으며 같은 해 청나라에 파견되어 세자 책봉을 요청하였다.

1699년(숙종 25)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고 1701년(숙종 27)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호위대장을 겸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소론 입장이었고, 군사제도와 그 운영에 밝았으며 기근 구제사업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지리적 사정과 군사적 사정을 정리하여 『해방지海防誌』를 엮었고, 의정부에 재직할 때에는 각 지방의 성지城池, 토전土田, 호구戶口, 곡물, 전함, 봉수, 진보鎭堡, 우역郵驛, 군대 등을 조사하여 『군국총부軍國總簿』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그 밖에도 조선시대의 여러 고사를 엮은 『조야기문朝野記聞』를 비롯하

여 『상제례가범喪祭禮家範』, 『역대재상연표歷代宰相年表』, 『국조대신연표國朝大臣年表』, 『병가승산兵家勝算』, 『동인시화東人詩話』 등의 많은 저서를 남겼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다. 군내면 읍내리에 묘가 있다.

서유구 徐有榘 1764년(영조 40)~1845년(헌종 11).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자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吏曹判書 호수浩修이며, 어머니는 김덕균金德均의 딸이다. 주로 장단과 서울에서 살았다.

1790년(정조 14)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검열檢閱과 대교待敎를 거쳐 대사성大司成, 형조판서刑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 부제학副提學, 이조판서吏曹判書, 우참찬右參贊, 대제학大提學 등의 내직과 순창군수淳昌郡守, 의주부윤義州府尹, 강화유수江華留守, 전라감사全羅監司 등의 외직 등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는 제자백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에 심취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해동농서海東農書』를 지은 아버지

의 영향을 받아 농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농서를 저술함으로써 농민의 생활 향상에 일조하였다. 1798년(정조 22) 정조는 영조가 적전籍田을 직접 경작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농서農書를 올리라는 윤음綸音을 내렸다. 이때 순창군수로 있던 그는 각 도에 농학자를 두어 농업 기술을 조사·연구하도록 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농서를 편찬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서는 실제 농사를 짓는 곳에서 실험과 결과를 통해 책을 저술하자는 그의 주장에서 이용후생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1834년 전라감사로 있을 때는 흉년으로 고생하는 농민을 위해 강필리姜必履의 『감저보甘藷譜』, 김장순金長淳의 『감저신보甘藷新譜』 등을 연구하여 『종저보種藷譜』를 저술함으로써 구황식물인 고구마를 재배하여 기근을 탈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꾸준히 농업 기술의 개혁과 정책 변화를 건의하였고, 저술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농업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완성하였다. 이 책은 당시에 나와 있던 국내의 여러 농서들

과 중국 문헌 등 800여 종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으로 18세기 말 조선 농업의 실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업적이다. 『난호어목지 蘭湖魚牧志』, 『누판고 鑊板考』, 『행포지 杏浦志』, 『금화경독기 金華耕讀記』 등과 음악 관련 서적 『유예지遊藝志』를 저술하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묘는 진서면 금능리의 선영 아래에 있다.

서일수 徐日修 1685년(숙종 11)~?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자는 신지新之이다. 명순命純의 아들이다.

55세의 늦은 나이로 진사에 합격하였고, 관직은 충주목사忠州牧使에 이르렀다.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다. 장단면 도라산리에 묘가 있다.

서종태 徐宗泰 1652년(효종 3)~1719년(숙종 45).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자는 군망君望, 호는 만정晩靜·서곡瑞谷·송애松厓이다.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지낸 문상文尙의 아들이며 영의정領議政을 역임한 문중文重의 조카이다.

1675년(숙종 1) 생원시에 장원급제하고 1680년 문과별시에 급제하였다. 이듬해 검열檢閱이

되어 실록청도청낭청實錄廳都廳郎廳으로 『현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오두인吳斗寅, 박태보朴泰輔 등과 소를 올리고 은퇴하여 저술에만 전념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다시 관직에 나와 승지承旨, 대사간大司諫, 대제학大提學, 공조판서工曹判書,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하였다. 1703년 정조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이조판서吏曹判書,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거쳐 1716년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가 되었다. 저서로 『만정당집晩靜堂集』이 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장단면 도라산리에 묘가 있다.

성간 成侃 1427년(세종 9)~1456년(세조 2).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화중和仲, 호는 진일재眞逸齋이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염조念祖의 아들이며, 유방선柳方善의 문인이다.

1441년(단종 1) 증광문과에 급제한 후 전농직장典農直長·수찬修撰을 거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 그는 경사經史는 물론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도 두루 섭렵

하였다. 특히 시부詩賦에 뛰어나 「궁사宮詞」, 「신설부仲雪賦」 등을 남겼으며, 패관문학에 속하는 「용부전備夫傳」은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저서로는 『진일재집眞逸齋集』이 있다. 문산을 내포리에 묘가 있다.

성개成概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평중平仲, 호는 수헌睡軒이다. 대제학大提學에 오른 석용石瑤의 아들이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태종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올라 시강관侍講官을 지내고 경기도도관찰출척사京畿道都觀察躡步使를 거쳐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가 되었다. 이후 병조참판겸홍문관직제학兵曹參判兼弘文館直提學에 이르렀다. 문장과 서법에 능하여 일찍이 위공魏公 14소疏를 초사草寫하였는데 후에 어신御宸에서 감상되었다고 한다. 파평면 두포리에 묘가 있다.

성근成謹 1490년(성종 21)~1550년(명종 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신지愼之이다.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세명世明의 아들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에 올라 벼슬이 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事에 이르렀다. 문산을 내포리에 묘가 있다.

성달생成達生 1376년(우왕 2)~1444년(세종 26).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효백孝伯이다.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 석용石瑤의 아들이다.

1390년(공양왕 2) 생원시에 급제하고 문음으로 벼슬에 나갔다. 1400년(정종 2) 2월 낭장郎將 재직 때 평소부터 그를 총애하였던 왕세제王世弟 정안군靖安君의 천거로 호군護軍에 처음 제수되었고, 1402년(태종 2) 조선시대 처음으로 실시된 무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고 대호군大護軍에 승진되었다.

1407년 흥덕진병마사興德鎭兵馬使로서 그곳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고, 1410년 무과증사에서 2등으로 급제하여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에 승진하였으며, 응무시위사첨절제사雄武侍衛司僉節制使, 판성주목사判星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 1415년 경성절제사鏡城節制使로 파견되어 뛰어난 무

예로 야인을 다스리고, 다음 해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總制가 되었다. 1417년 전라도도관찰사겸 병마도절제사全羅道都觀察使兼兵馬都節制使, 1418년(세종 즉위년) 동지총제同知總制를 거쳐 내금위 삼번절제사內禁衛三番節制使가 되었다. 그런데 상왕上王과 세종이 모화루慕華樓에서 명나라 사신을 전송할 때 별운검총제別雲劍總制의 직책상 패검佩劍하고 세종을 시위한 일로 세종으로부터 상왕의 면전에서 패검한 무례를 질책 받고 파직되었다가, 같은 해 함길도병마도절제사겸판길주목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兼判吉州牧使로 파견되면서 복직되었으나, 곧 강상인姜尙仁 옥사에 연루되면서 자원안치自願安置되었다가 상왕의 가용지재可用之才라는 배려로 사면되었다.

1419년(세종 1) 중군총제中軍總制에 사용되었고, 같은 해 대마도 정벌과 관련되어 전라·경상·충청도 수군도처치사水軍都處置使에 제수되었으나 승선을 꺼려 무단히 하륜한 일로 논죄된 뒤 연산에 유배되었다가 곧 사면되면서 다시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總制에 사용되었다. 1420년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를 다녀온 뒤 경상우도수군도절제사慶尙右道水軍都節制使, 경상우도수군도

안무처치사慶尙右道水軍都按撫處置使, 좌군총제左軍總制를 거쳐, 1422년 평안도 여연間延에 침입한 야인의 격퇴를 위하여 특별히 평안도도관찰사주안도都觀察使로 파견되었으나 다음 해 관내의 기민을 구휼하지 못하였다고 논죄되면서 파직되었다.

1424년 다시 총제總制에 사용되었고, 다음 해에는 다시 평안도도절제사로 파견되었으며, 1427년(세종 9) 공조판서로 입조하였다가 진응사進應使가 되어 두 번째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그 뒤 도총제都總制, 함길도병마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등을 역임하였다. 1444년(세종 26) 안질을 치료하기 위하여 충청도 초수리椒水里에 행행行幸한 세종을 수가隨駕하다가 갑자기 죽었다. 능숙한 무예로 북변의 진수와 시위에 공헌함이 많았고, 필법에 뛰어났다. 시호는 양혜襄惠이다. 법원음 금곡리에 묘가 있다.

성담수 成聃壽 ?~1456년(세조 2). 단종을 위하여 수절한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이수耳叟, 호는 문두文斗이다. 아버

지는 교리校理 희燾이며, 성삼문成三問의 재종제이다. 천성이 조용하고 담박하여 세간의 명리에 욕심이 없었다.

1456년(세조 2) 성삼문 등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실패하여 처형되자, 그의 아버지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연좌되었다가 3년 뒤에 풀려나서 공주로 돌아왔으나 충분忠憤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이 일에 충격을 받아 벼슬을 단념하고 선영이 있는 파주의 문두리에서 몽구정을 짓고 은거하였다. 단종 복위와 관련된 죄인의 자제에게는 전례에 따라 참봉 벼슬을 제수하여 그들의 거취를 살폈는데,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직역職役에 복무하였으나, 그는 끝내 벼슬하지 않고 시와 낚시질로 소일하였다.

1782년(정조 6)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남효온南孝溫 등과 함께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추증되고, 세상에서 김시습·이맹전李孟專·원호·조려趙旅·남효온·성남수를 생육신이라 일컬어 함안의 서산서원西山書院에 함께 봉향하였다. 창녕의 물계서원勿溪書院에 성송국成松國, 성삼문, 성수침成守琛, 성운成運, 성제원成悌元, 성훈成渾

등 성씨 일문의 여러 현인들과 함께 배향되었다. 시호는 정숙靖肅이다. 파평면 두포리에 묘가 있다.

성대영 成大永 1829년(순조 29)~?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현감縣監을 지낸 원호元鑄의 아들이다.

1858년(철종 9) 진사가 되었다. 1877년(고종 14) 무장현감茂長縣監 재임 시에는 전라우도암행어사 어윤중魚允中으로부터 근무 성적이 좋다는 평을 받았다. 1885년 증광문과의 갑과로 급제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을 지냈다. 그 뒤 이조참의吏曹參議,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대거승지對舉承旨, 관세사장管稅司長,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역임하였으며 1902년에는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독옥보관讀玉寶官, 장례원경掌禮院卿, 부모도감제조祈廟都監提調를 지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문산읍 내포리에 묘가 있다.

성문잠 成文潛 1595년(선조 28)~1688년(숙종 14).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자약子躍, 호는 외암畏庵이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백栢의 아버지이다.

어려서는 행동이 조심스러웠으며, 자라서는 용기 있고 지혜가 뛰어났다. 세상 사람들이 이인異人이라 불렀는데, 한때 천문지리를 배워 갑주甲舟에 은둔하였다고 한다. 성리학에 전념하였으며 말과 행동이 예의에 벗어남이 없어 이귀李貴, 이정구李廷龜, 이성중李誠中 등이 모두 그를 따랐다고 한다. 90세에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に 제수되었다. 파평면 늘노리 금강동에 묘가 있다.

성문준 成文濬 1559년(명종 14)~1626년(인조 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중심仲深, 호는 영동永同·창랑滄浪이다. 좌참찬左參贊 혼渾의 아들이다.

1585년(선조 18) 사마시에 합격하여 연은전참봉延恩殿參奉·세마洗馬를 지냈다. 아버지가 무욕諷辱을 당하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임천林泉에서 14년간 은거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뒤 사포司圃를 거쳐 영동현감永同縣監을 역임하였다. 박학한 학자로서 글씨도 잘 썼다. 파산

서원 서편 경현단과 창녕의 물계서원勿溪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태극변太極辨』, 『홍범의洪範義』, 『창랑집滄浪集』이 있다. 군내면 읍내리에 묘가 있다.

성백 成栢 1634년(인조 12)~1720년(숙종 46).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자덕子德, 호는 증봉甞峯이다. 외암畏庵 문잠文潛의 아들이고 노서魯西 윤선거尹宣舉의 문하생이다.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첨지중추부사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가 되었고 후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되었다. 성리학에 밝았으며 특히 『주역周易』에 주력하였다. 저서로 『가록家錄』 5권이 전한다. 파평면 두포리 방학동에 묘가 있다.

성삼문 成三問 1418년(태종 18)~1456년(세종 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 아버지는 도총관都總管 승勝이며, 어머니는 현감縣監 박침朴樞의 딸이다. 사육신의 한 사람이며, 파주 수정봉 서쪽 덕내곡에 서당 터가 있었다.

1438년(세종 20) 생원으로 식년문과에 급제

하고 1447년 문과증시에 장원한 후 집현전학사 集賢殿學士·수찬修撰 등을 역임했다. 그 후 왕명으로 신숙주와 함께 『예기대문언두禮記大文諺讀』를 편찬하고 경연관經筵官이 되어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1442년 박팽년·신숙주·하위지·이석정 등과 삼각산 진관사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고, 한글의 창제를 위해 정음청正音廳에서 정인지·최항·박팽년·신숙주·강희안·이개 등과 함께 요동에 유배되어 있던 명나라의 한림학사翰林學士 황찬黃瓚에게 13번이나 내왕하면서 음운音韻을 질의하고 다시 명나라에 건너가 음운 연구를 겸하여 교장教場 제도를 연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1446년 9월 29일 훈민정음訓民正음을 반포케 했다.

1455년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예방승지禮房承旨로서 박팽년 등과 단종 복위를 협의했으나 모의에 가담했던 김질金質의 밀고로 이개·하위지·유응부 등과 함께 체포되어 친국親鞫을 받고 군기감軍器監 앞에서 거열형車裂刑을 받았다. 이어 아버지도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극형에 처해졌고 세 동생과 갓난아기를 포함한 네 아들도 모두 살해되었다.

1691년(숙종 17) 신원되고, 1758년(영조 34)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1791년(정조 15) 단종충신어정배식록端宗忠臣御定配食錄에 올랐다. 장릉莊陵(단종의 능) 충신단忠臣壇에 배향되었으며, 영월의 창절사彰節祠, 서울 노량진의 의절사義節祠, 공주 동학사東鶴寺의 숙모전肅慕殿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성근보집成謹甫集』이 있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성석용 成石瑒 ?~1403년(태종 3),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자옥白玉, 호는 회곡檜谷이다.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여원汝完의 아들이며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석린石璘의 아우이다.

고려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시대에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비롯하여 대언代言, 지신사知申事, 밀직부사密直副使, 밀직제학密直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 건국에 공이 있어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권을 받았다. 벼슬은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개성유후開城留後,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에 이르렀다. 사람됨이 순박하고 맑으며 말이 없이 벼슬에 마음을 다하여 봉직하였다고

하며 글씨를 잘 썼다고 한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파평면 두포리에 묘가 있다.

성세명 成世明 1447년(세종 29)~1510년(중종 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여희(如晦), 호는 일로당(佚老堂)이다. 아버지는 좌참찬(左參贊) 임인이며, 어머니는 군사감주부(軍資監主簿) 허말석(許末石)의 딸이다.

1468년(세조 14) 사마시를 거쳐 1475년(성종 6)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483년 정언(正言)을 지내고 공조좌랑(工曹佐郎)·지평(持平)·전한(典翰) 등을 역임하고, 1489년 왕명으로 경기지방에 암행어사로 나아가 농작의 상태를 조사하고 돌아와 이듬해 집의(執義)에 올랐는데, 이때 인사 부정을 묵인하였다 하여 홍문관의 탄핵을 받고 물러났다. 1493년(성종 24) 전한으로 복직되어 임광재(任光載) 등 외척의 횡포를 견제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듬해 부제학(副提學)이 되어서는 시무책을 제시하여 토지와 공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을 중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1495년 연산군이 즉위하자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여러 대군(大君)과 상궁(尙宮)의 복호를 파할 것을 주장하고

이어 병조참지(兵曹參知)가 되어 폐비 윤씨의 추존을 강경히 반대하였다. 그 뒤 동부승지(同副承旨)·좌승지(左承旨)·도승지(都承旨) 등을 역임하고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로 체직되었다가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형조참판(刑曹參判) 등을 거쳐, 1504년(연산군 10)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나 갑자사화로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으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진향사(進香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연산군에게 명나라 황제는 경연에 부지런히 임한다고 말하였다가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다시 검지춘추관사(兼知春秋館事)가 되어 『연산군일기』를 수찬하였고, 1508년(중종 3)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다. 시호는 평안(平安)이다. 문산읍 내포리에 묘가 있다.

성세순 成世純 1463년(세조 9)~1514년(중종 9).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태순(太純)이다. 김포현령(金浦縣令)을 지낸 충달(忠達)의 아들이다.

1492년(성종 23) 병신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한성부참군(漢城府參軍)을 거쳐 세자시강원사(世子侍講院司書), 형조정랑(刑曹正郎), 홍문관부교리(弘

文館副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1497년(연산군 3)에 교리校理가 되었고 그 뒤 응교應敎, 전한典翰, 동승부지同副承旨, 대사간大司諫, 우승지右承旨, 사간司諫, 대사성大司成 등을 거쳤다. 이때 연산군이 형벌을 남발하여 무고하게 해치자 간관으로서 이를 과감하게 직간하였다. 1505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 명나라에 성절사로 다녀왔다. 증종이 즉위한 뒤에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대사헌大司憲, 공조참판工曹參判,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호조참판戶曹參判, 형조참판刑曹參判, 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민첩하고 국량局量이 넓었으며 조그만 허물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호는 사숙思肅이다. 파주읍 향양2리에 묘가 있다.

성세창 成世昌 1481년(성종 12)~1548년(명종 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번중蕃仲, 호는 돈재遯齋이다. 예조판서禮曹判書 현현의 아들이며,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이다.

1501년(중종 2)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임용되었다. 이어 저작

著作·박사博士로 승진되었고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지냈다. 1509년 이조정랑吏曹正郎이 되었으나 인사 행정의 불공정한 처사로 서반西班으로 복직되어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등 삼사三司의 요직을 거쳤고, 그 뒤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으로서 천문이습관天文肄習官을 겸임하였다. 1517년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으로 있을 때 조광조 등이 현량과를 실시하려 하자, 그 폐단을 지적하고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1519년(중종 14) 정국이 위태롭게 되어 가자 평소에 친하였던 김정신淨·이자李穡·김수온金守溫의 의기를 충고하고 자신은 신병을 이유로 파주의 별장에 거처하면서 화를 피하였다. 1521년(중종 16) 다시 홍문관직제학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다. 이어서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임명되었고 주문사奏聞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으나 관하 선산군수善山郡守가 여악女樂을 설치한 것이 빌미가 되어 탄핵을 받고 일시 파직되었다. 그 뒤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등을 역임하

였다. 정광필鄭光弼이 영의정이 되면서 예조참판 禮曹參判·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어 기묘사화에 죄를 입은 사람들을 등용시키는 데 힘썼다.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를 거쳐 1530년 대사헌大司憲·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있으면서 권신權臣 김안로金安老를 논척論斥하려다가 도리어 평해에 유배되었으나 1537년 김안로와 그 일당이 숙청되면서 귀양에서 풀려나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형조판서刑曹判書·이조판서吏曹判書·대사헌·예조판서禮曹判書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잠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있다가 곧 형조판서가 되었고 이어서 예조판서·호조판서戶曹判書·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에 올랐다. 1545년(인종 1) 좌찬성左贊成을 거쳐 우의정으로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좌의정으로 임명되었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영경연사領經筵事·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등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을사사화가 일어나 윤임尹任 등이 숙청되고 윤원형尹元衡 등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 좌천되었고 마침내 황해도 장연長淵으로 귀양 갔다가 죽었

다. 선조 때 복작되었다.

필법에 뛰어났고 글씨·그림·음률에 정통하여 3절三絶이라 불렸다. 저서로 『돈재집遜齋集』, 『식료찬요食療纂要』가 있으며, 글씨로는 파주의 성이현여완갈成怡軒汝完碣과 성지사세명묘비成知事世明墓碑, 경기도 광주의 부사정광보묘비府使鄭光輔墓碑와 이집의수언묘비李執義粹彦墓碑, 용인의 정포은갈鄭圃隱碣, 홍주의 민대사헌휘비閔大司憲碑, 익산의 소자파표蘇自破表 등이 있다. 묘는 문산읍 내포리 성현 묘역 뒤에 있다.

성수종 成守琮 1495년(연산군 1)~1533년(중종 28).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숙옥叔玉이다.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한 세순世純의 아들이며 수침守琛의 동생이다.

조광조의 문인으로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는데 이때 김구金鉉, 김식金湜, 조광조 등이 시관試官이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어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가 몰려나자 그의 문인이라 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아 과방科榜에서 삭제되었다. 그 뒤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초시에 여러

변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을 버리고 청빈하게 살았다. 기질이 영특하고 기골이 장대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19세에 부친상을 당하여서는 3년 동안 시묘하면서 자신은 죽으로 끼니를 이으면서도 매일 세 차례 상식上食을 올렸다. 사후 직제학直提學에 추증되었고, 물계의 세덕사世德祠와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절효節孝이다. 파주읍 향양리에 묘가 있다.

성수침 成守琛 1493년(성종 24)~1564년(명종 19).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중옥仲玉, 호는 청송聽松·죽우당竹雨堂·파산청은坡山淸隱·우계한민牛溪間民이다.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세순世純의 아들이며 수종守琮의 형이다.

조광조의 문인으로 1519년(중종 14)에 현량과에 천거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처형 또는 유배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청송聽松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두문불출하였다. 이때부터 과거를 포기하고 『대학』과 『논어』 등 경서 공부에 전념하였다.

1541년 유일遺逸로서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처가가 있는 우계牛溪에 은거하였다. 1552년(명종 7) 내자시주부內資寺主簿·예산현감禮山縣監·토산현감兎山縣監·적성현감積城縣監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1564년(명종 19) 사지司紙에 임명되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지낼 수 없을 지경으로 가난하여 사간원의 상소로 국가에서 관곽棺槨과 미두米豆와 역부役夫를 지급하여 주고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추증하였으며 후에 다시 좌의정左議政에 추증되었다.

그는 기묘사화 이후 은일隱逸을 일삼고 산간에 묻혀 자기 수양에 힘쓰며 대의명분과 요순堯舜의 지치至治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학풍을 몸소 실천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아들 혼渾을 비롯한 많은 석학들이 배출되었다.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과 물계의 세덕사世德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청송집聽松集』이 있으며, 방참판유령묘갈方參判有寧墓碣 등의 글씨가 남아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파평면 늘노리에 택지가 있었다. 묘는 파주읍 향양리에 있으며 아들인 우계 성혼

의 묘가 동쪽 위에, 동생 성수종의 묘가 남서쪽 아래에 있다.

성순 成詢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신경愼卿이다. 좌의정左議政을 역임한 세창世昌의 조카이다. 1538년(중종 33)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올라 관찰사觀察使를 지냈다. 문산읍 내포리에 묘가 있다.

성순호 成順鎬 1820년(순조 20)~1894년(고종 31). 조선 말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공육孔六이다. 재순載淳의 아들로 참판參判 재창載昌에 입적되었다. 무과에 장원급제하였고 벼슬이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に 이르렀다. 파평면 장파리에 묘가 있다.

성엄 成揆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좌찬성左贊成 석린石璘의 아들이며 중추원지사中樞院知事를 지낸 염조念祖의 아버지이다.

음사로 예안현감禮安縣監을 지내고 1400년(정

종 2)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지평持平, 각 조의 정랑正郎을 거쳐 승지承旨, 좌우군동지총제左右軍同知總制, 경기·강원·황해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어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지내고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に 이르렀으나 1433년(세종 15) 병으로 사직하였다. 사후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에 봉하여졌으며, 시호는 공도恭度이다. 문산읍 내포4리에 묘가 있다.

성염조 成念祖 1398년(태조 7)~1450년(세종 3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자경子敬이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지낸 엄揆의 아들이며 공조판서工曹判書 현현의 아버지이다.

1414년(태종 14) 진사시에 오르고 1419년(세종 1)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감찰監察, 정언正言, 지평持平을 거쳐 이조·예조의 정랑正郎을 역임하고 장령掌令, 집의執義를 지낸 후 승정원의 동부승지同副承旨·도승지都承旨를 거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올랐다. 후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잠시 지내고 병조·형조참판을

거쳐 한성부판사漢城府判事,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에 올랐으나 말년에 병으로 사임하고 중추원지사中樞院知事에 임명되었다.

성품이 관대하고 사소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겉과 속이 한결같았다고 한다.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세종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나 절제가 부족하여 정상도감사 때에는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재산을 모으는 데 힘을 써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시호는 공혜恭惠이다. 문산읍 내포4리에 묘가 있다.

성은석 成殷錫 1678년(숙종 4)~1753년(영조 29).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성뢰聖賚이다.

1717년(숙종 43)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가선대부행전라병사嘉善大夫行全羅兵使를 지내고 아장亞將에 이르렀다. 적성면 객현리에 묘가 있다.

성의석 成義錫 1666년(현종 7)~1738년(영조 1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

는 방숙放叔, 호는 지분암知分庵이다. 중추부사中樞副使를 지낸 지행至行의 아들이다.

통정대부행경기전참봉通政大夫行慶基殿參奉을 지냈으며 뒤에 둔령부도정敦寧府都正에 이르렀다. 사후 가선대부이조참판嘉善大夫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파주읍 향양리에 묘가 있다.

성이호 成彝鎬 1817년(순조 17)~1895년(고종 32). 조선 말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순오淳五이다. 재순載淳의 아들이다.

생원시에 합격한 후 1852년(철종 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55년 도당록都堂錄에 오르고 1857년 전라우도암행어사全羅右道暗行御使를 거쳐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教를 지냈다. 1864년(고종 1)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듬해에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1866년에는 이조참판吏曹參判을 거쳐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을 역임하였다. 1872년 사은부시謝恩副使로 정사 박규수朴珪壽, 서장관 강문형姜文馨과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에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1876년 이조참판, 1882년 예방승지禮房承旨를 거쳐 예조판서禮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형조판

서刑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동지검사은정사冬至兼謝恩正使가 되어 부사 박정양朴定陽과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 1885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내고, 1888년에는 자경전慈慶殿상량의 현판 서사관書寫官이 되었다. 시호는 정헌貞憲이다. 적성면 장파리에 묘가 있다.

성임成任 1421년(세종 3)~1484년(성종 1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중경重卿, 호는 일재逸齋·안재女齋이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염조念祖의 아들이다.

1438년(세종 20) 사마시에 합격하고, 144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제수되었다. 곧이어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로 특진되었으며,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와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 뒤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을 거쳐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를 역임하면서 『국조보감國朝寶鑑』 편찬에 참여하였다.

1458년(세조 4) 문신당하관정시에 수석으로 합격,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서 당상관에 올랐다. 이듬해에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옮겼다가

곧 승정원으로 옮겨 기밀사무를 취급하면서 동부승지同副承旨에서 도승지都承旨로 올랐다. 1461년(세조 7) 세조의 특별한 신임으로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제수되어 인사행정과 함께 악학도감제조樂學都監提調를 겸하여 음률의 정비에 힘썼고, 회주사回奏使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듬해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옮겼다가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거쳐, 1464년(세조 10)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나가서 민정과 군정을 다스리며 사냥을 즐기다가 의금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내직으로 옮겨 형조참판刑曹參判·인순부윤仁順府尹을 역임하며 『경국대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1466년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겸하고 사법에 참여하였다. 곧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옮겨 인사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인사행정에 기여하였으나, 인사 부정이 있다고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1469년(예종 1) 친상으로 사임하였다가 1471년(성종 2) 공조판서工曹判書로 다시 부임하여 이듬해 명나라 황태자 책봉사冊封使로서 연경에 다녀왔다. 그 뒤 신숙주의 추천으로 성균관에서 후

진 양성에 이바지하였고, 이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를 역임하고, 1482년(성종 13) 좌참찬^{左參贊}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재직 중 병사하였다.

성품이 활달하고 식견이 풍부하며 글씨와 시문이 뛰어났다. 송설체^{松雪體}의 대가로 해서·행서를 특히 잘 썼으며, 글씨로는 원각사비^{圓覺寺碑}, 한계미묘비^{韓繼美墓碑}, 최항신도비^{崔恒神道碑} 등이 있고, 경복궁 전문^{殿門}의 편액과 왕실의 사경^{寫經} 등 국가적 서사^{書寫}를 많이 하였다. 시문에 능하여 읍시에 일가를 이루었다. 일찍이 중국의 『태평광기^{太平廣記}』를 모방하여 고금의 이문^{異聞}을 수집하여 『태평통재^{太平通載}』를 간행하였다. 문집으로 『안재집^{安齋集}』이 있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문산읍 내포리에 묘가 있다.

성자제 ^{成子劑} 1515년(중종 10)~1573년(선조 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언공^{彦功}, 호는 송재^{松齋}이다. 예조판서^{禮曹判書} 현외의 증손이고, 좌의정^{左議政} 세창^{世昌}의 손이며, 감찰^{監察} 해평의 아들이다.

해서^{楷書}에 뛰어나 1562년(명종 17) 서예에 능

한 사람을 뽑아 글씨를 시험할 때 포의^{布衣}로서 1등을 했다. 1563년 알성문과 병과를 급제했고 그 후 성균관사에^{成均館司藝}에 이르렀다. 글씨로 파주의 성허백현묘비^{成虛白倪墓碑}, 성안동근묘비^{成安東謹墓碑}가 있다. 묘는 문산읍 내포^{4리} 선영에 있다.

성정호 ^{成鼎鎬} 1811년(순조 11)~1877년(고종 14).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중삼^{重三}이다. 판서^{判書}에 증직된 재순^{載淳}의 아들이며 이호^{彝鎬}와 형제간이다. 순조 때 영릉참봉^{寧陵參奉}을 지내고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진주목사^{晉州牧使}를 거쳐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이르렀다. 파주읍 향양리에 묘가 있다.

성준 ^{成俊} 1436년(세종 18)~1504년(연산군 10).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파주에서 살았다.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시좌^{時佐}이다. 중추원사^{中樞院事}를 지낸 엄봉의 손자이며 참판^{參判} 순조^{順祖}의 아들이다.

1458년(세조 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469년(성종 10)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

었다. 1481년 이조참의吏曹參議, 우부승지右副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다음 해에 우승지右承旨, 형조참판刑曹參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을 지냈다. 1486년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를 거쳐 1488년 대사헌大司憲, 이조판서吏曹判書, 우참찬右參贊을 역임하였다. 1490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평안도절도사平安道節度使로 부임하여 북정부원수北征副元帥로서 도내에 침입한 야인을 정벌하였다. 1495년(연산군 1) 병조판서兵曹判書, 우찬성右贊成을 거쳐 1498년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렀다. 이듬해 삼수군三水郡에 재차 야인들이 침입하자 서정장수西征將帥가 되어 이들을 토벌하였다. 우의정으로 있을 때 연산군에게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열독을 권하기도 하였고, 1500년에는 좌의정左議政으로서 영의정 한치형韓致亨, 우의정 이극균李克均과 함께 「시폐 10조時弊十條」를 올려 연산군의 난정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503년 영의정에 올라 세자사世子師를 겸하였으나 갑자사화 때 성종의 비 윤씨 폐위와 사사에 관여했다는 죄로 직산에 유배되었고 나중에 교살되었다. 중종 때 복관되었으며 시호는 명숙明肅이다. 묘는 양주

에 있다.

성준영 成俊永 1837년(헌종 3)~1901년.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만수萬秀이다. 벼슬이 통정대부돈령부도정通政大夫敦寧府都正에 이르렀다.

성지묵 成志默 생몰년 미상.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를 섬겼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삶아 드렸고, 상을 당하자 3년간 모를 지키면서 정성을 다하였다.

성지선 成至善 1636년(인조 14)~1693년(숙종 1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파주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여중汝中, 호는 제안재제安齋이다. 현령縣令을 지낸 희적熙積의 아들이다. 윤선거尹宣舉, 윤증尹拯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72년(현종 13)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참봉參奉이 되었고,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남평현감南平縣監을 거쳐 1686년(숙종 12) 진위현령振威縣令을 지냈다. 그 뒤 두 스승이 노론의 영수 송시열

과 대립하고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격화되자 사직하였다. 대학자로 명성을 떨쳤고 향리인 파주에 돌아와 독서와 경학 연구로 여생을 보냈다. 남평의 봉산서원蓬山書院에 배향되었다. 문산읍 내포리에 묘가 있다.

성지행 成至行 1580년(선조 13)~1665년(현종 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파주에서 살았다.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여경汝敬, 호는 매곡梅谷이다. 첨정僉正을 역임한 희주熙胄의 아들이다.

효심이 지극하고 어른을 공경하였으며 문박하고 필체가 정밀하였으나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하여 문음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협현현령峽縣縣令으로 있을 때 정치를 공평하게 처리하여 태평관부太平官府라 부르기도 하였다. 뒤에 향리로 돌아와 청계聽溪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하였다. 나이 80에 이르러서도 책을 놓지 않았으며,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파주읍 향양리에 묘가 있다.

성직 成稷 1586년(선조 19)~1680년(숙종 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자교子喬, 호는 매변梅邊·정옹鼎翁이다. 좌참찬左參贊을 지낸 혼渾의 손자이며 현감縣監을 지낸 문준文濬의 아들이다.

1649년(인조 27) 양근군수楊根郡守, 1652년(효종 3) 안산군수安山郡守, 1664년 선공감첨정繕工監僉正을 지냈다. 1665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에 오르고, 1675년(숙종 1)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어려서부터 어질고 후덕하였으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이었으며 글씨를 잘 썼다. 시호는 정혜靖惠이다. 적성면 객현리에 묘가 있다.

성필영 成弼永 1855년(철종 6)~1906년. 조선 말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경량景良이다. 무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벼슬이 통정대부행오위장通政大夫行五衛將에 이르렀다. 파평면 늘노리 사락동에 묘가 있다.

성항 成恒 1539년(중종 34)~1606년(선조 3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문숙文叔이다. 부사府使를 지낸 자항子沆의 아

들이다.

임진왜란 때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녹훈된 뒤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를 지냈다. 문산읍 내포리에 묘가 있다.

성현 成愼 1439년(세종 21)~1504년(연산군 10).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경숙(馨叔), 호는 용재(龍齋)·부휴자(浮休子)·허백당(虛白堂)·국오(菊塢)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염조(念祖)이다.

1462년(세조 8) 식년문과에,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각각 3등으로 급제하여 박사(博士)로 등용된 뒤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를 역임하고 대교(待敎) 등을 거쳐 사록(司錄)에 올랐다. 1468년(예종 즉위년) 경연관(經筵官)이 되고, 예문관수찬(藝文館修撰)·승문원교검(承文院校檢)을 역임하였다. 형인 성임을 따라 북경에 갔는데, 가는 길에 지은 기행시를 엮어 『관광록(觀光錄)』이라 하였다. 1474년(성종 5)에 지평(持平)을 거쳐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이 되고, 이듬해 한명회(韓明澮)를 따라 재차 북경에 다녀와 1476년(성종 7)에 문과증시에 병과로 급

제하여 부제학(副提學)·대사간(大司諫) 등을 지냈다. 1485년(성종 17)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간, 대사성(大司成), 동부승지(同副承旨), 형조참판(刑曹參判),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등을 역임하였다. 1488년에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있었는데, 조서를 가지고 온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과 왕창(王敞)의 접대연에서 시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을 탄복하게 하였다. 같은 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사은사가 되어 다시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1493년(성종 24)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나갔다. 그러나 음물에 정통하여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를 겸하였기 때문에 외직으로 나감으로써 불편이 많아지자 한 달 만에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제수되었다. 이해 유자광(柳子光) 등과 당시의 음악을 집대성하여 『악학궤범(樂學軌範)』을 편찬하였다. 한편 성종의 명으로 고려가사 중 「쌍화점(雙花店)」, 「이상곡(履霜曲)」, 「북전(北殿)」 등의 표현이 노골적인 음사(淫辭)로 되었다고 하여 고쳐 썼다. 또한 관상감(觀象監), 사역원(司譯院), 전의감(殿醫監),惠民서(惠民署)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그곳에 딸린 관원들

을 종전대로 문무관의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연산군 즉위 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된 뒤 대제학大提學을 겸임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용재총화龍齋叢話』를 저술하였다. 죽은 뒤 수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했으나 뒤에 신원되었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허백당집虛白堂集』, 『악학궤범』, 『용재총화』, 『부휴자담론浮休子談論』 등이 대표적 저서들이다. 시호는 문대文戴이다. 묘는 문산을 내포리에 있다.

성혼 成渾 1535년(중종 30)~1598년(선조 31).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호원浩原, 호는 묵암默庵·우계牛溪이다. 현감縣監 수침守琛의 아들로 서울 순화방順和坊(지금의 순화동)에서 태어났으며, 경기도 파주 우계에 서 거주하였다.

1551년(명종 6) 생원·진사의 양장兩場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복시에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해 겨울에 백인걸白仁傑의 문하에서 『상서尙書』를 배웠다. 1554년 같은 고을의 이이李珣와 사귀게 되면서 평생지기가 되

었으며, 1568년(선조 1) 이황李滉을 만나 깊은 영향을 받았다.

1568년(선조 1) 2월 경기감사 윤현尹鉉의 천거로 전생서참봉典牲署參奉에 임명되고, 이듬해에 목청전참봉穆淸殿參奉·장원서장원掌苑書掌苑·적성현감積城縣監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조헌趙憲 등 사망에서 모여든 학도들의 교훈에 힘썼다. 그는 「서실의書室儀」 22조를 지어 벽에 걸어놓고 학생을 지도하였으며,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주자朱子의 글을 발췌하여 읽히기도 하였다. 1572년(선조 5) 여름에는 이이와 9차에 걸쳐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을 논하였다.

1573년 2월 공조좌랑工曹佐郎에, 7월 장원掌苑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으며, 12월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다. 과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현관憲官에 임명되기는 기묘사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이는 이이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모두 사임하였다.

1575년 6월 지평持平으로 불려 상경하였으나 병으로 사체辭遞하니 선조는 의원을 보내어 약

을 지어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공 조좌랑工曹佐郎·지평 등을 제수하였으나 사임하고 본가로 돌아가니 선조는 그의 체임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지평, 예빈시판관禮賓寺判官, 장흥고주부長興庫主簿, 종묘서령宗廟署令, 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 장령掌令,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 등으로 계속 불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1581년(선조 14) 정월 종묘령宗廟令으로 체임되었으나 귀향을 허가받지 못하였다. 2월 사정전思政殿에 등대登對하여 학문과 정치 및 민정에 관하여 진달하였으며, 왕으로부터 급록이 아닌 특은特恩으로 미곡을 하사받았다. 3월에는 장령掌令에서 내섬시첨정內贍寺僉正으로 전직되었다. 내섬시첨정·풍저창수豐儲倉守를 역임하면서 선정전宣政殿에 등대하였으며, 특별히 경연에 출입하도록 명을 받았다. 그 뒤 전설사수典設司守, 충무위사직忠武衛司直에 제수되었다. 그는 경연석상에 서나 상소로 계속 퇴귀退歸를 청하였다. 그해 연말에 선조의 윤허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582년(선조 15) 다시 집의執義, 사옹원정司饔院正, 사재감정司宰監正 등으로 불렸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이듬해 특지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하여 병조참지兵曹參知로, 이어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전직하여 은대銀帶를 하사받았는데, 이는 이이가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으면서 상경을 권유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곧 이조참판吏曹參判에 특배되었다. 이러한 그의 관계 진출은 이이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이가 죽자 사귀辭歸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맡았으며, 그해 7월 파산으로 돌아와 사직소를 올렸으나 겸직만 면하고, 12월 경기 감사를 통해 내린 식물食物을 사급 받았다.

1585년 정월 찬집당당상纂集廳堂上으로, 5월에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불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 문준文濬에게 국난에 즈음하여 죄척지신罪斥之臣으로서 부난赴難할 수 없는 그의 처신을 밝히고, 안협安峽, 이천伊川, 연천連川, 삭녕朔寧 등지를 전전하면서 피난하다가 세자가 이천에서 주필駐蹕하면서 불러 전삭녕부사 김궤金潰의 의병군중義兵軍中에서 군무를 도왔으며, 8월에는 개성유수 이정형李廷馨의 군중에서 군무를 도왔고, 성천成川의 분조에서 세자를 배알하고 대조大朝(선조가 있는 곳)로 나갈 것을 청하였다. 그가 성천을 떠나 의주로 향했다

는 말을 듣고 대조에서 그를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특배하였다. 그는 의주의 행조行朝에서 우참찬右參贊직을 받고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편의시무 9조便宜時務九條」를 올렸으며, 이어 대사헌大司憲·우참찬右參贊을 지냈다.

1593년에 잦은 병으로 대가가 정주·영유永柔·해주를 거쳐 서울로 환도할 때 따르지 못하였고, 특히 해주에서는 중전을 유호留扈하였다. 1594년(선조 27) 석담정사石潭精舍에서 서울로 들어와 비국당상備局堂上·좌참찬左參贊에 있으면서 「편의시무 14조」를 올렸으나 이 건의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무렵 명나라는 군대를 전면 철군시키면서 대외 강화를 강력히 요구해 와 그는 영의정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명나라의 요청에 따르자고 건의하고, 또 허화완병許和緩兵을 건의한 이정암李廷龜을 옹호하다가 선조의 미움을 받았다. 이에 그는 용산으로 나와 갈해소乞骸疏를 올리고, 그 길로 사직하여 연안의 각산角山에 우거하다가 1595년(선조 27) 2월 파산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윤방尹昉·정사조鄭士朝 등이 부난赴難의 취지로 상경하여 예궐할 것을 권하였지만, 죄가 큰 죄

인으로 엄견嚴譴을 기다리는 처지임을 들어 대죄하고 있었다. 저서로는 『우계집牛溪集』 6권 6책, 『주문지결朱門旨訣』 1권 1책, 『위학지방偽學之方』 1책이 있다.

그가 죽은 뒤 1602년(선조 35) 기축옥사와 관련되어 삭탈관직 당했다가 1633년(인조 11) 추증되었으며, 문간文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681년(숙종 7) 문묘에 배향되었고, 1689년 한 때 출향黜享되었다가 1694년(숙종 20) 다시 승무陞廡되었다. 제향 서원으로는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 여산礪山の 죽림서원竹林書院, 창녕의 물계서원勿溪書院, 해주의 소현서원紹賢書院, 함흥의 운전서원雲田書院 등이 있다. 그의 묘는 파주읍 향양리에 있다.

성희成熿 생물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용회用晦, 호는 인재仁齋이다.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개漑의 아들이며 생육신 담수聃壽의 아버지이다.

학식·덕망·효행으로 천거되어 한성부참봉漢城府參奉에 제수되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교리承文院

校理에 올랐다. 『세종실록』과 『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56년(세조 2) 단종 복위 기도에 가담한 혐의로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해로 귀양 간 지 3년 만에 풀려났으나 병으로 사망하였다. 사후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었고 창녕의 물계서원勿溪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인재집仁齋集』이 있다. 파주읍 향양리에 묘가 있으며 월릉면 영태리에 택지가 있었다.

송거신 宋居信 1369년(공민왕18)~1447년(세종 29).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전법판서典法判書 첨詹의 아들이다.

태종 비 원경왕후元敬王后와 인척이 되는 인연으로 태종의 잠저潛邸 때부터 후대를 받았다. 별장別將을 거쳐 호군으로 있을 때 이방원李芳遠(훗날의 태종)을 따라 사냥을 나갔다가 선불리 건드린 표범이 이방원에게 달려드는 것을 결사적으로 때려잡아 그를 구해주었다. 1401년(태종 1)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었다. 군기소감軍器少監을 거쳐 1402년(태종 2) 내자소경內資少卿, 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이 되었다. 이듬해

호룡순위사대호군虎龍巡衛司大護軍이 되고, 1404년(태종 4) 상호군上護軍이 되었다. 1406년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總制와 우군도총제右軍都總制를 역임하였다. 1426년(세종 8) 여산부원군礪山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1443년(세종 25) 왕으로부터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묘는 광탄면 신산리에 있다.

송상옥 宋尙玉 생몰년 미상.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60년 후에 추복追服(상을 당한 때 사정으로 인해 입지 못한 상복을 뒷날에 입을)을 3년간 하였다. 파주읍 파주리에 묘가 있다.

송기수 宋麒壽 1507년(중종 2)~1581년(선조 1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태수台叟, 호는 추파楸坡이다. 군수 세충世忠의 아들이다.

1531년(중종 26)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534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들어갔다. 어려서부터 농을 좋아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면서 선생이나 연장자와 교유하는 것을 즐겼다. 당시 권세가이며 간신인 김

안로에게 아부하지 않아 모함에 걸려 물러나 있다가, 김안로 일당이 물러난 뒤 비로소 등용되었다. 1538년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에 부임하고, 이어서 교리校理로 승진하였으며, 이조정랑吏曹正郎이 되었다. 이듬해 강원도어사江原道御使로 나아가 공채公債를 적발하여 조정에 간하기도 하였다. 1542년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教·사헌부집의司憲府執儀를 지내고, 1544년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올랐다. 인종 때 우승지右承旨를 지낸 후 명종이 즉위하자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이때 명종의 나이가 어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는데, 윤원형이 이기李堧·임백령林百齡·정순봉鄭順朋 등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도승지로서 이에 가담하여 추성위사보익공신推誠衛社保翼功臣 3등에 책록되고 덕은군德恩君에 봉하여졌다.

송익필 宋翼弼 1534년(중종 29)~1599년(선조 32).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여산彌山이며, 자는 운장雲長, 호는 구봉龜峯이다. 판관判官 사련祀連의 아들이다. 파주 응담에 택지가 있었다.

할머니가 안돈후安敦厚의 친척 소생이었으며

로 신분이 미천하였으나, 아버지 사련이 안돈후의 손자 안처겸安處謙의 역모를 조작·고발하여 공신에 책봉되고 당상관에 올라 그의 형제들은 유복한 환경에서 교육받았다. 재능이 비상하고 문장이 뛰어나 아우 한필翰弼과 함께 일찍부터 문명을 떨쳤고 명문자제들과 폭넓게 교유하였다. 초시初試를 한 번 본 외에는 과거를 보지 않고 학문에 몰두하여 명성이 높았다. 이이李珣·성혼成渾과 함께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논변하였고, 특히 예학禮學에 밝아 김장생金長生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서인 세력의 막후 실력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86년(선조 19) 동인들이 세력을 얻으며 안씨 집안에서 송사를 일으켜 안처겸의 역모가 조작임이 밝혀지고 그의 형제들을 포함한 후손들이 안씨 집의 노비로 환속되자 그들은 성명을 바꾸고 도피생활에 들어갔다.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로 정여립鄭汝立·이발李潑 등 동인이 제거되자 그의 형제들도 신분이 회복되었다. 그 때문에 기축옥사의 막후 조종인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뒤에 조헌趙憲의 과격한 상소에 관련된 혐의로 이산해李山海의 미움을 받아 한필과

함께 희천으로 유배되었다. 1593년(선조 26) 사면되어 풀려났으나, 일정한 거처 없이 친구나 문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불우하게 살다 죽었다.

1586년(선조 19) 안씨의 송사 전까지는 고양의 귀봉산 아래에서 크게 문호를 벌여놓고 후진을 양성하였는데, 그 문하에서 김장생·김집金集·정업鄭擘·서성徐渚·정홍명鄭弘溟·강찬姜燦·김반金槃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는 시와 문장에 모두 뛰어나 이산해,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 최립崔崝, 이순인李純仁, 윤탁연尹卓然, 하응림河應臨 등과 함께 선조 대의 8문장가로 불렸다. 시는 이백李白을 표준으로 하였고, 문장은 좌구명左丘明과 사마천司馬遷을 위주로 하였다. 자신의 학문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스스로 고대하게 행세하였고, 아무리도 관귀족이라도 한 번 친구로 사귀면, '자학'로 부르고 관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가 그의 미천한 신분과 함께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구봉집龜峯集』이 전한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송지덕宋之德의 처 **이씨**李氏 생몰년 미상. 정미

년 9월 30일 밤 파주 적성에 살고 있는 진사 송지덕의 집에 강도 수십 명이 침입하여 그의 몸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자 아내 이씨가 방에서 뛰어나와 칼을 무릅쓰고 몸으로 남편을 감쌌다. 도적들이 칼로 내리쳐 이씨의 손가락이 잘려 떨어졌으나 이씨는 꼼짝도 않고 남편을 보호하였다. 이에 이씨의 거동을 의롭게 여긴 도적들은 더 이상 가해하지 않고 떠나 버렸다. 송지덕은 무사했으나 이 일로 이씨는 끝내 병이 들었다. 적성 사람들이 이 사실을 현감에게 보고하였고, 그것이 경기감사를 거쳐 조정에까지 알려졌다. 이를 가상히 여긴 조정에서는 이씨를 위한 복호復戶를 내렸다. 이후 송지덕은 적성에서 살다가 부인 이씨의 고향인 유성으로 내려갔는데, 공주 유성현에서도 송 판서 외 53명이 연명하여 임자년 1월 25일 진정을 올려 조정에서는 정표를 내렸다. 현재 정려문은 유성에 있다.

송진명宋眞明 1688년(숙종 14)~1738년(영조 14).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자는 여유汝儒, 호는 소정疎亭이다.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낸 징은徵殷의 아들이다.

1714년(숙종 40)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이조참판史曹參判 등을 거쳤다. 그 후 평안도·황해도·경기도의 관찰사를 역임하고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지냈다. 한림翰林, 삼사三司, 전조銜曹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파주읍 파주4리에 묘가 있다.

숙령옹주 淑寧翁主 생몰년 미상. 태종의 제7옹주로 신빈 신씨信嬪辛氏의 소생이다. 남편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윤우尹愚로 대제학大提學 형炯의 아들이다. 좌익공신左翼功臣에 녹훈되었고 파성군坡城君에 봉해졌다. 숙령옹주 묘역은 광탄면 창만리에 있는 도마산초등학교에서 북동쪽으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야산 중턱에 있다. 남편 윤우의 묘역은 옹주 묘역의 남동쪽 아래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숙명공주 淑明公主 ?~ 1699년(숙종 25). 효종의 둘째 딸이며 1652년(효종 3) 영의정領議政 심지

원沈之源의 아들 심익현沈益顯과 혼인하였다. 효종은 둘째 딸 숙명공주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공주를 위해 인경궁仁慶宮 옛터에 집을 짓게 하였는데 너무 크고 사치하다고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린 일이 『효종실록』 4년에 기록되어 있다. 공주의 집은 무덕문 밖 사직동社稷洞에 있었으며 1699년(숙종 25)에 죽어 광탄면 분수리 청송 심씨 묘역에 심익현과 합장묘로 묻혔다.

숙빈 최씨 淑嬪崔氏 1670년(현종 11)~1718년(숙종 44).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는 최효원崔孝元의 딸로 태어나 7세에 궁에 들어가 궁녀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 숙빈 최씨는 숙종의 승을 입은 이후 숙원淑媛, 숙의淑儀, 귀인貴人을 거쳐 숙빈에 봉해지고, 1694년(숙종 20) 24세에 영조를 낳았다. 1718년 3월 49세로 돌아가니 당시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장사지내고 묘호墓號를 소령묘昭寧墓라 하였다가 1753년(영조 29) 6월 영조의 명으로 소령원으로 개칭하였다.

숙정옹주 淑貞翁主 생몰년 미상. 태종의 제4녀이

며 신빈 신씨(信嬪辛氏) 소생이다. 남편인 정효전(鄭孝全(?~1453))은 판서(判書)를 지낸 진(鎭)의 아들이다. 본관은 연일(延日)이며 숙정옹주와 혼인한 후 1422년(세종 4) 일성군(日城君)에 봉하여졌다. 계유정난 때 부관참시(割棺斬屍)에 처해졌고 성종 때 신원되었으며, 후에 단종 묘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금촌동에 옹주와 부마의 단치가 있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순빈 정씨 順嬪鄭氏 ?~1592년(선조 25). 명종의 후궁이다. 임진왜란 때 족질(族姪) 윤견철(尹堅鐵)을 따라 임천(林川)으로 피난 가 머물다가 졸서(卒逝)하여 그곳에서 장사지냈다가, 1604년(선조 37) 교하읍 다울리 산 1-5번지에 반장(返葬)하였다.

신경리 申景禔 1560년(명종 1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자는 응수(應綏)이다. 탄현면 축현리에서 살았다. 1583년(선조 16)에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합격하였으며 전라도 풍천부사(豊川府使)를 역임하고 파주로 귀향하였다. 묘가 검산동에 있다.

신구중 慎龜重 1682년(숙종 8)~1744년(영조 2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거창(居昌)이며 자는 원서(元瑞), 호는 외외(畏窩)이다. 영의정 승선(承善)의 8대손이고 통덕랑(通德郎) 휘오(徽五)의 아들이며, 이황의 문인이다.

1711년(숙종 37) 국자생원(國子生員)에 합격하고 1727년(영조 3) 문과에 급제하여 기조정랑(騎曹正郎)·종묘서령(宗廟署令)·전라도사(全羅道事)·사헌부 감찰, 병조정랑(兵曹正郎)·검춘추관(檢春秋官)·유강현령(龍岡縣令)·(황해도)으로 품계는 통훈대부(通訓大夫)였다. 증직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예조참판 겸 경연, 의금부의 동지사, 홍문관제학, 춘추관 성균관의 동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이다. 이익(李瀾, 1681~1763)과는 학문을 같이한 교우로 친분이 두터웠고, 묘지(墓誌)를 짓기도 하였다. 부인은 증정부인(貞夫人) 우계 이씨(羽溪李氏)로 창릉참봉의 딸이며 예문관제학 이서우(李瑞雨)의 손녀다. 장남 후담(後聃)은 당시의 대학자이며, 차남 후팽(後彭)은 증추부사였다. 묘는 파주시 금능동 후산에 있다. 가공영 택지개발이 되어 광탄면 발랑리에 종종 묘역을 이루어 이장되었다.

신민일 申敏一 1576년(선조 9)~1650년(효종 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자는 공보功甫, 호는 화당化堂이다. 아버지는 사재감첨정司宰監僉正 임黼이다.

1615년(광해군 7) 사마시를 거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학유學諭, 성현도찰방省峴道察訪·감찰監察, 연서도찰방延曙道察訪, 은계도찰방銀溪道察訪 등을 지내다가 한때 관직을 사퇴하였다. 1624년(인조 2) 예조정랑禮曹正郎으로 선릉宣陵 단오제 전사관典祀官이었는데, 환관 나업羅業이 불경스런 행동을 취한 것을 구실로 환관들의 폐를 상소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왕을 호종하여 강화도로 피난하였고 청나라와의 화의에 반대하였다. 그 뒤 장령掌令·사간司諫 등을 거쳤으며, 1631년 보덕輔德으로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송하려는 의논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여 강계로 유배되었다. 1633년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화의가 성립된 뒤에는 영남에 내려가 있다가 1640년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이어 우승지右承旨에 임명되었으며, 1650

년(효종 1)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다. 시문집인 『화당집化堂集』이 전한다. 묘와 사당이 법원읍 금곡리에 있다.

신사임당 申師任堂 1504년(연산군 10)~1551년(명종 6).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로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아버지는 명화命和이며, 어머니는 용인 이씨로 사온思溫의 딸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경세가인 이이李珥의 어머니이다. 사임당은 당호이며, 그 밖에 시임당媿任堂·임사재媿思齋라고도 하였다. 당호의 뜻은 중국 고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太任을 본받는다라는 것이다.

외가인 강릉 북평촌北坪村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 명화는 1516년(중종 11)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에는 나가지 않았다.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이었으나,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의 참화는 면하였다. 외할아버지 사온이 어머니를 아들잡이로 여겨 출가 후에도 계속 친정에 머물러 살도록 하였으므로 사임당도 외가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니에게 『여범女範』과 더불어 학문을 배웠다.

19세에 덕수 이씨(德水李氏) 원수(元秀)와 결혼하였다. 사임당은 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 없는 친정의 아들잡이였으므로 남편의 동의를 얻어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다. 결혼하고 몇 달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친정에서 3년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얼마 뒤에 선조 때부터 시집의 터전인 파주 울곡리에 기거하기도 하였고,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백옥포리에 서도 여러 해 살았다. 38세에 시집 살림을 주관하기 위해 아주 서울로 올라왔으며, 수진방(壽進坊)에서 살다가 48세에 삼청동으로 이사하였다. 이해 여름 남편이 수운판관(水運判官)이 되어 아들과 함께 평안도에 갔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그림·글씨·시는 매우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림은 풀벌레, 포도, 화조, 어죽(魚竹), 매화, 난초, 산수 등이 주된 화제(畫題)이다. 그림으로 채색화·묵화 등 약 40폭 정도가 전해지고 있다. 사임당의 자녀들 중 그의 혼로와 감화를 제일 많이 받은 것은 셋째 아들 이떠이다. 이이는 어머니 사임당의 행장기를 저술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 사임당의 예술적 재능, 우아한 천

품, 정결한 지조, 순효(純孝)한 성품 등을 소상히 밝혔다. 작품으로는 <자리도(紫鯉圖)>, <산수도(山水圖)>, <초충도(草蟲圖)>, <노안도(蘆雁圖)>, <연로도(蓮鷺圖)>, <요안조압도(寥岸鳥鴨圖)>와 6폭 초서 병풍 등이 있다. 묘는 법원읍 자운서원 옆 이이의 묘 아래에 남편 이원수와 합장묘로 되어 있다.

신석조 辛碩祖 1407년(태종 7)~1459년(세조 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월(寧越)이며, 처음 이름은 석견(石堅), 자는 찬지(贊之), 호는 연빙당(淵氷堂)이다. 인손(仁孫)의 아들이다.

1426년(세종 8) 감시문과에 합격하여 집현전(集賢殿) 저작랑(著作郎), 직제학(直提學), 우사간(右司諫), 부제학(副提學) 등을 지내고 1453년(단종 1)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 1456년(세조 2)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있을 때 정조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조참판(吏曹參判), 대사헌(大司憲), 중추원사(中樞院事),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한성부윤(漢城府尹)을 거쳤으며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재직 중 사망하였다.

문장에 능통하여 『세종실록』을 시찬(始撰)하였으며, 『의방유취(醫方類聚)』와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저서로 『연빙당집淵氷堂集』이 있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광탄면 신산리에 묘가 있다.

신양申愷 1630년(인조 8)~1706년(숙종 3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자는 자평子平이고 호는 관곡寬谷이다. 민일敏^一의 아들이다.

1678년(숙종 4)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급제한 후 옥당玉堂에 선출되었다가 강원감사江原監司, 대사헌大司憲,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송도유수松都留守, 형조참판刑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파주읍 봉서3리에 있다.

신영희辛永禧 1454년(단종 2)~1511년(중종 6). 조선 전기의 학자로 본관은 영월寧越이며 자는 덕우德優, 호는 안정安亭이다. 참판參判을 지낸 석조碩祖의 손자이며 현감縣監을 역임한 수담壽暉의 아들이다.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김굉필, 정여창, 남효온 등과 교유를 맺고 학문 깊이가 강마하였다.

1483년(성종 14)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에 입학하였으며 그해 가을 승려의 도첩을 허여하는 왕의 교지가 내리자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 뒤 사림으로 자처하며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497년(연산군 3) 김굉필로부터 시국이 어지럽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받고 이내 직산에 은둔하고 죽림의 학자들과 벗하며 학문에 정진하여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학덕과 문장으로 학자들로부터 크게 추앙받았다. 저술로 『사우언행록師又言行錄』이 있으며, 몇몇 시문이 『안정실기安亭實紀』에 실려 있다. 광탄면 신산리에 묘가 있다.

신유정辛有定 1347년(충목왕 3)~1426년(세종 8).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판개성부사判開城府使를 지낸 부富의 아들이다.

음보로 산원算員이 되었고 용맹이 뛰어났다. 1386년(우왕 12) 정용호군精勇護軍이 되어 죽형인 충청도도원수 이승원李承源의 휘하에서 남해에 출현하여 노략질하는 왜구를 무찔러 크게 용맹을 떨쳤다. 그 뒤 이성계의 휘하에서 무공을 세워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조선 태조가 즉위

하자 그는 태조를 시종한 공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어 크게 충애를 받았다. 1397년(태조 6) 이산진침절제사伊山鎭僉節制使가 되었고, 1400년(정종 2) 왕세제가 된 이방원의 추천으로 봉상시판관奉常寺判官이 되었다. 이어서 공조·예조·형조의 전서典書를 역임하였다.

1403년(태종 3) 강원도에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는 왜구를 크게 무찌른 공으로 판강릉대도호부사겸좌군동지총제判江陵大都護府事左軍同知總制가 되었다. 1407년 의주도병마사義州都兵馬使가 되었고, 1410년 야인이 경원에 침입하자 좌군도총제左軍都總制로 부원수가 되어 도원수都元帥 조연趙涓과 함께 출정하여 이를 토벌하였다. 그 뒤 충청도병마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 평안도도안무사平安道都安撫使가 되었다. 1415년 병으로 사임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으며,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루 두 끼만 먹었다고 한다. 시호는 무절武節이다. 광탄면 신산리에 묘가 있다.

신윤문 辛允文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

로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용강현령龍岡縣令, 성균관교리成均館校理를 지냈다.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에 참여한 공으로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에 책록되었다. 사후에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추증되고 영월군寧越君에 봉하여졌다. 파주읍 봉서리에 묘가 있다.

신응시 辛應時 1532년(중종 27)~1585년(선조 1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월寧越이며, 자는 군망君望, 호는 백록白麓이다. 아버지는 부사府使 보상輔商이다. 백인결白仁傑의 문하에서 배웠다.

1552년(명종 7) 진사가 되고 1559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설서設書·정언正言을 지낸 뒤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66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조·병조의 좌랑佐郎, 교리校理 등을 거쳐 선조 즉위 초에 경연관經筵官이 되었다. 그 뒤 어머니상을 입고 있을 때 『주자대전朱子大全』 중 예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주문문례朱門問禮』를 간행하였다.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연안부사延安府使, 예조참의禮曹參議, 병조참지兵曹參知를 거쳐 대사간大司諫, 홍문관부제학

弘文館副提學에 이르렀다. 성혼·이이와 특히 교분이 두터웠다.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작으로 시집 한 권이 남아 있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신인손 辛引孫 1384년(우왕 10)~1445년(세종 27).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월寧越이며 자는 조윤祚胤, 호는 석천石泉이다. 유정有定의 아들이다.

1408년(태종 8) 식년문과에 동진사로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판서兵曹判書, 대제학大提學까지 올랐다. 처음 사관史官에 보임되고, 1413년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에 전임되어 항상 여러 대군과 함께 경전과 사기를 강론하였다.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그를 각별히 대접하여 난죽 병풍을 친히 그려 주었다. 이어 예조좌랑禮曹佐郎에 오르고 1420년(세종 2) 사인舍人, 1428년 집의執義, 1430년 종부시판사겸형조지사宗簿寺判事兼刑曹知事, 1432년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가 되고, 형조우참의刑曹右參議,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다. 1434년 병조좌참의兵曹左參議, 승정원우승지를 거쳐 도승지都承旨에 승진하였다. 1438년 병

조참판兵曹參判, 1444년 한성부판사漢城府判事와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렀다. 1445년 예문관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취임하지 못하였고, 모친상을 당하여 슬퍼한 나머지 몸이 쇠약해지고 병도 깊어 62세로 사망했다.

강직하고 아첨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남의 과실을 보면 참지 못하고 기탄없는 말로 지적하였다고 하며 글씨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다. 광탄면 신산리에 묘가 있다.

신자건 慎自健 1443년(세종 25)~1527년(중종 2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거창居昌이며 자는 표직杓直, 호는 송재松齋이다. 예조참의禮曹參議 후갑後甲의 아들이다.

1459년(세조 5) 17세로 사마시에 합격하여 그 명성을 떨쳤다. 세조가 대간臺諫에 명하여 등용할 만한 학자를 천거하게 하니 사헌부에서 그를 천거하였으나 학문에 뜻을 두고 나아가지 않았다. 30세 무렵 여러 번 문과에 응시하였으나 과운科運이 없었다. 늙은 어버이를 생각하여 처음에 영릉참봉英陵參奉의 벼슬을 하였다. 그 뒤 광흥창봉사廣興倉奉事,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 군자

감주부軍資監主簿·감찰監察, 형조좌랑刑曹佐郎, 상의원판관尙衣院判官, 지평持平, 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 형조정랑刑曹正郎, 의금부경력義禁府經歷,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 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 예빈시정禮賓寺正,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 뒤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중추부침사中樞府僉事·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를 지내고, 벼슬이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다.

64세에 몸이 쇠하고 세상의 험뜰음을 싫어하여 벼슬을 사임하고 교하 심학산 아래 살 만한 곳을 가려 정하고, 산수의 경치와 시문과 서화로 스스로 즐겼다.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쓰고 왕희지王羲之의 필법을 잘 터득하였다. 성종이 글씨에 탄복하여, 창덕궁 요금문曜金門의 세 글자를 써 바치게 하였으며, 노년에는 글씨를 칭한 자들로 저자를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이재吏才에도 뛰어나 송사訟事를 들어 재판하는 일을 물 흐르듯이 하되 모두 사리에 합당하였다 한다. 교하읍 산남리에 묘가 있다.

신장 申樞 1382년(우왕 8)~1433년(세종 15). 조

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제부濟夫, 호는 암헌巖軒이다. 고려 전의판서典儀判書 덕린德麟의 손자이며, 고려 공조참의工曹參議 포시包翅의 아들이다. 신장의 아들로 숙주叔舟·말주末舟가 있다. 어머니는 함주지사咸州知事 정유鄭有의 딸이다.

1402년(태종 2)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예조정랑겸춘추관기사관禮曹正郎兼春秋館記事官을 거쳐 춘추관동지사春秋館同知事로서 『정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중군도총부총제中軍都總府總制,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거쳐 공조좌참관工曹左參判에 이르렀다. 오래 대제학大學을 맡아 당시 유학에 통달한 권위 있는 학자로 추앙을 받았다. 묘는 야동동에 있다.

신제현 愼濟賢 1532년(중종 27)~1602년(선조 3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거창居昌이며, 자는 사숙思叔, 호는 낙금당樂琴堂이다. 전력부위展力副尉 정貞의 아들로 재능이 특이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파주읍 봉암리에서 출생하였다.

백인결의 문인으로 1562년(명종 17) 생원시에 합격한 후 제용봉사濟用奉事가 되었다. 1591

년(선조 24) 정철鄭澈 사건에 연루되어 송익한宋翼翰, 최기용崔起用 등과 같이 금고禁錮됐다가 풀려나 고향에서 이이, 성혼과 도학상마圖學相磨를 했다. 스승 백인걸의 행자行資를 전부 부담하여 세인世人들은 휴암의 자공子貢이라 하였으며, 학덕과 효행이 높아 모든 사람들이 경모敬慕하였다. 파주의 용주서원龍州書院에 배향되었으며, 묘는 파주읍 봉암리에 있다.

신치복 辛致復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벼슬이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문산읍 이천리에 묘가 있다.

신태동 辛泰東 1659년(효종 10)~1729년(영조 5).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영월寧越이며, 자는 계형季亨, 호는 백석白石이다. 수찬修撰 성노聖老의 아들이다.

음직으로 선공감역繕工監役, 별제別堤,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등을 역임하고 용담현령龍潭縣令을 지냈으며 사후에는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조리읍 등원리에 묘가 있다.

신후담 慎後聃 1702년(숙종 28)~1761년(영조 37). 조선 후기의 학자로 금능동에서 성장하였다. 본관은 거창居昌이며, 자는 이로耳老, 호는 하빈河濱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구중九重의 아들이며 이익李翼의 문하생이다.

1723년(경종 3)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과거를 단념하고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1724년 이익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셨으며, 연구에 전념하여 천주교를 비판한 『서학변西學辨』을 저술하는 한편 『소학』에도 관심을 가져 『소학차의小學箚疑』를 지었다. 1728년(영조 4) 이후 주로 『중용』과 『역경』의 연구에 힘써 1734년 『주역』에 자신의 견해를 첨가한 『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 7권을 완성하였고, 1742년 『중용해中庸解』를 저술하였다. 저서 100여 권을 저술하였다고 전하여졌지만 보존된 것이 없다가 연구과정에서 저서들을 발견하여 후손들이 2006년 『하빈전집』 영인본 9권을 간행하였다. 금능동에 묘가 있다. 용인으로 이장되었다.

신후팽 慎後彭 1708년(중종 34)~1795년(정조 19).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거창居昌이

며, 자는 술고述古, 호는 송애자宋厓子·죽청竹淸이다. 시조 수修는 중국 송나라 진사로서 1068년(고려 문종文宗 22) 귀화해 사도좌복사司徒左僕射를 역임하였다.

1747년(영조 23) 사마시에 급제한 후 수직壽職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진봉되었다. 사후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가 교하읍 다율리에 있다가 광탄면 발랑리로 이장되었다.

심경명 沈景命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벼슬이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다. 월릉면 영태리에 묘가 있다.

심덕부 沈德符 1328년(충숙왕 15)~1401년(태종 1).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득지得之, 호는 노당蘆堂·허당虛堂이다. 전리정랑典理正郎을 지낸 용龍의 아들이다.

1332년(충숙왕 복위년)에 음직으로 사온직장 동정司溫直長同正에 출사한 이후 좌우위녹사左右衛錄事를 거쳐 1364년(공민왕 13) 수원부水原府의 수령이 되었다. 공민왕 말년에 판위위시사判衛尉

寺事, 우왕 즉위 후 우상시右常寺를 거쳐 우왕 원년에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승직되었고, 이어 밀직부사密直副使,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 강제도만호江界都萬戶, 의주부원수義州副元帥, 서해도원수西海道元帥 등의 요직을 거쳤다.

1378년(우왕 4) 밀직사사密直司事로 재임하면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서 서해도원수를 겸하여 여러 차례 왜구 토벌에 공을 세웠는데, 특히 1380년 도원수 나세羅世와 함께 최무선崔茂宣이 제조한 화포를 처음 실전에 사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1385년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서 동북면상원수東北面上元帥를 겸하여 북청北靑에 침략한 왜구를 토벌하는 등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동북면에 침구한 왜구를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다. 같은 해 겨울에는 하정사賀正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왔고, 귀국 후에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388년의 요동출병 때에는 서경도원수西京都元帥로서 조민수曹敏修와 함께 좌군에 속하여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도와주었다. 또한 창왕을 폐

하고 공양왕을 세울 때 이성계·정도전·정몽주 등과 더불어 주도적인 구실을 하여 이른바 9공신 중 한 사람이 되었고, 공양왕 즉위 직후에 문하좌시중경기좌우도평양도통사門下左侍中京畿左右道平壤都統使에 올랐으며, 이듬해에 청성군충의백青城君忠義伯에 봉하여졌다. 무고로 인하여 일시 황해도 토산兎山에 유배되었다가 1391년(공양왕 3) 다시 문하좌시중에 복직되고, 하정사인 왕세자 석奭의 종사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이성계·정몽주와 함께 안사공신安社功臣이 되었다.

1392년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조선의 개국을 맞아, 1393년(태조 2) 회군공신回軍功臣 1등에 추록되며 청성백青城伯에 봉하여졌다. 1397년 판문하부사, 이듬해에 영삼사사領三司事를 거쳐 1399년(정종 1)에 좌정승이 되었다가 이듬해에 벼슬에서 물러났다.

심덕부는 고려 말 정치제도의 개혁과 왜구 토벌에 업적을 남겼으니, 공양왕 때 관찰사제를 폐지하고 안렴사제按廉使制를 부활하였으며, 제사諸司의 서무를 도당都堂에 직접 보고하게 한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조선 개국 후에는 신왕조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였는데, 1394년 신도궁

결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의 판사가 되어 한양의 궁실과 종묘를 영건營建하는 일을 총괄하여 신도 건설에 큰 구실을 하였다. 그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섯째 아들 온溫은 세종의 국구國舅가 되었으며, 여섯째 아들 종淙은 태조의 부마가 되었다. 이처럼 그는 왕실과의 혼인을 통하여 거족巨族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처음 시호는 공정恭靖이며 나중에 정안定安으로 고쳤다. 적성면 아미리에 묘가 있다.

심돈구 沈敦求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냈다. 광탄면 창만리에 묘가 있다.

심령 沈峯 1513년(중종 8)~1547년(명종 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천로天老, 호는 우정雨晴이다. 현감縣監을 지낸 종원宗元의 아들이다.

1539년(중종 3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다. 이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설서設書·사서司書 등을 역임하여 당시 세자였던 인종과 친분이 두터웠다.

1455년 인종이 즉위하자 정언(正言)에 임명되어 국왕의 신임을 받았는데, 그가 제시한 의견은 거의 채택될 정도였다. 이듬해 인종이 죽고 명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행하여졌는데, 이를 반대하다가 함경도도사(咸鏡道都事)로 좌천되었다. 을사사화 때 연루되어 옥중에서 장살(杖殺)되었다. 월릉면 영태리에 묘가 있다.

심모 沈模 생물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벼슬이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이르렀으며, 뒤에 청림군(靑林君)에 진봉되었다. 월릉면 영태리에 묘가 있다.

심수현 沈壽賢 1663년(현종 4)~1736년(영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기숙(耆叔), 호는 지산(止山)이다. 약한(若漢)의 손자이고 응교(應教)를 지낸 유(濡)의 아들이다.

1704년(숙종 30)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07년 수찬(修撰)이 되고 1714년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나갔는데, 이때 선정을 베푸는 것이 암행어사에 의해 밝혀져 포상을 받았으며 이 공으

로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 1719년 경상좌도도균전사(慶尙左道均田使)가 되어 도내의 양전에 따른 백성의 불만이 심하다는 소를 올려 종전에 실시되었던 양전을 그대로 실행할 것을 관철시켰다. 1724년(경종 4)에는 이조참판(吏曹參判),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냈다. 1727년(영조 3) 우의정(右議政)에 오르고 사은겸진사(謝恩兼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사행 때 나라를 욕되게 한 죄로 양사에서 절도로 귀양 보낼 것을 청하였으나 왕의 비호로 문외출송에 그쳤다.

얼마 뒤에 다시 우의정으로 복직되었으며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거쳐 1732년에는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1734년에는 청나라에 가는 사신 일행에 관상감원을 수행시켜 달력 만드는 신법을 연구해 오게 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영의정을 사직하고 판중추부사로 있다가 1736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이때 나이가 74세였다. 영조는 그의 부음을 듣고 심히 슬퍼하여 예장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3년간 녹봉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광탄면 마장리에 묘가 있다.

심순경 沈順經 1462년(세조 8)~1542년(중종 37).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가준可遵이다.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회滄의 손자이며 청천군靑川君 한翰의 아들이다.

1492년(성종 23)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 동래현령東萊縣令을 거쳐 오위도총부도사五衛都總府都事가 되었다. 1504년(연산군 10) 절충장군折衝將軍 부호군副護軍으로 승진하였으나 그해 갑자사화가 일어나 조부가 부관참시 당하자 연좌되어 투옥되었다.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그 공으로 책봉 충분익의운정국공신策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 2등 청성군靑城君에 봉하여졌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1511년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 이듬해 전라도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경상도병마절도사慶尙道兵馬節度使를 지냈다. 1521년 성절사로, 1526년 하정사로 각각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한성부좌윤겸훈련원사漢城府左尹兼訓練院使에 제수되었다. 사후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호양胡襄이다. 광탄면 신산1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심승조 沈承租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벼슬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고, 뒤에 청령군靑寧君에 진봉되었다. 월릉면 영태리에 묘가 있다.

심약기 沈若沂 1630년(인조 8)~1661년(현종 2). 조선 중기의 효자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영이詠而, 호는 외삼재喪三齋이다. 광주부윤廣州府尹을 지낸 총총의 아들이다.

9세 때 사서와 시에 통달하여 김집金集·송준길宋浚吉 등에게 사사하고, 1590년(선조 23)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여 유생들의 신망을 받았다. 이때 부친이 웅천熊川에 유배되자 대신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그 면죄를 호소하고 부친의 배소에 따라가 성심껏 위로하고 부친 피화被禍의 전말에 기록한 『원통록冤痛錄』을 저술하였다. 32세에 분사憤死하였다. 광탄면 신산리에 묘가 있다.

심은 沈溫 1365년(공민왕 14)~1418년(세종 즉위년).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파주에서 우거하였다.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중옥仲玉이

다.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덕부德符의 아들이며 세종의 장인이다.

고려 말 국자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아버지와 함께 조선조 개국에 참여하였다. 개국 후 병조와 공조의 의랑議郎을 거쳐 정종이 즉위하자 보공장군保功將軍으로 용무사대호군龍武司大護軍에 임명되었다. 1401년(태종 1) 지합문사知閣門事, 1404년 판내시차방사判內侍茶房事,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1407년 승정원부대언承政院同副代言, 좌부대언左副代言,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등을 지냈다.

1408년 그의 딸이 충녕대군忠寧大君(훗날의 세종)의 비妃가 되면서 벼슬도 높아졌다. 1411년 풍해도관찰사豐海道觀察使가 되어 백성을 침탈하고 병기 관리에 소홀한 수군첨절제사 박영우朴英祐를 파직시키고, 이어서 대사헌이 되어서는 관기 확립에 힘썼다. 1414년 변정도감제조辨正都監提調·형조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하면서 고려 후기에 권세가들에 의하여 천민으로 바뀐 양민들의 신분 정리사업에 이바지하였고, 이어서 호조판서戶曹判書·좌군총제左軍摠制·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를 역임하였는데, 세자인 양녕대군讓寧

대君의 행동에 연루되어 대간에 의해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 뒤 이조판서吏曹判書·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임하고, 양녕대군을 대신하여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이어서 세종으로 즉위하자 국구國舅로서 영의정이 되어 정치의 실권을 가까이 하기에 이르렀다. 1418년(세종 즉위년) 사은사謝恩使로서 명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그의 동생 정誼가 병조판서 박습朴翹과 같이 상왕인 태종의 병권 장악을 비난한 것이 화근이 되어, 이듬해 귀국 도중에 의주에서 체포되어 수원으로 압송·사사되었다. 이 사건은 그가 국구로서 세력이 커짐을 염려한 태종과 좌의정 박은朴耆의 무고로 밝혀져 뒤에 세종은 관직을 복위시키고 안효安孝라는 시호를 내렸다.

심유 沈濡 1640년(인조 18)~1684년(숙종 1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성운聖潤이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된 약한若漢의 아들이다.

1669년(현종 10)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임되었으며 사관史官을 거쳐 세

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設書, 사서司書, 정언正言, 병조낭관兵曹郎官 등을 지냈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 때 장령掌令으로 있으면서 남인 윤휴尹鑄 등의 유배와 민암閔黻의 삭탈관작 등을 주장하였다. 이후 정언, 수찬修撰, 헌납獻納, 집의검지제교執義兼知製教, 부교리副校理, 교리校理, 사간司諫, 부응교副應教 등 언관을 두루 역임하였다. 경經·사史·시詩·율律에 능하였다. 광탄면 마장리에 묘가 있다.

심윤 沈倫 생물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상중尙重이다. 강릉부사江陵府使를 지냈으며, 청평군靑平君에 추봉되었다. 광탄면 신산리에 묘가 있다.

심의겸 沈義謙 1535년(중종 30)~1587년(선조 2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방숙方叔, 호는 손암巽菴·간암艮菴·황재黃齋이다. 할아버지는 영의정領議政 연원連源이고, 아버지는 강綱이며, 홍胤에게 입양되었다. 명종 비 인순왕후仁順王后的 동생이며 이항李滉의 문인이다.

1555년(명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562년 병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청요직에 임명되었다. 1563년(명종 18) 사림들이 이량李樑으로부터 화를 입게 되자 외숙인 양을 탄핵하며 권세와 간계를 배척하는 등 사림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힘썼으나 도리어 왕의 외척으로 일을 꾸민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1564년(명종 19) 지평持平, 검상檢詳, 사인舍人을 거쳐 이듬해 사간司諫, 부응교副應教 등을 역임하고, 1566년 집의執義, 군기시정軍器寺正, 직계학直提學, 동부승지同副承旨 등을 지냈다. 1569년(선조 2) 좌부승지左副承旨·대사간大司諫을 지내고, 1572년 이조참의吏曹參議 등을 지내는 동안 척신 출신이지만 사림들 간에 명망이 높아 선배 사류들의 촉망을 받았다. 그를 중심으로 서인西人, 김효원을 중심으로 동인東人이라 하여 동서 분당이 발생하였다. 즉, 김효원이 한성부의 동부에 산다 하여 그 무리를 동인이라 하고, 심의겸이 서부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서인이라 하였다.

당시 정승 노수신盧守愼과 이이李珥가 사림간의 분규가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올린 상소에 의해 개성유수開城留守로 나갔다가 전라감사全羅

監司를 거쳐 조정으로 돌아왔다. 한때 낙향하여 은퇴하였으나, 1580년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함경감사咸鏡監司를 역임하였다. 이때 장령掌令 정인홍鄭仁弘이 그를 질투하여 탄핵을 받았으나 이이의 상소로 무사하여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다. 1584년(선조 18) 이이가 죽자 이발李撥·백유양白惟讓 등이 일을 꾸며 동인과 합세하여 공박함으로써 파직되었다. 그러나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고, 세습으로 청양군靑陽君에 피봉되었다. 인물됨은 효성이 지극하고 검소하였으며, 외척으로 있으면서도 권세를 함부로 부리지 않았다. 나주의 월정서원月井書院에 제향되었다. 광탄면 신산리에 묘가 있다.

심의신 沈宜臣 1791년(정조 15)~1845년(현종 1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순흙舜欽이다. 상주목사尙州牧使를 지낸 능술能述의 아들이며 생부는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를 지낸 능악能岳이다.

1810년(순조 10) 사마시에 합격하고, 1829년 처음으로 주부主簿에 등용되었다. 그해 춘당대전시에 장원급제하여 특별히 발탁되어 통정대

부通政大夫에 승진된 후 1836년(현종 2)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나갔다. 1838년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거쳐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이 되었고, 1841년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임용되었다. 1843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나갔다가, 1845년 8월 병으로 사망하였다. 사후 청백리에 선록되었다. 광탄면 방축리에 묘가 있다.

심의진 沈毅鎭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벼슬이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광탄면 마장리에 묘가 있다.

심의상 沈益相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해주목사海州牧使를 지냈다. 광탄면 분수리에 묘가 있다.

심의현 沈益顯 1641년(인조 19)~1683년(숙종 9).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가희可晦, 호는 죽오竹塢이다. 영의정領議政 지원之源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부사 윤종지尹宗之의 딸이다.

10세 때 효종의 부마로 뽑혀서 1652년(효종 3) 효종의 둘째 딸 숙명공주淑明公主에 장가들어 청평위靑平尉에 봉하여졌다. 그 뒤 궁중에 자주 출입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을 여러 차례 역임하였고, 만년에는 내섬시제조內贍寺提調를 지냈다. 1666년(현종 7) 사은사로, 1674년과 1680년(숙종 6) 주청사로 세 차례 청나라에 다녀왔는데 그때 받은 금과 비단 등의 하사품을 모두 수행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청렴하다는 칭송을 받았다.

서예에 뛰어나서 산릉지山陵志, 옥책문玉冊文, 교명敎命 등의 글을 많이 썼는데, 특히 촉제蜀體에 능하였다. 그의 글씨로 남아 있는 것은 고양의 우의정장유비右議政張維碑, 영의정이경여비領議政李敬輿碑, 경림군이정표慶林君李浣表, 인경왕후 익릉표仁敬王后翼陵表, 여주의 효종영릉표孝宗寧陵表, 좌승시송시철비左承旨宋時詰碑 등이 있다. 묘는 광탄면 분수리 청송 심씨 묘역에 숙명공주와 합장묘로 있다.

심인우 沈仁祐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벼슬이 병조참판兵曹參

判에 이르렀으며,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월릉면 영태리에 묘가 있다.

심정최 沈庭最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벼슬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광탄면 분수리에 묘가 있다.

심종 沈淙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좌의정左議政 덕부德符의 아들이며, 태조의 차녀 경선공주慶善公主의 남편이다. 1398년(태조 7) 8월 청원군靑原君으로 봉하여졌다가 그해 청원후靑原侯로 개봉되었고, 얼마 뒤 다시 청원군으로 봉하여졌다. 같은 해 이방원李芳遠이 정도전·남은 등 여말 구신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 때 방간을 도와 난을 성공시킨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는 방간과 방원의 싸움인 제2차 왕자의 난 때에는 중립적인 처신을 하였기 때문에 무사하였다. 그러나 1416년(태종 16) 전주에 유배 중인 방간과 은밀히 사통하면서 선물을 받은 것이 탄로나 벼슬이 깎이고 서인으로 강등되어 자원안치自願安置

되었다. 문산읍 사목리 군부대 안 야산에 묘역이 있다.

심종침 沈宗忱 1553년(명종 8)~1614년(광해군 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사성士誠이다. 좌찬성左贊成을 역임한 광언光彦의 손자이며 감찰을 지낸 금錦의 아들이다.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뒤에 음서로 사섬시참봉司贍寺參奉이 되었다. 이어 명나라의 장군을 위한 접대도감낭청接待都監郎廳이 되었으며, 능력이 차츰 인정되어 장예원사평掌隄院司平으로 승진하였다. 이어 은진·안음의 현감縣監을 거친 뒤 익위사사어翊衛司司禦,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을 역임하였다. 임천군수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다시 여산군수로 있다가 돌아와 궁궐도감宮闕都監, 선공감첨정繕工監僉正을 거쳐 숙천부사肅川府使에 올랐다. 1622년(광해군 14) 외직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황주에서 지병으로 죽었다. 광탄면 신산1리에 묘가 있다.

심지원 沈之源 1593년(선조 26)~1662년(현종 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

는 원지源之, 호는 만사晩沙이다. 아버지는 감찰監察을 지낸 설楔이다.

1620년(광해군 12)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의 족조族祖인 종도宗道가 대북파大北派인 이이첨李爾瞻의 복심이었던 관계로 대북에 가까웠으나 대북의 정책에 가담하지 않고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1623년의 인조반정 이듬해 검열檢閱에 등용된 뒤 저작겸설서著作兼說書, 정언正言, 부교리副校理, 교리校理, 헌납獻納 등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역임하고, 1630년(인조 8)에는 함경도안찰어사咸鏡道按察御史로 파견되어 호인胡人에게 매마매인賣馬賣人한 자를 적발하는 동시에 육진六鎭 방어에 대한 대책을 진언하여 인조의 신임을 얻었다. 함경도에서 돌아온 뒤에도 응교應敎, 집의執義, 교리, 부수찬副修撰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노모 때문에 뒤늦게 왕이 있는 남한산성으로 달려갔으나 길이 막혀 들어가지 못하였다. 조익趙翼·윤계尹啓 등과 의병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윤계가 죽음으로써 실패하였다. 이에 강화도로 들어가 적에 항거하려 하였으나 강화마저 함락되자 죽을 기회도 잃게 되었다. 이것이 죄가 되어 대간의 탄

책을 받아 한때 벼슬길이 막혔다. 1643년 그의 억울함이 용서되어 홍주목사洪州牧使로 기용되었으며, 1648년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 그 뒤 동부승지同副承旨, 대사간大司諫, 대사성大司成, 대사헌大司憲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효종 초에는 대사간으로 있다가 평안감사로 나갔으나 대사헌으로 돌아와 병조·이조의 참판參判을 역임하고 1652년(효종 3)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 특히 그의 아들 익현益顯이 효종의 딸 숙명공주淑明公主에게 장가들어 사돈이 됨으로써 효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듬해인 1653년 이조판서吏曹判書로서 국왕의 언행이 몹시 급함을 때때로 경계하였으며, 11월에는 정조사正朝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54년 우의정右議政에 승서되고 이듬해에는 좌의정左議政으로 옮겼으며, 1657년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이듬해에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1659년(효종 10) 다시 좌의정으로 있을 때 효종이 죽자 원상院相으로서 국정을 맡고 총호사總護使로서 효종 상례의 책임을 졌다. 현종이 즉위하면서 자의대왕대비慈懿大王大妃의 복제문제服制問題로 서인의 영수로서 송시열을 적극

신구伸救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만사고晩沙稿』가 있다. 글씨에 능하였으며 과천의 정창연비鄭昌衍碑가 남아 있다. 영천의 송곡서원松谷書院에 배향되었다. 묘는 광탄면 분수리 청송 심씨 묘역에 있다.

심한 沈澗 1435년(세종 17)~1482년(성종 13).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제옹濟翁이다.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회윤의 아들이며 세종 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조카다.

1454년(단종 2) 문음으로 첨사정攝司正이 되었고, 1459년(세조 5) 통례원봉례通禮院奉禮가 되었다. 그 뒤 사재감정司宰監正, 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 내자시정內資寺正,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다. 1471년(성종 2)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오르고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었다. 1475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재직할 때 동부승지 박시형朴始亨과의 대립이 표면화되어 파직되었다가 같은 해 이조참의吏曹參議에 복직되었다. 1476년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으로 청천군靑川君에 봉하여졌으며 1480년에는 평안도절도사平安道節度使가 되었다. 시호는 이경夷敬이다. 광탄면 마장2리에 묘와 신

도비가 있다.

심희 沈澮 1418년(태종 18)~1493년(성종 24).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청보淸甫이다. 아버지는 영의정領議政 온溫이며, 세종 비 소현왕후의 동생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벼슬하기 시작하여 아버지 온은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나, 1418년(태종 18)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던 중 태종을 비난한 사건에 관련되어 의주에서 체포되고, 이어 사사되었다. 이 때문에 세종 때에는 등용되지 못하다가 세종 말년에 아버지가 신원되자 문종이 즉위한 뒤 음직으로 돈령부주부敦寧府主簿에 등용되었다. 이어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를 거쳐 1454년(단종 2)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동지돈령부사를 역임하고, 1457년(세조 3)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공조판서工曹判書를 지냈다. 1458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를 거쳐, 1459년 안주선위사安州宣慰使를 겸하고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되었다. 1461년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형조판서刑曹判書를 거쳐, 1463년(세조 9)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1466년 좌

의정左議政이 되었다. 이듬해 영의정領議政이 되고, 1468년(예종 즉위년) 남이南怡의 옥사를 처리하여 익대공신翊戴功臣 2등에 책록되고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에 봉하여졌다. 그 뒤 성종의 신임을 받아 국가의 대소 정사에 참여하였고, 1486년(성종 17)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모친인 윤비尹妃의 폐출 사건에 동조하였다는 죄로 관직이 추탈되고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으나 뒤에 신원되었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다. 묘는 본래 광탄면 신산리에 있었으나 연산군에 의해 부관참시를 당한 후 월릉면 영태리로 옮겨졌다.

안승선 安崇善 1392년(태조 1)~1452년(문종 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자는 중지仲止, 호는 용재雍齋이다. 고조부는 고려 말기의 학자로서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를 역임한 축축, 증조부는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역임한 종원宗源, 할아버지는 조선의 개국공신開國功臣에 오른 경공景恭, 아버지는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지낸 순純이다. 부인은 송씨로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천우千祐의 딸이다.

1411년(태종 11) 생원시에 합격하고, 1415년 음보로 계성전직啓聖殿直에 임명되었으며, 1418년에는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이르렀다. 1420년(세종 2)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지평持平으로 승진하였고, 이듬해 이조전랑吏曹銓郎으로 전보되었으며, 1426년 장령掌令이 되었다. 이때 사헌부에서 예조참판禮曹參判 이명덕李明德을 수차례에 걸쳐 탄핵하였는데 그가 앞장을 섰다. 이 일로 세종의 뜻을 거슬러 좌천되었으나 곧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임명되었고, 1429년 대호군大護軍으로 승진하여 함령군 인을 따라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 사행은 명나라가 요구한 금은金銀의 양이 과다하여 이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귀국하자 그는 곧 동부대언同副代言에 발탁되었고, 1433년에 지신사知申事가 되었다. 1437년(세종 19) 3월 대사헌大司憲으로 승진될 때까지 승지承旨로 있었다. 1433년 파저강婆猪江의 야인 정벌 때 세종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임을 크게 받았다. 그 뒤 그는 조정의 인사 행정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당시 사관의 평에 “검판이조사兼判吏書事 맹사성孟思誠은

착하기는 하지만 결단력이 없고 이조판서吏曹判書 신개申概는 그저 남의 의견을 따르기만 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사 행정을 안승선이 좌우하였다”고 한 것은 당시의 사정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승지의 법제 외적 권한이 인사 행정에 크게 작용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비판은 자연히 안승선에게 집중되었으며, 나아가 승지의 인사 행정과 관계되는 업무를 규제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1437년(세종 19) 3월 안승선은 대사헌大司憲으로 전보되고, 5개월 후에는 승지들의 전주권銓注權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1443년 형조판서刑曹判書, 1444년(세종 26)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1445년 병조판서검지춘추관사兵曹判書兼知春秋館事로서 『고려사』 수찬에 참여하였고, 1448년(세종 30)에는 병조판서로서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겸하였다. 이때 정실 인사가 문제되어 진천현에 부처府處되었다가 풀려났다. 1450년(문종 즉위년)에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을 거쳐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렀다. 『근재집謹齋集』에 부록으로 유고

가 전한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조리읍 장곡리에 묘가 있다.

안원 安瑗 1346년(충목왕 2)~1411년(태종 11).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초명은 정定이다. 고려 말의 유학자 향珦의 5대손이며, 정당문학政堂文學 원송元崇의 아들이다. 고려 공민왕 때 파주 서교를 개간한 안목의 손자로서 용재 성현의 외증조부이기도 하다. 임진강 낙하 지역 농장에서 살았고 태조 이성계가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제소했을 때에도 나아가지 않고 파주농장인 서원별서瑞原別墅에 은둔하고 있었다.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냈다. 1390년(공양왕 2) 국왕이 천도하려고 하자 이는 술사術士들의 망령된 행위라고 반대하여 중지시켰다.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세우려 하자 이에 반대하고 건국 후에는 정치 참여를 거부하니, 이로써 반대파의 사람들로 부터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강제로 구도舊都의 관리를 맡기니 유후留後의 이름은 이때부터 사용

되었다. 그 뒤 태조가 형조전서刑曹典書를 제소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태종이 즉위하여 몸소 찾아가 간청하여 벼슬에 나아가니, 1401년(태종 1)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總制로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건너가서 『대학연의大學衍義』, 『통감집람通鑑集覽』 등의 서책을 구해 왔다. 1404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내고 1407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어 태종의 밀명을 받고 외척으로서 횡포를 부리던 민무구閔無咎 형제를 탄핵하여 외방으로 유배시켰다. 이어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와 개성유후開城留侯를 역임하고 66세로 병사하였다.

평소 근면 성실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였다. 시호는 경질景質이며 묘소가 장단에 있다.

안종약 安從約 생몰년 미상.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벼슬이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다. 1401년(태종 1) 『조선왕조실록』에 “안종약은 황주판관黃州判官의 관직을 제수한다”라는 기사와 1403년(태종 3) “사간원에서 대사헌大司憲 박신, 장령掌令 윤향, 안종약 등을

탄핵하다”라는 기사를 볼 때 조선 태종 때 벼슬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동에 묘가 있다.

양진룡 梁震龍 1581년(선조 14)~1647년(인조 25).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남원南原이며, 자는 숙견叔見, 호는 석호石湖이다. 사성思聖의 아들이다.

1599년(선조 3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교위를 역임하였다. 1613년(광해군 5)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를 폐출하고 영창대군을 주살하자 그 부당함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7일을 통곡하고 3일 동안 단식한 후에 시를 지어 그 슬픔을 말하니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여 그를 칭송하였다. 이어 벼슬을 버리고 법원읍 오현리에 은거하면서 오로지 성리학에만 전념하였다. 후에 김장생과 서로 만나 교류하였다. 그러다가 안은봉安隱峰, 심석재沈錫齋, 송우봉宋牛峰, 신상봉申象峰 등과 도의道義로 교류하면서 오현리에서 많은 유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친우들과 독서와 강론을 즐기고 약초 채취와 고기잡이로 세월을 보냈다. 사후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남원군南原君

으로 봉하여졌다. 법원읍 오현리 동현단東峴壇에 봉안되었다.

여흥 민씨 驪興閔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임진왜란 때 순절하여 정표되었다.

오두인 吳斗寅 1624년(인조 2)~1689년(숙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자는 원징元徵, 호는 양곡陽谷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 상翔의 아들로 숙부 숙훈에게 입양되었으며, 어머니는 고성 이씨固城李氏로 병조참판兵曹參判 성길成吉의 딸이다.

1648년(인조 26)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650년(효종 1) 지평持平을 거쳐 1656년 장령掌令, 1661년(현종 2) 헌납獻納·사간司諫이 되었다. 이듬해 정조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667년 부교리副校理·사간司諫 등을 역임하였다. 1679년(숙종 5)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서 사은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호조참판戶曹參判, 1682년(숙종 8) 경기도관찰사京畿

道觀察使를 거쳐 다음 해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올랐다. 1689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재직 중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각하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세 번이나 임명되고도 나아가지 않아 사직 당하였다. 이해 사직司直을 지내고, 5월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이세화李世華·박태보朴泰輔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소를 올려 국문을 받고 의주로 유배 도중 파주에서 죽었으며, 그해에 복관되었다. 1694년(숙종 20)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파주의 풍계사豐溪祠, 양성陽城, 현 경기도 안성의 덕봉서원德峰書院, 의성義城의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양곡집』이 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오중재 吳重載 생몰년 미상. 장단 사람으로 효행이 지극하여 조정에 장계壯啓되었고, 철종은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철종 4년 계축 癸丑의 일이다.

오태관 吳泰觀 생몰년 미상. 부모 섬기기를 극진히 하여 한겨울에도 앵두를 구해 바쳤다고 한다. 그의 효행을 기려 파평면 장파리 비선거리

에 ‘오효자비吳孝子碑’가 세워졌다고 한다.

우서주 禹敘疇 생몰년 미상. 파주 출생이며 본관은 단양丹陽이다. 부친의 병환을 8년 동안 구완하며 정성껏 시약하였으나 끝내 부친의 완쾌를 보지 못하였다. 그 뒤 백모의 병환에도 한여름 석 달 동안을 밤낮 없이 정성껏 간호하였다. 뒤에 수직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받았다. 문산읍 내포리에 묘가 있다.

우인열 禹仁烈 1337년(충숙왕 6)~1403년(태종 3). 고려 말 조선 초의 무관으로 본관은 단양丹陽이다.

1359년(공민왕 8) 홍건적의 침입 때 원수 한방신韓方信의 휘하에서 공을 세워 감찰어사監察御使가 되고, 이어 판선공시사判繕工寺事를 거쳐 응양군鷹揚軍 상호군上護軍이 되었으며, 1374년(우왕 즉위년) 명나라 사신 피살 사건으로 간관諫官의 탄핵을 받은 이인임李仁任에게 아부해 이를 변호했다. 이듬해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를 거쳐, 1377년 경상도원수로서 사불랑沙弗郎, 영광靈光 등지에서 왜구를 격파하였고, 다음

해에 경상양광전라삼도도체찰사慶尙楊廣全羅三道都體察使가 되었다. 1379년 원수로서 합포合浦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고, 이어 사주泗州에서 또 왜구를 대파하고 합포도순문사合浦都巡問使가 되었다. 1383년 찬성사상의贊成事商議로서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되어 청평淸平에 들어온 왜구를 토벌하였으며, 1385년 서북면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되었다. 1388년(창왕 즉위년) 찬성사贊成事로서 정당문학政堂文學 설장수僕長壽와 함께 명나라에 가서 창왕의 습위襲位를 알렸고, 이듬해 김저金佇의 옥사獄事에 연루돼 청풍군淸風郡으로 유배되었다가 1391년(공양왕 3) 풀려났다.

1392년 조선 개국 후 문하시랑찬성사文門下侍郎贊成事로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갔고, 이듬해 귀국하여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가 되어 개국 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올랐다. 1395년(태조 4)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 1400년(종종 2)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에 이어 판삼사사判三司事로서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1401년(태종 1) 귀국하였는데, 이해에 정종의 사위辭位와 태종의 습위襲位를 허락한 데 대한 사은사로 또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3년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

에 올라 병사하였다. 시호는 정평靖平이다. 문산읍 내포리에 묘가 있다.

우현보 禹玄寶 1333년(충숙왕 복위 2)~1400년(정종 2).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단양丹陽이며 자는 원공原功이다. 적성군赤城君 길생吉生의 아들이다.

1355년(공민왕 4)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검열春秋官檢閱, 집의執義,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를 거쳐 우왕 때 밀직대언密直代言, 제학提學, 동지밀직사사겸대사헌同知密直司司兼大司憲, 정당문학政堂文學,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삼사좌사三司左使를 역임하였다. 1388년(우왕 14) 다시 찬성사贊成事가 되어 순충익대좌리공신純忠翊戴佐理功臣의 호를 받았다. 이해 요동 정벌 때는 경성유수京城留守로 남아 있었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뒤 좌시중左侍中으로 있다가 곧 파직되었으며, 뒤에 단양부원군丹陽府院君으로 봉하여졌다. 1390년(공양왕 2) 다시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있다가 이초彝初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이어 석방되었으나 이듬해 다시 철원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와 단산부원군丹山府院君에 봉

하여졌다. 1392년(공양왕 4)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의해 다시 원배遠配되었다 풀려나왔으나 이해 조선이 개국되자 또 광주光州에 유배되어 이듬해 석방되었다. 1398년(태조 7) 복관되고, 이듬해 단양백丹陽伯에 봉하여졌으며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 문인 이래李來로부터 반란의 소식을 듣고 이를 이방원에게 알린 공으로 난이 평정된 뒤 추충보조공신推忠輔佐功臣이 되었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묘소는 장단군에 있으며 파평면 두포리에 단이 있다.

우홍준 禹弘俊 생몰년 미상.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가 병환이 나자 8세의 어린 나이이면서도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다고 하여 정려되었다.

원상 元祥 생몰년 미상.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군기시소윤軍器寺少尹으로 있다가, 1389년(공양왕 원년)에 김저金佇의 옥사獄事에 관련되어 광주光州로 유배되었다가 1431년 국대비國大妃의 생일특사生日特赦로 풀려나온 뒤 장단 대덕산에 은거하였다.

조선 개국 후에 수차 등용되었으나 응하지 않

다가 1413년(태종 13) 검교참찬의정부사檢校參贊議政府事를 거쳐 1435년(세종 17) 판중추원사判中樞院使가 되고, 이듬해에는 궤장几杖까지 하사받았다. 시호諡號는 희정공僖靖公이다.

유극량 劉克良 ?~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중무仲武이며, 연안 유씨延安劉氏의 시조이다. 어머니는 재상 홍섬洪暹의 노비였다. 어려서부터 고학을 하여 무과에 급제하였다. 당시의 신분제도로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노비출신이었으나, 홍섬의 깊은 배려로 노비신분을 면제받았다. 여러 무관직을 거친 뒤 1591년(선조 24) 전라좌수사가 되었고, 곧 조방장助防將으로 전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죽령竹嶺을 방어하다가 패배하자, 군사를 영솔하여 방어사 신할申喆의 밑에 들어가 그 부장이 되었다. 대장 신할, 그리고 마침 1,000명의 군졸을 이끌고 그곳에 달려온 도순찰사 한응인韓應寅 등과 함께 임진강을 방어하였다.

이때 임진강 남안에 이른 적병이 감히 강을 건너지 못하자, 대장 신할이 강을 건너 적을 공

격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적이 우리 군사를 유인하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5, 6일간 우리 군사의 힘을 길러 사기가 올라간 다음에 적을 치자”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신할과 뜻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어찌 뒤떨어질 수 있으랴 하고, 그의 군사를 수습하여 거느리고 선봉에 서서 곧 강을 건넜다. 그러나 미처 강을 다 건너기도 전에 적의 복병이 수없이 나타나 공격해옴으로써 좌위장左衛將 이천李薦이 강 상류에서 패하고, 신할도 난군亂軍 중에 전사하였다. 이때 그는 강을 건너 여러 명의 적을 죽였으나 그도 역시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개성 숭절사崇節祠에 제향되었으며,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산14번지에 무의공 유극량의 충절을 기리고자 후손들이 기공비紀功碑를 세웠다.

유신환 俞莘煥 1801년(순조 1)~1859년(철종 10).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기계紀溪이고, 자는 경형景衡, 호는 봉서鳳棲이다. 젊어서 파주 봉서산鳳棲山 아래에 살아서 봉서 선생

으로 일컬어졌다. 아버지는 현감縣監 성주星柱이며, 어머니는 전주 유씨全州柳氏로 덕보德普의 딸이다. 증조부는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언술彦述이고, 할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한순漢純이다. 김매순金邁淳·홍석주洪奭周·오희상吳熙常을 스승으로 섬겼다.

1844년(헌종 10) 학행으로 추천을 받아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이 되고 감찰監察, 사직서령社稷署令, 영희전령永禧殿令을 역임하였다. 뒤에 전의현감全義縣監으로 부임하여 황구黃口·백골白骨 등의 가렴주구의 민폐를 없애고 유학의 학풍을 일으키는 데 힘썼으나, 감찰사의 모함으로 홍천에 유배되었다. 뒤에 풀려났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을 닦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 진력하였다. 윤병정尹秉鼎, 서응순徐應淳, 김낙현金洛鉉, 윤치조尹致祖, 김윤식金允植, 남정철南廷哲 등의 학자를 길러냈다. 이기신화론理氣神化論을 주장한 조선 말기 성리학의 대가로서 유학의 여러 정경과 사서史書뿐만 아니라 율령·산수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학문에 정통하였으며 정치·경제·군사 등의 분야에도 박학하였다. 저서로는 『봉서집鳳棲集』, 『패동수언溟東粹言』, 『동유연

원(東儒淵源) 등이 있다. 대사헌(大司憲)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윤강원 尹剛元 ?~1572년(선조 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파주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본관은 남원(南原)이고, 자는 경인(景仁), 호는 기암(棄庵)이다. 좌랑을 지냈던 정(正)의 아들이다.

1539년(중종 3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문한관(文翰官),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 예조정랑(禮曹正郎)을 지냈다. 1547년(명종 2)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으며, 1549년 강진으로 귀양 갔다가 1565년 파주로 옮겼다. 1567년(선조 즉위년) 석방되어 다시 판교가 되었다. 그 후 윤원형의 비행을 논하다가 화를 입고 회양에 유배되기도 하였는데 평소 직언을 잘 하였다고 한다.

윤경 尹綱 1567년(명종 22)~1664년(현종 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미중(美仲), 호는 기천(岐川)이다. 상호군(上護軍) 대로(大老)의 아들이다.

1596년(선조 29)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

여 교서관(校書館)에 보임되었다. 1600년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을 지내고 예조·형조·병조의 좌랑(佐郎)을 거쳐 양재찰방(良才察訪)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다. 1605년 평양부서윤(平壤府庶尹)을 지냈으며, 이후 죽주부사(竹州府事)를 지낼 때는 임기가 끝났으나 민원에 의해 1년을 더 유임하기도 하였다. 이어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분승지(分承旨)·분병조참의(分兵曹參議)가 되었다. 1613년(광해군 5) 이이첨 등의 폐모론을 반대하다 파직되어 양근에 은거하였으며, 1621년 접반사로 명의 장수 모문용(毛文龍)을 맞으러 가도(遐島)에 건너갔다. 1623년(인조 1) 해주목사(海州牧使)가 되었고,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군사를 인솔하고 관찰사를 따라 평정에 종군하였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왕세자를 호종하여 전주로 피난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는 왕을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모두가 도망친 상황에서도 인장과 문서를 보관하고 평시와 같이 정사를 처리하였다. 그 공으로 이듬해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임명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도총부도총관(都總府都總管)에 제수되었으며,

이천부사利川府使를 역임하고 사임한 뒤 해주에 내려가 7년간 은거하였다.

1645년 공조참판工曹參判을 거쳐 이듬해 나이 80세에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기로소에 들어갔다. 1656년(효종 7) 90세가 되어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올라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었고, 이듬해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를 거쳐 1660년(현종 1)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희靖禧다. 적성면 장현리에 묘가 있다.

윤경문 尹慶門의 처 연안 이씨 延安李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19세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자 음독하여 따라 죽었다.

윤계겸 尹繼謙 1442년(세종 24)~1483년(성종 14).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익지益之, 호는 필보弼甫이다.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사훈士暉의 아들이다.

1457년(세조 3) 음보로 세자우참군世子右參軍에 제수된 후 호조정랑戶曹正郎을 거쳐 1467년

의빈부경력儀賓府經歷으로 선전관宣傳官을 겸하였다. 세조의 신임을 받아 같은 해에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에 발탁되었으며, 1468년(예종 즉위년) 남이南怡·강순康純 등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영평군鈴平君에 봉하여졌다. 1469년(성종 즉위년)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제수되고 이듬해 가정대부嘉靖大夫로 승진되어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냈으며, 1471년에는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472년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겸하였고, 이조참판吏曹參判을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행형조참판行刑曹參判,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하였으며 1477년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 이어 영평군延平君으로 개수되었으며 1480년 행정상도관찰사行慶尙道觀察使,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고 1483년 정헌대부로 다시 영평군鈴平君에 봉하여졌다. 시호는 공양恭襄 또는 공양恭良이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곤 尹坤 ?~1421년(세종 3). 조선 전기의 문신

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판개성부사判開城府使 승순承順의 아들이다.

젊어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아우 향瑠와 함께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1400년(정종 2) 이방원이 그의 동복형인 방간芳幹이 일으킨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르는데 협력한 공으로, 1401년(태종 1)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3등에 책록되고,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總制로 파평군坡平君에 봉작되었다. 1406년(태종 6) 좌군도총제左軍都總制로 있을 때 다른 사건과 연루되어 파직되어 파평현에 유배되었다가,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기용되었다. 그가 학덕이 높은 것을 알고 있는 세종은 칙전에서 환송연을 베풀어 주는 등 크게 총애하였다. 이듬해 9월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승진되었다. 그의 파격적인 출세는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있을 때 기악妓樂을 폐지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등 많은 치적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 뒤 우참찬右參贊까지 지냈다.

후덕하고 풍채가 좋아 복옹福翁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시호는 소정昭靖이다. 묘는 파주읍 연풍리에 있다.

윤귀영 尹龜永 1823년(순조 23)~1888년(고종 2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호는 지산芝山이다. 1852년(철종 3)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벼슬이 도승지都承旨에 이르렀다. 교하읍 와동리에 묘가 있다.

윤근수 尹根壽 1537년(중종 32)~1616년(광해군 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한때 파주에서 우거하였다. 본관은 해평海平이며, 자는 자고子固, 호는 월정月汀이다.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변林的 아들이며 영의정領議政을 역임한 두수斗壽의 아우이다.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민첩함이 남보다 뛰어나서 열 살 무렵에 사서에 통달했으며, 역대의 사실을 암기하는 데 비상한 재주를 보였다고 한다. 김덕수金德秀·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58년(명종 1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에 임용되었다.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 연천군수漣川郡守 등을 거쳐 1562년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을 지냈다.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한 조광조의 신원을 청하였다가 과천현감果川縣監으

로 체직되었다. 1563년 8월 이조판서 이량李樾이 자신의 이들을 이조좌랑吏曹佐郎에 천거하자 형 윤두수, 박소립朴素立, 기대승奇大升 등과 함께 반대하다가 이량의 사주를 받은 대사헌 이감李戡의 탄핵으로 파직 당했다. 한 달 뒤에 영의정 윤원형, 우의정 심통원沈通源의 상계로 죄가 없음이 밝혀져 승문원검교承文院檢校에 서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형 윤두수가 이조전랑吏曹銓郎에 있으므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1565년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재기용된 뒤 이조좌랑과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역임하고 이듬해에는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지제교겸교서관교리知製敎兼校書館校理로서 『명종실록』 편찬에 관여하였다. 계속해서 검상檢詳, 사인舍人, 장령掌令, 집의執義, 사예司藝, 부응교副應敎 등을 역임하였으며, 1572년(선조 5)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대사성大司成으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종계변무鍾系辨誣를 하였다. 그 뒤 경상도감사慶尙道監司, 부제학副提學, 개경유수開京留守, 공조참판工曹參判 등의 요직을 거쳤다.

1589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었으며 돌아올 때 『대명회전전서大明會典全書』를 가져왔다.

이듬해 왕이 사신으로서 공이 있는 자에게 등급을 나누어 훈권勳券을 하사할 때 황정욱·유홍 등과 함께 첫 번째로 서훈되어 광국공신光國功臣 1등에 책록되었고,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으로 봉하여졌다. 1591년 정철이 건저문제建儲問題로 화를 입었을 때 이에 연루되어 대간의 탄핵을 받아 형 윤두수와 함께 삭탈관직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재기용되었으며 문안사問安使, 원접사遠接使, 주청사 등의 사신으로 불과 반 년 동안에 명나라의 광녕廣寧을 세 차례, 요동을 여섯 차례 왕복하며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썼다. 그 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거쳐 좌찬성左贊成으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겸하였으며,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하여졌다. 1608년 2월 선조가 승하하자 조정에서 묘호를 의논할 때 대부분의 신하들은 임금이 종계를 개정하고 왜구를 물리친 두 가지의 공이 있으므로 조祖로 칭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판서로서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창업한 임금을 조祖로 칭하고, 계통을 이은 임금을 종宗으로 칭하는 것이 고금의 예법”이라 하면서, 고대부터

중국 여러 나라와 고려에서도 적용되어 왔음을 주장하여 선종으로 칭호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문장이 고아하며 필법이 힘이 넘쳐흐른다 하여 예원藝苑의 종장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문장가로서 이름을 크게 떨쳤다. 저서로는 『사서토석四書吐釋』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윤기적 尹紀蹟 1480년(성종 11)~1546년(명종 1). 조선 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화중和中이다. 파농부원군 보甫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 선전관宣傳官, 주부감찰主簿監察을 거쳐 도총부도사都總府都事 판관判官이 되고, 1538년(중종 33)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를 역임하였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으며, 묘비 글씨는 한석봉이 썼다.

윤길 尹吉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이르렀다. 묘는 오랫동안 세거하였던 탄현면 문지리에 있다.

윤대로 尹大老 1539년(중종 34)~1608년(선조 4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덕수德叟이다. 돈인敦仁의 아들이다. 이식李穡이 찬한 묘비문에 의하면 윤대로는 총명하여 15세 이전에 경사經史를 거의 다 읽었고, 여러 방면의 책을 두루 읽어 문장이 뛰어났으며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은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벼슬은 상장군上將軍에 이르렀으며 후에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덕공 尹德恭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원로元老의 손자이며 백원百源(1528~1590)의 아들이다. 벼슬이 군사감판관軍資監判官에 이르렀고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돈인 尹敦仁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서얼 출신이다. 관직에 나아가 남원부사南原府使와 판관判官을 역임하였다. 을사사화 때 세운 공로로 명종 대에 보익공신保翼功臣에 녹훈되었다. 후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면오 尹冕五 1857년(철종 8)~1921년. 조선 후기의 학자로 법원을 직천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명보明甫, 호는 존심재存心齋이다. 현생顯生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효행이 극진하며 문예文藝가 뛰어나 재동才童이라 불렸다. 활촌闡村 최위崔瑋 문하에서 수학하던 중 15세 어린 나이로 부친상을 당하여 애통해하며 조석으로 시묘하였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주경야독으로 학문에 전심하며 가정을 영위하였으며 1898년 42세 당시 노모의 신병으로 6년간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간호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노모가 돌아가시자 슬피 울며 밤낮을 통곡하며 시묘하니 많은 사람이 근래 보기 드문 효자라고 칭송하였다. 그 후 벼슬을 마다하고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유생들을 지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법원을 오현리에 위치한 동현단東峴壇에 배향되었으며, 법원을 직천리 광대암에 묘가 있다.

윤백원 尹百源 1528년(중종 23)~1589년(선조 2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거용巨容이다.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을 지낸

원로元老의 아들이며, 인종의 딸딸 효혜공주孝惠公主의 딸 김씨와 혼인하였다.

1562년(명종 17)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을 거쳐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올랐다. 문정왕후가 그의 고모였으나, 그는 작은아버지 윤원형이 세력 다툼 끝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즈음 윤원형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명종은 인순왕후仁順王后的 외숙 이량李樛를 중용하고 있었다. 이를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호기로 여겨 그는 이량의 당여가 되었다. 이량의 후원으로 급제 후 1년 만에 사간司諫이 되고 자신의 기반도 점차 넓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장차 사화를 일으켜 사람을 완전히 제거하려던 이량의 음모가 1563년 대사헌 기대항측大恒에 의하여 탄로났다. 더욱이 이량, 이감李戡, 신충헌愼忠獻, 권신權信, 이감분李戡分 등과 함께 6간奸으로 지목되어 파직당하고 회령으로 유배되었다. 1565년 문정왕후의 유언에 따라 가까운 곳으로 이배되었으며, 1577년(선조 10) 간성으로 이배되었다가 풀려났다. 불운했던 관직 생활은 1589년 가정불화로 인해 가족들에 의하여 독

살되는 불행으로 이어졌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번 尹蕃 1384년(우왕 10)~1448년(세종 30).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온지溫之이다. 이름을 번蕃으로 쓰기도 한다. 세조의 장인이며, 고려 말 판도판서版圖判書 승례承禮의 아들이다.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신천현감을 거쳐 1428년(세종 10) 군기시판관軍器寺判官을 역임하였다. 딸이 수양대군의 부인이 되자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에 승진되고, 이어 공조참의工曹參議가 되었다. 1434년 이조·호조의 참판參判, 경창부윤慶昌府尹을 거쳐 1439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대사헌大司憲 등을 지냈다. 1440년 우참찬右參贊·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어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가 되었으나 품병으로 사직하고, 1447년(세종 29)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되었다.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정정眞靖이다. 묘는 교하읍 당하리 정정공파 묘역에 있으며, 아래에 부인 인천 이씨의 묘가 있다.

윤보 尹甫 ?~1494년(성종 2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파평부원군 번蕃의 손이며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낸 사윤士詢의 아들이다.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내외직의 벼슬을 두루 역임하였다. 1483년(성종 14) 파릉군坡陵君에 봉하여졌다. 1485년 공조참판工曹參判을 거쳐 같은 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사후에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봉종 尹奉宗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벼슬이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다. 탄현면 문지리에 묘가 있다.

윤비경 尹飛卿 1607년(선조 40)~1680년(숙종 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충거沖舉이다. 전적典籍을 지낸 홍립弘立의 손자이며 유건惟健의 아들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후에 참판 이민구李敏求의 문인으로 들어갔다.

1633년(인조 11)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재임齎任이 되었다. 1650년(효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와 전적을 거쳐 정언正言에 올랐다. 이후 10여 년의 관직이 대부분 양사 사이에 머무르면서 각 아문의 둔전과 여러 궁가의 절수折受를 혁파할 것 등 국정 쇄신의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1660년(현종 1) 장령掌令으로 있을 때 효종이 승하한 후 대왕대비의 복제 문제를 놓고 송시열 등 서인의 1년설과 윤선도 등 남인의 3년설이 대립하였다. 이때 윤선도의 상소를 예론에 거기로 의탁한 흥계라고 지적하면서 국문에 부칠 것을 청하였다. 이후 효종의 부모 때 독축관讀祝官이 된 예에 따라서 당상관에 오르고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지방관으로 나아갔다. 통진현감通津縣監에 있을 때 양전을 시행하고 부역을 부과하여 칭송이 자자하였다. 1667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추방되고 숙종이 회맹會盟할 때 인함仁涵의 적장손이라는 이유로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제수되었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파평군에 봉하여졌으며, 시호는 소정昭靖이다. 파주읍 연풍리에 묘가 있다.

윤비경 尹飛卿의 처 **한산 이씨** 韓山李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부로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시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염을 하기 전 방안에 불이 나자 이씨는 화염을 무릅쓰고 달려 들어가 시체를 업고 나오려다가 시어머니 한씨와 함께 분사하였다. 이러한 효행으로 정려되었다.

윤사분 尹士吩 1401년(태종 1)~1471년(성종 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계휘繼輝이다.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변璠(또는 璠)의 아들이며, 세조 비 정희왕후貞熹王后的 오빠이다.

1426년(세종 8) 문음으로 중부녹사中部錄事가 되고 세자익위사우위솔世子翊衛司右衛率,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형조좌랑刑曹佐郎, 호조좌랑戶曹佐郎,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형조정랑刑曹正郎 등을 거쳐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를 지내고 이어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1455년(세조 1)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거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좌익원종공신左翼原從功臣 1등에 봉하여졌다. 그 뒤 첨지돈령부사僉知敦寧府事, 인수부윤仁壽府尹, 공조참판工曹參判,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중추원사

中樞院使,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등을 역임하였다. 1464년(세조 10) 우찬성右贊成, 좌찬성左贊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거쳐 1468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가 되었다. 이해 예종이 즉위하자 우의정右議政, 이듬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1470년(성종 1)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다. 시호는 이정夷靖이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사흔 尹士昕 1422년(세종 4)~1485년(성종 16).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필보弼甫이다. 아버지는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번췌이며, 어머니는 이문화李文和의 딸이고, 누이는 세조 비 정희왕후貞憲王后이다.

1455년(세조 1) 군기감정軍器監正으로 출사하였고, 이어 정랑正郎으로 좌익원종공신左翼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 1458년 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가 되었으며, 형조참의刑曹參議·이조참판吏曹參判을 거쳐 1460년 호조참판戶曹參判이 되었으나, 의정부전리議政府典吏를 마음대로 문책한 탓으로 탄핵을 받고 관직이 박탈되었다가, 다음 해 다시 등용되어 인순부윤仁順府尹이 되었으며, 중추원사中樞院事·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

임하고, 1471년(성종 2) 성종을 옹립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공으로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1473년(성종 4) 대사헌大司憲 서거정徐居正으로부터 훈척대신勳戚大臣으로 총병總兵의 직에 있으면서 병권을 마음대로 천단하였다고 탄핵되었다. 1475년 우의정右議政에 올랐으며, 1483년(성종 14) 파천부원군坡川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시호는 양평襄平이다. 묘는 교하읍 당하리 정정공파 묘역 내에 있다.

윤선거 尹宣舉 1610년(광해군 2)~1669년(현종 10).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길보吉甫, 호는 미촌美村·노서魯西·산천재山泉齋이다. 아버지는 대사간大司諫 황煌이며, 어머니는 창녕 성씨昌寧成氏로 혼渾의 딸이다. 문거文學의 아우이며, 증拯의 아버지이다.

김집金集의 문인으로 1633년(인조 11) 식년문과에 형 문거와 함께 급제하였다. 1636년 청나라의 사신이 입국하자 성균관의 유생들을 규합하여 사신의 목을 베어 대의를 밝힐 것을 주청하였다. 그해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이듬해 강화도가 함

락되자 처 이씨가 자결하였으나 평민의 복장으로 탈출하였다. 1651년(효종 2) 이래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장령掌令 등이 제수되었으나, 강화도에서 대의를 지켜 죽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김집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성리학 예학禮學에 잠심하였다. 송시열이 경전주해經傳註解 문제로 윤휴尹鑄와 사이가 나빠지자, 평소 윤휴와 친교가 깊었고 그의 재질을 아끼는 마음에서 변호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교분이 두터웠던 송시열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뒤에 노소 분파의 한 계기가 되었다. 유계俞榮와 함께 저술한 『가례원류家禮源流』, 『후천도설後天圖說』 및 이에 관하여 유계와 논변한 편지를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영춘의 송파서원松坡書院, 영광의 용암사龍巖祠, 노성의 노강서원魯岡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노서유고』 26권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묘는 탄현면 법흥리에 있다.

윤선교 尹善交 1816년(순조 16)~1864년(고종 1).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벼슬

이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이르렀다. 교하읍 와동리에 묘가 있다.

윤세기 尹世紀 1647년(인조 25)~1712년(숙종 38).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해평海平이며, 자는 중강仲綱, 호는 용포龍浦이다.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 두수斗壽의 고손이며, 호조판서戶曹判書 개堦의 아들이다.

1675년(숙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에 임명되었다. 1682년 장령掌令에 올랐고, 1684년 김환金煥이 모반을 일으킨다는 무고 가 있었을 때 여기에 동조하지 않다가 영흥부사永興副使로 좌천당했다. 1687년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이어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있으면서 『비망기備忘記』의 환수를 청하였다가 파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승지承旨로 복직되었고, 1689년 장렬왕후莊烈王后가 죽자 고부사告訃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같은 해 기사환국으로 아버지와 함께 또다시 파직되어 유배 길에 오르기도 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가 일어나자 오랜 유배생활에서 풀려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제수되었다. 그

뒤 서북면 출신의 무신도 선전관宣傳官으로 기용하라는 왕명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다시 파직되었다. 그러나 높은 학식을 인정받아 1705년 호조판서戶曹判書로 기용되었고 우참찬右參贊,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좌참찬左參贊, 예조판서禮曹判書 등을 지냈다. 이렇듯 정치적인 우여곡절 속에서 파직과 복직을 거듭했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아 요직을 많이 거쳤다. 재직 시에 이도吏道를 공정히 적용하여 만사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였다. 각각의 인물을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공로에 따라 관직을 높여 주기에 힘썼으며 상벌을 엄정히 시행하였다. 한편으로는 균율을 엄격히 하여 상하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한다. 시호는 효헌孝獻이다. 군내면 읍내리에 묘가 있다.

윤수민 尹壽民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참관을 지낸 길림의 아들이다.

1583년(선조 16) 알성시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예조참의禮曹參議를 거쳐 예조참판禮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1615년(광해군 7) 사헌부대사헌

司憲府大司憲에 제수되었으며, 1617년에는 동의금부사同義禁府使로서 왕명을 받들어 실도사實都事를 거느리고 종로·동대문·남대문의 길가에 백패白牌를 써 붙이기도 하였다. 평소 조정에서 정사를 논할 때 겸손한 면모를 보였다고 전한다. 오랫동안 세거하였던 탄현면 문지리에 묘가 있다.

윤순 尹淳 1680년(숙종 6)~1741년(영조 17).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서예가이다. 본관은 해평海平이며, 자는 중화仲和, 호는 백하白下 또는 학음鶴陰이다. 지평持平을 지낸 세선世善의 아들이다.

1712년(숙종 38) 진사시에 장원을 하였으며,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부수찬副修撰으로 출발하여, 1723년(경종 3) 응교應教로서 사은사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를 다녀왔다. 1727년(영조 3) 이조판서吏曹判書로서 대제학大提學을 겸직하였으며 이인좌의 난에 감호제군사監護諸軍使가 되었고, 1729년(영조 5)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올랐다. 그 뒤 예조를 거쳐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있다가, 1739년(영조 15)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거쳐 평안도관찰사平安

道觀察使로 전임하였는데, 관하를 순찰 중에 벽동碧潼 땅에서 객사하고 말았다.

그는 오천梧川 이종성李宗城과 진퇴를 같이하였으며, 그가 먼저 장단 백학산 아래에 복거하였다. 그의 정원에 샘이 있었는데, 그가 그 집에서 떠나면 샘이 말라 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샘이 솟아났다고 하여 후일 그 집을 '내천來泉'이라고 불렀다. 또한 그는 당대의 명필로서 송나라의 미남궁체米南宮體를 완전히 터득하였으며, 필법이 안평대군, 김구金絿, 양사언楊士彦, 한호韓濩 등 4대가보다도 뛰어났다고 평가되고 있다. 저서로서 『백하집白下集』이 있다.

윤순거 尹舜舉 1596년(선조 29)~1668년(현종 9).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노직魯直, 호는 동토童土이다. 아버지는 대사간大司諫 황煌이며, 어머니는 당대의 명유인 성훈成渾의 딸이다. 죽산부사를 지낸 큰 아버지 수繼에게 입양되었으며 외삼촌인 성문준成文濬에게 학문을, 강항姜沆에게 시를, 김장생金長生에게 예를 배웠다.

1633년(인조 11) 사마시에 합격하여 내시교

관內侍敎官에 임명되었으나 직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아가지 않았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아버지가 척화죄로 귀양 가고, 작은아버지 전崇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자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1645년 대군사부大君師傅가 되어 벼슬길에 올랐다. 이어 상의원주부尙衣院主簿, 형조좌랑刑曹佐郎, 안음현감安陰縣監, 의령현감宜寧縣監 등을 지냈다. 의령현감으로 재직 시 이황과 남효온의 사祠를 건립하였다. 1655년(효종 6)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 공조정랑工曹正郎을 거쳐 금구현령金溝縣令으로 나아갔다. 1660년(현종 1) 영월군수寧越郡守가 되어 『노릉지魯陵誌』를 편찬하고 단종의 사묘인 지덕암旨德庵을 중건하였다. 1665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제수되었으나 오르지 않았다. 그 뒤 사직서령社稷署令, 세자의위사의위世子翊衛司翊衛, 군자감정軍資監正, 예빈시정禮賓寺正, 상의원정尙衣院正 등을 지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난 학자로서 이이의 『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鄉約』과 주희의 『가례』에 의거하여 매년 한 차례씩 모든 종인宗人이 함께 모여 조상을 받들고 자제를 교육시키는 종약을 제정하여 실천하였다. 강항을 위하여 『강감회요서

綱鑑會要序』·『수은강공행장睡隱姜公行狀』을 저술하고, 강항이 포로생활 중 견문한 것을 기록한 책인 『간양록看羊錄』 등을 편찬하여 존왕양이의 정신을 고취하였다. 단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집하여 『노릉지』를 편찬함으로써 조선의 유교적 사회질서인 군신관계를 전제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나중에 찬선贊善에 추증되었으며, 연산의 구산서원龜山書院, 영광의 용계사龍溪祠, 금구의 구성서원九成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동토집童土集』, 『노릉지』가 있다. 철원의 심원사취운당대사비深源寺翠雲堂大師碑는 그가 쓴 글씨이다.

윤안인 尹安仁 1440년(세종 22)~1538년(중종 33).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달지遶之이다.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된 림琳의 아들이다.

1516년(중종 11) 별시문과에 급제하였고, 다음 해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를 역임하였다. 1527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1527년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에 제수되었다. 1533년 봄 외직으로 나아가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부임하였

다.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 1535년 좌승지左承旨에 이어 우승지右承旨를 지냈다. 그 바로 뒤에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나아가 민심을 살폈다. 1536년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올랐고, 이듬해 당시 크게 세력을 떨치던 김안로를 축출하는 데 앞장섰다. 같은 해 병조참판兵曹參判과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냈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암 尹巖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태종의 딸 숙경옹주淑慶翁主의 남편이다. 좌익공신左翼功臣 2등에 책훈되었으나 일찍 사망하였다. 파평군坡平君에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제도齊度이다. 장단에 묘가 있다고 전한다.

윤여필 尹汝弼 1466년(세조 12)~1555년(명종 10). 중종의 장인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참판보甫의 아들이고, 중종 비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아버지이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죄인 윤필상尹弼商의 족친이라 유배되었으며, 1506년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녹훈

되었다. 이듬해 딸이 숙원(淑媛)에서 왕비로 책봉되자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에 봉하여지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가 되었다. 1527년(중종 22) 동궁 내에 저주하는 물건이 나온 것을 우의정 심정(沈貞)에게 알려 조사하게 하였고, 그 뒤 아들 임과(任可) 함께 세자(훗날의 인종)의 보호에 진력하면서 윤원형(尹元衡) 등의 소윤과 대립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로 아들 임이 사사(賜死)되었으나, 80세의 노령에다 선후(先后)의 아버지이므로 특별히 용인에 부처되었다가 1551년(명종 6) 풀려났다. 사후에 복관되었으며 시호는 정헌(靖憲)이다. 교하읍 당하리 정정공파 묘역에 묘가 있다.

윤여해 尹汝諧 1480년(성종 11)~1546년(명종 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화중(和仲)이다. 참판(參判)을 지낸 파릉군(坡陵君) 보甫의 아들이다.

1504년(연산군 10) 이세좌(李世佐)의 죄를 물을 때 연루되어 곤장형에 처해진 후 먼 곳에 부처되었다. 그 뒤 사면되어 형관(刑官), 사복시관(司僕寺判官), 상의원판관(尙衣院判官), 훈련원정(訓練院正

등을 거쳐, 1534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함경도병마절도사(咸鏡道兵馬節度使)로 나갔다. 1545년(인종 1)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으로 있다가 계림군(桂林君) 류瑠의 역모 사건에 관련되어 조카인 임과(任可) 충주에 유배당하여, 이듬해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영수 尹英秀 1853년(철종 4)~1894년(고종 3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1879년(고종 16)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으나 벼슬이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다. 교하읍 와동리에 묘가 있다.

윤우 尹愚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태종의 딸 숙녕옹주(淑寧翁主)의 남편이며 영평군(淸陟)의 고손이다. 좌익공신(左翼功臣)에 녹훈되었고, 파성군(坡城君)에 봉하여졌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광탄면 창만리에 묘가 있다.

윤옥 尹瑛 1459년(세조 5)~1485년(성종 16). 조

선 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직지直之이다. 양평공襄平公 사흔士昕의 후손이며 공양공恭襄公 계겸繼謙의 아들이다. 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 지임之任의 아버지이다.

1475년(성종 6)에 문음으로 발탁되어 돈령판관敦寧判官에 제수되었고 1480년(성종 11) 내자판관內資判官이 되었으나, 1483년 부친상을 당하고 상복을 입던 중인 1485년 5월에 2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손녀딸이 중종의 비 문정왕후文定王后가 되어 사후에 보국승록대부영돈령부사파산부원군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坡山府院君으로 추증되었다. 묘는 교하읍 당하리에 있다.

윤원개 尹元凱 1493년(성종 24)~1535년(중종 30).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순거舜舉이다. 윤지임尹之任의 장남으로, 장예원사평掌隸院司評을 지낸 바 있다.

윤지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아들이 원형元衡이고 넷째 아들이 원로元老였다. 윤원개는 동생들이 권력을 남용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개하여 벼슬길을 단념하고 원형·원로와는 형제의 의를 끊어 버렸다. 그는 두문

불출 칩거하면서 자식들도 공부시키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벼슬하지 말도록 경계하였다. 당시 윤원개의 아들 윤기尹紀는 이미 대학자로 이름이 있었지만 과거를 거부하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또 그 아들에 '구두쇠'라 하는 일자무식이 있었다. 조정에서 선대의 공을 생각하여 구두쇠에게 벼슬을 주려고 불렀으나, 무식하고 이름조차 구두쇠라 하므로 한자 기명을 하다 보니 윤견철尹堅鐵로 되었다고 한다. 윤원형으로 말미암아 종친 간에 피해가 컸으나 윤원개는 처음부터 윤원형을 절연하였기 때문에 그의 처벌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10대 후에 윤구영尹求永이 처음으로 과거에 올랐다. 윤원개 5형제의 묘는 모두 교하읍 당하리에 있는데 윤원형의 묘는 한때 박탈당했던 것을 후손인 정배理培가 다시 묘석을 세웠다.

윤원로 尹元老 ?~1547년(명종 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 지임之任의 아들이다.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오빠라는 기반을 등에 업고 동생인 윤원형과 함께 그 권

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그러나 경쟁자였던 김안로(金安老)가 권세를 부리자 대운·소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싸움은 윤임(尹任)이 김안로의 세력을 배경으로 동궁(東宮(훗날의 인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종에게 아뢰어 동생 윤원형과 함께 자신을 내쫓았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 번은 김안로와의 대결로 1537년(중종 32) 파직되어 유배당했다가 같은 해 김안로가 사사된 뒤 풀려난 적이 있었다. 이후 동궁이 장성하도록 아들도 없이 병약해지자, 세자를 바꾸어 세운다는 소문을 지어 나라 안에 전파시키거나 또는 문정왕후 소생인 경원대군(慶源大君(훗날의 명종))이 위태롭다는 말을 퍼뜨려 대운과 소운의 싸움은 더욱 격화되었다. 1544년 11월 인종이 즉위하고 대운이 정권을 잡게 되자 파직되었다. 그러나 1545년 7월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다시 기용되어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에 올랐다. 같은 달 윤인경(尹仁鏡) 등의 탄핵으로 또다시 파직당해 권세를 다투면서 공신에 참여하지 못함을 분히 여겨 자주 불평을 말하다가 윤원형의 죽질이며 심복인 병조좌랑 윤춘년(尹春年)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고 유배되어 배소에서 사사

되었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원필 尹元弼 1496년(연산군 2)~1547년(명종 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인재(隣哉)이다. 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 지임(之任)의 아들이다. 상의원정(尙衣院正)을 역임하였으며, 1564년(명종 19) 위사원종공신(衛士原從功臣)으로 녹훈되면서 대호군겸내승(大護軍兼內乘)에 제수되었다. 후에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증직되었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원형 尹元衡 ?~1565년(명종 2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언평(彦平)이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지임(之任)의 아들이며,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동생이다.

1528년(중종 23) 생원시에 합격하고, 1533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1537년 김안로에 의하여 파직되어 유배되었다가 이해 김안로가 사사되자 풀려나왔다. 그 뒤 수찬(修撰), 교리(校理), 지평(持平), 응교(應教) 등을 역임하였다. 세자(훗날의 인종)를 폐위하고 문정왕후의 소생인 경원대군(慶原大君) 환(桓(훗날의 명종))을 세자

에 책봉하려는 모의를 진행함으로써 세자의 외숙인 윤임尹任과 알력이 생겨, 1543년에는 윤임 일파를 대운大尹,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일파를 소운小尹이라 하여 외척 간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좌부승지左副承旨·좌승지左承旨·공조참판工曹參判이 되었는데, 인종이 즉위하자 정권을 장악하게 된 대운의 송인수宋麟壽의 탄핵으로 삭직되었다. 그러나 인종이 8개월 만에 죽고 11세의 어린 나이로 명종이 즉위하면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자, 이를 계기로 득세하여 예조참의禮曹參議에 복직되었다.

대운 일파를 숙청하기 위하여 이기李珪, 정순봉鄭順朋, 임백령林百齡 등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안으로는 난정蘭貞이라는 자기의 첩을 궁중에 들여보내어 대비와 임금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다. 1545년 8월 29일 궁중에서 의금부에 전지를 내려 윤임·유관·유인숙 등을 사사하였으며, 권력을 장악한 그는 평소애 원한 있는 이들을 유배 또는 삭직하여 적대세력을 도태시켰다. 을사사화 후 그 공으로 보익공신保翼功臣 3등이 되고 이어 위사공신衛社功臣 2등으로 개봉改封되어

서원군瑞原君에 봉하여졌다. 위력과 권세가 높아 지자 뇌물이 폭주하였고 아내를 내쫓고 기생첩 난정을 정경부인에 봉하였다.

1546년(명종 1) 형인 윤원로와 권력을 다투었으나 그가 유배됨으로써 더욱 세력을 굳게 하고, 1547년(명종 2) 양재역 벽서사건을 계기로 대운의 잔당을 모두 숙청하였다. 동지춘추관사春秋館事로서 『중종실록』과 『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1548년(명종 3)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겸직하고 1557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듬해 다시 우의정右議政이 되었으며, 1560년 서원부원군瑞原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563년(명종 18) 영의정領議政에 올라 영화를 누리다가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죽자 실각하여 관직을 삭탈당하고 방귀전리放歸田里되었으며, 강음江陰에 은거하다가 죽었다. 교하음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원형 尹元亨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자로 파주 출신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소정공昭靖公 곤坤의 후손이며, 기성基成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부모 섬기는 도리를 알았다. 14세 어

린 나이에 부친상을 당했으나 복상하지 못함을 한하여 평생 교우의 부모가 구존한 것을 보면 눈물로 옷깃을 적시곤 하였다. 편모를 모시는데 정성을 다하여 조그만 일이라도 자의로 하지 않고 항시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반신을 못 쓰게 되자 항상 좌우로 부축하였고, 음식을 드실 때에는 시축하는 효행을 20여 년이 넘도록 실천하였다.

윤유준 尹有俊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좌승지左承旨를 역임하였다. 후에 좌참찬左參贊에 추증되었다. 묘가 교하읍 당하리에 있다.

윤자 尹慈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증조부는 승례承禮이고, 조부는 인수부윤仁壽府尹 보로普老이며, 아버지는 상호군上護軍 수미須彌이다. 어머니는 문화 류씨 文化柳氏 문숙文肅 사눌思訥의 딸이고, 부인은 박석산朴石山의 딸이다.

전직殿直을 거쳐 1447년(세종 29) 정묘 식년문과에 정과 6등으로 급제한 후 1458년(세조 4) 행

사언집의行司憲執義가 되었고, 1465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1469년(예종 1)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에 이르렀다. 『파주읍지坡州邑誌』에 기록되어 있다.

윤지임 尹之任 ?~1534년(중종 29). 조선 중기 왕실의 외척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문정왕후文定王后와 원로元老, 원형元衡의 아버지이다.

1514년(중종 9) 딸이 중종의 계비로 간택되어 국궁國舅로서 돈령부사敦寧府事·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에 봉군되었다. 사후 11년 후에 아들 원형이 소윤의 영수가 되어 대운 윤임尹任 일당을 몰아내는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춘년 尹春年 1514년(중종 9)~1567년(명종 2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언구彦久, 호는 학음學音·창주滄洲이다.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낸 안인安仁의 아들이다.

1534년(중종 29) 생원이 되고, 1543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문한직文翰職을 역임하다가 명종이 즉위한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친족인 소윤 윤원형에 가세하여 대운 일파의 제거에 앞장섰다. 다음 해 병조좌랑兵曹佐郎으로서 윤원로가 탐학하고 방자한 죄상을 저질렀다는 상소를 올려 그를 제거하는 데 힘썼다. 이를 계기로 윤원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어 이후 급속히 출세 길에 들어섰다. 이후 병조정랑兵曹正郎, 이조좌랑吏曹佐郎,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 등을 거쳐 1549년(명종 4)부터 1552년까지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教·전한典翰,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554년 가신대부嘉善大夫에 올랐고 이듬해 예조참판禮曹參判을 거쳐 1557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1558년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냈고 동지사겸 주청사冬至使兼奏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올랐다. 1565년 예조판서로 있을 당시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형이 제거되자 파직당하고 향리에 은거하여 말년을 보내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평소 집안에 드나드는 잡객이 없었고 가끔 서산대사 같은 사람을 맞이하여 초당으로 가 자연

을 논하곤 하여 세속을 벗어날 생각도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성격이 급하고 자부심이 강하여 일찍부터 대학자로 자처하는 등 공명심이 높았다 한다. 한번은 이천利川에 사는 진사가 풀지 못한 문자를 보여 주자 조목조목 해석하여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초학 서생들이 지은 시부를 보고 평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자신도 음률에 맞춰 시 짓기를 즐겨하여 많은 시가 남아 있다. 주색을 즐기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등 비교적 청렴결백하였다고 하여 청백리로 뽑히기도 하였다. 문집으로 『학음고學音稿』가 전한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윤필상 尹弼商 1427년(세종 9)~1504년(연산군 10).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탕좌湯佐이다. 삼한공신三韓功臣 신달辛達의 후예로 아버지는 경珊이며, 어머니는 이목李穡의 딸이다. 파주에 조부모가 살았고, 부모의 분묘가 있어 파주에 왕래가 잦았다.

1447년(세종 29) 사마시를 거쳐 1450년 추장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453년(단종 1) 저작著作이 되었고, 1455년(세조 1) 호조좌랑戶曹佐郎으

로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된 뒤 서연관書筵官이 되었다. 1457년(세조 3) 증시에 급제하였으며, 1463년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된 뒤 형방승지刑房承旨·도승지都承旨 등을 역임하면서 세조의 측근에서 신임과 총애를 받았다. 1467년 이시애의 난 때 도승지로 왕명을 신속히 처리하여 우참찬右參贊에 특배되고,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에 녹훈되어 파평군坡平君에 봉하여졌다. 같은 해 강순康純 등이 파저강婆猪江 주위의 야인을 토벌할 때 왕명을 받고 진군에 가서 개선군들을 위유慰諭하였고, 이듬해는 원접사遠接使인 안주선위사安州宣慰使로 명나라 사신을 맞았다. 이해에 세조가 죽자 수묘관守墓官으로 능을 3년간이나 지켰고, 좌리공신佐理功臣이 되었다.

1471년(성종 2) 우찬성右贊成으로 재직 시 경상도에 가뭄으로 심한 기근이 들자 진흥사賑恤使가 되어 기민을 구제하였고,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겸하여 이듬해까지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 공으로 모의毛衣·녹비화鹿皮靴를 하사받았다. 1474년(성종 5)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의금부당상義禁府堂上을 겸직하였다. 1477년(성종 8)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 사복을 채웠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다시 풀려나와 좌찬성左贊成이 되고,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건주위建州衛의 야인들을 자세히 탐지·보고하였으며, 이듬해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거쳐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다. 1479년 명나라에서 야인을 치려고 조선에 군사를 요청하자 우의정으로 서정도원수西征都元帥로 뽑혀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건주위를 토벌하여 큰 전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1481년 사은사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84년에는 영의정領議政이 되어 부원군府院君에 봉하여졌다. 그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1496년(연산군 2)에는 궤장几杖을 하사받는 영예를 누렸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생모 윤비의 폐위를 막지 않았다고 추죄되어 진원珍原의 유배지에서 사사賜死의 명을 받았으나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그 뒤 중종반정 때 신원되었다. 묘는 개성 북면에 있다.

윤호 尹虎 ?~1393년(태조 2).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중문仲文이다. 해偲의 아들이며, 조선의 개국공신이다.

1373년(공민왕 22) 판사判事로 재직 시 왕과 내기 바둑에 저 고시古詩를 짓게 되었다. 그 시는 “남 몰래 속이는 것도 아니 되는데, 밝은 데에서 속이면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손手을 가지고는 천하의 눈을 가리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다. 공민왕은 이것이 자신을 풍자한 것이라 하여 그를 멀리하고 뒤에는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로 보냈다. 1375년(우왕 1) 이인임 탄핵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으나, 1381년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왜구를 소탕하였다. 1385년 문하평리門下評理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388년 요동 정벌 때 이성계 휘하의 조전원수助戰元帥로 활약하였다. 조선 개국 때 이성계를 도운 공으로 협찬추대공신協贊推戴功臣이 되었으며, 1393년(태조 2) 명나라 사신으로 가다가 도중에 사망하였다. 사후에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에 추증되었다. 문산읍 사목리에 단이 마련되어 있다.

윤호 尹壕 1424년(세종 6)~1496년(연산군 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숙보叔保이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삼산

三山의 아들로, 성종 비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아버지이다.

1476년(성종 7)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이르렀다. 성종이 그의 딸을 왕비로 삼자 국구國舅로서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에 봉하여졌다.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88년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에 이르고 이듬해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를 겸하였다. 1494년 우의정右議政으로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성품이 검소하고 교만하지 않아 외척으로서 세도는 추호도 찾을 수 없었다. 저서로 『파천집坡川集』이 있다. 시호는 평정平靖이다. 묘는 마전군麻田郡(현 연천군)에 있다.

윤홍 尹泓 1713년(숙종 39)~1769년(영조 4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여담汝淡, 호는 모반재募班齋이다. 양평공襄平公 사흔士昕의 손자이며 통덕랑通德郎에 오른 재정재廷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삼화·해남·순천·무안의 군수를 역임하였다. 이후 부령도호부사富寧都護府使에 올랐고 부령진병마첨

절제사富寧津兵馬僉節制使를 겸직하였다.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교하읍 다울리에 묘가 있다.

윤홍국 尹弘國 1576년(선조 9)~1616년(광해군 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자는 장경長卿, 호는 족와足窩이다. 수운관관水運判官 상商的 아들이고 안국의 아우로 적성현에서 태어났다. 정철과 김장생에게서 수학하였다.

생원으로 1601년(선조 34)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604년 병조좌랑兵曹佐郎,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이 되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왕조실록 재간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울산판관蔚山判官에 이어 북평사직강北評事直講,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이 되었다. 1615년(광해군 7)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이듬해에 죽었다. 그가 낮은 직급의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정철이 탄핵을 받았을 때 이에 연좌되었으며, 간신 이이첨이 그를 꺼렸기 때문이다. 일찍이 성혼을 만났을 때 그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옛것을 사모하고 의를 중하게 여겼으며, 세속에 초연하고 안빈낙도를 몸

소 실천하였다. 말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사촌沙村으로 돌아와 시를 남겼다. 묘는 적성 사촌리(현 양주시)에 있다.

윤홍립 尹弘立 1563년(명종 1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가수可守이다. 예조참판禮曹參判을 지낸 인함仁涵의 둘째 아들이다. 일찍부터 뛰어난 재질을 보였으며 이이·성혼으로부터 수학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다고 한다.

1592년(선조 25) 진사가 되고 1606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직장直長에 임명되었다. 그 뒤 금성군수金城郡守로 나아가 민심을 돌보았다. 그 당시 인근 고을의 원으로 있던 김장생과 친분을 맺어 학문을 논하면서 두터운 교분을 나누었다. 후에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으며 대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다. 파주읍 연풍리에 묘가 있다.

윤황 尹煌 1571년(선조 4)~1639년(인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덕요德耀, 호는 팔송八松이다. 창세昌世의 아들이

며, 전술의 형이다. 파평면 늘노리 갯돌말에 택지가 있었다.

1597년(선조 30)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임명되었다. 1599년 주서主書로 입시한 뒤 군사감첨정軍資監僉正·성균관전적성均館典籍을 거쳐, 1601년에 감찰監察이 되었으며 곧 정언正言으로 옮겼다. 그는 정언으로서 홍문관은 중요한 부서이므로 은상恩賞으로 사사로이 임명할 수 없으며 척신의 직을 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병조·예조의 좌랑佐郎, 예조정랑禮曹正郎을 거쳐, 북청판관北靑判官으로 나갔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북청판관으로 성가한 자제를 거느리고 관아에 머물고 있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며, 광해군의 정치가 문란하여지자 시골에 은거하였다. 1626년(인조 4) 사간司諫·보덕輔德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주화主和에 반대하며 이귀李貴·최명길崔鳴吉 등 주화론자의 유배를 청하고 항장降將은 참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주화는 항복이라고 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삭탈관직 되어 유배의 명을 받았으나 삼사의 구원으로 화를 면하였다. 그 이듬해 다시 사간司諫이

되었고 길주목사吉州牧使, 안변부사安邊府使, 사성司成, 승지承旨, 대사성大司成 등을 역임하였으며, 1635년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이때 전란으로 어려워진 백성의 구급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정묘호란 때와 같이 척화를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집의執義 채유후蔡裕後, 부제학副提學 전식全湜의 탄핵을 받고 영동군에 유배되었다가 병으로 풀려나와 죽었다. 사람됨이 강의剛毅하고 기절氣節이 있었다는 평을 들었다. 영광의 용계사烏龍溪祠宇, 영동의 초강서원草江書院, 노성의 노강서원魯岡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팔송봉사八松封事』가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윤흠 尹欽 1418년(태종 18)~1485년(성종 16).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파평이고 자는 경지敬之이다.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사분士畊의 아들이다.

음보로 벼슬에 올라 남부녹사南部錄事에 임명되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별시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여 1454년(단종 2) 의금부지평義禁府持

주에 올랐다. 그러나 이듬해에 승도僧徒에 대한 치죄를 너무 가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1455년(세조 1) 12월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고, 내섬시소윤內贍寺小尹, 선공감정繕工監正 등을 거쳐 그 이듬해 좌승지左承旨에 올랐다. 그러던 중 임금의 사냥 길에 수행하지 않은 죄로 고신이 몰수되었다가 다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복직되었다. 이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중추부사中樞副使, 부총관副總管, 병조참판兵曹參判,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도총관都總管 등 여러 벼슬을 하였다. 1469년(예종 1)에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고, 성종 초기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판한성부윤判漢城府尹 등을 지냈다. 1475년(성종 6) 호조판서戶曹判書, 1481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교하읍 와동리에 묘가 있다.

윤희경 尹姬慶 생몰년 미상. 조선 명종 때의 효자이다. 할머니가 죽자 심상心喪 3년을 지냈으며, 어머니가 죽어서는 파주에서 묘를 지키면서

3년간을 한 번도 여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조식으로 산소에 올라가 분향하고 전을 올렸으며, 슬피 울고 머리띠와 허리끈을 풀지 않고 종일 무릎 꿇고 앉아서 『소학』과 『가례』만을 읽었고, 제사는 반드시 예문을 따랐다. 복을 마치자, 그가 9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상복을 입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3년간의 추복追服을 모친상 때와 똑같이 하였다. 그래서 40여 세에 머리가 모두 백발이 되었다. 복을 마치고 재산을 분배할 때 가난한 선비에게 출가한 여동생에게 노비와 전답을 두 배로 주니 온 마을이 모두 탄복하였으며 명종이 이조에 일러 관직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윤희영 尹禧永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벼슬이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다. 교하읍 와동리에 묘가 있다.

윤희정 尹希定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형조참판刑曹參判을 역임하였다. 교하읍 당하리에 묘가 있다.

이간李侃 1539년(중종 34)~1592년(선조 25). 조선 중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세종의 아홉째 왕자 익양군益陽君의 손자로 도정都正을 역임하였고 청원군靑原君에 추봉되었다. 묘역은 교하읍 교하리에 있으며, 원형 봉분 1기와 묘비 1기, 망주석 2기, 동자석 2, 상석 1, 향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비는 마모가 심하여 비명碑銘 외의 글자는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수부에는 이무기와 구름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이감李璫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세종의 현손으로 희안군禧安君의 아들이다. 금천군錦川君에 봉하여졌다. 파평면 금파리에 묘가 있다.

이거李栗 1439년(세종 21)~1450년(문종 즉위년).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세종의 열여덟 번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신빈 김씨愼嬪 金氏이다. 1446년(세종 28) 8세에 담양군潭陽君에 봉하여졌다. 1450년 부왕 세종이 승하하던 해에 12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다.

세종의 상증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한 복상은 없었다. 다만 담양군이 사망하기 전에 중추원부사 남경우南景佑의 딸과 혼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복상이 문제되었고 이를 조정에서 논의하였지만 없던 일로 하였다. 세조 때 특명으로 신빈 김씨의 맏아들인 계양군桂陽君의 2남 강양군江陽君 이숙李濬으로 하여금 후사로 삼아 제사를 모시게 하였다. 담양군의 시호는 이애夷哀(처음에는 회간懷簡)다. 파평면 금파리에 묘가 있다.

이건명李建命 1663년(현종 4)~1722년(경종 2).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중강仲剛, 호는 한포재寒圃齋이다. 영의정 경여敬輿의 손자이며, 이조판서 민서敏叙의 아들이다.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한 사람이다.

1684년(숙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6년 춘당대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설서說書에 임명되고 수찬修撰, 교리校理, 이조정랑吏曹正郎, 응교應敎, 사간司諫 등을 역임하였다. 1698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우승지右承旨, 대사간大司諫, 이조참의吏曹參議, 이조판서吏曹判書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717년 그의 종형 이

이명李顯命이 숙종의 뒤를 이을 후계자 문제로 숙종과 단독 면대하였던 정유독대丁酉獨對 직후 특별히 우의정右議政에 발탁되어 왕자 연잉군延昉君(훗날의 영조)의 보호를 부탁받았으며, 숙종상肅宗喪에 총호사總護使로서 장례를 총괄하였다. 이어 경종 즉위 후 좌의정左議政에 승진하여 김창집·이이명·조태채趙泰采와 함께 노론의 영수로서 연잉군의 왕세자 책봉에 진력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반대파인 소론의 미움을 받았다. 1722년(경종 2) 노론이 모역한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전라도 흥양興陽의 뱀섬에 유리안치圍籠安置되었다가, 앞서 주청사로 청나라에 가 있으면서 세자 책봉을 요청하는 명분으로 경종이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증癘症(양기가 없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발설하였다는 죄목으로 소론의 맹렬한 탄핵을 받아 유배지에서 목이 베여 죽임을 당하였다.

재상으로 있을 때 민생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양역良役 문제에서 군포 2필을 1필로 감하자는 감필론減証論과 결역전용책結役轉用策을 주장하여 뒷날 균역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문에 능하고 송설체松雪體에 뛰어났다. 송

시열을 학문과 정치의 모범으로 숭배하였으며, 김창집 형제 및 민진원閔鎭遠·정호鄭澍 등과 친밀하였다. 1725년(영조 1) 신원되어 충민忠愍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과천의 사충서원四忠書院, 흥덕興德의 동산서원東山書院, 나주의 서하사西河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시문과 소치疏箚를 모은 『한포재집寒圃齋集』 10권이 전한다. 맥금동에 묘가 있다.

이경여 李敬輿 1585년(선조 18)~1657년(효종 8),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직부直夫, 호는 백강白江·봉암鳳巖이다. 목사牧使 수록綬祿의 아들이다.

1601년(선조 34) 사마시를 거쳐,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611년 검열檢閱이 되었으나, 광해군의 실정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취임하였고,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에 호종하고, 이어 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의 종사관이 되었다. 1630년(인조 8) 부제학副提學, 청주목사淸州牧使, 좌승지左承旨,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모시고 남한산성에 피난하였다. 이듬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고,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대사성大司成을 겸임하여 선비 양성의 정책을 상주하였고, 이어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승진하였다. 1642년 배청친명파로서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계李愬가 청나라에 밀고함으로써 심양瀋陽에 억류되었다가 이듬해 세자와 함께 귀국하여 우의정右議政이 되었다. 1644년 사은사로 청나라에 갔다가 다시 억류되었으나, 그동안 본국에서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라는 벼슬을 내렸다. 이듬해 귀국한 후 1646년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사사賜死를 반대하다가 진도에 유배되었고 1648년 삼수에 위리안치되었으나, 이듬해 효종이 즉위하자 풀려나와 1650년(효종 1) 다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다. 이어 영의정領議政으로 사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청나라의 압력으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전임하였다. 시문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부여의 부산서원浮山書院, 진도의 봉암사鳳巖祠, 흥덕의 동산서원東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백강집白江集』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탄현면 법흥리에 묘

가 있다.

이경중 李敬中 1543년(중종 38)~1584년(선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공직公直, 호는 단애丹崖이다. 세종의 아들인 계양군桂陽君 증증의 4대손이며, 금천군錦川君 감瓚의 둘째 아들이다.

이황의 문인으로 1568년(선조 1) 성균관의 유생으로 들어갔으며, 1570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록弘文錄에 선임되었다. 1574년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이어서 저작著作, 정언正言을 지냈다. 1581년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있을 때 당시 명망을 얻고 있던 정여립의 됃됨이를 보고 후일 화를 끼칠 인물이라 하여 극력 배척하면서 중요한 자리에 두지 말라고 논책하였다가 도리어 파직되었다. 이후 장령掌令, 응교應敎를 거쳐 집의執義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사헌大司憲 정철鄭澈과의 불화로 경상도추쇄어사慶尙道推刷御史로 좌천되었다가 밀양에서 병사하였다.

이후 1589년 정여립이 모반하다가 패사하자 류성룡은 이경중의 예견이 사실화되었다면서 “그의 선견先見한 충성은 옛 사람들에 못지않

다”고 상소하여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면서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는 평소 몸가짐이 견실하고 곧으며, 또한 세상을 다스릴 만한 인품을 지녔다고 평가받았다. 재직 시에는 인정받지 못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으나, 죽은 후에 사람 보는 눈의 명확함을 칭송받아 임금의 특명으로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파평면 금파리에 묘가 있다.

이관 李瑄 1518년(중종 13)~1577년(선조 10).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호는 혼계渾溪이다. 세종의 아들 계양군桂陽君 증증의 증손으로, 희안군喜安君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남원 윤씨南原尹氏로 운雲의 딸이다. 순천군順天君에 봉하여졌다.

어려서는 이현인李憲仁·윤기尹紀 등과 교유하였고, 같이 어울리던 이증호李仲虎의 학문이 뛰어나자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평상시의 언행과 부모의 상례를 『소학』과 『가례』에 따라 행하여 당시의 성리학적 생활 태도의 수립을 선도하였다. 1559년(명종 14) 경연관 박응남朴應男에 의하여 그 효행과 학문으로 천거 받아 부정副正에

제수되었다. 그 뒤 순회세자順懷世子の 상례에 참여하였다. 많은 제자를 가르쳤는데 『소학』, 『가례』, 『논어』를 통하여 학문의 기초를 삼게 하였다.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파평면 금파리에 묘가 있다.

이관명 李觀命 1661년(현종 2)~1733년(영조 9).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자빈子賓, 호는 병산屏山이다. 아버지는 판서判書 민서敏敘이며, 어머니는 원주 원씨原州元氏로 좌의정左議政 두표斗杓의 딸이다.

1687년(숙종 13)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었으며, 이후 공조정랑工曹正郎을 거쳐 함열현감咸悅縣監이 되었다. 1698년(숙종 24)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전조랑銓曹郎·사인舍人 등을 역임하고, 이조·병조·예조 등의 참판參判을 거쳐 양관 대제학大提學을 지냈다. 1721년(경종 1) 모함을 받아 관직이 삭탈되었으며, 이듬해 신임사화 때 아우 건명健命이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서 극형을 받자 이에 연좌되어 덕천으로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 1) 풀려나와 우의정右議政이 되고 이듬해 좌의정左

議政에 이르렀다. 외직에 있을 때 민은民隱을 잘 보살폈고 시폐時弊의 시정책을 촉구하는 상소를 많이 올렸다. 또한 묘당에서는 임금의 융숭한 예우를 받았으며, 특히 문장에 뛰어나 응제문應製文, 반교문頒敎文, 시책문諡冊文 등을 많이 남겼다. 흥덕의 동산서원東山書院에 봉향되었다. 저서로는 『병산집屏山集』 15권 8책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묘는 탄현면 법흥리에 있다.

이관징 李觀徵 1618년(광해군 10)~1695년(숙종 2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국빈國賓, 호는 근옹芹翁·근곡芹谷이다.

1639년(인조 17)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儒生으로서 뛰어난 재질을 보여 천거로 참봉參奉이 되고, 1653년(효종 4) 별시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장령掌令에 승진하였다. 1660년 제1차 복상문제服喪問題 때 기년설年說(만 1년)을 주장한 송시열 등 서인에 대해 만 3년설을 주장하다가 쫓겨난 남인 허적·허목 등을 구제하려다가 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로 좌천되었다. 1664년(현종 5) 다시 장령이 되고, 1672년 승지가 되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고 남인이

득세하자 이듬해 대사성大司成·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하고 경연관經筵官이 되어 숙종의 신임을 받았다. 1680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689년 예조판서禮曹判書, 보양관輔養官,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거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치사致仕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가 일어나자 기사환국 때의 발계인發啓人으로 삭출削黜되었다. 해서楷書에 일가를 이루었고 만년에는 김생金生의 필법을 연구하였다. 저서로 『근곡집』이 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탄현면 축현리에 묘가 있다.

이광 李洸 1541년(중종 36)~1607년(선조 4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파평이 고향이다.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사무士武, 호는 우계산인雨溪散人이다.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행荐의 손자이며 도사都事를 역임한 원상元祥의 아들이다.

1567년(명종 22) 생원이 되고, 1574년(선조 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어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 의정부사록議政府司祿을 거쳐, 1577년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서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하였다. 이후 평안병마평

사平安兵馬評事,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북청판관北靑判官, 함경도도사咸鏡道都事를 지냈다. 1584년 병조정랑兵曹正郎,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을 거쳐 외직을 두루 섭렵하였다. 먼저 함경도암행어사咸鏡道暗行御史로 나아가 북쪽 지역민의 물자 현황을 살폈으며 계속해서 영흥부사永興府使로 부임했다. 이어 1586년 길주목사吉州牧使로 나갔다가 함경도관찰사겸순찰사咸鏡道觀察使兼巡察使로 승진되었다.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있던 1589년 10월 백유양白惟讓, 최영경崔永慶 등과 함께 정여립이 모반사건을 일으키자 조정으로부터 관련된 도당 모두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받았다. 이때 혐의가 적은 인물을 임의로 용서하여 풀어 주었다가 탄핵을 받고 삭직되었다.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1591년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기용되었으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서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겸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금의 존위가 위태롭게 되자, 처음에는 근왕勤王에 소극적이었지만 전국에 징병령이 내려지자 격문을 붙여 급히 군사를 끌어 모았다. 이후 전라감사全羅監司로서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윤선각尹先覺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수金睟와 함께 관군을 이끌고 북상하여 서울을 수복할 계획을 세웠다. 즉, 이해 5월 최원崔遠에게 전라도를 방어하게 하고, 스스로 4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주목사 이경복李慶福을 중위장으로, 조방장 이지시李之詩를 선봉으로 하여 임천林川을 거쳐 계속 북진하였다. 북진하던 길에 왜적을 만났는데, 수원으로 유인하여 싸우자는 의견에 반대하고 용인에서 전투를 벌이다 방심한 나머지 적의 기습을 받아 참패하고 말았다. 군사를 이끌고 다시 전라도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왜적이 전주·금산지역을 침입하였다. 절치부심하여 광주목사 권율權慄을 도절제사로 삼아 웅치熊峙에서 적을 크게 섬멸하였고, 전주에 근접한 왜적을 그 고을 선비 이정란李廷鸞과 함께 격퇴시켰다. 이렇게 전란 중에 나름대로의 공을 세웠지만, 같은 해 가을 용인 패전의 책임자로 몰려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백의종군한 뒤 의금부에 감금되어 벽동군에 유배되었다가 1594년(선조 27) 고향 파주로 돌아왔다. 저서로는 『우계집雨溪集』이 있다.

이광정 李光庭 1552년(명종 7)~1627년(인조 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덕휘德輝, 호는 해고海阜이다. 정언正言 주澈의 아들이다.

1573년(선조 6) 진사시에 합격하고 1590년 교관敎官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91년(선조 24)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사관史官, 시강원설서侍講院設書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까지 선조를 호종하여 정언正言과 지제교知製敎, 예조·병조의 좌랑佐郎을 지냈고, 이듬해 환도 후 접반사接伴使 이덕형李德馨을 도와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어 지평持平, 병조정랑兵曹正郎, 동부승지同副承旨 등을 지낸 뒤 이조·예조·병조의 참의參議,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접반사接伴使로서 명나라의 부사였던 심유경沈維敬을 만나러 갔다 온 뒤 호조참판戶曹參判이 되어 군항軍餉을 정리하여 바로 잡는 데 힘썼다. 이어서 공조참판工曹參判을 거쳐 1598년(선조 31) 접반사로서 명나라의 제독 마귀麻貴를 따라 울산을 다녀온 뒤 왜적을 물리치는 데 공헌하였다. 1599년 호조·공조의 판서

判書를 거쳐 한성부윤漢城府尹이 되었으며, 1601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서 청백리에 뽑혔다. 1602년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거쳐 대사헌大司憲이 되고, 주청사奏請使로서 인목대비의 책봉에 대한 고명誥命을 받으러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공로로 승정대부崇政大夫로 승계되고, 판돈령判敦寧·판의금判義禁을 거쳐 예조·이조의 판서가 되었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어 연원군延原君에 봉하여졌고, 뒤에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라 부원군府院君이 되었다. 1621년(광해군 13)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제수되었으나,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 어지러움을 보고 병을 핑계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 공조·형조의 판서를 거쳐 1626년(인조 4) 개성유수開城留守가 되었다. 이때 그곳의 인심이 매우 탐리貪利하여 이를 개혁하는 일을 단행하다가 마찰이 생겨 해직당하고 기로소耆老所로 들어갔다. 정묘호란을 당하여 왕을 강화도에 호종하였으나 병으로 죽었다. 인품이 근검하고 신중하여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았다. 조리읍 뇌조리에서 우거하였으며 묘도 뇌조리에 있다.

이광하李光夏 1643년(인조 21)~1701년(숙종 2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계이啓以이다.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오른 정헌景憲의 손자이고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합裨의 아들이다.

1662년(현종 3)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687년(숙종 13)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사평司評, 호조좌랑戶曹佐郎을 거쳐 각지의 수령에 올라 주군州郡을 다스리고, 1694년 수원부사로 나갔다. 이듬해 좌승지左承旨,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등을 거쳤다. 이후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가 되었는데, 부임하던 해 전국에 큰 흉년이 들어 도내 각 지역에서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 대책 마련에 나서 기민을 구제하고 병영의 창고에 비축된 곡식을 풀어 골고루 배분하였다. 또한 당시 함경도에서 많이 생산되던 생선과 소금을 남쪽 지역에 보내어 곡식과 쌀로 바꾸어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사京司에 공납하여야 할 곡식마저 구제용으로 사용하였고, 기근이 지나간 다음 해에는 종자를 분해하여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널리 선정을 베풀었다.

관찰사직에서 물러나 다른 곳으로 떠날 때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워 그 덕을 기렸다고 한다. 그 뒤 병조·형조의 참판과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의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다 1700년 동지사의 정사로 임명되어 연경에 갔다가, 이듬해 2월 사신들의 숙소였던 옥하관에서 59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중국 조정에서는 예부의 사관을 보낸 제문을 읽어 제사를 지내 주었고, 병부에서는 관을 국경 경계까지 보내 주었다. 사치를 모르는 지극히 검소한 생활로 일관했다고 한다. 죽은 이듬해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함흥에 있는 문회서원文會書院의 별사別祠와 경성의 광혜사光惠祠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정의貞翼이다. 적성면 어유지리에 묘가 있다.

이구령李龜齡 1482년(성종 13)~1542년(중종 3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며, 자는 미지眉之, 호는 탄암灘岩이다. 문정왕후의 외삼촌이며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덕숭德崇의 아들이다.

1507년(중종 2) 사마시에 합격한 뒤 진사·생원·참봉 등을 거쳤다. 1514년 별시문과에 병과

로 급제하였다. 1519년 예조좌랑禮曹佐郎을 거쳐 1521년 헌납獻納, 문학文學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유신들을 구하려다 무고를 당한 안처겸安處謙 등의 죄를 엄정히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1523년 문학과 필선弼善을 지냈으며, 이듬해 사간司諫에 올랐는데 승급이 너무 빠르다는 사헌부의 장계로 체차의 명을 받은 적도 있었다. 1525년 보덕輔德을 잠시 지낸 뒤 부응교副應教에 올랐고, 전라도어사全羅道御使로 나갔다. 이때 지방 수령들의 근무 태만과 부정 비리를 중앙에 보고하여 그들을 면직시키는 등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내직으로 돌아와 응교應教와 전한典翰을 역임한 뒤 1527년 예조참의禮曹參議,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한번은 우연한 잘못으로 강서시험講書試驗의 시관으로 부표를 누통한 일로 대간들의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옹호로 승지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같은 해 대사간大司諫에 제수받자, 자신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왕에게 아뢰어 체차시켜 줄 것을 자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530년 대사성

의 물망에 올랐으나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나갔다. 1534년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이듬해에 유수留守,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를 지냈다. 1537년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있다가 다음해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승진한 데 이어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올랐다. 이때 성주사고星州史庫에 불이나 많은 실록이 소실되자 앞으로의 대비책으로 춘추관의 실록을 등서하여 재배치할 것을 주청하여 실현시켰다. 1539년 빈객을 거쳐 이듬해 좌참찬左參贊이 되었고 얼마 뒤 우참찬右參贊에 임명되었다.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된 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있다가 병으로 사직하고 61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강직한 성품을 지녔으며, 국가에 많은 시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광탄면 발랑리에 묘가 있다.

이군생 李羣生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중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정종의 둘째 아들로 숙의 기씨淑儀奇氏가 어머니이다. 궁중에서 살지 않고 탄현면 법흥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순평군順平君에 봉하여졌다. 법흥리 가시내에 사당이 남아 있다.

이기설 李基高 1556년(명종 11)~1622년(광해군 1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공조公造, 호는 연봉蓮峯이다. 지남至男의 아들로 박지화朴枝華의 문인이다.

1586년(선조 19) 효행과 순덕純德으로 주부主簿에 특제되고, 다시 청산현감靑山縣監에 추천되었으나 사양하였다. 그러나 아버이의 뜻을 거역 못하고 그해 겨울 무주현감茂朱縣監을 거쳐 이듬해 송화현감松禾縣監으로 나갔다. 1591년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이 되었고, 다음 해 임진왜란의 발발로 굶주리는 백성이 많아지자 구제에 힘썼다. 이듬해 호조정랑戶曹正郎으로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의 도감낭청都監郎廳을 겸하였으며, 해주에 있던 행재소行在所에 갔다가 그해 겨울 왕과 함께 환도하면서 군항軍餉 수급의 책임을 지고, 비변사낭청備邊司郎廳까지 겸하여 군량미 조달에 힘썼다. 12월에 덕천군수로 나갔으나 1594년 어머니 정씨鄭氏의 사망으로 사직하였다. 1596년 청풍군수에 제수되었으나 응하지 않다가 1599년 이산해李山海의 강력추천으로 상원군수로 나갔다. 1601년 청백리에 뽑혔으며, 이듬해 연안부사로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 뒤

군자감부정軍資監副正, 사도시정司隸寺正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취임하지 않고 은거하면서 학문에 열중하였다. 광해군이 즉위한 뒤 이천부사利川府使,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에 임명되었으나 부호군副護軍 제수도 거절하였다. 그 뒤 승지 등의 직을 내렸으나 영창대군永昌大君이 서인庶人으로 쫓겨나고 폐모론이 일어나자 시국을 개탄하여 끝내 벼슬을 사양하였다. 서울 삼청동 백련봉 아래 연봉정蓮峯亭을 짓고 학문에 전심하여 경사·천문·지리·율학·병술 등 여러 방면에 정통하였으며, 당시 사대부의 사표가 되었다. 1623년(인조 1) 정경세鄭經世의 건의로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고, 1633년(인조 11) 인조의 특명으로 정려와 함께 '효자삼세孝子三世'라는 액자額字를 내렸다. 저서로는 『연봉집蓮峯集』이 있다. 적성면 마지리에 묘가 있다.

이녹생 李祿生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종친이자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정종의 8남으로 어머니는 숙의 윤씨淑儀尹氏이다. 영종정경부사領宗正卿府事를 역임하였다. 박부朴溥의 딸과 혼인하여 1남 2녀를 두었으며, 죽은 뒤 임언군林彦

君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혜안惠安이다. 월룡면 도내리에 묘가 있다.

이담李湛 1510년(중종 5)~1574년(선조 7).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이며 본관은 용인龍仁이며, 자는 중구仲久, 호는 정존재靜存齋이다.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된 증유宗彝의 아들이다. 12세 때 아버지를 여의는 어려움 속에서 뜻을 세워 학문에 정진하였다. 일찍이 서봉西峰 유우柳藕에게 배웠으며, 경세인慶世仁의 사위가 된 후에는 장인을 스승으로 섬겼다.

1531년(중종 26) 진사시에 합격하고 1538년 문과별시에 급제하여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1544년 사가독서하였으며, 이듬해 공조정랑工曹正郎으로 재직하다가 을사사화로 삭직되었다. 1547년(명종 2)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양산梁山으로 유배당했다. 1551년 세자의 탄생으로 특사를 받아 오랜 유배생활에서 벗어나자 향리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후 다시 부름을 받아 1567년 응교應敎를 거쳐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에 등용되었다. 그해 6

월 명종이 승하한 후에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직하여 『명종실록』 편찬에 관여하였다. 이후 충청감사忠淸監司로 나갔고,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도승지都承旨 등의 요직을 거쳐 1574년(선조 7)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올랐다.

언제나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하루 종일 단정히 앉아서 향을 피워 놓고 책을 보았으며, 말년에는 주역에 심취하였다 한다. 평소 서경덕을 깊이 존경하였으며, 이황에게 사숙하여 학자로서 일가를 이루었다. 성리학뿐만 아니라 천문, 의약, 그림에 두루 능통하였고 서화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죽은 뒤 덕산의 회암서원晦庵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 『독서연주讀書鉛朱』, 『정존수필靜存隨筆』, 『정존재집靜存齋集』 등이 있다. 군내면에 묘가 있으나 정확한 곳을 알 수 없다.

이덕봉李德鵬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벼슬이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이르렀다. 금촌동에 묘가 있다.

이덕윤李德潤 생몰년 미상. 장단 사람으로 효자이다. 어머니가 병들어 농어를 먹고 싶어 하는

데, 때마침 겨울이라 농어를 구할 길이 없어 고민하다가 강가에 나가 호소하여 마침내 농어를 구하였다고 한다. 순조가 그 효성이 지극함을 치하하며 동몽교관童蒙敎官의 벼슬을 주었다.

이돈서 李惇紱 1599년(선조 32)~1637년(인조 15). 조선 중기의 충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자윤子倫, 호는 만사晩沙이다.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기설基高의 아들이다.

단아한 몸가짐과 청아한 기질을 타고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에게서 배우며 많은 가르침을 들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선산으로 피난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과 대신들이 강화성으로 갈 때 함께 들어갔다. 얼마 뒤 적에게 성이 함락되자 마니산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적병에게 잡히고 말았다. 포로가 된 뒤 “대대로 충과 효를 이룬 집안의 자제로서 어찌 차마 살 것을 도모하겠는가!” 하면서 끝끝내 굽히지 않았고, 함께 잡힌 류옹柳雍과 같이 죽음으로써 절의를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결국 적에게 끌려

가면서 진강鎭江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그 절개를 높이 평가받아 1824년(순조 24)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고 정려가 내려졌다.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적성면 마지리에 묘가 있다.

이명신 李明晨 1368년(공민왕 17)~1435년(세종 17).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자는 백부伯扶이다. 1414년(태종 14) 벼슬길에 올라 통사랑通仕郎, 사온서부직장司廳署副直長을 역임하였으며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지방관으로는 공주와 홍주의 목민관으로 있으면서 권농관勸農官과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를 겸직하였다. 특히 홍주에서는 선정을 베풀어 명관으로 칭송이 높았고, 김종직이 만시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시호는 강평康平이다. 문산읍 사목리에 묘가 있다.

이명웅 李命雄 1590년(선조 23)~1642년(인조 2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정이琤而, 호는 송사松沙이다. 담양군의 7세손이며 완창부원군完昌府院君 성중誠中의 손자

이고 의주목사義州牧使를 지낸 완흥군完興君 유징幼澄의 아들이다. 4세 때 조부와 부친이 사망하자 집안이 몰락하고 광해군의 난정으로 벼슬을 단념하고 있다가 1626년(인조 4) 음보로 세마洗馬가 되었고 이어 시직侍直에 전임되었다. 이해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이 되고 1631년(인조 9) 형조좌랑刑曹佐郎에 특진된 후 이듬해 헌납이 되었으나 인조의 사친私親 원종元宗의 추존에 반대하다가 한때 삭출削黜되었다가 수찬으로 기용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고 척화斥和를 주장하였으며, 이듬해 세자가 볼모로 심양에 갈 때 보덕으로 수행한 공으로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승진하였다. 귀국하여 공조참의工曹參議·대사간大司諫·부제학副題學을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지냈다.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인 1639년 주위 3,830보步에 1,752첩堞에 달하는 가산산성架山城을 축성하고 칠곡도호부를 설치하는 업적을 남겼다. 또한 경상도에 만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예조참의를 지낸 후 홍주목사로 재직하다 1642년 1월 26일 5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축성의 공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완양군完陽君으로 추봉되었다.

묘는 파평면 금파리 선영에 있다.

이몽태 李夢臺 생몰년 미상. 파주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안성군수로 재직하다 감사監司 심대와 함께 삭녕(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일부 지역의 옛 이름)지방에서 전사하였기에 1806년(순조 6) 예조에서 각도의 유생이 상언하여 표절사表節祠에 배향하였다.

이문전 李文筮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신평新平이다. 호군護軍을 거쳐 관직이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이르렀다. 1618년(광해군 10) 허균이 대역죄로 몰려 여러 대신들의 소疏가 난무할 때 그의 무고를 알리는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후에 우의정右議政에 추증되었다. 파주읍 봉암리에 묘가 있다.

이민서 李敏叙 1633년(인조 11)~1688년(숙종 14).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이중彝仲, 호는 서하西河이다. 영의정領議政 경여敬輿의 아들이며, 뒤에 도정都正 후여厚與에게 입양되었다. 서울에 살았으며 송시열을

사사하였다.

1650년(효종 1) 진사시에 합격하고, 1652년 증과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검열檢閱, 정언正言, 지평持平, 교리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현종 초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허적許積을 탄핵하다가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전직되었고, 검상檢詳·헌납獻納·응교應敎·사인舍人·나주목사羅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 이조와 호조의 참의參議를 거쳐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있을 때 병으로 사직하였다. 그 뒤 승지承旨·대사간大司諫·대제학大提學에 이어 공조·이조·병조·호조의 참판參判을 거쳐 1683년(숙종 9)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가 되고, 예조·호조·이조의 판서判書를 차례로 역임한 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다. 1677년(숙종 3) 광주목사로 있으면서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박광옥朴光玉의 사우를 증수하고, 김덕령金德齡을 제향하였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많은 시문을 남겼으며, 김수항·이단하·남구만 등과 교유가 깊었다. 나주의 사하사西河祠와 흥덕의 동산서원東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서하집西河集』 17권이 있고, 편서로 『고시선古詩選』, 『김장군전金將軍傳』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

며, 묘는 탄현면 축현리에 있다.

이봉 李封 1441년(세종 23)~1493년(성종 24).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자는 번중蕃仲, 호는 소은蘇隱이다. 색채의 증손이며 문열공文烈公 계전季甸의 아들이다.

1465년(세조 11)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직제학直提學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다시 문과중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고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수찬에 참여하여 문재를 과시하는 등 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1467년 우승지右承旨,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공조참판工曹參判, 행호군行護軍 등을 역임하였다. 1475년(성종 6)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나갔고 이듬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78년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부임한 뒤에 잠시 파직되었다가 다시 등용되어 대사헌大司憲, 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을 지냈다. 1484년 전주판윤全州判尹으로 있으면서 『본국여지도本國輿地圖』를 왕에게 올렸다. 다음 해 다시 외직으로 나가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1487년 호조판서戶曹判書로서 진위겸진향사陳慰兼進香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에 영안도관찰사永安道觀察使,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을 거쳐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승진하였다. 워낙 성격이 엄격하고 군세어서 감히 사람들이 사사로이 청탁하지 못하였다. 형조판서로서 옥사를 다스릴 적에 억울하게 죽은 자가 간혹 있었을 정도로 법을 엄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493년 다시 경상도관찰사로 나갔으나 5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글을 잘하기로 이름 높았다. 사후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고, 시호는 현평憲平이다. 금촌동에 묘가 있다.

이빈 李賓 1537년(중종 32)~1603년(선조 36).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아버지는 서흥부수瑞興副守 춘억春億이며, 어머니는 첨정僉正 김국량金國良의 딸이다.

1570년(선조 3)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회령부사會寧府使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충주에서 신립申昶의 휘하에 들어가 싸웠으나 패하였다. 그 뒤 김명원金命元의 휘하에

들어가 임진강을 방어하다가 다시 패하고,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평양을 방어하였으나 성이 함락되자 이원익李元翼을 따라 순안에서 싸웠다. 이듬해 명장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평양을 탈환한 뒤 이여송의 요청으로 순변사巡邊使에 임명되어 권율權慄과 함께 파주산성을 수비하였다. 같은 해 왜군이 진주와 구례 지방을 침략할 때 남원을 지켰다. 그러나 당시 진주성을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대죄종군戴罪從軍하다가 1594년(선조 27) 경상도순변사에 복직되었다. 이듬해 상부와의 의견 대립으로 물러났다가 임진왜란이 평정된 뒤 포도대장捕盜大將에 임명되었으나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퇴하였다. 월릉면 능산리에 묘가 있다.

이사관 李士寬 1382년(우왕 8)~1440년(세종 2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중추원사中樞院事를 역임한 효정공孝靖公 정간貞幹의 아들이다.

처음에 중랑장中郎將에 보임되었다가 여러 벼슬을 거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올랐다. 그는 대사헌大司憲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좌천되기도

하였으나, 그 말이 옳은 지적이라는 공론이 일어 다시 충주판관忠州判官으로 제수되었다. 이어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가 호조정랑戶曹正郎으로 옮겼다. 외직으로 부평부사富平府使로 나갔다가 1424년(세종 6)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에 배임되었다. 1431년 첨총제僉摠制를 역임하였고, 이듬해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쳐 호조참의戶曹參議와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한 뒤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였고, 이후 관직이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이르렀다. 성품이 너그로우면서도 소탈하였고, 재직시에 청렴한 관리로 알려졌다. 전성부원군全城府院君에 봉하여졌고 사후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광탄면 마장리에 묘가 있다.

이사렴 李士濂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정종의 12대손으로 벼슬은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조리읍 장곡리에 묘가 있다.

이상 李贖 1455년(단종 3)~1510년(중종 5).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세종의 열세 번째 아들 밀성군

密城君 침琛의 3남이며 어머니는 풍덕군부인豐德郡夫人 민씨閔氏이다. 1469년(예종 1)에 수안군遂安君에 봉하여졌다. 중종반정 때의 공으로 병충분의결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功臣 4등을 하사받았다. 1506년 중종의 특명으로 후자後子が 없는 수춘군壽春君의 계자繼子가 되었다. 부인은 죽산 안씨竹山安氏이며 조리읍 등원리 군부대 안에 묘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상범 李相範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벼슬은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이르렀다. 금촌2동 금촌동에 묘가 있다.

이상질 李尙質 1597년(선조 30)~1635년(인조 13).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자문子文, 호는 가주家洲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된 진瓚의 아들이다.

권위權輿의 문인으로 1616년(광해군 8) 진사가 되었으나 광해군의 난정으로 세상에 뜻을 잃고 춘천 산중에 들어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이후 비로소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1626년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

었다. 1629년 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조좌랑禮曹佐郎이 되었고 이듬해 정언正言, 병조좌랑兵曹佐郎을 거쳐 옥당에 들어가 부수찬겸지제교副修撰兼知製敎를 역임하였다. 1632년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 헌납獻納,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등을 거쳐 암행어사로 북관에 갔다가 돌아와 호당湖堂(讀書堂)에 사기賜暇되었다. 1634년 원종을 종묘에 추송하려는 것을 간하다 종성으로 유배되었으며 이듬해 풀려나 돌아오는 길에 회양에서 사망하였다. 저서로는 『가주집家洲集』 5권이 있다. 광탄면 마장리에 묘가 있다.

이서李曙 1580년(선조 13)~1637년(인조 1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으로, 목사牧使 경록慶祿의 아들이다.

1603년(선조 36) 무과에 급제하여 행사용行司勇, 진도군수珍島郡守 등을 지내고, 1618년(광해군 10) 대북파에서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정청庭請에 불참하였는데 무인으로서 정청에 불참한 사람은 그뿐이었다. 그 뒤 장단부사長湍府使로 경기방어사京畿防禦使를 겸하였고, 1623년 인조

반정 때 김류金瑬·이귀李貴 등과 공을 세워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승진되고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완풍군完豐君에 봉하여졌다. 이어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전임하였는데,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관찰사로 부원수副元帥를 겸하여 적을 추격하여 송도에 이르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요해처에 용거한 채 출전하지 못하여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곧 다시 서용되어 완풍군에 봉하여졌다. 그는 총융사摠戎使로서 왕에게 건의하여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량을 많이 확보하였으며, 삼혈총三穴銃과 조총鳥銃을 많이 제조하여 적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인조는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으로 삼아 국방 문제를 항상 상의하곤 하였다. 1628년 형조판서刑曹判書를 거쳐 1632년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어 각처에 산성을 수축하여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1634년(인조 12)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겸하였고 1636년 병으로 일시 사직하였다가 곧 훈련도감제조訓練都監提調를 거쳐 병조판서兵曹判書로 기용되어 군비를 갖추는 데 힘썼다. 이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어영제宗御營提調로 왕을 호종

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지키다가 이듬해 정월 적군이 겹겹이 호위하고 항복을 재촉하는 가운데 군중에서 죽었다. 사후 영의정鎮議政에 추증되었고, 남한산성의 온조왕묘溫祚王廟와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마경언해馬經諺解』가 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군내면 정자리에 묘가 있다.

이성 李晟① 1455년(단종 3)~1505년(연산군 11). 조선 전기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광기廣器이다. 세조의 넷째 아들로 근빈 박씨(謙嬪 朴氏)의 소생이다. 어린 시절부터 명민한 재질을 나타내 부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성장하였고, 1464년(세조 10) 창원군昌原君으로 봉하여졌다. 1468년 9월 세조가 세상을 뜨자 3년간 죽만 먹으며 예를 다해 ‘하늘이 내린 효孝’라 일컬어졌다. 1471년(성종 2) 덕종의 장남인 월산대군月山大君과 함께 전해오는 관례에 따라 태안군의 중요한 자재資材를 지급받았다. 이듬해 형인 덕원군德源君과 같이 양인 방호련方好蓮의 교유敎誘를 받아 불사佛事를 행함으로써 종부시의 국문을 받기도 하였다. 1481년 소덕대부昭德大夫에

올랐다. 관후한 성품을 지녔으며 평소 형제간에도 우애가 깊었던 반면에 방탕한 모습도 보여 궁중의 예법을 자주 어기곤 하였다. 시호는 장소章昭이다. 교하읍 다울리에 묘가 있다.

이성 李晟②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양성陽城이다.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된 정현廷憲의 아들이다.

1605년(선조 38)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있다가 사퇴하였고 1607년 흡곡현감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1617년(광해군 9) 오위장五衛將으로 근무할 때 광해군을 모해하려는 서궁의 흥계를 규탄하는 공론이 일자 “이 일은 종사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사요, 또 이미 대론이 일고 있으니 오직 묘당의 선처가 있을 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후에 보조공신補佐功臣의 호와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추증되고 양릉군陽陵君에 봉하여졌다. 법원읍 직천리에 묘가 있다.

이성윤 李誠胤 1570년(선조 3)~1620년(광해군 12).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경실景實, 호는 매창梅臈이다. 성종의 4

대손으로 도정都正을 지낸 간侃의 아들이다.

1584년 금산수錦山守에 예수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전관宣傳官이 되어 세자 광해군을 따라 피난하며 신주神主를 봉안하였다. 선조가 승하하자 혼전魂殿을 지켰고 그 공으로 도정都正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광해군의 분조에 호종한 공으로 호종공신扈從功臣 2등에 올랐다. 대의를 중요시하여 광해군 때 영창대군이 희생되고 이어 폐모론이 거세게 일자 분함을 참지 못하고 종반宗班 18인을 거느리고 이이첨 등의 간신배를 물리칠 것을 소두로 상소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서 남해에 안치되고 모든 관직이 삭탈되었으며, 유배지에서 한 많은 세월을 뒤로 하고 사망하였다. 1623년 반정으로 인조가 등위하자 특별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금산군으로 추봉하였다. 글씨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고 시문에도 능하였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교하읍 교하리에 묘가 있다.

이성중 李誠中 ① 1330년(충숙왕 17)~1411년(태종 11).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

주慶州이다. 고려 말 문과 출신으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1396년(태조 5) 축성도감제조築城都監提調로 있을 때 축성한 것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하옥되기도 하였다. 그 뒤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른 뒤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거쳐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순靖順이다. 파평면 금파리에 묘가 있다.

이성중 李誠中 ② 1539년(중종 34)~1593년(선조 2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공저公著, 호는 파곡坡谷이다. 세종의 아들 계양군桂陽君 증증의 현손이며, 금천군錦川君 감贓의 아들이다. 이중호李仲虎·이황의 문인이다.

1558년(명종 13) 진사시에 합격하고, 1570년(선조 3)에 승사承仕로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71년 검열·주서를 거쳐 1573년 사복시주부·부수찬·정언, 호조·예조·병조의 좌랑, 홍문관수찬·이조좌랑에 지제교를 겸임하고 사가독서하였다. 1575년 동서 분당이 되자 동인으로 지목되어 한산군수로 외보되었

다. 1576년 홍문관부교리, 1581년 의정부검상·사인을 지내고 1583년 홍문관응교·전한을 거쳐 이듬해 직제학·동부승지·우승지를 역임하였다.

1585년 좌승지, 이듬해 대사간, 1587년 홍문관부제학에 경연참찬관을 역임하였다. 1589년 대신들의 추천으로 이조참판이 되고 이듬해 옥당·대사헌·동지돈녕부사가 되었다. 1591년 옥당 장관으로 시폐12조와 세자 책봉을 거론하려던 참에 충청감사로 외보되고, 같은 해 8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파직되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수어사가 되어 임금을 호종하여 평양에 이르러 호조판서가 되고 선조의 요동 피난을 반대하였다. 7월에는 중국 구련성九連城에 파견되어 명나라의 원병을 청했고, 원병이 오자 이여송 군의 군량 조달을 위하여 진력하다가 1593년 7월 함창에서 과로로 병사하였다. 뒤에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녹훈되고 완창부원군完昌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저서로는 『파곡유고坡谷遺稿』가 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파평면 금파리에 묘가 있다.

이세령 李世寧 1593년(선조 26)~1637년(인조 15). 조선 중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자안子安이다. 성종의 15남 양원군楊原君의 증손이다.

성년이 되어 관례를 치르고 상원수上元帥에 제수되었다. 광해군 때 이이첨 등이 폐모론을 주창하였을 때 그와 동생 진원군 이세완은 정도를 지켜 굴복하지 않았으며, 권력을 쥔 조신들의 뜻에 거슬려서 거의 화를 입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인열왕후仁烈王后 혼전을 모시고 먼저 강화도로 들어갔는데, 후금의 군사가 강화진을 침범하자 위급함을 부중府中에 알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그 후 성이 함락되자 그는 갑옷을 벗어 종복에게 주고 김상용金尙容과 더불어 남문루南門樓에 올라가 불을 놓아 자분하였다. 그를 따라 어머니 상주 김씨와 부인 문의 조씨가 동시에 순절하였다.

몇 년 후 심양에 불모로 끌려갔던 봉림대군(훗날의 효종)이 돌아와 인조에게 “이세령이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일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정표旌表와 은전을 내릴 것을 아뢰었

다. 그러나 유사가 황망하여 거행치 못하고 다만 김씨·조씨를 열녀로 정하였다. 그 후 1731년(영조 7) 증손 이채원李採遠이 상소하고 예조판서 신사철申思喆이 다시 아뢰어 승헌대부상원군겸오위도총부도총관承憲大夫祥原君兼五衛都總府都總管에 추증되었다. 1788년(정조 12) 이세령의 현손 이명현李命鉉이 다시 상소하여 충신 충열공忠烈公으로 증시되었으며, 남은 옷으로 의정부시늑양동 선영 유좌에 의관 예장되었다. 충신·열녀 정려 편액은 교하읍 야당리에 있으며, 정려문의 글은 서유린徐有隣이 썼다.

이세완 李世完 1603년(선조 36)~1655년(효종 6). 조선 중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자고子固이다. 양원군楊原君의 증손으로 상원군 이세령의 아우이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 갔던 형 상원군 이세령과 형수 문의 조씨, 어머니 상주 김씨가 절의를 지키고자 스스로 자결하였는데, 인열왕후와 자매간인 진원군의 부인 청주 한씨도 자결하였다. 그는 가족의 부음을 듣고 강화도로 가상을 받들어 선산에 예장하였으며, 몇 년 후에

인조는 그들에게 정려를 내렸다. 격난 후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항상 거친 베옷을 입고 유유자적하게 세월을 보내는 중 1649년(인조 27) 인조가 세상을 뜨자 향관으로 수직하였고 그 공로로 증의대부中義大夫에 올랐다.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해좌에 예장하였으나 전란으로 실전되었다.

이세유 李世維 1645년(인조 23)~1711년(숙종 3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부평富平이고 자는 지정持正, 호는 기국杞菊이다. 병조정랑兵曹正郎을 지낸 계록繼祿의 증손이며 이재以載의 넷째 아들이다.

34세에 생원·진사 양과에 합격하여 참봉參奉을 지냈으며, 1694년(숙종 20)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에 특채되었다가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를 거쳐 판의금부도사判義禁府都事, 병조좌랑兵曹佐郎, 호조좌랑戶曹佐郎,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등을 거쳐 병조정랑兵曹正郎,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집의執義에 올랐다.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때 절약과 검소함이 백성을 보호하는 근본임

을 상주하여 왕이 가납하였고, 동궁의 시강을 맡았다. 경학과 사기에 능통하였고 성리학에 밝았다. 병조참의兵曹參議를 거쳐 부승지副承旨에 오르고 여주목사驪州牧使와 장단부사長湍府使로 재직 중 세상을 떠났다. 문산읍 선유4리에 묘가 있다.

이세화 李世華 1630년(인조 8)~1701년(숙종 2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부평富平이며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雙栢堂·칠정七井이다. 병조정랑兵曹正郎 계록繼祿의 증손으로, 이재以載의 아들이다. 큰아버지 희재熙載의 양자로 들어갔다. 문산읍 임진리 관우물골에 택지가 있었다.

1651년(효종 2) 진사에 올랐으며, 165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정언正言·장령掌令 등을 거쳐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역임하고, 1689년(숙종 15)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내고 서호西湖의 향리로 돌아갔다. 그해 인현왕후 폐비설을 듣고 반대의 소를 올렸다. 왕에게 올린 소에 오두인吳斗寅과 그의 이름이 전면에 올라 있어 숙종은 분노하여 밤중에 친국親鞠하였다. 그는 국문에서 “국사로 인해

죽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만 신의 죽음이 성덕에 누를 끼칠까 두려우니, 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옥리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면 될 것을 밤새도록 친국하니 옥체를 상할까 두렵다”고 형간刑諫하였다. 다음 날 정주로 유배가다 풀려나와 파산坡山의 선영 아래로 돌아왔다. 갑술환국 후 1694년(숙종 20) 4월 대사간大司諫·호조판서戶曹判書에 제수되었으나 고사하고 나아가지 않다가 인현왕후 복위도감제조復位都監提調로 차정한다는 말을 듣고 곧 상경하였다. 이후 의금부사겸지경연사義禁府使兼知經筵事, 세자빈객世子賓客에 오르고, 청백리로 선정되었으며, 공조판서工曹判書, 형조판서刑曹判書, 병조판서兵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 등을 두루 역임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풍계의 충렬사忠烈祠에 향사되었다. 저서로는 『쌍백당집雙栢堂集』이 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문산읍 선유4리에 묘가 있다.

이소 李繻 생몰년 미상. 사인士人으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함에 효도가 극진하

여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나 봉양할 때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후 제사를 지낼 때 이상한 기적이 많이 있어 현종 때 효자문孝子門을 세웠다.

이수 李燧 1480년(성종 11)~1509년(중종 4).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성종의 넷째 아들로, 어머니는 숙의 홍씨淑儀洪氏이다. 원원군完原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소도昭悼이다. 광탄면 마장리에 별묘가 있다.

이수린 李壽麟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성종의 손으로 창선대부彰善大夫에 올랐으며 황양군荒壤君에 추증되었다. 교하읍 하지석리에 묘가 있다.

이숙 李瀟① 1453년(단종 1)~1499년(연산군 5).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호는 쌍송雙松·오향정五香亭·금현琴軒이다. 세종의 손자로 계양군桂陽君 증詹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의 딸이다. 담양군潭陽君 거栗의 계후繼後로 들어가 봉사奉祀하였다.

나면서부터 세조의 극진한 총애를 받아 3세

되던 1455년(세조 1) 특별히 강양도정江陽都正이 되었고, 이후 다른 종친과는 달리 궁내에 거처하면서 세조가 정해 준 사부에게 학문을 익혔다. 세조 대를 통하여 내종친의 한 사람으로서 궁내에서 세조의 시종 및 대소행행을 수행하였다. 1467년 강양군江陽君에 책봉되었고, 1484년(성종 15) 전년의 정희왕후貞熹王后 국상에 수반된 세조릉 시릉侍陵의 노고로 소덕대부에 승자됨과 아울러 왕명에 의하여 제종친의 비위를 규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후 독서, 산수, 탄금 등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다가 말년을 맞이하였다. 단아하고 근실한 성품을 지녔으며 학문에 조예가 깊고 능숙한 음률로 이름을 떨쳤다. 파평면 금파리에 묘가 있다.

이숙 李瀟② 생몰년 미상. 어려서 고아가 되었는데 부모님이 살아서는 봉양을 잘 하고 죽어서는 제를 충실히 하여 하늘이 감동하는 바가 많았고 땅에서 기이한 일이 많았다. 이에 정려하였다.

이숙함 李淑咸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차공次公, 호는 몽

암夢菴·양원楊原이다.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추증된 말정末丁의 아들이다.

1454년(단종 2) 생원으로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경창부승慶昌府承이 되고, 이듬해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으로 감찰監察이 되었다. 1457년(세조 3) 문과증시에 급제하였으며, 1459년 세자사경世子司經으로 한관閑官에 제수되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464년 집현전 대신 문사를 둘 때 검예문에 뽑히고, 이어 전라도경차관全羅道敬差官으로 나아가 음폐를 살폈다. 그리고 응교應敎로 있을 때인 1466년 발영시拔英試(세조가 단오에 임시로 문신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에 2등으로 급제하였다. 1470년(성종 1) 사שמ시첨정司瞻寺僉正, 군기시정軍器寺正·판교判校 등을 역임하였다. 1484년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에 임명되었으며, 1485년 서거정徐居正 등과 함께 『동국통감』 편찬에 참여하였다. 1488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거쳐, 이듬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었다. 이어 1490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거쳐 1498년(연산군 4)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이르렀다. 사후 대제학大提學에 증직되었고, 시호

는 문장文莊이다. 광탄면 발랑리에 묘가 있다.

이시중 李時中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역임하였다. 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파평면 금파리에 묘가 있다.

이심원 李深源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백연伯淵, 호는 성광醒狂·묵재默齋·태평진일太平眞逸이다. 태종의 현손이며 주계군朱溪君이다.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화를 입었다. 앞서 성종에게 고모부인 임사홍任士洪의 간사함을 바른 대로 말하다가 조부 효령대군에게 실의失意하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던 뒤 장단 땅에 귀양 갔다.

이씨의 처 문화 류씨 文化柳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로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만에 음독하여 따라 죽었다. 이에 정표를 받았다.

이양 李揚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율곡 이씨의 6대조이다. 벼슬은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이르렀으며 후에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춘당春塘이다. 파평면 두포리에 묘가 있다.

이역 李穡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성주星州이며,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지냈다. 법원읍 삼방리에 묘가 있다.

이연 李演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성종의 열넷째 아들로, 운천군雲川君에 올랐으며 어머니는 숙의 흥씨이다. 부인은 안동 권씨이고 참의증찬성參議贈贊成 인손仁孫의 딸이다. 시호는 소회昭懷이다. 광탄면 마장리에 묘가 있다.

이연의 李演義의 처 최씨崔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로 순절하였으며, 그 뜻을 기려 정표되었다.

이우 李瑀 1542년(중종 37)~1609년(광해군 1).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화가로 파주에서 성장

하였다.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초명은 위璋·후瑀, 자는 계현季獻, 호는 옥산玉山·죽와竹窩이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된 원수元秀의 아들이며 율곡 이씨의 동생이다.

1567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빙고별좌氷庫別坐,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 비안현감比安縣監, 감찰監察, 상의원판관尙衣院判官, 괴산군수槐山郡守, 고부군수古阜郡守 등을 거쳐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이르렀다. 관직보다는 어머니 사임당과 함께 당대의 유명한 화가로 이름을 날렸으며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시詩, 서書, 화畵, 금쪽 등에 모두 뛰어난 재주를 보여 4절이라 불렸다. 특히 그림을 잘 그렸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초충, 사군자, 포도 등에 능했으며, 한번은 초충을 그려 길에 던졌는데 닭이 와서 쪼았다는 일화를 남길 정도로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묵매화는 주로 횡관식 구도로 힘차게 묘사하였으며 그 화풍은 어머니의 그것을 따랐다. 아들 경절景節도 가법을 이어 서·화·금에 능하여 3절이라는 말을 들었다. 유작으로는 <설중매죽도雪中梅竹圖>, <노매도老梅圖>, <수과초충도水瓜草蟲圖>, <포도도葡萄圖> 등이 있다.

이욱 李穡 1562년(명종 1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성주星州이며 자는 중실仲實, 호는 지강芝江·취옹醉翁이다.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의로義老의 아들이다. 일찍이 학문에 뛰어난 재질을 나타내 20세가 되기 전에 많은 글들을 남겼다. 이이李珣의 문하에서 배웠다.

1585년(선조 18) 진사시에 합격하고 1599년 세자 입학과 원손 탄생을 경축하기 위해 실시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필선弼善, 장령掌令, 예조좌랑禮曹佐郎에 이어 승정원부승지承政院副承旨에 올랐다. 이때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겸직하여 왕이 내리는 교서를 전담하였다. 1615년(광해군 7) 병조참지兵曹參知가 되었으며, 1617년 강원도 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에 이르렀다. 공무로 다망한 속에서 여러 차례 안산영당安山影堂을 찾아가 선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나타내곤 하였다. 김상헌, 윤두수, 이덕형, 이호민 등과 친분이 깊었다. 법원을 삼방리에 묘가 있다.

이원수 李元秀 생물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으

로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율곡 이씨의 아버지이다. 감찰監察을 역임하였다. 이기李湛가 우의정右議政으로 있으면서 권세를 크게 떨칠 때 그 휘하에 잠시 있었다. 그러나 부인 사임당의 권유를 수용했기 때문에 을사사화 당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후에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법원읍 동문리에 묘가 있다.

이유길 李有吉 생물년 미상. 조선 중기의 의사義士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유지有之이다. 종계변무宗系辨誣로 광국공신光國功臣이 된 후백後白의 손자이다. 광탄면 발랑리 출신이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왜병에게 해를 입자 검은 상복을 입고 기의起義하여 해남 명량鳴梁에서 17세의 나이로 공을 세웠으며, 평안도 영유현永柔縣에서 전봉장前鋒將으로 왜군과 싸우고 명나라 유정劉挺의 원군에 종군하여 큰 공을 세웠다. 숙종 때 정려되었으며 참판參判으로 추증되었고 강진에 사우를 세워 제향하게 하였다. 광탄면 발랑리에 묘가 있다.

이유소 李有沼 생물년 미상. 본관은 전주全州이

다. 남원군南原君 금龠의 4대손이다. 사서삼경을 암송하면서 탄현면 축현리 덕수동에서 살았다. 독서를 즐겼고 천성이 지극한 효자로서, 폭풍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70년을 하루같이 매일 아침 가묘와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였다.

이유징 李幼澄 1562년(명종 17)~1593년(선조 2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징원澄源이다. 담양군의 6세손이며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성중誠中의 큰아들이다.

1583년(선조 16)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예문관검열藝文官檢閱에 서임되었다. 1588년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을 수행하여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90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있을 때 증광시의 감독관이 되었으나 시험문제의 누설로 면직되었다. 그러나 충직함을 인정받아 이듬해 다시 사용되어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등을 역임한 뒤에 사가독서하였다. 얼마 뒤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지내고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로 있다가 순무사巡撫使에 임명되어 북방의 제반 형편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체

찰사 최흥원崔興源의 종사관으로 황해도지방에 파견되었다가 선조를 의주에 호종하여, 그해 이조정랑吏曹正郎으로 중직대부中直大夫의 품계를 제수받았다. 또한 선조가 의주에 머무르면서 명나라에 원병을 청할 때 이항복李恒福 막하에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여 평양을 탈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593년 아버지 성중誠中이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오를 때 그는 의주목사겸병마절제사義州牧使兼兵馬節制使로 부임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힘썼다. 같은 해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다. 완흥군完興君에 봉하여졌으며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탄현면 갈현리에 묘가 있다가 그 자리에 인조대왕릉을 조성하게 되어 파평면 금파리 선영묘역으로 이장하였다.

이의로 李義老 생몰년 미상. 문신으로 본관은 성주星州이며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하였다. 후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법원읍 삼방리에 묘가 있다.

이의생 李義生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정종의 셋째 아들로 기씨가 낳았고, 남양 홍씨南陽洪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사직司直 홍숙洪宿의 딸이다. 금평군錦平君에 봉하여졌고, 중의대부中義大夫에 추증되었다. 파주읍 향양리에 묘가 있다.

이의석 李宜碩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지낸 명신明晨의 손자이다. 관직에 나아가 홍산현감鴻山縣監을 지냈다. 할아버지가 세운 화석정을 수리하고 보전하는 데 힘썼다. 파평면 울곡리에 묘가 있다.

이이 李珥 1536년(중종 31)~1584년(선조 17). 조선 중기의 학자·정치가로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자는 숙헌叔獻, 호는 울곡栗谷·석담石潭·우재愚齋이다. 아버지는 증좌찬성贈左贊成 원수元秀이며, 어머니는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이다. 태어나던 날 어머니의 꿈에 흑룡이 바다에서 집으로 날아 들어와 서렸다고 하여 아명을 현룡見龍이라 하였다. 산실産室은 몽룡실夢龍室이라 하여 지

금도 보존되고 있다.

8세 때 파주 울곡리에 있는 화석정花石亭에 올라 시를 지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학문을 배웠고 1548년(명종 3) 13세로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51년 16세 때에 어머니가 죽자 파주 두문리 자운산에 장례하고 3년간 시묘하였다. 19세에 성혼成渾과 도의道義의 교분을 맺었다.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고 다음 해 20세에 하산하여 다시 유학에 전심하였다. 22세에 성주목사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하였다. 23세가 되던 봄 예안禮安의 도산陶山으로 이황李滉을 방문하였다. 그해 겨울에 별시에서 「천도책天道策」을 지어 장원하였으며, 전후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졌다.

1564년 7월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한 후 이어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처음 임명된 후 예조좌랑禮曹佐郎, 이조좌랑吏曹佐郎 등을 역임하고, 1568년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부교리副校理로 춘추기사관春秋記事官을 겸임하여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해에 성혼과 '지선여중至善與中' 및 '안자격치성정지설顔子格致誠正之

說'을 논하였다. 1569년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었으며, 1572년 율곡리에서 성혼과 이기理氣, 사단칠정四端七情, 인심도심人心道心 등을 논하였다. 1574년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임명되고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지어 올렸으며, 1575년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지었다. 이후 『격몽요결擊蒙要訣』, 『기자실기箕子實記』 등을 편찬하였다. 1582년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고, 임금의 명으로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지었다. 이해에 『김시습전金時習傳』과 『학교모범學校模範』을 지었으며, 1583년에 「사무육조時務六條」를 계진하고 십만 양병을 주청하였다.

1584년 한양 대사동大寺洞에서 숨을 거두고, 파주 자운산 선영에 안장되었다. 문묘에 종향되었으며,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 강릉의 송담서원松潭書院, 풍덕의 구암서원龜巖書院, 황주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 20여 서원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묘는 법원리 자운서원 내에 있다.

이이李珥의 처 곡산 노씨 谷山盧氏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열녀로 본관은 곡산谷山이다. 임진

왜란 때 신주를 안고 율곡의 묘소로 피난 갔으나 왜적을 만나게 되자 크게 꾸짖고 죽임을 당했다. 후에 그 의로움으로 정표를 받았다. 묘는 법원읍 동문리 율곡 이이의 묘 바로 뒤에 있다.

이이명李爾命 1658년(효종 9)~1722년(경종 2).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지인智仁 또는 양숙養叔, 호는 소재疎齋이다. 세조의 아들 밀성군密城君의 6대손으로, 영의정領議政 경여敬與의 손자이자 대사헌大司憲 민직敏迪의 아들이다. 탄현면 갈현리에서 성장하였다.

1680년(숙종 6)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로부터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1686년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있으면서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수찬修撰·교리校理·응교應敎,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이조좌랑吏曹佐郎,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등을 역임하면서 송시열·김석주 등의 지원 아래 노론의 기수로 활약하였다. 1687년 1월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부임하였으나 8개월 만에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가 되어 조정에 돌아오는 남다른 승진을 거

듬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영해로 유배되었다가, 뒤이어 남해로 이배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유배생활 5년 만에 갑술옥사가 일어나 호조참의戶曹參議로 조정에 돌아온 뒤 승지를 거쳐 1696년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제수되었지만, 늙은 어머니의 병을 청탁하여 극구 사절하고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로 나갔다. 그 후 2년 만에 대사간大司諫으로 돌아왔으나, 형 사명師命의 죄를 변호하다가 다시 공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2월 유배가 풀리기는 하였으나 2년 동안 기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701년 예조판서禮曹判書로 특임되었고, 이어 대사헌大司憲,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이조판서吏曹判書, 병조판서兵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1706년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다. 1708년(숙종 34) 숙종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면서 좌의정左議政에 올라 세제世弟(훗날의 영조)의 대리청정이 실현되려다가 실패하자 이를 주도한 김창집 등과 함께 관작을 삭탈당하고 남해에 유배되어 있던 중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이듬해 4월 서울로 압송되어 사사賜死되었다. 공주에 안장되었다가 1725년(영조 1) 복작되면서 임천 옥곡玉谷에 이장되었고, 영조의 지시로 한

강 가에 사우祀宇가 건립되었다. 저서로는 시·문을 엮은 『양역변통사의良役變通私議』을 비롯하여 『강역관계도설疆域關係圖說』, 『강도삼충전江都三忠傳』 등이 있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이인신 李仁臣 1457년(세조 3)~1518년(중종 13).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증 이조판서贈吏曹判書 성무成茂의 아들이다.

1484년(성조 15) 정시문과庭試文科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1489년(성종 20) 정자正字·지평持平을 거쳐 1506년(중종 1) 형조좌랑刑曹佐郎, 1508년(중종 3) 예조참의禮曹參議, 1510년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승진하였으며 1512년 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를 지냈다. 월롱면 덕은리에 묘가 있다.

이입신 李立身 1625년(인조 3)~1689년(숙종 1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양성陽城이며 자는 현부顯夫, 호는 의재毅齋이다. 양릉군陽陵君 성晟의 아들이다.

1663년(현종 4) 식년무과에 급제하여 충청도 수사忠淸道修詞로 나갔다. 1680년(숙종 6) 경신대

출척 당시 크게 공을 세워 보사공신(保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고 양흥군(陽興君)에 봉하여졌다. 이어 도총관(都總管)을 거쳐 전라병사(全羅兵使)·평안남북병사(平安南北兵使)를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화를 입었고 1694년 신원되어 승정대부판돈녕부사겸판의금부사(承政大夫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법원읍 직천리에 묘가 있다.

이정보 李廷備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청백리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맹주(孟周), 호는 천정(泉亭)이며 초명은 제두(齊斗)이다. 중서문하판병부사(中書門下判兵府使)를 역임한 경중(敬中)의 손으로, 장작소감(將作少監)에 오른 육축(육)의 아들이다.

고려 말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한 뒤 청화(淸華)를 지내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조의 잡저 시경기좌도관찰사(京畿左道觀察使)에 특제되었다. 1428년(세종 10) 황희(黃喜), 유관(柳寬), 맹사성(孟思誠) 등과 함께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청렴한 생활로 일관하여 동시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금촌 맥금동에 묘가 있다.

이정신 李鼎臣 1792년(정조 16)~1858년(철종 9).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성린(聖鄰)이다. 훈련대장(訓練大將)을 지낸 요헌(堯憲)의 아들이다.

1822년(순조 22) 가순궁(嘉順宮) 수빈(수빈) 박씨(綴嬪)의 상(上)에 빈궁장례도감(賓宮葬禮都監)의 종척집사(宗戚執事)가 되어 장례(葬禮)를 순조롭게 치르도록 주선(主善)한 공으로 말(말) 1필(匹)을 하사(下賜)받았다. 1827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病科)로 급제(及第)하여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에 기용(起用)되고, 부수찬(副修撰)·수찬(修撰)·응교(應教) 등을 지냈다가 충주목사(忠州牧使)로 나갔다. 1828년 내직(內直)으로 승차(升車)된 뒤 경연(慶筵)에 나가 『논어』(論語)를 강의(講義)하였고, 이듬해(翌年) 예방승지(禮房承旨)가 되었다. 이후에도 탁월(卓越)한 업무(業務)능력을 인정(認)받아 승급(昇)을 거듭(屢)하였다. 1831년 다시 개성유수(開城留守)로 나갔으며, 이듬해(翌年)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제수(陞)되었다. 이어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使)를 거쳐 1825년 다시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옮겼다. 1845년(헌종 11)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이듬해(翌年)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에 부임(赴任)하여 민심(民心)을 살피기도 하였으며, 1848년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오르고 이듬해(翌年) 헌종의 국상(國喪)에서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로 국장(國葬)의 일체(一切)를 관

장하였다. 1850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역임하고 곧이어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임명되었다. 치밀한 성격으로 정무나 사사에 있어 일을 완벽히 처리하여, 역대 왕들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국가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였다.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월릉면 덕은리에 묘가 있다.

이정제 李廷濟 1670년(현종 11)~1737년(영조 13).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부평富平이며, 자는 중협仲協, 호는 죽호竹湖이다. 병조정랑兵曹正郎을 지낸 계록繼祿의 현손이며 좌승지左承旨를 지낸 세유世維의 아들이다.

1699년(숙종 25)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소론으로서 정언正言, 지평持平, 사간司諫 등을 거치면서 이유李濡·김창집金昌集 등 노론 계열의 중신을 탄핵하다가 파직되기도 하였다. 1721년(경종 1) 충주목사忠州牧使를 거쳐 1723년 노론 축출에 가담하였다가 1725년(영조 1) 노론의 집권으로 삭직되었다. 1728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에 임명되었으며, 대사헌大司憲, 형조판서刑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

府事에 이르렀다. 약관의 나이로 경사經史에 통하였으며 40여 년을 관직에 있으면서 오직 청렴함과 강직함으로 왕을 보필하였다. 김일경金一鏡이 득세하자 그에게 많은 사대부가 아부하였으나 이를 경계하였다. 술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겼으나 호조판서 재직 때 비용을 절약하여 국고를 충실하게 하는 행정적 수완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가 죽자 영조는 90세가 넘는 그의 노모 생전에 녹미祿米를 내리도록 하고 정려를 명하였다.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문산읍 선유4리에 묘가 있다.

이제길 李悌吉 생몰년 미상. 광성군과 광해군을 배척하다가 장단 땅으로 피하였다. 후일 인조반정 때 충신으로서의 공이 표창되었으며, 병자호란 때 창의하다가 피살되었다. 영조 때 정려되었다.

이제황 李濟璜 생몰년 미상. 본관은 경주이며 오위도총관五衛都總管을 지냈다.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금촌동에 묘가 있다.

이존사 李尊師 생몰년 미상.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를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껏 돌보아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한다.

이종성 李宗城 1692년(숙종 18)~1759년(영조 3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자고子固, 호는 오천梧川이다. 항복恒福의 5세손이며 좌의정左議政 태좌좌佐의 아들이다.

1711년(숙종 37) 진사가 되고 1727년(영조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3일 만에 예문관 설서藝文官設書가 되었다. 이듬해 경연經筵의 전경典經으로 시독관 박문수朴文秀와 함께 봉당 200년의 폐를 논하였으며, 그해 경상도암행어사慶尙道暗行御史가 되어 민폐를 일소하였으며, 이인좌李麟佐의 출가한 자매가 문경에 갇혀 있음을 보고 그 부당함을 상소하여 석방하게 하였다. 이후 부수찬副修撰·헌납獻納·수찬修撰·교리校理 등을 거쳐 1729년(영조 5) 불법 수령 적발의 사명을 띠고 다시 영남어사嶺南御使로 파견되었고, 함경남도에서 이어 북도안집어사北道按集御史로 다녀와 응교應教가 되었다. 1731년 관서어사關西御使로 파견되어 양덕현감 남윤관南胤寬을

파직시키고, 개천군수 홍태평洪泰平, 맹산현감 이희하李喜夏, 황주목사 이성제李誠躋에게 포상할 것을 상소하였다. 1733년 승지承旨, 대사간大司諫,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대사성大司成이 되었고, 이듬해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題學이 되어 양역良役의 폐를 상소하였다. 1735년 다시 이조참의가 되어 용전用錢의 편리함을 논하고, 이듬해 탕평책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으나 다시 기용되어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가 되었다. 1738년 이조참판吏曹參判, 1741년 부사직副司直, 1742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거쳐 1744년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으며, 이어서 예조판서禮曹判書, 형조판서刑曹判書, 대사헌大司憲,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1749년 지돈령知敦寧·우빈객右賓客을 역임하고 1752년 좌의정左議政에 이어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세자의 처벌에 적극적이었던 김상로金尙魯 등의 간계로 영의정을 사직하였다. 1753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1757년 내의원봉상시도제조內醫院奉常寺都提調가 되었다. 이때 인원대비仁元大妃(숙종의 계비 김씨)의 상을 당하여 의례의구조疑禮義九條와 종묘 혼전魂殿의 예의칠조

禮義七條를 올려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1758년(영조 34)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어 장헌세자莊獻世子를 보살폈다. 장조莊祖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저서로는 『오천집梧川集』이 있다. 시호는 처음에는 효강孝剛이었으나 후에 문충文忠으로 바꿨다. 군내면 읍내리에 묘가 있다.

이종호 李宗顥 1447년(세종 29)~1503년(연산군 9).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부평富平이다. 고려 말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의雋의 증손이며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을 지낸 극효克孝의 아들이다.

문종 때 사마시에 올라 생원이 되고 1469년(예종 1) 춘장시 갑과에 급제하였다. 성종 대에 호당독서湖堂讀書에 들어가 학문 연구에 열중하였다. 1494년(성종 25) 승지承旨로 있을 당시 우의정右議政 허종許琮이 죽자 왕명을 받들어 문소에 대신 갈 정도로 왕의 신임이 두터웠다. 이후에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예조참판禮曹參判,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른 나이에 벼슬길에 올라 뛰어난 재덕과 높은 명망을 떨쳐 성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국정의 중요한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문산읍 선유리에 묘가 있다.

이주 李澍 1534년(중종 29)~1584년(선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언립彦霖, 호는 분봉盆峯이다. 군수 경종慶宗의 아들이며, 인조 때의 호성공신屬聖功臣 광정光庭은 그의 맏아들이다. 조식曹植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다. 성품이 강직하여 남의 과실을 보면 반드시 이를 시정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어려워하였다.

1558년(명종 13)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학업 중 유생들과 함께 상소하여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어 불사를 일으키려 한 보우의 죄를 성토하였다. 1573년(선조 6) 문과에 이발李潑·김수金晬 등과 함께 발탁되어 권지정자權知正字에 보임되고, 곧이어 경성판관京城判官에 특배되었으며, 1583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이르렀다.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자 동인의 입장에서 홍여순洪汝淳·유영경柳永慶 등과 더불어 이이李珣·성혼成渾을 논박하는 데 앞장섰다. 1584년(선조 17) 가산군수嘉山郡守에 제수되었고

아들 광정이 재상에 이르러 사후에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묘는 조리면 뇌조읍 이광정 묘역 남쪽에 있다.

이준 李準 1545년(인종 1)~1624년(인조 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평숙平叔, 호는 뇌진자懶眞子·서파西坡이다. 정종의 아들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의 6대손으로 유정惟貞의 아들이다.

1568년(선조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主書·정언正言을 거쳐 1581년 헌납獻納, 진주목사晉州牧使, 의주목사義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 1589년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일어나자 도승지都承旨로서 죄인을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평난공신平難功臣 2등에 책록되고 전성군全城君에 봉하여졌다. 모친상을 당하자 적성현에 오두막을 짓고 거주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운항사運餉使가 되어 명나라 군사의 군량미 조달 책임을 맡았으나 병으로 은퇴하였다. 그 뒤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춘천부사春川府使를 거쳐 예조·병조의 참판參判을 지내고, 1600년 대사간大司諫이 되었으나 복인 홍여순洪汝諱의 일

파로 몰려 한때 파직되었다. 이후 안동부사安東府使, 경주부윤慶州府尹 등의 지방관을 거쳐 광해군 때 좌참찬左參贊, 형조판서刑曹判書, 공조판서工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1615년(광해군 7)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가 되었다. 이어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으나, 이이첨·정인홍 등이 계축옥사를 일으키고 인목대비를 유폐하는 등 정사를 어지럽히자 벼슬을 버리고 은퇴하였다.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숙헌肅憲이다. 월릉면 능산리에 묘와 사당이 있다.

이준 李峻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태종의 증손으로 임강부정臨江副正에 봉하여졌다. 조리읍 장곡리에 묘가 있다.

이준민 李俊民 1524년(중종 19)~1590년(선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자는 자수子修, 호는 신암新菴이다. 참봉參奉을 지낸 공량公亮의 아들이며 조식이 그의 외숙이다. 이른 나이에 시서詩書에 통달할 정도로 뛰어난 문재를 보였다.

1549년(명종 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제수되고, 이어서 1554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어 당시의 뜬구름 같은 사장詞章 중심의 문풍을 경계하며 경학經學의 장려와 덕행의 권장을 상소하였다. 1556년 황해도사黃海都事로서 증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에 올랐다. 이듬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있을 때 김진金鎭, 이명李銘 등과 함께 윤원형 일파를 축출하는 데 앞장섰다. 얼마 뒤 반대파의 미움을 받아 영월군수寧越郡守로 좌천당했다. 계속해서 1561년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가 되었으나 관할구역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 뒤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으로 등용되어 세자 교육에 힘쓰다가 강계부사江界府使로 나갔다. 그러다 선조 즉위 후 능력을 크게 인정받아 요직에 두루 임명되었다.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를 거쳐, 1570년(선조 3)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오랫동안 경계지역의 국방을 통솔하였으며,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공조참판工曹參判을 역임하고 1575년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부임하였다. 다시 내직

으로 옮겨 1584년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올랐고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등을 지냈다.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국방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정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587년 좌참찬으로 있으면서 조정의 논의가 분열하여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일어나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크게 염려하였다. 이때 당론을 조정하려던 이이李珣의 뜻에 감명 받아 그를 크게 흠모하였다. 붕당의 논쟁이 더욱 심화되어 가자 말년에는 병을 구실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항상 검소한 생활로 일관하였고, 자제 교육에도 매우 엄하였다. 또한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문무를 겸비하여 뛰어난 글 솜씨뿐만 아니라 활쏘기에도 능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사후 진주의 임천서원臨川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효익孝翼이다. 광탄면 영장리에 묘가 있다.

이지남 李至男 1529년(중종 24)~1577년(선조 10), 조선 중기 사람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단에端禮, 호는 영응선생永膺先生이다. 장령掌令을 지낸 언침彦枕의 아들이다. 조광조에게 학문을 배웠고, 이를 몸소 실행하는 데 힘썼다. 아버지가 탄핵을 받고 좌천되어 순창군수로 부임하자 그곳에 살고 있던 김인후의 제자가 되었다. 그때 재주를 인정받아 스승인 김인후가 자를 지어 줄 정도였다. 뒤에 아버지가 서천으로 귀양 가서 죽게 되었는데 이때 지성으로 장사지내고 3년간의 여막살이를 정성으로 마쳐 주변으로부터 스물도 안 된 나이에 극진한 효성이라는 뜻인 '지효至孝'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과거를 거치지 않아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으나, 1577년(선조 10) 나라 안에 학행이 있는 선비를 천거할 때 소격서의 참봉參奉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 어머니 안씨安氏가 이질로 증세가 위급하자 울부짖으며 천지신명께 간절히 호소하였다. 하늘도 감동하였음인지 어머니는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차츰 회복되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오랫동안 병수발로 몸이 쇠약해져 그해 8월 운명을 달리하였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연안의 읍호를 따라 '영응선생'이라 하였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기직基稷

은 정철鄭澈의 사위로 아버지의 죽음에 지나치게 슬퍼한 나머지 23세에 요절하였고, 출가하지 않은 딸도 애통해하다가 18세에 죽었다. 이러한 효심에 감동한 향교구동鄉校舊洞 사람들은 그 사실을 조정에 알려 인조의 특명으로 효자, 효녀 정려를 세우게 하였다. 어머니 안씨, 부인 정씨, 아들 기직·기설, 딸이 모두 그와 더불어 표창을 받아 한 집안에 여섯 정문이 세워졌으며, 임금이 '효자삼세孝子三世'라는 편액을 내렸다. 그 뒤 손자들인 돈오惇五와 돈서惇敍 및 돈오의 처 김씨가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순절하여 모두 정려됨으로써 8개의 정문이라는 뜻에서 팔홍문八紅門이라 일컬었다. 팔홍문은 서울 남문 밖 자연암에 있다가 1930년 적성면 마지리에 팔정려와 충현당을 신축, 이전했으나 6·25 때 소실되었다. 1984년 김포시 감정리에 복원하였다. 이후 돈오 아들 후성后晟, 돈서의 아들 후잠后潛, 기설의 증손자 상기相琦가 효자 정려를 받아 모두 열세 개가 정려되었다.

이지역 李之億 1699년(숙종 25)~1770년(영조 46).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

며, 자는 덕수德瘦·항수恒水, 호는 성헌醒軒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광정光庭의 후손으로, 만선萬善의 아들이며, 정랑正郎 만성萬成에게 입양되었다.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여당이라는 무고를 당하여 친국을 받았으나 논리정연하게 논변하여 영조로부터 비상한 재주를 인정받게 되었다. 1751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主書, 장령掌書를 거쳐 승지承旨가 되었다. 1754년 강릉부사江陵府使,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르기까지 벼슬에 나간 지 10년이 못 되어 정정의 자리에 올랐는데, 관작은 모두 왕의 특교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의 승진이 관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처사라 하여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후 공조판서工曹判書, 형조판서刑曹判書, 병조판서兵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을 역임하는 동안 파직과 등용이 반복되었다. 그의 부음을 접한 영조는 몹시 애석히 여기고, 그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입후立後하게 하였으며 상례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내려주었다. 조리읍 등원리에 묘가 있다.

이진경 李眞卿 1576년(선조 9)~1642년(인조 20).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며 자는 희안希顔이다.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을 지낸 준민俊民의 손이며 도총부도사를 역임한 중훈從訓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기량이 원대하여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다.

1609년(광해군 1) 무과에 급제한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주州·부府에 파견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군민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어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를 지냈고, 1632년(인조 10) 금나라로 물품과 어필단자를 호송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말년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면서 생애를 마쳤다. 광탄면 영장리에 묘가 있다.

이집 李諱 1642년(인조 20)~1714년(숙종 40).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여주驪州이며 자는 자화子和이다. 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 동구東齋의 아들이다. 1672년(현종 13) 무과에 급제하여 1680년(숙종 40) 보사원종공신동지증추부사保社原從功臣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법원읍 갈곡리에 묘가 있다.

이집 李輯 생몰년 미상.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순
주이다. 세종의 증손이며 강양군江陽君의 아들이
다. 희안군喜安君에 봉하여졌다. 파평면 금파리
에 묘가 있다.

이집중 李執中 생몰년 미상. 문신으로 본관은 전
주순州이다.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냈으며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봉하여졌다. 파평면 금파리에 묘
가 있다.

이창정 李昌庭 1573년(선조 6)~1625년(인조 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
는 중번仲蕃, 호는 화음華陰 또는 무구옹無求翁이
다. 정언正言 주위의 아들이다.

1603년(선조 36) 진사시에 합격하여 내시교
관內侍敎官에 발탁되어 재행才行이 검비되고 학
술이 정심精深함을 인정받았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은을
현감殷栗縣監이 되어 선정을 베풀어 표리表裏 일
습을 하사받았다. 1611년 행호군行護軍이 되어
순천부사順天府使, 동래부사東萊府使를 역임하였
고, 1617년 양주목사楊州牧使 등을 역임하면서

선치수령善治守令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전적典
籍·사에司藝, 이듬해 사성司成이 되어 대비를 폐
하자는 논의에 참여하였다. 1623년(인조 1) 충
청도수사忠淸道修詞가 되어 문무재겸文武才兼의
실력을 발휘하였고,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
자 공주까지 인조를 호종하였다. 그 당시 함경
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 권반權盼이 명나라 장수 모
문룡毛文龍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문제를 일
으키자, 이원익李元翼과 이귀李貴 등의 추천을 받
아 후임으로 임명되어 명나라 군대의 노략질을
금지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625년(인조 3)
선위사宣慰使로 안변에 가서 명나라 사신을 기다
리던 중에 죽었다. 조리읍 뇌조리에 묘가 있다.

이첨 李詹 1345년(충목왕 1)~1405년(태종 5). 고
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홍성洪城이며,
자는 중숙中叔, 호는 쌍매당雙梅堂이다. 증참찬의
정부사證參贊議政府事 희상熙祥의 아들이다. 문산
읍 운천리 동산童山 아래 택지가 있었다.

1365년(공민왕 14) 감시監試의 제2인으로 합
격하였고, 1368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
藝文館檢閱이 되고, 이듬해 우정언右正言에 이어

1375년(우왕 1) 우헌납右獻納에 올라 이인임李仁任·지윤池淵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10년간 유배되었다. 1388년 유배에서 풀려나 내부부령內府副令·예문응교應教를 거쳐 우상시右常侍가 되었으며, 1391년(공양왕 3) 좌대언左代言이 되었다. 이어 지신사知申事에 올라 감사를 맡아 보았으나, 김진양金震陽 사건에 연루되어 결성結城(현 충청남도 홍성)에 다시 유배되었다.

조선 건국 후 1398년(태조 7)에 이조전서吏曹典書에 등용되어 동지중추원학사同知中樞院學士에 올랐다. 1400년(정종 2) 첨서삼군부사簽書三軍府事로 전위사傳位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02년(태종 2)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에 올라 하륜河崙과 함께 등극사登極使로서 명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하여 명에 다녀왔다. 그때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의 개사改賜를 주청奏請하였다. 뒤에 그 공로로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으며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랐다. 그해에 지의정부사로서 대사헌大司憲을 겸하였으며, 1403년(태종 3) 예문관대제학藝文官大提學이 되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하륜 등과 함께 『삼국사략三國史略』을 찬수하였으며, 소설 『저생전楮生傳』을 지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많은 시를 남기고 있으며, 유저로 『쌍매당집雙梅堂集』이 있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이추 李抽 1417년(태종 17)~1463년(세조 13).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자장子長이다. 시조 신호위중랑장神虎衛中郎將 둔수敦守의 7세손이며 증공조판서贈工曹判書 명신明晨의 아들이다. 1436년(세종 18) 음보로 수찬修撰·부위副尉·좌군부사정左軍副司正을 거쳐 1457년(세조 3) 봉례奉例, 1459년 좌익원종공신左翼原從功臣이 되어 중직대부中直大夫로 승진하였으며 1462년(세조 8) 온양군수겸권농부사溫陽郡守兼勸農副使, 천안수병마단연부사天安遂兵馬團鍊副使로 추증되었다. 문산읍 사목리에 묘가 있다.

이편창 李騙昌 생몰년 미상.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성종의 증손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봉하여졌고, 작호가 도정都正에 이르렀다. 시호는 소성군昭成君이다. 광탄면 마장리에 묘가 있다.

이합李臧 생몰년 미상. 조헌趙憲의 제자로 금산錦山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정려旌閣하였다.

이해령李海齡 생몰년 미상.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중종의 증손으로 중의대부中義大夫에 올랐으며, 진성군珍城君에 추봉되었다. 1651년(효종 2) 이해령과 그의 첩 효덕이 현감 유희柳滄의 집에 가 유희의 첩과 첩의 어머니까지 죽여 사헌부가 죄를 청했다는 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1650년대 이후에 사망했으리라 보인다. 탄현면 축현리에 묘가 있다.

이행李荇 1478년(성종 9)~1534년(중종 2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자는 택지澤之, 호는 용재容齋·창택어수滄澤漁叟·청학도인靑鶴道人이다. 사간司諫 의무宜茂의 아들로, 문산읍 내포리에 택지가 있었다.

1495년(연산군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예문관검열檢閱·봉교奉敎, 성균관전적적成均館典籍을 역임하고,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00년 하성절질정관賀聖節質正

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에 임명되었고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까지 올랐다. 1504년 갑자사화 때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을 거쳐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로 있으면서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하다가 충주에 유배되고 이어 함안으로 옮겨졌다가 1506년 초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 이해 9월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와 다시 홍문관교리로 등용되고, 이어 부응교副應敎로 승진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513년(중종 8) 다시 성균관사에成均館司藝가 되었다가 이듬해 사성司成으로 승진하였다. 사십시정司贍寺正을 거쳐 1515년(중종 10)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이 되고, 이어 대사간大司諫으로 승진하였다. 그때 신진 사류인 담양부사 박상朴祥과 순창군수 김정金淨 등이 폐비 신씨愼氏의 복위를 상소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좌승지左承旨,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1517년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그러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조광조 등 신진 사류로부터 배척을 받아 첨지중추부사로 좌천되자 사직하고 충청도 명천으로 내려갔다. 이

듬해 병조참의兵曹參議, 호조참의戶曹參議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실각하자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이 되고, 이듬해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임명됨과 동시에 대사헌大司憲과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겸하였다. 이어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도 겸임하였다. 1521년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된 이후 우참찬右參贊, 좌참찬左參贊, 우찬성右贊成으로 승진하고, 1524년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다시 좌찬성左贊成을 거쳐 1527년에는 우의정右議政에 올라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등을 겸임하였다. 1530년 『동국여지승람』의 신증新增을 책임 맡아 끝내고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 이듬해 권신 김안로의 전횡을 논박하다가 오히려 그 일파의 반격을 받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좌천되고, 이어 1532년 평안도 함중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1537년(중종 32) 김안로 일파가 축출되면서 복관되었다. 문장이 뛰어났으며 글씨와 그림에도 능하였다. 중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용재집容齋集』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定이었으나 뒤에 문헌文獻으로 바뀌었다.

이현 李楹 1669년(현종 10)~1730년(영조 6). 조선 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문숙文叔이다. 선조의 4대손으로 광평군光平君 명珣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고령 신씨高靈申氏로 선교랑 선호善浩의 딸이다.

1683년(숙종 9) 영원수靈原守가 되고, 1706년 도정겸사옹원부제조都正兼司饔院副提調가 되었다. 1710년에는 선조 때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하여 지은 갱진시賡進詩의 구본에 서序를 붙여 간행한 공로로 영원군靈原君에 봉하여지고, 도총부의 부총관副總管 여섯 번, 도총관都總管 세 번을 역임하였다.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1등이 되었으며, 효행이 뛰어나 가덕대부嘉德大夫로서 종친부유사당상宗親府有司堂上이 되었다. 시호는 효의孝懿이다. 후손은 탄현면 축현리 덕수동에서 살았다.

이현영 李顯英 1573년(선조 6)~1642년(인조 2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자는 중경重卿, 호는 창곡蒼谷·쌍산雙山이다. 군수郡守를 지낸 대수大秀의 아들이다.

1595년(선조 2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직되고 평안도평사平安道評事, 지

평持平 등을 거쳐 수찬修撰, 교리校理, 지제교知製敎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10년(광해군 2) 헌납獻納이 되었다가 교동현 감喬洞縣監으로 나갔다. 이때 인척인 이이첨으로부터 그곳에 유배 중인 임해군臨海君(광해군의 형)의 암살을 종용받았으나 끝내 응하지 않아 결국 미움을 받고 투옥되었다. 얼마 뒤 대사령大赦令이 내려 풀려 나왔고 부수찬副修撰으로 기용되었다. 그 뒤 서흥부사瑞興府使를 거쳐 예빈시정禮賓寺正, 봉상시정奉常寺正, 필선弼善 등을 역임하고, 1619년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21년 병조참의兵曹參議가 되었으나, 대북파大北派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잠시 벼슬에서 물러났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대사간大司諫에 등용되었고, 1624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1625년 예조와 형조의 참판參判 및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1626년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올랐다. 1627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1629년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거쳐 부제학副提學·도승지都承旨·참찬관參贊官 등을 역임하고, 1632년 인목대비가 죽자 행호군行護軍으로 산릉도감山陵都監을 겸하였다. 이어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대

사헌大司憲, 예조와 형조의 판서判書 등을 지냈다. 1636년 병조호란이 일어나자 양근에서 의병을 일으켜 후금의 군사와 싸웠다. 이듬해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임명되었으나 병자호란 당시 왕을 제대로 호종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여 사퇴하였다가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거쳐 대사헌이 되었다. 1642년 청나라 용골대가 소현세자를 볼모로 삼아 심양에 잡아 놓고 조선 사신의 입국을 요구하자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심양에 가서 한 달 동안 감금되었다가 돌아오던 중 평양에서 사망하였다. 뒤에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진동면 서곡리에 묘가 있다.

이희李穡 1469년(예종 1)~1521년(중종 16).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원지源之이다. 세조의 손자이며 덕원군德源君 서曙의 아들로 작은아버지 창원군昌原君 성晟의 양자로 들어갔다. 용모가 준수했으며 호연지기의 성품을 지녔다. 일찍이 부친의 엄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지극한 효행을 실천하였으며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였다. 덕진군德津君으로 봉하여졌으며, 1506년 중종반정 당시 공을 세워 정

국공신靖國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러나 1519년 조광조·이성동 등에 의한 위훈삭탈의 일환으로 공신희에서 삭제되었다가 기묘사화 후 다시 회복되었다. 생전에 종친으로서의 권세를 믿고 방자한 행실을 보여 지탄을 받기도 하였으나, 평소 학문에 힘써 『주역周易』의 이치에 해박했다고 한다. 교하읍 다울리에 묘가 있다.

이희 李懷 1488년(성종 19)~1552년(명종 7). 조선 중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순지順之이다. 성종의 아홉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숙의 홍씨淑儀 洪氏이다. 1496년(연산군 2) 익양군益陽君에 봉하여졌다. 연산군이 살육을 자행하면서 형제를 더욱 미워하자 일부러 우매한 행동을 일삼거나 두문불출하여 화를 겨우 면하였다. 1506년 중종반정의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어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종부시宗簿寺 등의 제조提調와 종친부의 유사당상有司堂上을 겸임하였다. 시호는 순평順平이다. 조리읍 장곡리에 묘가 있다.

이효의 李孝義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종친으

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정종의 8남 임언군林暉君 녹생祿生의 아들이다. 달성부수達城副守에 봉하여졌다. 1475년(성종 6) 임금이 후원에서 종친을 인견할 때 108명이 입시하였으며 모두에게 호피虎皮 1장씩 하사하였는데,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埈,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 의성군諠城君 이채李棗, 보성군寶城君 이합李翬에게는 표피豹皮 각각 1장씩을 별도로 하사하였고, 기계수杞溪守 이효전李孝全, 장택부정長澤副正 이효자李孝慈, 진성수珍成守 이의정李義丁, 안장부수安場副守 이옥산李玉山, 달성부수達城副守 이효의李孝義, 마천부수馬川副守 이이李怡가 사후射侯에서 이겼으므로 활(弓)을 각각 1장씩 별도로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창원군 이성(1455~1505)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월릉면 도내리에 묘가 있다.

이효자 李孝慈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정종의 8남 임언군林暉君 녹생祿生의 아들로 이효의와는 형제이다. 벼슬이 판종정경부사判宗正卿府事에 이르렀고 장택군長澤君에 추봉되었다. 월릉면 도내리에

묘가 있다.

이효헌 李曉憲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하였으며, 현재의 덕은리에 있는 은골에 정착하여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 주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한다. 시호는 숙열肅烈이다. 월릉면 덕은리에 묘가 있다.

이후백 李後白 1520년(중종 15)~1578년(선조 1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련靑蓮이다. 관찰사觀察使 숙함淑楨의 증손으로 현감縣監 원례元禮의 손자이며, 국형國衡의 아들이다. 어려서 아버이를 여의고 큰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상을 예법대로 치렀다. 하루는 집안어른이 그에게 단술을 권하자 비록 단술이라도 '주酒' 자가 붙은 이상 상주가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1535년(중종 30) 향시에 장원하고 곧 상경하여 이의건李義健·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 등에게 배웠다. 1546년(명종 1) 사마시에 합격하여 승문원주서承文院主書를 거쳐 1558년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이후 전한典翰, 시강원설서侍講院設書, 사서司書, 정언正言, 사간司諫, 병조좌랑兵曹佐郎, 사인舍人 등을 역임하였다. 1567년(선조 즉위년)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으로 명나라 사신을 맞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으며, 대사간大司諫, 병조참의兵曹參議를 거쳐 도승지都承旨를 역임하였다. 1571년 정시문과에 장원하고, 예조참의禮曹參議,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역임하였으며, 1573년 변무사辨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인성왕후仁聖王后(인종 비)가 죽어 복제문제가 일어나자 3년상을 주장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 1574년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고 다음 해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이후 이조판서吏曹判書와 양관의 제학提學을 지내고,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있을 때 휴가를 얻어 함안에 성묘를 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1590년(선조 23)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으로 연양군延陽君에 추봉되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함안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청련집靑

蓮集』이 있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광탄면 발랑리에 묘가 있다.

이후원 李厚遠 생몰년 미상. 태종의 넷째 아들인 성녕대군誠寧大君의 후예로 정표를 받았다.

이후정 李后定 1631년(인조 9)~1689년(숙종 15). 조선시대 문인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정숙定叔, 호는 만안당晩安堂이다. 장령 기설基高의 손자이며, 병조정랑을 지낸 돈림惇臨의 아들이다. 1660년(현종 1) 사마시를 거쳐 1675년(숙종 1)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지평을 거쳐 정언이 되고, 이어서 부수찬·헌납을 지냈다. 1689년 병조참의로 있을 때 기사환국 직전에 인현왕후仁顯王后(숙종 비)의 폐위가 부당하다고 상소하였으나 용납되지 않자 격분하여 죽었다. 1690년(숙종 11)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1694년 기사년 상소의 일로 판서로 추증되었으며, 1695년 청백리에 선록되었다. 함평 기산서원에 배향되고 묘소는 과천 남태령에 있었으나 1999년 4월 적성면 마지리 수정봉으로 이장하였다.

이휘지 李徽之 1715년(숙종 41)~1785년(정조 9).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미경美卿, 호는 노포老圃이다. 좌의정左議政 관명觀命의 아들이다.

1741년(영조 17)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뒤 음사로 목사牧使가 되었다가 1766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역임한 뒤 성절사聖節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에 제수되었다. 1755년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를 거쳐 1779년(정조 3)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이 되었으며, 이듬해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외직에 나갔다. 이후 우의정右議政에 올라 1781년 실록청총재관實錄廳總裁官을 겸하여 『영조실록』의 편찬을 주관하였다. 이듬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고, 1784년(정조 8) 사은검동지사謝恩兼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탄현면 축현리에 묘가 있다.

이힐 李訖 1568년(선조 1)~1630년(인조 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상중尙中, 호는 설정雪汀·오계梧溪이다. 아버지는

부사과副司果 천일天一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이다.

1589년(선조 22) 생원에 합격하고, 159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학유가 되고, 다음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주서假注書로 왕비를 해주에 호종하였다. 1594년 홍문관에 등용되고 이듬해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저작著作·박사博士 등을 거쳐 전적典籍에 올랐다. 1597년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하고 지평持平·문학文學을 거쳐 공조정랑工曹正郎이 되었다. 그해 왜적이 다시 침입하자 명나라 말에 능통한 그는 명나라 장수 진우충陳愚衷과 함께 울산에서 왜적을 치는 데 공을 세웠다. 그 뒤 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로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하였고 이후 형조정랑刑曹正郎이 되었다. 이어 보령현령保寧縣監에 임명되었으나 친상親喪을 당하여 부임하지 못하였다. 1606년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를 거쳐 배천군수白川郡守가 되어서는 관에서 봄에 백성에게 관곡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그 10배를 거두어들이는 악습을 폐지하였다. 1614년(광해군 6) 장단부사長湍府使가 되고, 1621년 종부시정宗簿寺正을 거쳐 1623년 인조반정 후 지제교知

製敎가 되었으며,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는 왕을 강화로 호종하였다. 1629년(인조 7)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동지사冬至使 윤안국尹安國과 함께 배를 타고 명나라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 윤안국은 익사하고 그만 홀로 살아서 하표賀表와 변무주문辨誣奏文을 전달한 뒤 그곳 옥하관玉河館에서 죽었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 『관주일록觀周日錄』, 『오계문집梧溪文集』이 있다. 시호는 충장忠章이다. 교하읍 교하리에 묘가 있다.

이흠李欽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세종의 증손으로 의인군宜仁君에 봉작되었으며 소위장군昭威將軍을 역임하였다.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1431년(세종 13)에 “서반 최진·고성, 지휘 이양李亮, 천호 이흠李欽 등에게 옷 1습과 모관·신靴 등을 하사하고, 두목 106명에게는 옷 각각 2벌과 모관·신 등을 주어 함길도를 향해 떠나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망 연대는 1430년대 이후라고 추정된다. 문산을 운천리에 묘가 있다.

인열왕후 仁烈王后 1594년(선조 27)~1635년(인조 13). 인조의 비로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성은 한韓이다.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한준겸韓浚謙의 딸이다. 원주읍내 우소에서 태어났다. 1610년(광해군 2) 능양군綾陽君(훗날의 인조)과 결혼하여 청성현부인淸城縣夫人으로 봉하여지고,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왕비가 되었다. 슬하에 효종, 소현세자昭顯世子, 인평대군麟坪大君, 용성대군龍城大君 등 4형제를 두었다. 능陵은 장릉長陵으로 처음 문산을 운천리에 장사지냈으나 1731년(영조 7) 탄현면 갈현리로 이장하면서 인조와 합장하였다. 1651년(효종 2) 휘호를 명덕정순明德貞順으로 추상하였다.

인조 仁祖 1595년(선조 28)~1649년(인조 27). 조선 16대 왕(재위 1623~1649)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자는 화백和伯, 호는 송창松窓, 이름은 종儋이다. 선조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정원군定遠君, 어머니는 인현왕후仁獻王后이다. 비는 한준겸韓浚謙의 딸 인열왕후仁烈王后, 계비繼妃는 조창원趙昌元의 딸 장렬왕후莊烈王后이다.

1607년(선조 40) 능양도정綾陽都正에 봉하여지

고, 이어 능양군綾陽君에 진봉進封되었다. 1623년 서인 김류金瑬·이귀李貴·이괄李适 등이 반정을 일으켜 왕위에 추대되어 경운궁에서 즉위하였다. 1624년 반정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에서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켰는데, 인조는 공주까지 피난 갔다가 격파된 뒤 환도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은 뒤 친명배금정책親明排金政策으로 바뀌었다. 이에 1627년 후금이 군사 3만여 명을 이끌고 침략하여(정묘호란)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며 최명길崔鳴吉의 강화 주장을 받아들여 양국의 대표가 '형제의 의'를 약속하고 화약을 맺었다. 1636년 12월 형제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바꾸자는 청나라의 제의를 거부하자 10만여 군으로 다시 침입한 청군을 막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물러가 항거하다 주화파의 뜻에 따라 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군신의 예를 맺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척화론자인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를 청나라에 볼모로 보낸 후 환도하였다(병자호란).

이와 같은 난국 속에서도 군사 제도를 정비하여 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 등을 신설하였으며, 북변 방위와 연해 방위를 위하여 여러 곳에

진鍊을 신설하였다. 한편 학문 진흥에도 힘써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동사보편東史補編』, 『서연비람書筵備覽』 등의 서적을 간행하였고, 송시열·송준길·김육·김집 등 우수한 학자를 배출하여 조선 후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능은 장릉長陵으로 처음에 문산읍 운천리 대덕골에 있다가 오랜 천장 논란 끝에 1731년(영조 7) 탄현면 갈현리로 옮겨 왔다.

임춘복 林春福 생몰년 미상. 극빈한 살림살이에도 부모상을 당하자 돈독하게 장례를 치렀다.

장기하 張基夏 생몰년 미상. 부친이 병환이 나서 18년 동안을 하루같이 시병하여 표상을 받았다.

장사길 張思吉 1341년(충혜왕 2)~1419년(세종 1).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의주만호義州萬戶 열烈的의 아들이며, 개국공신 사정思靖의 형이다. 아버지는 본래 안동에서 살았으나 북방으로 이주하여 의주의 참리站吏가 되었는데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하였다. 만호萬戶가 된 뒤 의주지방의 토호土豪가 되어 고

려 조정에 복종하지 않고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장사길은 아버지의 직을 세습하여 만호가 되었으며, 이모부 이성계에게 무예를 인정받아 위화도에서 함께 회군한 뒤 회군공신回軍功臣에 서훈되었고, 1390년(공양왕 2) 밀직부사密直副使를 거쳐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되었다. 1392년 아우 사정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공신開國功臣 1등에 봉하여지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서 의흥친군위동지절제사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를 겸하여 이성계의 친병親兵을 통솔하였다. 이듬해 황해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1398년(태조 7)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으로 영기군永嘉君에 봉하여졌으며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판공조사判工曹事, 의흥삼군부우군절제사義興三軍府右軍節制使에 제수되었고 이어 화산군化山君으로 개봉되었다. 1400년(정종 2) 사헌부로부터 제2차 왕자의 난 때 사정과 함께 반역을 모의하였다는 탄핵을 받았으나 왕이 두호하여 무사하였다. 태종 때 우군총제右軍總制,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등을 지낸 뒤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에 진봉되어 공직

을 물러났다. 용맹이 뛰어나고 병략兵略에 능하였으며 수염이 배에까지 닿았다고 한다. 의주 토호의 반란을 진압하고 의주에서 여연閔延에 이르는 압록강 연안 1,000리를 조선 영토로 편입하는 데 공헌하였다. 시호는 희양禧襄이다. 묘가 금촌 맥금동에 있다.

장순손 張順孫 1457년(세조 2)~1534년(중종 29).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인동仁洞이며 자는 사호士浩 또는 자활子活이다. 성주星州 출신으로 군수郡守 중지重智의 아들이다.

1485년(성종 16) 별시문과에 3등으로 급제한 뒤 정언正言·회령판관會寧判官을 역임하고, 1496년(연산군 2) 홍문관에 들어와 부응교副應教·응교應教를 지냈다. 1499년 사인舍人으로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하여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부제학副提學,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승지右承旨를 거쳐 도승지都承旨에 오르고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제수되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원방에 부처付處되었다가 증종반정으

로 풀려나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보임되었으며, 이듬해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이 되었으며, 대사헌大司憲으로 재직 중 정국공신靖國功臣인 박영문朴永文의 불법을 탄핵하기도 하는 등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듬해 이조참판吏曹參判, 형조판서刑曹判書,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1509년(중종 4) 호조판서戶曹判書로서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을 겸하여 폐지된 저화楮貨의 재사용을 주장하였고, 좌참찬左參贊으로 군량 확보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1515년(중종 10)부터 호조판서戶曹判書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역임하면서 노모의 연로함을 들어 계속 사직을 요청하였다. 1518년(연산군 13) 병조판서로 재직 중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사림파가 과거제의 폐단을 들어 현량과의 실시를 주장하자 그 의결에 반대하였다가 이듬해 김안로金安老의 일파로서 사림을 축출하였다는 삼사의 탄핵으로 파면되었다. 기묘사화로 이후 복직되어 이조판서吏曹判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거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으며, 이때 나이 70세로 궤장几杖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어 김안로가 정권을 장악하자 그에 의하여 우의정右議政에 오르고, 좌의정左議政을 거

쳐 1533년(중종 28)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가 이듬해 죽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조리읍 장곡리에 묘가 있다.

장순왕후 章順王后 1445년(세종 27)~1461년(세조 7). 예종의 원비元妃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성은 한韓이다.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딸이다. 1460년(세조 6) 16세에 세자빈에 책봉되어 인성대군仁城大君을 낳았으며 이듬해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비가 되기 전에 죽었다. 1472년(성종 3) 왕후로 추존되었다. 성종 비 공혜왕후와는 자매간이다. 시호는 장순章順이며 능은 파주삼릉 내 공릉恭陵이다.

장인우 張仁友 생몰년 미상. 장단 사람으로 효자이다.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지냈다. 효성이 지극하여 조정에 장계되자, 선조가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장중지 張重智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벼슬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이르렀으며,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조리읍 장곡리에 묘가 있다.

장한식 張漢植의 처 **영월 신씨** 寧越辛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로 본관은 영월이다. 출가 전에도 효녀였으며 시부모를 섬기는 데 지극한 효성을 다한 효부였다. 남편이 병을 얻어 음식과 대소변을 신씨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18년 동안을 시병하였다. 남편이 죽자 삼우제까지 마치고 따라 죽었다. 상장과 포서에서 그의 더없이 훌륭한 행실이 높이 평가되었다.

정곤수 鄭寬壽 1538년(중종 33)~1602년(선조 3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초명은 규遠, 자는 여인汝仁, 호는 백곡栢谷·경음慶陰·조은朝隱이다. 곤수는 선조의 하사명이다. 아버지는 부사맹副司猛 사중思中이며, 어머니는 부사과副司果 정희수鄭希壽의 딸이다. 큰아버지인 대호군大護軍 승문承門의 양자로 들어갔다.

1555년(명종 10) 별거초시를 거쳐 1567년(선조 즉위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72년 성균관의 천거를 받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됨으로써 관료에 들어섰다. 그 이후 경력經歷, 전생

서직장典性暑直長, 주부主簿, 장례원사평掌隸院司評을 두루 거쳤다. 1576년 증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부사과副司果에 제수되었다. 1577년 공주목사公州牧使로 나아갔다가 곧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옮겼으며, 1581년 사과司果, 파주목사坡州牧使를 역임하였다. 1583년 부호군겸오위장副護軍兼五衛將을 거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는데, 그때 단종 능인 영월의 노릉魯陵에 사묘祠廟를 세우고 위판位版을 봉안하였다. 1585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동부승지同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1586년 상호군上護軍, 호조참의戶曹參議, 좌부승지左副承旨, 우승지右承旨 등을 역임하고, 1587년에는 여러 해 흉년을 겪은 황해도외의 관찰사로 특별히 임명되어 진휼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88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고 서천군西川君에 봉하여졌다. 1589년 도총관都總管을 겸하고 판결사判決使가 되었으며, 이듬해에 『충훈부공신등록忠勳府功臣登錄』을 편찬하고 동지돈녕부사겸오위장同知敦寧府事兼五衛將, 대사성大司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1591년 동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대사성,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등을 거쳐 1592년 병조참

판兵曹參判이 되었다가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옮겼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로 선조를 호종하였다. 대사간大司諫이 되어서는 명나라에 원병을 청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청병진주사請兵陳奏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 1593년 원병을 얻어온 공로로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오르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가 되었다. 1595년 도총관·예조판서禮曹判書, 1596년 좌찬성左贊成을 역임하고, 1597년(선조 30)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도총관 등을 겸하고 사은겸변무진주사謝恩兼辨擬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1년(선조 34) 선조를 호종한 원훈으로 녹훈되었다. 죽은 뒤인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願聖功臣 1등에 녹훈되고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추록되었다. 성주의 유계서원柳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백곡집栢谷集』 4권 4책이 규장각도서에 전한다.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었는데 충익忠翼으로 바뀌었다. 묘는 진동면 하포리에 있다.

정근 鄭謹 1543년(중종 38)~1624년(인조 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동래東萊이다. 중부시첨정宗簿寺僉正 구球的 손자이며 장령掌令 희등

希登의 아들이다. 어려서 아버지가 을사사화에
 홀독한 고문을 받고 용천龍川으로 귀양 가는 도
 중 사망하자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일체의
 과거도 보지 않았으나 독실한 행실과 선조 때
 이루어진 아버지의 복직을 계기로 등용되었다.
 정주定州, 천안天安, 양근陽根 등의 수령守令을 지
 냈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을 세워
 원종공신願從功臣 1등에 녹훈되고 벼슬이 파주목
 사坡州牧使에 이르렀다. 적성면 어유지리에 묘가
 있으며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정문택 鄭文澤 생몰년 미상. 명현 정광鄭峯의 현
 손으로 교하 출신이다. 지극한 효성으로 주위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정분 鄭奉 ?~1454년(단종 2). 조선 전기의 문신
 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자외子畏, 호는
 애일당愛日堂이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오以吾
 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벼슬에 나아가 경승부승敬承府丞에
 이르렀고, 1416년(태종 16)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이조좌랑吏曹佐郎, 승문원교리

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1422년(세종 4) 사간원우
 헌납司諫阮右獻納이 되었고 이어 좌헌납左獻納, 병
 조정랑兵曹正郎,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에 올랐다.
 1428년 함길도경차관咸吉道敬差官으로 파견되어
 수재 상황을 살폈다. 1429년 사헌부집의司憲府執
 義에 올랐으며, 이듬해 결송사決訟事로 수금되어
 원방으로 유배되었다가 아버지의 소청으로 양
 주에 옮겨졌다. 1432년 승정원우부대언承政院右
 副代言에 발탁되었다. 이후 좌부대언左副代言, 우
 승지右承旨, 좌승지左承旨가 되었으나 곧 부상으
 로 사직하였다. 1436년 충청도감사忠淸道監司가
 되었고 1438년 이조참판吏曹參判, 평안도관찰사
 平安道觀察使가 되었다. 1443년 주문사奏聞使가 되
 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49년 전제상정소제조
 田制詳定所提調를 겸하였고, 세종이 옮겨 살 영녕
 대군永寧大君의 집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년) 우찬성右贊成에 올랐으며
 충청·전라·경상도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되어
 연변주현沿邊州縣의 성터를 살폈다. 1452년(단종
 즉위년) 김종서의 천거로 우의정右議政에 올랐
 다. 이듬해 수양대군이 주도한 계유정난으로,
 문종의 유명遺命을 받아 단종을 보필하던 황보

인·김종서 등이 주살되자 그도 낙안樂安에 안치되었다. 곧 고신告身을 추탈당한 뒤 낙안의 관노가 되었다. 이후 대신과 대간의 빈번한 청죄請罪가 계속되었지만 1년 여간 목숨을 보존하다가 1454년 사사賜死되었다. 문신이지만 토목에 조예가 깊어 세종 말에서 단종 초에 걸쳐 궁궐 조성·축성, 현릉顯陵(문종 묘) 조성 등에 공헌이 있었다. 1746년(영조 22) 김종서·황보인과 함께 관작이 복구되었으며, 1786년(정조 10) 장흥의 충렬사忠烈祠, 법원읍 동문리 월계단, 공주 동학사의 숙모전 등에 배향되었고, 1791년 장릉莊陵 충신단에 배식配食되었다. 1804년(순조 4) 충신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정문을 세웠다. 1808년 신창新昌 진사 이기선李基善 등의 상소로 조상의 묘를 옮기지 않는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받았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정빈 이씨 靖嬪李氏 1694년(숙종 20)~1721년(경종 1). 영조의 후궁으로 이준철李峻哲의 딸이다. 1719년(숙종 45) 연잉군(훗날의 영조)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후일의 효장세자孝章世子이다. 연잉군이 세제로 책봉되자 종5품 소훈昭訓에 올랐

으나 바로 사망하여 지금의 광탄면 영장리에 장사지내고 수길원綏吉園이라 하였다.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정4품 소원昭媛에 추증되었고, 다시 왕세자를 낳았다는 이유로 정빈靖嬪으로 추증되었다.

정성환 鄭聖煥의 처 **김씨** 金氏 생몰년 미상. 15세에 금능동의 정성환에게 출가하여 온 힘을 다해 가업을 이끌어 나갔다. 그의 시아버지는 천성이 태만하고 술을 몹시 좋아하였으나 김씨는 시아버지의 명을 순순히 따를 뿐 조금도 불만을 갖지 않았다. 하루는 한밤중에 시아버지가 잉어를 가져오라고 하자 김씨는 혼자서 문산포로 봉일천으로 잉어를 찾아다녔다. 이처럼 32년을 한결 같이 시아버지 봉양을 게을리 하지 않자 이웃 사람들이 의롭게 여겨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를 칭찬하였다.

정숙도 丁叔儻 1639년(인조 17)~1725년(영조 1). 조선 후기의 무관으로 본관은 나주羅州이고 자는 만초萬初이다. 증공조참의贈工曹參議 시백의 아들이다. 나주 정씨의 시조 덕성德盛은 원래 당

나라 사람으로 당 문종 때 대승상大丞相을 지냈으며 대양군大陽君에 봉하여졌으나 선종 때 군단사軍團事로 직소直疏하다가 853년 압해도에 귀양오면서 우리나라 정씨의 시조가 됐다(그 후손은 영광靈光, 창원昌原, 나주羅州파로 분리되었으나 정씨 대동보에는 본관이 압해로 통일되어 있다). 1670년(현종 11) 무과에 급제하여 어해장군禦海將軍을 거쳐 임유도진수군첨절제사방경부사臨淄島鎭水軍僉節制使芳經府使를 지냈다. 묘소는 야동동에 있다.

정연 鄭淵 1389년(창왕 1)~1444년(세종 26).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일延日이며, 자는 중심仲深, 호는 송곡松谷이다. 홍洪의 아들이며, 안평대군의 장인이다.

1405년(태종 5)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보로 지평持平에 재직 중 하륜河崙을 탄핵한 일로 순금사巡禁司에서 국문을 받았으나 속죄되어 풀려났다. 도관都官·정랑正郎을 거쳐 종부시소윤宗簿寺少尹에 오르고, 1420년(세종 2)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 상왕인 태종이 철원에 가려는 것을 간하다가 진산에 유배되었다. 1424년 다시 장령이 된 후 선공감정繕工監正, 집의執義, 동부대언同副

代言, 형조·이조·병조의 참판參判을 지냈다. 1430년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인순부윤仁順府尹, 중추원사中樞院事, 형조·병조의 판서를 지냈으며, 1442년(세종 24) 사은겸주문사謝恩兼奏聞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묘는 탄현면 법흥리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139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치달 鄭致達 ?~1757년(영조 33). 영조의 부마로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吏曹判書 우량羽良이며, 어머니는 이세희李世晞의 딸이다. 1749년(영조 25) 3월 영빈 이씨映嬪李氏 소생의 화완옹주和緩翁主와 정혼하여 일성위日城慰가 되었으며 같은 해 7월 혼인하였으나 6년 후 후사 없이 요절하였다. 1764년(영조 40) 인천에서 판어販漁를 업業으로 하는 석달錫達의 아들 후겸後謙을 양자로 삼고 수품부직隨品付職하여 장원봉사掌苑奉事에 제수되었다. 시호는 효민孝敏이다. 문산읍 사목리에 묘가 있다.

정탁 鄭擢 1363년(공민왕 12)~1423년(세종 5).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

며, 자는 여괴汝魁·축은築隱, 호는 춘곡春谷이다. 정당문학政堂文學 공권公權의 아들이다.

1382년(우왕 8)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사헌부규정司憲府糾正·좌정언左正言, 호조좌랑戶曹佐郎, 병조좌랑兵曹佐郎, 광흥창사廣興倉使 등을 역임하였다. 1392년(태조 1)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성균관사에成均館司藝를 거쳐 대장군大將軍이 되었고, 이성계의 추대를 제일 먼저 발의한 공로로 개국공신開國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393년 문하부직문하門下府直門下, 이듬해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1396년(태조 5) 중추원우승지中樞院右承旨로 있을 때 전년부터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표전문제表箋問題의 찬표인撰表人으로 명나라에 압송되었다. 귀환하여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1398년(태조 7)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에 승진하면서 청성군淸城君에 봉하여졌다. 1398년(정종 즉위년) 10월 방간의 난 평정에 대한 공로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곧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가 되었으며, 정당문학政堂文學을 거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삼사우사三司右使를 지냈다. 1403년(태종 3) 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가 되었으

나 1405년 살인죄로 직첩을 몰수당하고 영해로 유배되었지만 공신이므로 곧 사면되었다. 그 후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를 거쳐 1408년 태조가 죽자 고부청시사告訃請諡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15년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진봉되었고, 1421년(세종 3)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다.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익경翼景이다. 월룡면 덕은리에 묘가 있다.

정홍 鄭洪 ?~1420년(세종 2).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고려 때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사도思道의 아들이다. 1377년(우왕 3) 제릉서령諸陵署令이 되고, 그해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조선 건국 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등을 거쳐 보문각대제학實文閣大提學에 올랐다. 이후 우상右相을 역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금촌동에 묘가 있다.

정효상 鄭孝常 1432년(세종 14)~1481년(성종 1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

고 지는 가구可久이다. 증좌찬성贈左贊成 화년和年의 아들이다.

1451년(문종 1) 생원시에 합격하고 1454년(단종 2)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집현전부수찬集賢殿副修撰이 되었고 1455년(세조 1) 12월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이듬해 6월 경연사경經筵司經으로 있으면서 단종 복위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으나 화를 면하였고, 1459년(세조 5) 6월 승문원부교리承文院副校理로서 한관독서閣官讀書의 해택을 입었다. 이후 감찰監察, 이조좌랑吏曹佐郎,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을 거쳐 1466년(세조 12) 문과증시에 급제하였다. 1468년(예종 즉위년) 10월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어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익대공신翼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계림군鷄林君에 봉하여졌다. 그 뒤 우부승지右副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1471년(성종 2) 3월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책록되었고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랐다. 1472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겸하였고 1474년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승진하고 이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1476년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77년(성종 8)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다. 학문이 뛰어나고 우애가 돈독하여 명성이 있었다. 시호는 제안齊安이다. 금능동에 묘가 있다.

정효전 鄭孝全 ?~1453년(단종 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교하읍 오도리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판서判書를 지낸 진건의 아들이다.

태종과 신빈 신씨信嬪辛氏 사이에서 태어난 숙정옹주淑貞翁主와 혼인한 후 1422년(세종 4) 일성군日城君에 봉하여졌다. 1433년에 사은사로, 1450년(문종 즉위년)에는 진하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거쳐 삼군도진무사三軍都鎭撫使에 올랐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때 김종서 등 여러 중신이 살해되자 병을 핑계로 관직에 나가지 않다가 파직되었는데, 의분을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치다가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 이듬해 조정에서 그의 죄를 다시 추론하여 부관참시剖棺斬屍에 처해졌으며 이때 형과 아들까지 죽었다. 성종 때 신원되었으며 뒤에 단종묘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경忠

景이다. 금촌동에 숙정옹주와 정효전의 단檀이 있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정효항 鄭孝恒 1429년(세종 11)~1498년(연산군 4).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가칭可淸이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된 지년知年の 아들이다.

1449년(세종 31) 사마시를 거쳐 1451년(문종 1) 생원으로 증광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여, 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 등을 두루 거쳤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부교리副校理로서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교리校理·직강直講 등의 관직을 지냈다. 1467년(세조 13) 지평持平,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을 역임하였다. 1474년(성종 5) 부좌주副祭酒,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이어 1480년 대사성大司成에 올랐다. 이듬해 서거정 등과 함께 왕명을 받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50권과 『동국통감東國通鑑』 편수에 참여하였다. 1493년 이조판서吏曹判書에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자리를 옮겼다가 사임하고 파주에서 말년을 보냈다. 금능동에 묘가 있다.

정희왕후 貞熹王后 1418년(태종 18)~1483년(성종 14). 세조 비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성은 윤尹이다. 판중추부사증영의정判中樞府事贈領議政 윤번尹璠의 딸이다.

1428년(세종 10) 가례를 올려 낙랑부대부인樂浪府大夫人에 봉하여졌으나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고, 1457년 자성慈聖으로 존호尊號되었다. 또한 1459년 내조의 공을 높이 사 정희왕후의 증조·고조·현조의 삼영三營이 있다는 이유로 장단현을 군으로 승격시키고 원평도호부가 내향內鄉이라는 이유로 목牧으로 승격시켜 이름을 파주로 고치게 하였다.

1469년(예종 1) 흠인정덕선열명순휘의欽仁景德宣烈明順徽懿, 1471년(성종 2) 원숙신혜신현元淑愼惠神憲으로 각각 존호가 더해졌다. 덕종·예종 및 의숙공주懿淑公主 등 2남 1녀를 낳았다. 1468년 예종이 19세로 즉위하자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성종 즉위 후에도 계속 7년 동안 섭정하였다.

조간 曹幹 생물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

은 창녕昌寧이다. 조유인曹由仁의 손자이며 조절曹橈의 아들이다. 외조부는 성달생成達生이다.

1464년(세조 10)에 춘당대시春塘臺試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과 성균주부成均主簿,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만강대장灣強隊將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냈다. 사재감정으로 있을 때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절충장군折衝將軍 전라도수군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경상우도수군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를 역임하였으며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냈다. 묘는 문산읍 이천2리 선영에 있다.

조감 趙堪 1530년(중종 25)~1586년(선조 1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함안咸安이며, 자는 극기克己, 호는 옥천玉川이다. 참봉參奉을 지낸 정견庭堅의 아들이다. 백인걸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1556년(명종 11)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 여묘살이를 끝낸 뒤 음보로 장수찰방長水察訪에 임명되

었다. 1570년(선조 3)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이듬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시 3년간 여묘생활을 하였다. 그 뒤 나이 든 스승을 모시고자 함안咸安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왔다. 이후 사포서별좌司圃署別坐를 거쳐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와 평시서직장平市署直長 등을 역임하고, 1585년 중부시주부宗簿寺主簿에 이르렀다.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인물이었으며, 당대 대문장가로 크게 이름을 날렸다. 파주의 용주서원과 경현단에 배향되었다. 월릉면 능산리 아가산에 묘가 있다.

조경 趙敬 1727년(영조 3)~1789년(정조 1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양豐壤이며, 초명은 준竣, 자는 경서景瑞, 호는 하서荷棲이다. 목사牧使를 지낸 상기尙紀의 아들이다.

1763년(영조 39)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과 부제학副提學, 대사성大司成을 역임하고 정조가 즉위하면서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올랐다. 이후 좌승지左承旨,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 실록청당상관實錄廳堂上官, 대사헌大司憲 등의 관직을 지냈다. 외직으로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나아가 민폐의 소지를 없애고

군무를 개혁하는 등 목민관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후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올랐다가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있으면서 지경연사知經筵事,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도총관都總管을 겸직하였다. 1786년(정조 10) 우의정右議政으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겸임하였다. 이때 은언군恩彦君 인噩이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강화부에 귀양가 있었는데, 그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때 파직되었다가 다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부름을 받았다. 뛰어난 글 솜씨로 『문헌비고文獻備考』 편집에 관계하여 「학교고學校考」 8편을 지었으며, 지극한 효성으로 정문이 내려졌다. 저서로 『하서집荷樓集』이 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군내면 방목리에 묘가 있다.

조경망 趙景望 1629년(인조 7)~1694년(숙종 20).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임천林川이며 자는 운노雲老, 호는 기와寄窩이다. 석형錫馨의 아들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뒤 벼슬이 군수郡守에 이르렀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이후 벼슬을

버리고, 파주坡州·덕산德山 등지를 전전하면서 학문과 서사書史 연구에 힘썼다. 경적經籍에 정통했고, 글씨도 능했는데 특히 전서篆書·예서隸書·해서楷書에 뛰어났다. 교하읍 와동리에 묘가 있다.

조광원 曹光遠 1492년(성종 23)~1573년(선조 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회보晦甫이다. 우찬성右贊成 계상繼尙의 아들이다.

1522년(중종 17) 생원시에 합격한 뒤 1528년(성종 2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전적典籍 등을 역임하고, 개성부도사開城府都事에 재직하던 중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여 파직되었다. 1538년 장령掌令으로 다시 기용되어 예조참의禮曹參議를 지내고, 1541년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도승지都承旨에 올랐으며, 판결사判決使·병조참의兵曹參議·공조참의工曹參議 등을 지냈다. 1545년(명종 즉위년) 함경도병사咸鏡道兵使와 관찰사觀察使를 지내고 1548년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올랐으며, 대사헌大司憲·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등을

역임하였다. 1555년 을묘왜변이 발발하자 경상도도순찰사慶尙道都巡察使로 활약하였으며, 좌참찬左參贊·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을 거쳐 1558년(명종 13) 우찬성右贊成에 이르고, 1561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창양군昌陽君에 습봉되었으며,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월릉면 도내리에 묘가 있다.

조극관 趙克寬 ?~1453년(단종 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계생啓生의 아들이다.

1414년(태종 14) 알성문과에 을과 3등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에 등용되고, 1418년 정자正字에 승진하여 서연書筵에 나가 양녕대군을 보필하던 중 세자의 난행을 막지 못한 죄로 파직되었다. 그 뒤 1420년(세종 2) 우정언右正言이 되고 지평持平을 거쳐 1426년 이조정랑吏曹正郎이 되었으며, 1427년 진하사進賀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거쳐 1437년 지형조사知刑曹事가 되었고, 1441년 형조참의, 우승지右承旨가 되었다. 이듬해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지내고 1443년 평안도판

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다. 1446년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거쳐 이듬해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으며 그해 8월 황해도체찰사黃海道體察使가 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아 전라도 용안현龍安縣에 부처되었다. 1449년 다시 예조참판禮曹參判에 기용되었고, 9월 요동지휘사遼東指揮使 왕무귀王武貴가 조칙을 가지고 왔을 때 왕이 병으로 마중을 나가지 못하자 이를 대신해서 칙사를 맞이하였다. 그해 10월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고, 12월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가 되어 부임하였는데, 그때 마침 침입해 온 야인들을 물리쳐 전공을 세웠다. 1451년(문종 1) 그 공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가 되어 함경도 일대에 축성을 하여야만 국가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상계하여 성곽을 보수·신축하고 군사의 훈련 제도를 강화하는 등 국방 경비에 힘을 기울였다. 이해 7월 형조판서刑曹判書와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뒤 우찬성右贊成이 되었다. 1453년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지만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에 김종서의 일파로 몰려 피살되었다. 1746년(영조 22) 신원되었고 1791년(정조 15) 장릉 아래 충신단

에 배향되었다. 또한 법원을 동문리 월계단 외에 공주 동학사의 숙모전 등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조근 趙根 1631년(인조 9)~1690년(숙종 16).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함안(咸安)이며 자는 복형(復亨), 호는 손암(損庵)이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봉원(逢源)의 아들이다. 송시열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1650년(효종 1)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1662년(현종 3) 유생을 대표하여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상소하였으나 끝내 허락받지 못하였다. 이후 관직 생활에서도 곤란을 겪곤 하였는데, 1664년 제릉참봉(齊陵參奉)으로 있던 때 관할하는 능의 나무들이 남벌된 책임으로 투옥된 적도 있었다. 166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와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를 거쳤다. 1670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있을 때 딸이 세자빈의 간택에 들었으나 병으로 입참(入參)하지 못하게 되자 그 책임을 물어 면직되었다. 그러나 곧 복직하여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등을 지냈다. 1674년 강서현령(江西縣令)으로 나가서는 상례(喪禮)에 어두운 백성의 무지를 깨우쳐 주었다. 1676년(숙종 2) 사은겸진주변무사(謝恩兼陳奏辨誹使) 허적(許積)과 함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1678년 충청도도사(忠淸道都事)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허목과 송시열의 두 차례에 걸친 예론(禮論)에 연루되어 경흥에 유배되었으나 얼마 뒤 풀려났다. 시문에 능했으며, 저서로는 『손암집(損庵集)』 8권이 남아 있다. 사후에 부제학(副提學)에 추증되었다. 월롱면 능산리에 묘가 있다.

조대건 曹大乾 1522년(중종 17)~1592년(선조 25).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창양군(昌陽君) 조광원(曹光遠(1492~1573))의 아들이다. 벼슬이 장단도호부사(長湍都護府使)에 이르렀으며, 월롱면 도내리에 묘가 있다.

조대곤 曹大坤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조광원의 2남으로 병마절도사·경상병사를 역임하였다. 후에 병조판

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월릉면 도내리에 묘가 있다.

조덕주 曹德周 1644년(인조 22)~1701년(숙종 27).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좌승지左承旨를 추증받았다. 월릉면 영태리에 묘가 있다.

조림 曹琳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부사공 유인由仁의 증손이며 언彦의 아들이다. 1506년 9월 감역관監役官으로 재직 중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는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묘는 문산읍 이천2리에 있다.

조만석 曹萬石 생몰년 미상. 양인良人으로 집에 도적이 들어 아버지를 죽이려 하자 이를 가로막아 아버지를 살리고 자신이 대신 죽었다. 이에 정려를 받았다.

조명업 曹命業 1782년(정조 2)~1815년(순조 15).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병

조좌랑·도정都正을 지냈으며, 월릉면 영태리에 묘가 있다.

조복양 趙復陽 1609년(광해군 1)~1671년(현종 1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양豐壤이며, 자는 중초仲初, 호는 송곡松谷이다.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익翼의 아들이다. 김상헌金尙憲의 문인이다.

1633년(인조 11) 사마시에 합격하고 1638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검열檢閱을 거쳐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1641년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인조의 아우 능원대군綾原大君 집 객청客廳의 조급造給에 반대하다가 체직되었으나 다시 정언에 임명되었다. 이후 헌납獻納, 교리校理를 지냈다. 1649년(효종 즉위년) 지평을 거쳐 부교리副校理가 되었는데, 봉당의 폐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왕의 미움을 샀기도 하였다. 1651년(효종 2) 그의 아버지가 쓴 윤방尹昉의 시장諡狀 문제로 금부에 갇혔다가 곧 풀려났으나 벼슬에는 나가지 못하였다. 1653년 헌납으로 복직된 뒤 부교리,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역임하고 집의執義가 되었다. 그러나 사적인 감정으로 사천史薦을

마음대로 막았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겸보덕兼輔德으로 돌아와 집의執義, 겸필선兼弼善, 사간司諫, 응교應教 등을 역임하였다. 1657년 시강관侍講官으로 궁중음악의 타락을 지적하며 고악을 본받아 시정할 것을 주장하고 『악장옥책교문』을 지었다. 이듬해 응교로서 서필원徐必遠의 축창蓄娼을 비방하다가 효종의 미움을 샀으나 다시 부응교副應教가 된 뒤 1659년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 현종이 즉위하면서 적극적인 진흥정책의 이행을 주장하였고, 1660년(현종 1)에는 대사성大司成, 이듬해에는 대사간大司諫으로 별도로 설치된 진흥청당상賑恤廳堂上이 되어 구황에 힘썼다. 그 뒤 부제학副提學, 예조참판禮曹參判, 병조참판兵曹參判,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강화유수江華留守를 역임하고 여러 차례 대사성을 지낸 뒤 원자元子の 보양관輔養官이 되었다. 1668년에는 예조판서禮曹判書로 대제학大提學을 겸하여 정시庭試를 총괄하였으나, 같은 것을 과거의 시제로 두 번 출제한 실수로 파직되었다가 곧 형조판서刑曹判書로 돌아왔다. 그 뒤 우참찬右參贊, 대제학, 이조판서吏曹判書,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광주의 명고서원明阜書院에 배향되었

고 저서로 『송곡집松谷集』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탄현면 축현리에 묘가 있다.

조봉원 趙逢源 1608년(선조 41)~1691년(숙종 17).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함안咸安이며, 자는 사달士達, 호는 파서坡西이다. 평시서령平市署令을 지낸 일鑑의 아들이다. 김상헌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남다른 재주를 인정받아 공직에 천거되었으나 이를 하찮게 여기고 응하지 않았다. 고전에 몰두하여 경전을 연구하고 의를 구하는 데 몸소 실천하여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천거되어 1659년(효종 10)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다. 그 뒤 여러 요직을 거쳐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고령현감高靈縣監, 임피현령臨陂縣令, 고양군수高陽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1678년(숙종 4)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이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으며, 1687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그는 지방 수령으로 재직하며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다. 고령에 있을 때에는 풍기를 엄하게 다스렸으며 근면으로 궁핍함을 면하게 하

여 고을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특히 제방을 쌓아 전답 1,000여 경頃을 관수하였다. 임피현령으로 재직하면서는 세속에 젖어 사람들이 학문에 어두웠기에 덕행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성균관에 진학하는 자가 곳곳에서 속출하였다. 또 고양에 있을 때에는 송시열 등이 제2차 예송禮訟에 패하여 덕원에 유배되자 즉시 관인을 던져 버리고 파주의 농가에 돌아가 쉬었다. 그는 천성이 순후하고 재간이 있고 도량이 넓었으며 사람을 대할 때에는 공손하였으며, 오직 시비를 가릴 때만 확연하여 굽힘이 없었다. 월롱면 능산리에 묘가 있다.

조서 曹瑞 생몰년 미상. 조선 중종 때의 공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부사공 유인由仁의 증손이며 정楨의 아들이다. 중종반정 때 공을 세워 1506년 9월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묘는 문산읍 이천2리에 있다.

조석구 趙碩耆 1620년(광해군 12)~?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순창淳昌이며 자는 태숙泰叔이다. 1652년(효종 3년) 별시무과에 급제하여

나주영장羅州營將, 흥해군수興海郡守, 충주영장忠州營將, 삼척부사三陟府使 등을 지냈다. 그런데 이 고을들이 모두 산골이어서 풍속이 퇴폐하였는데 부임하자 향약鄉約을 설치하여 자제들을 조석으로 가르쳐 일 년도 안 돼 유풍儒風이 크게 일어났다. 이들 이중爾重의 추은으로 가선대부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에 추증되었다. 광탄면 용미리에 묘가 있다.

조석기 曹錫起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인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관직이 오위장五衛將에 이르렀으며, 광탄면 발랑리에 묘가 있다.

조석록 曹錫錄의 처 단양 우씨 丹陽禹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로 본관은 단양이다. 월롱면 영태리에 살면서 남편이 일찍 죽자 대상大祥(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일)에 음독 자결하여 남편을 따랐다.

조석문 曹錫文 1413년(태종 13)~1477년(성종 8).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

는 순보順甫이다. 관찰사 항抗의 아들이다.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정자正字에 이어 집현전부수찬集賢殿副修撰,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이조·형조·예조의 정랑正郎을 역임하였다.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장단에 물러가 있자 조정에서 그 재주를 애석히 여겨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로 삼았다. 치적이 출중하였으므로 홍주목사洪州牧使에 특진되었으며, 관찰사의 추천으로 그 치적이 조정에 알려지자 상호군上護軍·지형조사知刑曹事에 승진되고,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되었다. 1455년(세조 1)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물려받을 때 협력하여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이 되고 1457년 도승지都承旨에 임명되었다. 1459년 명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야인野人에게 관직을 수여한 일로 사신을 보내 책망하자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서 주문사奏問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임명되고 창녕군昌寧君에 봉하여졌으며, 뒤에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승진하였다. 1461년 호조판서로서 중외탁지사中外度支事를 총령總領하였고, 1466년(세조 12) 우찬성右贊成에 임명되어 호조판서

를 겸직하게 되었다. 호조판서를 겸직하게 한 것은 오랫동안 그 직책에 근무하여 회계 사무에 밝고 국가의 재정을 유족하게 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병마부총사兵馬副總使로서 출정하였으나 함흥에 주둔만 하고 전진하지 않아 여러 장수들의 불평이 많았지만, 돌아오자 반란을 토평한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에 책록되었고 좌의정左議政에 임명되었으며, 영의정領議政으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왕명으로 노사신盧思愼과 함께 『북정록北征錄』을 찬정하였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한 뒤 남이南怡·강순康純 등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었으며, 1471년(성종 2) 성종의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좌리공신佐理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476년(성종 7) 다시 좌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면하고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에 봉하여졌으며, 이듬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다.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진동면 하포리에 묘가 있다.

조선진 曹善振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벼슬이 공조참의工曹參

議에 이르렀으며, 광탄면 발랑리에 묘가 있다.

조수인 曹守仁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벼슬이 부사과副司果에 이르렀으며 후에 용양위龍驤衛에 추증되었다. 조리읍 뇌조리에 묘가 있었으나 군부대가 설치되면서 납골함으로 옮겼다.

조승립 曹承立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벼슬이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이르렀으며 후에 용양위龍驤衛에 추증되었다.

조씨 趙氏의 **처 김씨** 金氏 생몰년 미상. 탄현면 갈현리에 살았다. 효성을 다해 시부모를 섬기던 중 21세에 남편이 병들었다. 힘껏 병구완을 하였으나 끝내 호전되지 않고 운명을 달리하자 식사를 전폐한 김씨는 10여 일이 지난 남편의 장사 전날 음독자살하였다. 군수가 상부에 보고하였으나 표상되지는 않았다.

조안인 曹安仁 ?~ 1721년(경종 1). 조선시대 문

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조수인曹守仁의 동생이며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과 한산군수를 역임하였다. 묘는 조리읍 뇌조리 전지산에 있다.

조연 趙涓 1374년(공민왕 23)~1429년(세종 11).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초명은 경卿, 자는 여정汝靜이다. 아버지는 용원부원군龍原府院君 인벽仁璧이며, 어머니는 환조(이자춘)의 딸 정화공주이다.

음보로 산원散員이 되었고 1386년(우왕 12) 문과에 급제하였다. 1392년(공양왕 4) 공조총랑工曹總郎을 거쳐, 이해 조선이 건국되자 천우위대장군千牛衛大將軍으로서 왕의 의친懿親인 까닭에 별운검別雲劍이 되어 왕을 호위하였다. 1396년(태조 5) 과의상장군果毅上將軍에 승진되고, 중추원우승지中樞院右承旨,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를 역임하였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에 이방원을 도와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이 책록되고 한평군漢平君에 봉하여졌다. 1402년(태종 2) 우군총제右軍總制를 거쳐 1404년 도총제都總制를 역임한 뒤 무과회시에 감교관監校官이 되어 33인의 무신을 뽑았다. 1407년 겸좌

軍總制가 되었다. 이듬해 풍해도관찰사豊海道觀察使가 왜선 40여 척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해 오에 따라 안산·부평의 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로 파견되었으나 조선의 표류선임이 확인된 뒤늦은 보고에 의하여 돌아왔다. 그해 상호군上護軍, 겸좌군도총제兼左軍都總制,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 등을 역임하였다. 1409년 병서강토총제兵書講討總制가 되고, 이듬해 길주도도안무찰리사吉州道都安撫察理使로 나가 변방을 침범하는 야인의 수장 등을 죽이고 그들의 근거지까지 쳐부수어 남해 포로 수십 인을 포획하여 돌아왔다. 1412년 중군도총제겸판사복시사中軍都總制兼判司僕寺使를 거쳐 1413년 공조판서工曹判書,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1416년 판좌군부사判左軍府事가 되고, 이듬해 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1419년(세종 1) 세종이 즉위하자 동지총제同知總制가 되었다. 1420년 찬성사贊成事, 1426년(세종 8) 우의정右議政에 올랐으나 김도련金道鍊으로부터 노비를 뇌물로 받은 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황해도 수안에 부처되었다가 곧 방면되었다. 성품이 온순하였으며, 문신이면서 야인 정벌에 무공을 떨쳤다. 시호는

양경良敬이다. 월릉면 덕은리에 묘가 있다.

조영석 趙榮祐 1686년(숙종 12)~1761년(영조 37).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로 본관은 함안咸安이며 자는 종보宗甫, 호는 관아재觀我齋 또는 석계산인石溪山人이다. 군수郡守를 지낸 해楷의 아들이며,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지낸 영복榮福의 형이다.

이희조李喜朝의 문인으로 1713년(숙종 39) 진사시에 합격하고 천거로 등용되어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을 지내고, 뒤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1742년(영조 18) 자신의 선조이며 생육신의 한 사람인 조려趙旅의 문집 『어계집漁溪集』을 간행하였다. 1748년(영조 24) 숙종어진도사肅宗御眞圖寫의 감동監董으로 참여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기술로 임금을 섬기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하여 사양하였다. 노년에 저술한 문집 『관아재고觀我齋稿』가 전하고 있다. 홍의영洪儀泳의 『관아재화첩觀我齋畫帖』 발문에 의하면 “본래 인물이 뛰어났으며, 산수도 잘하였고, 금강산을 다녀온 뒤 화경境界이 더욱 진보되어 명작을 많이 냈으며, 고화古畵에 대한 논평을 좋아하였으나 간혹 지나친 점이 있어 비난하는 사람

이 많았다”라고 하며, “백악산白岳山 아래에 살면서 정선鄭敎, 시인인 이병연李秉淵과 이웃이 되어 교유하면서 시화詩畵를 논하였다”라고 한다. 또한 뒤에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유척기俞拓基와 그 형제들과도 절친하게 지냈다. 인물화뿐 아니라 산수와 영모翎毛에도 능하였다.

그의 그림들은 다소 경직되고 까칠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대체로 윤두서尹斗緒처럼 조선 중기의 전통 화법을 계승하면서 남종화법南宗畵法을 약간 가미한 화풍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그의 회화세계는 이인상李麟祥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조선 후기 문인화의 전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변의 일상적 풍물을 소묘한 작품들을 모은 『사제첩麴躑帖』과 선비들이 소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장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장기도將碁圖>(간송미술관)는 뒤에 김홍도金弘道 등에 의하여 전개될 풍속화의 유행을 예시하는 작품들로서 주목된다. 이 밖에 대표작으로 <유음납량도柳陰納涼圖>(서강대학교박물관)와 <강상조어도江上釣魚圖>(국립중앙박물관), <방당인필어선도佛堂人筆漁船圖>(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있다. 조리읍 장곡리에 묘가 있다.

조온 趙溫 1347년(충목왕 3)~1417년(태종 17).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판서判書 돈墩의 손자로, 용원부원군龍原府院君 인벽仁璧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환조桓祖(이자춘)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외삼촌인 이성계를 유달리 섬겨왔고, 1388년(우왕 14) 위화도 회군 때 이조판서吏曹判書로 회군에 참여하여 회군공신回軍功臣에 책록되었다. 밀직부사密直副使를 거쳐 1392년(공양왕 4) 이성계 추대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開國功臣 2등으로 평양윤平壤尹에 임명되고 한천군漢川君에 봉하여졌다. 1393년(태조 2) 서북면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로 수주隋州에 쳐들어 온 왜구를 격파하였고, 연의주도鍊義州道の 장정들을 군적에 등록시켜 군사력 강화를 꾀하였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에 친군위도진무親軍衛都鎮撫로서 이방원의 집권을 도와 그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이 되고, 중추원사中樞院事를 거쳐 의흥삼군부좌군동지절제사義興三軍府左軍同知節制使,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를 역임하였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로서 방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으나 상왕의 명으로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등을 죽인 죄로 완산부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와 삼사좌사三司左使에 올랐다. 1401년 태종이 즉위하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서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어 부원군府院君에 진봉되었고,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2년(태종 2) 의정부찬성사議政府贊成事, 동북면찰리사東北面察理使를 지냈다. 효성이 지극하였고 청렴·검소하였다. 시호는 양절良節이다. 교하읍 오도리에 묘가 있다.

조위한 趙緯韓 1567년(명종 22)~1649년(인조 2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자는 지세持世, 호는 현곡玄谷이다. 양정揚庭의 아들이며 좌승지左承旨를 지낸 찬한繼韓의 형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선조 25) 김덕령金德齡을 따라 종군하였으며, 1601년 사마시를 거쳐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으며 주부主簿, 감찰監察 등의 관직을 지냈다. 1613년 국구國舅 김계남金梯男의 무옥誣獄 때 같이 등과하였던 정협鄭浹의 무고로 인해

여러 조신들과 함께 구금되었다. 이후 노모를 모시고 남원으로 내려가 은거하였으며 오랫동안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재등용되어 사성司成에 제수되었다가, 상의원정尙衣院正을 거쳐 장령掌令, 집의執義에 제수되고 호당湖堂에 뽑혔다. 외직으로 양양군수襄陽郡守로 나갔다가 1624년(인조 2) 이괄이 난을 일으키자 토벌에 참여하여 경사를 지켰다. 그 뒤 정묘·병자호란 때에도 출전하여 난이 끝난 뒤까지 여러 군수들과 함께 분투하고 돌아왔다. 잠시 벼슬길에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등용되었으며 조정에서 여러 차례 권신들의 실정을 간언하기도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직제학直提學 등을 거쳐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지냈고, 1646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부모에게 지극한 효성을 보였고 글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해학에도 능하였다. 저서로 『현곡집玄谷集』이 있다. 문산읍 장산리에 묘가 있다.

조유인 曹由仁 1370년(공민왕 19)~1434년(세종 16).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

寧이다. 감무공監務公 조신의曹臣義의 증손이고 지청도군사知淸道郡事를 지낸 부부의 아들이며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15세손인 수연군壽延君 왕규王珪의 사위이다.

1390년(공양왕 2)에 생원시에 장원하고 조선이 개국한 뒤 1396년(태조 5)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 장기감무長驛監務, 1408년(태종 8) 경기도 사京畿都事를 지냈다. 1409년(태종 9) 형조정랑刑曹正郎을, 1418년(세종 원년) 경상도 지청보군사知靑寶郡事·지양산군사知梁山郡事를 거쳐 예빈시禮賓寺事와 승지를 역임한 후 통정대부수원도호부사通政大夫水原都護府使를 지냈다. 파주읍 봉암3리에 묘가 있다.

조윤선 曹允善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역임하였으며, 탄현면 낙하리에 묘가 있다.

조윤준 曹允俊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벼슬이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이르렀다. 탄현면 낙하리에 묘가 있다.

조이중 趙爾重 1653년(효종 4)~1720년(숙종 46).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창淳昌이며, 자는 구경九卿, 호는 태석臺石이다. 창녕현감昌寧縣監 석구碩耆의 아들이다.

1676년(숙종 2)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1680년 보사공保社功에 녹훈되었다. 그 후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경상좌도병마우후慶尙左道兵馬虞候, 훈련원부정訓練院副正, 안동영장安東營將, 호분위사정虎賁衛司正 등을 거쳤다. 이어서 온성부사穩城府使, 평산부사平山府使, 사용사맹司勇司猛,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장단부사長湍府使, 황해도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 1710년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삼도통제사겸경상좌도수군통제사三道統制使兼慶尙左道水軍統制使, 평안병마절도사平安兵馬節度使, 강원도겸춘천방어사江原道兼春川防禦使 등을 지냈다. 죽은 다음 해인 1721년(경종 1) 김일경金一鏡 등 소론 일파가 김창집金昌集 등 노론 대신들을 제거하면서 조이중이 김장집의 심복으로 평안병마절도사를 지낼 때 은자銀子 팔십 량을 영중營中에서 거두어 노론에 제공하였다고 무고하여 관작을 추탈하였고

아들도 연루되어 죽었다. 1725년 영조의 즉위로 신원되었고 1743년(영조 19) 관작이 복구되었으며, 1798년(정조 22) 아들이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묘는 광탄면 용미리 혜음현 산 83의 1 선영에 있다.

조의 趙翊 1474년(성종 5)~1547년(명종 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임천林川이며 자는 익지翊之이다.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를 역임한 원경元卿의 아들이다.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여 주위의 칭찬을 들었고 성장하면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495년(연산군 1) 사마시에 이어 1504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09년(중종 4) 승문원권지承文院權知·정자正字·저작著作·박사博士를 거쳐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후 중추부도사中樞府都事, 사문서령司臚署令을 지내고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올랐다. 두 차례에 걸쳐 명나라를 오갔는데, 그곳 사신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정도로 중국어에 능통하였다. 이런 관계로 많은 문신들에게 한어를 강독하였고 특별히 승진되기도 하였다. 근면한 성품

으로 모든 일에 완급을 조절하여 성실한 업무 처리 능력을 보였으며 네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는 등 자제 교육에도 남다른 정성을 쏟았다. 또한 관직에 있으면서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대쪽 같은 기개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고 전한다. 광탄면 용미리에 묘가 있다.

조일 趙鎰 1578년(선조 11)~1647년(인조 2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함안咸安이며 자는 자중子重, 호는 오담鰲潭이다. 의도毅道の 아들이다.

1618년(광해군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6년(인조 4) 특별히 추천을 받아 사용원참봉司饗院參奉이 되었다. 이듬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해 강화도로 갔으며 이듬해 내자시봉사內資寺奉事, 1629년 선공감직장繕工監直長이 되었다. 1630년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는데, 이때 대관 가운데 출신이 부정한 사람이 있어 이를 내쫓는 데 앞장섰다. 1631년 연천현감連天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기 직전 체임되었고 이듬해 상의원주부尙衣院主簿, 1634년 장예원사평掌隸院司評이 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

을 호종하려다 길이 막혀 못 가고 전전하다가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해 상주尙州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화죽花竹을 심고 자연을 벗삼아 책을 읽으며 보냈다. 1646년 평시서령平市彔令이 되었으며 사후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월롱면 능산리에 묘가 있다.

조중협 趙重協 생몰년 미상.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여 정표되었다.

조중협 趙重協의 처 **청풍 김씨** 淸風金氏 ?~1797년 (정조 21). 조선 후기의 효부이자 열녀이다. 파주 출신이며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김흥노金興魯의 딸로 15세에 조중협에게 출가하였다. 시아버지가 병으로 고생할 때는 1년 이상을 약과 음식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이에 시아버지가 감복하여 효부가 있어 마음 놓고 눈을 감는다고 유언하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가산이 곤궁하여 출가할 때 가지고 온 옷가지를 팔아서 상을 치르는 비용을 충당하였다. 겨우 기년淸年을 지내고 난 후 남편 조중협이 부친을 여원 슬픔으로 운명하자 부군의 뒤를 따라 죽었다. 마을 사람

들이 관청에 이 사실을 고하고 도백道伯이 조정 에 품의하여 1810년(순조 10) 정려가 내려졌으며, 의인의 직첩이 하사되는 한편 부군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추증되었다. 월롱면 능산리 산 33-1에 열녀비가 세워져 있으며 현재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조지경 曹智敬 1395년(태조 4)~1492년(성종 23). 조선 초기의 의원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의술醫術로써 벼슬길에 올랐고, 호군을 거쳐 1455년(세조 1)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로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1등과 1471년(정종 2)에 원종공신 2등으로 책록되었다. 1481년(성종 12)경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고, 1486년 노직가자老職加資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진하였다. 의술에 정통하여 명성이 높았고, 세종·성종 대에 걸쳐 전의감·내의원에 재직하면서 국왕·왕족의 질병치료에 크게 공헌하는 등 4대왕을 섬겼다. 묘는 탄현면 대동리 선영에 있다.

조찬한 趙縝韓 1572년(선조 5)~1631년(인조 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자

는 선술善述, 호는 현주玄洲이다. 양정揚庭의 아들이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한 위한緯韓의 아우다.

1601년(선조 34)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606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에 제수된 후 형조와 호조의 좌랑佐郎,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등을 거쳐 영암과 영천의 군수郡守를 역임하였다. 계속해서 삼도토포사三道討捕使에 임명되어 호남·영남 지방에 창궐하는 도적 무리를 토벌하였고, 그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제수되었다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전임되었다. 그 무렵 광해군의 정사가 극도로 문란하여지자 외직을 청하여 상주목사尙州牧使로 나갔다. 인조반정 후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제수되고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를 겸직하였다. 이듬해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선산부사善山府使가 되었다. 문무의 재능을 겸비하였으며 특히 시부詩賦에 뛰어나 초한육조楚漢六朝의 유법遺法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노년에 서도에 몰입하여 뛰어난 글씨체를 보였다. 장성에 있는 추산사秋山祠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 『현주집玄洲集』이 있다. 탄현면 축현리

에 묘가 있다.

조창우曹昌宇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유인由仁의 8세손으로 증 좌승지 건健의 아들이다. 1644년(인조 22) 때의 금부도사로 있을 때 좌의정 심기원沈器遠이 이일원李一元, 권억權億 등과 난을 일으켜 회은군懷恩君 덕인德仁을 왕에 추대하려 하였으나 거사 전에 탄로되어 주살 당한 사건에서 이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영국원국공신寧國原國功臣에 책록되었다. 회덕현감懷德縣監을 역임하였으며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묘는 문산읍 이천2리에 있다.

조천상趙天祥 1526년(중종 2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창淳昌이다.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設書를 지낸 충정忠貞의 아들로 음보로 통덕랑전설사별좌通德郎典設司別座를 지냈다. 아들 기琦의 추은推恩으로 가선대부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兵曹參判兼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에 추증되었다. 묘는 광탄면 용미리 산 83-4에 있다.

조추 趙樞 생몰년 미상.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어머니의 영구를 모시고 두미탄斗尾灘을 지나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 빠지게 되자 큰 밧줄로 몸을 결박하고 관에 밀착하여 위험을 면한 후 아가산에 안장하였다. 후에 노직老織을 받았다.

조태하 趙泰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창淳昌이다. 벼슬이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總府副總管에 이르렀으며 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교하읍 송촌리에 묘가 있다.

조하제 曹夏濟 생몰년 미상.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 음력 정월에 죽순을 얻고 초가을에 앵두를 따서 봉양하는 등 극진한 효를 다했다. 후에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월릉면 영태리에 묘가 있다.

조한손 曹漢孫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지경智敬의 아들이다. 1504년(연산군 10) 첨지사僉知事를 지냈으며 이후 동지중추부사, 전라도

방어사全羅道防禦使, 훈련원도정검오위도총부부총관訓鍊院都正兼五衛都總府都總管을 역임하였다. 탄현면 대동리에 묘가 있다.

조호의 曹好義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성여聖與, 호는 죽곡竹谷이다. 선조 때의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이다.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영창대군과 그의 외조부 김제남을 살해하였을 즈음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때 이이침이 조호의의 의중을 떠보고 정난에 호응하기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자 배척을 받아 파주로 물러났다. 화석정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이이의 시에 대귀對句를 지었으나 지금은 유실되고 그중 한 구절만 남아 있다. “발아래는 천 층의 물결이요, 귓가에는 만리의 바람이 분다 脚下千層浪 耳邊萬里風.”

조휘 曹彙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부사공 유인由仁의 2남으로 1427년(세종 9)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正字를 거쳐 좌랑佐郎에 재직 중 정배定配되었으나 후에 풀려나 병조좌랑兵曹佐郎이 되었다. 1447년(세종

29) 대마도 경차관敬差官으로 파견되었다가 같은 해 성균주부겸종학박사成均主簿兼宗學博士에 임명되었으며 군자판관軍資判官을 역임하였다. 묘는 문산읍 이천2리 선영에 있다.

조희일 趙希逸 1575년(선조 8)~1638년(인조 1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임천林川이며, 자는 이숙怡叔, 호는 죽음竹陰·팔봉八峰이다. 승지承旨 원媛의 아들이다.

1601년(선조 34) 진사가 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注書, 감찰監察을 지냈다. 그 뒤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오자 예조좌랑禮曹佐郎에 특진되어 김상헌金尙憲·유근柳根 등과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시문詩文으로 찬탄을 받았다. 이어 설서設書·정언正言을 지내고, 1608년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서司書, 문학文學을 역임했다. 1613년(광해군 5) 이조정랑吏曹正郎으로 재직 중 계축옥사로 이산理山에 안치安置되었다가 1619년에 풀려났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기용되어 교리校理를 거쳐 부응교副應敎로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하면서 왕이 붕당을 타파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며 소북으로

서 대북의 처벌을 주장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강화도로 호종하고 뒤에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올라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모문룡毛文龍을 맞았다. 1636년 강릉부사江陵府使로 부임하였다가 병으로 사직하였다. 서화書畵에 뛰어났고 시문詩文에 능하였다. 광탄면 용미리에 묘가 있다.

조흥업 曹興業 1584년(선조 17)~1660년(현종 1).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호는 중서重緒이다. 지중추공 지경智敬의 6세손이며 정민廷敏의 아들이다. 무과 출신으로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를 역임하였으며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때 평정의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묘는 탄현면 대동리에 있다.

진구주 陳九疇 1590년(선조 23)~1636년(인조 14). 조선 중기의 효자로 적성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본관은 여양驪陽이고 자는 윤서倫敍이다. 남인 계열의 사람으로, 선무랑宣務郎을 지낸 의윤義胤의 아들이다.

늙은 아버지를 언제나 변함없는 얼굴빛으로 정성을 다해 모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아버지와 함께 금성金城 산골로 피난하였다가 청나라의 군대와 부딪혔는데, 적군이 아버지를 칼로 내려치려 하자 몸으로 막아 구하고 자신은 중상을 입어 사흘 뒤에 죽었다. 숨을 거두면서도 처자에게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한다. 이러한 애뜻한 사연이 조정에 알려져 1640년(인조 18) 마을에 정문을 세우고 널리 그 효행을 기렸다.

진종 眞宗 1719년(숙종 45)~1728년(영조 4). 조선 후기의 추존왕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성경聖敬, 이름은 행緯이다. 영조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정빈 이씨靖嬪李氏이며, 비는 좌의정左議政 조문명趙文命의 딸 효순왕후孝純王后이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경의군敬義君에 봉하여 지고, 1725년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10세에 죽어 이복동생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왕세자가 되었다. 사도세자마저 즉위하지 못하고 죽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그의 양자養子가 되어 즉위함에 따라 진종으로 추존되었다. 시호는 효

장孝章이고 능은 파주에 있는 영릉永陵이다.

창원 황씨 昌原黃氏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부로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일찍이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어서도 극진한 효도로 시아버지인 유찬柳璨을 90세의 노령까지 봉양하였다.

최경 崔暉 1716년(숙종 42)~1785년(정조 9).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삭녕朔寧이며 자는 하언夏彦이다. 1738년(영조 14) 진사에 급제하여 마전군수麻田郡守를 지내고, 1795년(정조 9)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되어 70세에 사망하니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고 영은군寧恩君에 봉하여졌다. 최경의 10종형제는 십화문장十火文章으로 문文, 시詩, 필筆로 명성을 떨쳤다. 교하읍 다울리에 묘가 있다.

최경창 崔慶昌 1539년(중종 34)~1583년(선조 16).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으로 본관은 해주海州며 자는 가운嘉運, 호는 고죽孤竹이다. 충충의 18대손이며 자滋의 13대손으로, 수인守仁의 아들이다. 박순朴淳의 문하인이며, 백광훈白光

勳·이후백李後白과 함께 양응정梁應鼎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임진면에 택지가 있었다. 1555년 17세 때 을묘왜란으로 왜구를 만나자 통소를 구슬피 붙여 그들을 향수에 젖게 하여 물리쳤다는 일화가 있다.

1561년 23세 때부터 성균관에서 수학하였고, 1568년(선조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북평사北評事가 되었다. 예조·병조의 원외랑員外郎을 거쳐 1575년(선조 8)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올랐다. 1576년 영광군수靈光郡守로 좌천되었는데 뜻밖의 외직에 충격을 받고 사직하였으나 이듬해 대동도찰방大同道察訪으로 복직하였다. 1582년(선조 15) 선조가 종성부사鍾城府使로 특별히 제수하였으나 북평사北評事의 무고한 참소가 있자 대사간이 갑작스러운 승진을 문제 삼아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으로 명을 고쳤다. 이에 상경 도중 종성 객관에서 객사하였다. 학문과 문장에 능하여 이이李珣·송익필宋翼弼·최립崔岍 등과 무이동武夷洞에서 서로 시를 써 주고받았으며, 정철鄭澈·서익徐益 등과도 삼척동에서 교류하였다. 당시唐詩에 뛰어나 백광훈·이달과 함께 8문장으로 일컬어졌고 서화에도 뛰어났

다. 숙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고 강진의 서봉서원瑞峯書院에 봉향되었다. 저서로 『고죽유고孤竹遺稿』가 있다. 교하읍 다올리에 묘가 있다.

최산립 崔山立 1558년(명종 13)~1634년(인조 1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삭녕朔寧이며, 자는 중망重望, 호는 입암立菴이다.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흥원興源의 아들이다.

1588년(선조 21) 음보로 사산감역四山監役에 임명되었고 이어 전설사별좌典設司別坐를 지냈다. 1590년(선조 23) 증광사마시에 생원 3등으로 합격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민심의 안정을 위해 한성부漢城府의 백성이 부르도록 하였던 <등등곡登登曲>을 작사·작곡한 여덟 명의 학사 중 한 명이었다. 1590년 서흥도호부사瑞興都護府使를 지냈고, 1599년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으나 수원에 정배해 있던 선조의 여섯 번째 왕자인 순화군順和君의 비행에 대해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다. 1601년 복직되어 광주목사廣州牧使를 거쳐, 1606년 강릉부사江陵府使, 1609년(광해군 1) 성주목사星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 1612년 첨지僉知에 올랐고, 다시 외직으로

수원부사·영해부사寧海府使로 나가 선정을 펼쳤다. 특히 수원부사로 재직하는 동안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폐단이라 지적하고 백성의 궁핍함을 헤아려 줄 것을 간청하는 정문보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1616년 파주목사坡州牧使로 전임되었으며 신병으로 사직하였다가 다시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제수되었으며 영안군寧安君에 봉하여지고 겸임하였다. 전국의 12주에 걸쳐 수령직을 역임하면서 언제나 청렴한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베푸는 공로로 청백령근리淸白廉謹吏에 선발되었고, 인조 때 호성원종공신屬聖原從功臣 1등과 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사후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아동동에 묘가 있다.

최수인 崔守仁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벼슬이 평안병마절도사平安兵馬節度使에 이르렀다. 교하읍 다울리에 묘가 있다.

최수진 崔秀珍 1478년(성종 9)~1547년(명종 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삭녕朔寧이며 자

는 정보挺寶이다. 사옹원정司饔院正을 역임한 영호永灝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 음보로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임명된 후 선공감주부繕工監主簿,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 중추부도사中樞府都事 등을 지냈다. 다시 외직에 나가 가평군수加平郡守, 연천군수漣川郡守, 평해군수平海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내자시첨정內資寺僉正, 내섬시첨정內贍寺僉正, 종친부전첨宗親府典籤 등을 거쳤다. 죽은 후 1579년(선조 12) 이조참판吏曹參判, 1586년 이조판서吏曹判書, 1592년 영의정領議政에 각각 추증되었으며, 1604년 다시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으로 책훈되고 영천부원군寧川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아동동에 묘가 있다.

최순립 崔順立 1564년(명종 7)~1634년(인조 2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삭녕朔寧이며 자는 만수萬壽이다.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항恒의 후손이며 영의정領議政 흥원興源의 아들이다. 1590년(선조 23) 음직으로 자산군수慈山郡守가 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군량미 조달에 힘쓰면서 의병을 모집하는 데 공로가 있어 호종공신屬從功臣

이 되었다. 이어 여러 벼슬을 거쳐 한성부좌윤 겸오위도총부부총관漢城府左尹兼五衛都總府副總管을 지내고 1634년(인조 20)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동동 학령산鶴嶺山 서쪽에 묘가 있다.

최영호 崔永灝 1457년(세조 3)~1481년(성종 1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삭녕朔寧이다. 영의정領議政 항恆의 아들이다. 1477년(성종 8)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이 되고 사재감정司宰監正, 사옹원정司饔院正을 역임한 후 경차관敬差官으로 고성固城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사후 좌찬성겸홍문관에문관대제학左贊成兼弘文館藝文館大提學에 추증되었다. 월릉면 영태리에 묘가 있다.

최운해 崔雲海 1347년(충목왕 3)~1404년(태종 4).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통천通川이며 자는 호보浩甫이다. 호군護軍 녹祿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전공戰功으로 공민왕 때 충용위산원忠勇衛散員에 기용되었고 여러 벼슬을 거쳐 전공총랑典工總郎이 되었다. 1385년(우왕 11) 충주병마사忠州兵馬使가 되어 왜구를 무찔렀으며, 순흥

영주등처조전병마사겸경상도병선도관영사順興榮州等處助戰兵馬使兼慶尙道兵船都管領事가 되어 여러 번 왜구를 격퇴하며 마침내 순흥부사順興府使가 되었다. 이때 객관客館에 응거하여 매일 침략하는 왜구를 격퇴하고 노획한 우마牛馬와 재화財貨를 병사와 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기민饑民을 잘 구호하여 칭송을 받았다. 이 전공으로 전법판서典法判書에 제수되었는데, 왜구가 원주·충주·단양·제천 등지에 출몰하므로 조전도병마사助戰都兵馬使가 되어 이를 물리치고 충주목사忠州牧使가 되었으며, 전주목사全州牧使를 거쳐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이르러 충근좌명공신忠勤佐命功臣의 호를 받았다. 이어 양광도광주등처절제사겸관광주목사楊廣道廣州等處節制使兼判廣州牧事로 왜구를 물리쳐 전공을 세웠다. 1388년(우왕 14) 전라도부원수全羅道副元帥로 요동 정벌 때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조민수曹敏修의 막하로 출정하였다가 회군 뒤 도순문사都巡問使로 정지鄭地 등과 함께 왜구를 격파하였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고, 이듬해 문하평리門下評理로 양광도절제사楊廣道節制使가 되어 박위朴葦 등과 함께

왜구를 격파하였으며, 1396년(태조 5)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경상도병마도절제사慶尙道兵馬都節制使가 되어 영해寧海(지금의 영덕군)에서 왜구를 격퇴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이듬해 항복하였던 왜구들이 지울주사知蔚州事 이은李殷 등을 납치해간 사건이 폭로되어 청해도수군靑海道水軍에 충군되었다. 뒤에 풀려나와 1399년(정종 1) 전라도조전절제사全羅道助戰節制使로 왜구를 방어하였다. 이듬해에는 참판삼군부사參判三軍府事로 예문관학사 송제대宋濟岱와 함께 남경에 다녀오다가 서원군瑞原郡에서 군수 박희무朴希茂를 구타한 사건으로 한때 음죽陰竹(지금의 인천시)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1402년(태종 2)에는 이성도절제사泥城都節制使로 태조를 시위하였고, 강계안무사江界安撫使, 서북면순문사西北面巡問使를 거쳐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로 사직하였다. 특히 왜구를 무찔러 여러 번 공을 세움으로써 명장의 칭호를 얻었다. 시호는 양장襄莊이다. 파주읍 연풍리에 묘가 있다.

최윤조 崔胤祖 1581년(선조 14)~1618년(광해군 1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삭녕朔寧이

며 자는 선술善述이다. 음사로 상원군수祥原郡守에 재임하던 중 사망하였다. 의정부좌찬성諡政府左贊成에 이어 좌의정左議政에 증직贈職되고 영창군寧昌君에 봉하여졌다. 아동동에 묘가 있다.

최흥원 崔興源 1529년(중종 24)~1603년(선조 3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삭녕朔寧이며 자는 복초復初, 호는 송천松泉이다. 영의정領議政 항恒의 증손으로, 전첨典籤 수진秀珍의 아들이다.

1555년(명종 10) 진사시를 거쳐 1568년(선조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장령掌令, 정언正言, 집의執義, 사간司諫 등을 역임하였으며, 동래부사東萊府使와 부평부사富平府使를 지냈다. 1578년 부평부사로 재임 중 효릉孝陵의 감역監役이 문제되어 파직되었다가 다시 승지承旨로 기용되었고, 1588년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다. 이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순찰사都巡察使로 군정 책임을 맡았고 이어 우의정右議政·좌의정左議政을 역임하고 류성룡柳成龍의 파직에 따라 영의정領議政에 기용되었다.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로 전임되었고 영평

부원군寧平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임진왜란 당시 왕을 의주까지 호종하였던 공으로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추록追錄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아동동에 묘가 있다.

한광세 韓光世 생몰년 미상. 장단 사람이다. 효행이 지극하여 조정에 장계되자, 순조가 그에게 동몽교관童蒙敎官의 벼슬을 내렸다.

한리 韓理 1337년(충숙왕 복위 6)~1417년(태종 17).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역임한 공의公義의 아들이다.

1362년(공민왕 11) 감문위록사監門衛錄事로서 문과에 응시하여 진사 제17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임명되었으며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하여졌다. 계속해서 도첨의평리지사사都僉議評理知司事와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냈다.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중용되고, 태조의 명으로 고려 왕실인 왕씨의 제사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405년(태종 5) 노비변정사업奴婢辨整事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제閔齊, 권홍權弘이 양인인 박상문朴尙文 등을 천인으로 만들어 사역시켰던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일에 연루돼 안성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후에 장례품 일체를 하사받을 정도로 왕의 총애가 지속되었다. 정몽주와는 사돈지간으로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진동면 서곡리에 묘가 있다.

한상질 韓尙質 ?~1400년(정종 2).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중질仲質, 호는 죽소竹所이다. 호부상서戶部尙書 공의公義의 손자로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 수휴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길창군吉昌君 권적權適의 딸이다. 조선의 개국공신開國功臣 상경尙敬이 아우이고, 세조 때 공신 명회明滄가 손자이다.

1374년(공민왕 23) 대군시학大君侍學을 지내고, 1380년(우왕 6) 좌랑佐郎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였다. 공양왕 때 형조판서刑曹判書를 거쳐 우부대언右副代言, 우상시右常侍,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1390년(공양왕 2) 6월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2월 서북면도 관찰출척사겸병마도절제사西北面都觀察黜陟使兼兵

馬都節制使를 지냈다. 1392년 7월 조선 건국 후에문관학사藝文館學士로서 주문사奏聞使를 자칭하여 명나라에 가서 국호의 결정을 요청하여 '조선朝鮮'이라는 국호를 받고 이듬해 2월 돌아왔다. 1393년 9월 양광도관찰출척사楊廣道觀察黜陟使, 1397년(태조 6) 경상도관찰출척사慶尙道觀察黜陟使를 거쳐 예문춘추관태학사藝文春秋館太學士가 되었다. 성품이 총민聰敏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치적을 많이 쌓았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진동면 서곡리에 묘가 있었으나, 묘지석이 권준權準(1280~1352)의 것으로 밝혀져 묘 주인의 진위에 대한 쟁송이 벌어졌다.

한서구 韓瑞龜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응천應天이다. 1453년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 원로대신을 제거했던 계유정난 때 가담하여 협력한 공으로 정난공신靖難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455년 통례문봉례랑通禮門奉禮郎에 임명되었고, 1456년(세조 2) 사복시소윤司僕寺小尹을 지냈다. 이어 1461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승급하였으며, 1464년 청원군淸原君에 봉하여졌다. 1483년

(성종 14) 가정대부嘉靖大夫에 이어 1488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품계가 올랐다. 시호는 양이襄夷이다. 교하읍 신촌리에 묘가 있다.

한서룡 韓瑞龍 1398년(태조 7)~1461년(세조 7).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교하읍 교하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역임한 승순承舜의 아들이다.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1443년(세종 25) 함길도절제사咸吉道節制使로 나갔다. 1451년(문종 1)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지냈고, 1454년(단종 2) 경원목사慶源牧使, 영광목사靈光牧使, 충주목사忠州牧使 등을 거쳐 이듬해 경상우도절제사慶尙右道節制使에 올랐다. 1456년(세조 2)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이르렀다. 슬하의 다섯 아들이 모두 과거에 등용되자 1459년 세미 20석을 받기도 하였다. 죽은 뒤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에 책록되었고 청성군淸城君에 봉하여졌으며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교하리에 묘가 있다.

한서봉 韓瑞鳳 1412년(태종 12)~1456년(세조 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

는 응진應辰이다. 청성군淸城君 승순承舜의 둘째 아들이고 충간공忠簡公 리理의 손자이다. 1447년(세종 29)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세종 대에서 기사관記事官, 한림검열翰林檢閱, 선무랑宣撫郎, 수원감수국사관輪苑監修國史官, 예문봉교藝文奉敎를 역임하였다. 1455년(단종 3) 감찰로서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제수되고 그해 12월에 정랑正郎으로서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묘는 교하읍 교하리 능곡 후울산에 있다.

한수철 韓守鐵 생몰년 미상. 부친이 병이 나서 병석에 있을 때 극진히 시병하고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써 부친을 살렸다. 특별히 복호復戶의 은전을 받았다.

한승순 韓承舜 1380년(우왕 6)~1448년(세종 30).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도첨의道僉議를 지낸 리理의 아들이며 평간공 공의의 손자이다. 1410년(태종 10) 무과에 급제한 뒤 1427년(세종 9) 상호군上護軍을 거쳐 1439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지냈다. 1441년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 있을 때 진남루鎮南樓를 중수하

였으며 1447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에 이르렀다가 이듬해 사망하였다. 순충보조공신純忠補佐功臣으로 청성군淸城君에 봉해졌고, 후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다. 교하읍 교하리에 묘가 있다.

한종손 韓終孫 1428년(세종 10)~1467년(세조 13).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지낸 서룡瑞龍의 아들이다. 내금위에 소속되었다가 1447년(세종 29) 무과에 급제하였다. 1453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중위장中衛將으로서 군율을 엄중히 시행한 일로 포상을 받았다. 지병조사知兵曹事로서 세조의 즉위에 협력한 공으로 1455년 6월 세조가 즉위한 뒤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에 책록되고 청성군淸城君에 봉하여졌다. 이듬해 병조참의兵曹參議를 거쳐 1459년(세조 5)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올랐고 벼슬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후에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안양安襄이다. 교하읍 연다산리에 묘가 있다.

함준광 咸俊光 생몰년 미상. 장단 사람으로, 어머니가 병들어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자 하늘에 대고 호소하여 마침내 저절로 날아온 꿩을 얻게 되었다. 어머니는 꿩의 효험을 얻어 병이 나았다. 영조가 이를 알고 복호復戶시켰다.

허로 許略 1598년(선조 31)~1637년(인조 1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행부호군行副護軍을 지낸 수修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학업에 힘써 뛰어난 문재를 보였으나 붓을 던지고 무과에 뜻을 두었다. 1633년(인조 11)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듬해 선전관겸비변랑宣傳官兼備邊郎에 올랐다. 1636년 조정에서 변방 일대의 적침을 염려하여 무관을 뽑아 서부 각 주와 현에 배치할 때 순안현감順安縣監에 임명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다음 해 좌영장左營將으로 평안감사 홍명구洪命耆를 따라 김화金化에 이르러 뒷고개에 진을 치고 싸울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그러나 홍명구가 이를 무시하고 들에 진을 치자 직접 보병을 거느리고 공격을 감행하여 적을 두 차례나 격파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뒷고개를 넘은 적의 기습으로 온 몸에 화살을

맞고 홍명구와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러한 전공을 인정받아 1649년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적성면 무건리에 묘가 있다.

허조 許稠 1369년(공민왕 18)~1439년(세종 21).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하양河陽이며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이다. 도판정랑都官正郎 윤창允昌의 손자이며, 판도판서版圖判書 귀룡貴龍의 아들이다. 권근權近의 문인이다.

1383년(우왕 9) 진사시, 138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390년(공양왕 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전의시승典儀寺丞으로서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여 예약제도禮藥制度를 바로잡는 데 힘썼다. 1397년(태조 6) 전적이 되어 석전의식釋奠儀式을 개정하였으며, 1399년(정종 1) 좌보궐左補闕로서 지제교를 겸하였다. 태종 즉위 후 사헌부잡단司憲府雜端으로 발탁되었으나 강직한 발언으로 왕의 뜻을 거슬러 완산판관完山判官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1402년(태종 2) 이조정랑吏曹正郎, 1404년 호군護軍,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으로 세자시강원좌문학世子侍講院左文學이 되었다. 1406년(태종 6) 경승부소윤敬承府少尹, 이듬해 예문관직

제학藝文館直提學으로서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을 겸임하였는데, 때마침 세자가 명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집의執義에 올라 서장관書狀官으로 수행하였다. 1408년(태종 8) 판사섬시사判司贍寺事로 세자시강원우보덕世子侍講院右輔德을 겸하였으나, 조대립趙大臨 사건에 연루되어 춘주春州로 귀양 갔다. 그러나 곧 풀려나 경승부윤敬承府尹이 되었다. 1411년 예조참의禮曹參議가 되어 의례상정소제조儀禮詳定所提調를 겸임하며 사부학당을 신설하고 왕실의 각종 의식과 상제喪制를 정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1415년 한성부윤漢城府尹,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이듬해 예조참판禮曹參判, 제조提調, 1418년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등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세종이 즉위한 뒤에도 공안부윤恭安府尹,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어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을 제의하여 시행하게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시관이 되어 많은 인재를 발탁하였다. 1422년(세종 4)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고, 이듬해 『속육전續六典』 편수에 참가하였다. 1426년 참찬參贊·빈객賓客이 되었다가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이때 대간들의 간언을 두

둔하며 언로를 넓힐 것을 주장하였다. 1428년에는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總制府使로서 동북방의 적을 막기 위하여 평안도에 성곽을 쌓고 전선戰船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430년 찬성贊成을 거쳐 1432년(세종 14)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관리의 임명에 공정하였고, 효자순손孝子順孫과 충현忠賢의 자손을 발탁하여 예교禮教를 장려하는 데 힘쓰기도 하였다. 1435년(세종 17) 지성균관사知成均館使, 이듬해에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겸임하였다. 1438년(세종 20) 우의정右議政 영집현전춘추관사領集賢殿春秋館事 세자부世子傅로 승진되었다. 이듬해 귀장几杖이 하사되고 좌의정左議政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에 올랐으나 그해에 죽었다.

『소학』, 『중용』을 즐겨 읽었고 효행이 지극하였으며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 조선 초기 태종·세종을 도와 예악 제도를 정비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문산을 이천리에 묘가 있다.

허종 許琮 1434년(세종 16)~1494년(성종 2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

는 종경宗卿·종지宗之, 호는 상우당尙友堂이다. 군수郡守 손蓀의 아들이며, 좌의정左議政 침琛의 형이다.

1456년(세조 2) 생원시를 거쳐, 1457년 별시 문과에 3등으로 급제하여 의영고직장겸세자우정자義盈庫直長兼世子右正字가 되고, 1458년 군기시직장겸세자우정자軍器寺直長兼世子右正字가 되었다. 1459년(세조 5) 언로를 개방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경연을 열 것 등을 상소하여 세조의 신임을 얻으면서 선전관宣傳官을 겸하였으며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혜택을 받았고, 통례문봉례랑 지제교세자좌정자通禮門奉禮郎知製教世子左正字가 되었다. 1460년(세조 6) 여진족의 침입 때 평안도병마절제사도사平安道兵馬節制使都事로 출정하였고, 돌아와서 성균관주부成均館主簿,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教를 거쳐 이듬해 형조도관좌랑刑曹都官佐郎이 되었다. 그 뒤 함길도도사咸吉道都事,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함길도경차관咸吉道敬差官,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을 거쳐 1465년 성균관사에 成均館司藝에 오르면서 평안·황해·강원·함길도체찰사平安黃海江原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의 종사관이 되어 북변 경영에 공헌하고, 동부승지同副

承旨에 발탁되었다.

1466년 함길도병마절도사咸吉道兵馬節度使가 되었으나 아버지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이듬해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기복起復되어 난을 평정하는 데 공헌하여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양천군陽川君에 봉하여졌다. 1469년(예종 1)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전라도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 등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에 오르고, 이듬해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다. 1471년(성종 2)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을 거쳐 1477년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었다. 그해 10월 여진족이 침입하자 평안도순찰사平安道巡察使로 파견되어 이에 대비하였고, 이듬해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이 되었다가 할머니상으로 사직하였다. 1481년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었으며, 이듬해 임원준任元濬 등과 함께 『소문충공집蘇文忠公集』을 주해註解하고 우찬성右贊成이 되었다. 1483년(성종 14)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하였고 세조 비 정희왕후貞熹王后的 국상 때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가 되었으며, 서거정·노사신 등

과 함께 『연주시격聯珠詩格』, 『황산곡시집黃山谷詩集』을 언해하였다. 1485년(성종 16) 어머니상으로 사직하였다가 1487년 기복되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으며, 이듬해 명나라 사신 동월童越과 부사 왕창王敞의 원접사·반송사로 활약하고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다. 1489년 강원도축성사江原道築城司로 파견되어 축성·병기를 고험考驗하고 곧 영안도관찰사永安道觀察使가 되었다. 1491년(성종 22) 여진족이 함길도 방면으로 침입하자 북정도원수北征都元帥가 되어 이를 격파하고 이듬해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다. 성종 때 청백리로 녹선되었다. 문집으로 『상우당집尙友堂集』이 있고, 편서로 『의방유취醫方類聚』를 요약한 『의문정요醫門精要』가 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묘가 장단에 있다.

허준 許浚 1539년(중종 34)~1615년(광해군 7). 조선 중기의 의인醫人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이다. 할아버지 곤琿은 무과 출신으로 경상도우수사慶尙道右水使를 지냈고, 아버지 룬倫도 무관으로 용천부사龍川府使를 지냈다. 그런데 그는 의관으로 내의원內醫

院에 봉직하면서 내의·태의·어의로서 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편술하여 우리나라 의학의 수준을 높였다.

1574년(선조 7) 의과에 급제하여 의관으로 내의원內醫院에 들어갔다. 1575년(선조 8) 2월 어의로서 명나라의 안광익安光翼과 함께 임금의 병에 입진入診하여 많은 효과를 보게 하였다. 1587년(선조 20) 10월 어의로서 태의 양예수 등과 함께 입진하여 병을 호전시켜 호피虎皮를 받았으며, 1590년 12월 왕자의 두창痘瘡을 낫게 하여 당상堂上의 가자加資를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였으며, 그 뒤에도 어의로서 내의원에 계속 출사하여 의료의 모든 행정에 참여하면서 왕의 건강을 돌보았다.

1596년(선조 29) 선조의 명을 받들어 유의儒醫 정작鄭碯, 태의 양예수·김응탁 등과 함께 내의원에 편집국을 설치하고 『동의보감』을 편집하기 시작하였으나 다음 해의 정유재란으로 의인들이 사망으로 흩어져 일이 중단되었다. 그 뒤 선조는 다시 허준에게 명하여 단독으로 의서 편집의 일을 맡김으로써 본격적인 편찬은 160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601년 지중추부사知中

樞府使로 승진하였고 1604년 호성공신_{扈聖功臣} 3등에 책록되었으며, 1606년에는 양평군_{陽平君}에 올라 정1품인 보국승록대부_{輔國崇祿大夫}로 승진하였으나 중인 신분으로는 과도한 벼슬이라 하여 대간_{臺諫}들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책임 어의로서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바로 풀려나 광해군의 어의로서 왕의 측근에서 총애를 받았다. 이후 주로 의서를 편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의보감』의 완성이다. 1610년 완성된 이 책은 총 25권 25책으로 당시 국내 의서인 『의방유취_{醫方類聚}』, 『향약집성방_{鄉藥集成方}』, 『의림촬요_{醫林撮要}』 등을 비롯하여 중국의 의서 86종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의방서 등을 증보 개편하거나, 알기 쉽게 한글로 해석하여 간행하였다. 죽은 후 보국승록대부_{輔國崇祿大夫}에 추증되었다.

허준의 묘는 위치가 파악되지 않다가 1991년 9월 30일 『양천허씨족보』에 기록된 “진동면 하포리 광암동 선좌 쌍분”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묘역은 약 50평의 규모로 우측 묘는 부인 안동 김씨_{安東金氏}의 묘로

추정된다. 이들 두 묘 위쪽으로 허준의 생모 묘로 추정되는 묘가 한 기 더 있다. 묘소에는 묘비, 문인석, 상석, 향로석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원래의 묘비는 두 쪽으로 파손되어 땅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발굴 당시 원비의 마모된 비문 가운데 “陽平□□聖功臣□浚”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선생의 묘인 것이 밝혀졌다.

허침 _{許琛} 1444년(세종 26)~1505년(연산군 1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_{陽川}이며, 자는 헌지_{獻之}, 호는 이헌_{願軒}이다. 재령군수_{載寧郡守}를 지낸 손_孫의 아들이며 우의정_{右議政}을 역임한 종_宗의 동생이다.

1462년(세조 8) 진사시를 거쳐 1475년(성종 6) 참봉_{參奉}으로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감찰_{監察}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사가독서 문신에 뽑혀 장의사_{藏義寺}에서 머물렀으며 이후 전적_{典籍}, 부수찬_{副修撰}, 부교리_{副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1478년 지평_{持平}에 이어 병조정랑_{兵曹正郎}, 지제교_{知製教} 등을 지냈으며, 1482년 진현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세자시강원필선_{世子侍講院弼善}이 되어 세자를 가르치는 데 힘썼다. 1483년 보

덕輔德으로 승진한 뒤 덕행과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다. 1488년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으로 예문관응교藝文館應敎를 겸하였고, 이듬해 『삼강행실三綱行實』 간행에 힘썼다. 1490년 동부승지同副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승지右承旨 등을 거친 후 좌승지左承旨에 이어 1492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나갔으며, 다음 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거쳐 곧 대사헌大司憲으로 옮겼다. 1494년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있다가 천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1498년(연산군 4)까지 병조참판兵曹參判,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 실록청당상實錄廳堂上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후 김일손金弼孫의 사초 사건에 연루되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좌천당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민관으로서의 명망을 인정받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부임하여 널리 선정을 베풀었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1499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서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가 되어 신승선慎承善 등과 함께 『성종실록成宗實錄』을 찬진하였다. 1500년 호조참판戶曹參判, 이조참판吏曹參判을 거쳐 이듬해 다시 호조참판을 역임하고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다. 1502

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거쳐 이듬해 우참찬右參贊에 올랐다. 우의정右議政으로 발탁된 1504년 갑자사화로 연산군의 생모 윤비 폐출에 관여한 많은 사람이 처벌되었지만 조모상으로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후 관직이 좌의정左議政에 이르렀다가 고질이 발병하여 생애를 마감하였다. 성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장단면에 묘가 있다.

허형손 許亨孫 1427년(세종 9)~1477년(성종 8).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어린 시절부터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하여 내금위에 소속되었으며, 1453년(단종 1)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부사訓練院府使에 임명되었다. 1455년(세조 1) 오위행사정五衛行司正으로 세조 즉위에 협조한 공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57년 무과 증시에 급제한 뒤 지훈련원사겸선전관知訓練院使兼宣傳官을 거쳐 1459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승진하고 같은 해 지병조사知兵曹事를 겸하였다. 1460년 신속주를 도원수로 하여 북방의 야인을 정벌할 때 위장衛

將으로 출정하여 뛰어난 전공을 올렸다. 철군 후 내직으로 돌아와 중추부부사中樞府副使가 되었으며 이듬해 의주목사義州牧使로 파견되었다. 의주목사로 재직하던 1463년, 사람들과 사냥을 하다가 야인을 만나 포로가 되었으나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다. 이 일로 의금부의 상계를 받아 평안도 창성군으로 보내졌다. 1466년 사면되어 무과 등준시에 급제하였다. 1467년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사자위장獅子衛將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 전라도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파견되었다. 1469년(예종 1) 절도사로 재직하던 중 징병 문제를 비롯하여 군민에게 뇌물 받은 사건이 발각되어 파면 당하였다. 얼마 뒤 병조판서 박중선에게 의뢰하여 복직되었다가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었고 다시 중추부사中樞府使에 복직되었다. 1472년(성종 3)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면서 행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 1475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시호는 양안襄安이다. 조리읍 장곡리에 묘가 있다.

홍낙성 洪樂性 1718년(숙종 44)~1798년(정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豐山이

며, 자는 자안子安, 호는 항재恒齋이다. 예조판서禮曹判書 상한象漢의 아들이며, 어유봉魚有鳳의 사위이다.

1744년(영조 20) 통덕랑通德郎으로서 춘당대 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정언正言, 사서司書, 지평持平, 사간司諫, 승지承旨를 지내고, 1757년(영조 33) 대사성大司成,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 그 뒤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 도승지都承旨, 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1768년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고, 1771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지낸 뒤 1775년 예조판서禮曹判書와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형조판서刑曹判書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냈다. 1782년(정조 6) 좌의정左議政에 오르고, 이듬해 사은사謝恩使의 정사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784년 세자부世子傅,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1797년(정조 21) 80세에 궐장几杖을 하사받고 치사致仕를 청하여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전임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글씨에 뛰어났다. 시호는 효안孝安이다. 군내면 점원리에 묘가 있다.

홍랑 洪娘 생물년 미상. 조선 중기의 기생으로

함남 홍원洪原 출생이다. 1573년(선조 6) 가을 당 시 삼당시인三唐詩人 또는 팔문장八文章으로 불리던 최경창崔慶昌이 북평사北評事로 경성鏡城에 갔을 때 그 막중幕中에 머물렀다. 이듬해 봄 최경창이 서울로 가게 되자 쌍성雙城까지 따라와 작별하고 돌아가다가 함관령咸關嶺에 이르러 시조 1수를 지어 최경창에게 보냈다.

그 뒤 3년 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최경창이 병석에 누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서울로 향하였다. 그 당시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사는 사람이 이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고, 명종 비 인순 왕후가 죽은 탓으로 문제가 되어 최경창은 면관免官되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사망 후에 교하읍 사율리 최경창의 묘 옆에 묻혔다.

홍랑이 지은 시조와 최경창이 한문으로 옮긴 시가 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뒋버들 갈취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디(뒋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이 손에) 折楊柳寄千里人

자시는 창밭기 심거두고 보소서(주무시는 창 밭에 심어 두고 보소서) 爲我試向庭前種

밤비에 새넙곳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소서(밤비에 새 잎 나거든 나처럼 여기소서) 須知一夜生新葉 憔悴

悴愁眉是妾身”(괄호 안은 현대문)

홍석주 洪奭周 1774년(영조 50)~1842년(헌종 8).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豐山이며, 자는 성백成伯, 호는 연천淵泉이다. 영의정領議政 낙성樂性的의 손자이며, 우부승지右副承旨 인모仁謨의 아들이다. 약관에 모시毛詩, 경례經禮, 자사子史, 육예백가六藝百家의 글을 모두 읽어 학문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읽은 글은 평생 기억하는 총명도 지녔다.

1795년(정조 19) 전강殿講에서 수석을 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특전을 받고, 그해 춘당대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사용원직장司饗院直長에 제수되었다. 1797년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 1802년(순조 2) 정언正言, 1807년(순조 7)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이르렀다. 이듬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고, 1815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나갔다. 1832년 양관 대제학大提學을 거쳐, 1834년(순조 34)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그 뒤 좌의정겸영경연사 감춘추관사左議政兼領經筵使監春秋館事 세손부世孫傳가 되었고 1842년(헌종 8)에 죽었다. 저서로 『연천집淵泉集』, 『학

해學海』, 『영가삼이집永嘉三怡集』, 『동사세가東史世家』, 『학강산필鶴岡散筆』 등이 있고, 편서로 『속사략익전續史略翼箋』, 『상예회수象藝薈粹』, 『풍산세고豊山世稿』, 『대기지의戴記志疑』, 『마방통휘麻方統彙』, 『상서보전尙書補傳』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군내면 점원리에 묘가 있다.

홍우주 洪宇周의 처 이씨 李氏 생몰년 미상. 『정조실록』 1784년(정조 10) 11월 11일에 “효자와 열녀에게 정문을 하사하였는데……파주 열녀인 사인士人 홍우주의 처 이씨 등의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홍필향 洪必享 생몰년 미상. 나이 61세에 이르러 모친상을 당하자 간이 된 음식을 먹지 않고 시묘하면서 몹시 울어 눈에서 피가 날 정도였다. 후에 죄량에 추증되었다.

화완옹주 和緩翁主 생몰년 미상. 영조의 아홉 번째 딸로 영빈 이씨 映嬪 李氏의 소생이고 화평옹주 和平翁主의 동생이다. 1749년(영조 25) 정치달鄭致達과 혼인하였으나 7년 후 남편을 여의었다.

파주 문산읍 사목리에 있는 화완옹주의 묘는 쌍분으로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로 구성되어 있다. 묘비는 1757년(영조 33) 정치달이 죽은 후에 세운 것으로 비석의 글씨는 영조의 친필이다. 묘비 전면에는 화완옹주 묘라는 표식은 없고 정치달의 묘라는 표식만 있으며 한쪽이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다.

화평옹주 和平翁主 1727년(영조 3)~1748년(영조 24). 영조의 셋째 딸로 영빈 이씨 映嬪 李氏의 소생이다. 박명원 朴明源과 혼인하였으나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화평옹주를 지극히 사랑하였는데, 『영조실록』에 보면 “화평옹주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옹주의 집에 부왕이 행행하였으며 곧이어 옹주가 졸하자 매우 슬퍼하고 빈소에 입해서는 통곡하며 슬픔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날씨가 매우 무더웠으나 밤새 환궁하지 않고 밤을 새웠다”(영조 24년 6월 24일)라는 기록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옹주의 집에 들렀던 기록이 있다.

부마 박명원 朴明源(1725~1790)은 조선 후기 학자이자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 潘南, 자는 회보 晦

甫, 호는 만보정晩葆亭이다. 아버지는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낸 사정師正이다. 1738년(영조 14) 화평옹주에게 장가들어 금성위錦城尉에 봉하여졌으며, 영조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글씨를 매우 잘 써 나라의 경사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금옥보책명정서관金玉寶冊銘旌書官에 10여 차례 임명되기도 하였다.

화평옹주의 묘는 파주읍 파주리의 군부대 안에 부마와 합장묘로 자리하고 있으며, 봉분 중앙에 세워진 옥개석 지붕의 묘비는 1790년(정조 14)에 세워졌다. 비의 앞뒷면 글씨는 영조의 친필이다. 묘역 아래 200여 미터 지점에는 박명원의 신도비와 하마비가 세워져 있다.

황맹헌 黃孟獻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는 노경魯卿, 호는 월현月軒이다. 영의정領議政 희희의 현손이며, 김해부사金海府使 관瓘의 아들이다.

1498년(연산군 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을 지냈고,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에 책록되고 사인舍人에 올랐다. 이듬해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어 이

과李顥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정난공신定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장원군長原君에 봉하여졌으며,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호조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 1509년(중종 4) 신창령新昌令 혼訴의 역모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 받았으나 죄가 없어 풀려나왔고, 이후 형조참판刑曹參判, 공조참판工曹參判, 예조참판禮曹參判,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역임하다가 1519년 조광조 등에 의해 훈적勳籍에서 삭제되고 선산부사善山府使로 좌천되었다. 그 후 김식이 선산으로 귀양 왔다가 도망하게 된 책임으로 공훈이 1등급 감하여졌고 1524년에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특제되었으며 곧 예조참판겸동지금부사禮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로 옮겼다. 이듬해 자헌대부資憲大夫로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에 올랐다가, 강원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사송詞訟에 사사로운 인정을 베푸는 혐의로 경기감사京畿監司로 전직된 뒤 벼슬에서 물러났다. 시호는 소양昭養이다. 문산읍 사목리 방촌유적지 내에 부조묘가 있다.

황보인 皇甫仁 ?~1453년(단종 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천永川이며 자는 사겸四兼·

춘경春卿, 호는 지봉芝峰이다.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임琳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벼슬에 나가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였고, 1414년(태종 14)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418년(세종 즉위년) 좌정언左正言, 1420년 좌헌납左獻納을 거쳐 1422년(세종 4)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으로서 강원도경차관江原道敬差官으로 파견되어 기근을 규찰한 뒤 귀환하여 장령掌令이 되었다. 1425년 1월 한성소윤漢城少尹으로 재임 중 경상도찰방慶尙道察訪으로 파견되었으며,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를 거쳐 1428년 집의執義가 되었다. 이듬해 승정원동부대언承政院同副代言으로 발탁되고 좌부대언左副代言을 거쳐 1430년에는 지신사知申事가 되었다. 이듬해 강무행행講武行幸 중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마人馬가 살상되자 이에 대한 문책으로 파면되었다가 같은 해 형조참의刑曹參議로 복직되었고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다. 1432년 형조좌참판刑曹左參判, 병조우참판兵曹右參判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사은사謝恩使 정효전鄭孝全의 부사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33년 하경복, 정흠

지, 정초 등과 함께 진서陣書를 찬진撰進하였고, 이듬해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거쳐 1436년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다. 1440년 평안함길도도체찰사平安咸吉道都體察使로 파견되었다가 의정부좌참찬검판병조사議政府左參贊兼判兵曹事로 제수되었다. 1441년(세종 23) 함길도에 파견되어 종성을 수주愁州 강변으로 이치移置하면서 종성·회령·온성·경원·경흥 등지에 소보小堡를 설치하여 북방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이후 빈번하게 평안도와 함길도를 출입하면서 북변을 개척하고 방어하는 데 공헌하였다. 1445년(세종 27) 좌찬성左贊成으로 판이조사判吏曹事를 역임한 뒤 1449년 의정부의 직에서 해임된 뒤 양계축성兩界築城의 일에 전념하겠다고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아 우의정右議政에 유임하면서 축성사築城司를 관장하였으며, 같은 해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가 문종의 고명誥命을 받고 귀환하였으며, 이듬해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가 되었다.

1452년(단종 즉위년) 빈전殯殿·국장國葬·산릉도감山陵都監의 총호사總護使가 되어 문종의 국상을 총령하였고, 이듬해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로서 김종서 등과 함께 『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같은 해 김종서 등과 함께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중 계유정난으로 피살되었다. 1746년(영조 22) 복관되면서 신원되었다. 1791년(정조 15) 장릉莊陵 충신단忠臣壇에 배식配食되고, 1804년(순조 4) 집 앞에 정문이 세워졌으며, 1807년(순조 7) 조상의 묘를 옮기지 않는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받았다. 법원을 동문리 월계단에 배향되었으며, 영천의 임고서원臨阜書院, 구룡포읍의 경남서원慶南書院, 종성의 행영사行營祠에도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황선 黃璿 1682년(숙종 8)~1728년(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는 성재聖在, 호는 노정鰲汀이다. 광탄면 창만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호조정랑戶曹正郎 처신處信이며, 어머니는 이민정李敏愷의 딸이다.

1710년(숙종 36) 진사가 되고, 그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14년 설서設書를 거쳐 사서司書가 되고, 이듬해 지평持平이 되었다. 1716년 정언正言이 되어 이듬해 전라도·경상도 등 삼남지방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경계행정

境界行政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것과 그 지방 백성의 굶주림을 들어 연기해 줄 것을 진언하였다. 1718년 의금부의 나졸이 죄인을 잡으러 광주廣州를 지나가다가 말을 훔치려 하였다는 혐의로 중군 정습鄭習에게 곤장을 맞는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1719년 집의執義가 되었고,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와 왜와의 교섭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21년(경종 1) 승지承旨가 되었으나, 노론 4대신 등에게 탄핵을 받아 무장茂長으로 유배되었다가 1723년 양덕陽德으로 이배되었다. 1725년(영조 1) 유배에서 풀려나 복직되었고, 이듬해 승지·형조참판刑曹參判을 거쳐 1727년(영조 3)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 때 거창 지방을 뒤흔든 정희량鄭希亮의 난을 평정하였다. 월계단에 배향되었으며, 법원읍 동문리에 묘가 있다.

황섭 黃銛 생물년 미상. 동몽교관을 지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정려되었다. 그 후손이 교하면 와동리에 살고 있다.

황수신 黃守身 1407년(태종 7)~1467년(세조 13).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는 수효秀孝, 호는 나부儒夫이다. 영의정領議政 희흥의 아들이며, 판서致身의 아우다.

1423년(세종 5) 사마시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한 후 문음으로 종묘부승宗廟副丞, 종부시직장宗簿寺直長,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도관서영녕官署丞 등을 역임하였다. 1429년 지평持平, 호조정랑戶曹正郎을 거쳐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 경력經歷을 역임하였다. 1440년(세종 22) 사첨시윤司膳寺尹을 거쳐, 함길도 5진五鎭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민호를 사민徙民할 때 전라도경차관全羅道敬差官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지내고, 지형조사知刑曹事로 체직되었다. 1441년(세종 23)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이듬해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 1443년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오른 후 좌부승지左副承旨,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1446년 조선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문과 출신이 아니면 제수되지 못한 도승지都承旨에 발탁되었다. 이듬해 의서찬집관醫書撰集官을 1자一資씩 품계를 올려 주라는 명을 받고 친분이 있는 임원준任元濬을 동반으로

옮겨 제수한 것이 직발되어 고신告身을 박탈당하였다. 그러나 1448년 직첩을 환급받고 1450년(문종 즉위년) 5월 첨지중추원사로 복직되었다. 이듬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어 수양대군을 도와 진법의 상정詳定에 공헌하였다. 아버지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가 1452년(단종 즉위년) 기복되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고, 1455년(세조 1) 우참찬右參贊에 제수되었다. 그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있을 때 작성한 경상도 웅천현熊川縣의 지도를 올리면서 비방책備防策을 건의하고, 세조 등위에 끼친 공로로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책록되어 남원군南原君에 봉하여졌다. 1456년 좌참찬左參贊이 되었으며, 1457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우찬성右贊成에 오르고 판예조사判禮曹事를 겸하면서 예조를 지휘하였다. 1458년 좌찬성左贊成에 올랐으며, 145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충청도도순문진홀사忠淸道都巡問賑恤使와 경상도모민체찰사慶尙道募民體察使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승자되면서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으로 진봉되었다. 1462년(세조 8) 아산의 전지를 무단히 점거하였다고 여러 차례 탄핵되었으

나 용서 받고 유임되었다. 같은 해 좌찬성左贊成으로서 『경국대전』의 제2차 초안草案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우의정右議政이 되어 명나라 헌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진하사進賀使로 다녀왔다. 1467년 영의정領議政에 올라 세조의 명으로 『법화경法華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언해諺解를 주관하였으며, 1465년(세조 1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찬진하였다. 장수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열성烈成이다. 탄현면 금승리에 묘가 있다.

황양열 黃良說 생몰년 미상. 호는 관해觀海이다. 소양공昭襄公 맹헌孟獻의 후손으로 벼슬은 참판參判에 이르렀다. 아버지가 병환에 들자 정성껏 시병하면서 하늘에 쾌유를 기원하였고, 돌아가자 백발노인의 몸으로 3년을 여막에서 시묘한 후 평생 흰옷을 입어 애도하였다.

황엽 黃楸 생몰년 미상. 조선 세종 때 교하현에 살았다. 부모가 죽자 6년을 연달아 무덤을 지키면서 채식하고 죽을 먹으며, 거적자리에 자고 흙덩이를 베고 울기를 그치지 않아 예조에서 조

정에 아뢰어 복호復戶하였다.

황정욱 黃廷彧 1532년(중종 27)~1607년(선조 4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는 경문景文, 호는 지천芝川이다. 영의정領議政 희희의 7세손으로, 행호분위부호군行虎貴衛副護軍 열悅의 아들이다.

1552년(명종 7)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사관史官, 승문권지承文權知,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봉교奉敎를 거쳐 시강원설서侍講院設書에 제수되었다. 1561년(명종 16) 호조좌랑戶曹佐郎과 예조좌랑禮曹佐郎을 역임하고 해미현감海美縣監으로 나아갔으며,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이 되었다. 1565년 헌납검지제교獻納兼知製敎, 부수찬副修撰을 거쳐 지평持平을 지냈다. 1580년(선조 13) 진주목사晉州牧使를 거쳐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 그 뒤 승지로 올라 1584년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명나라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 그 공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고 이어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승진하였다. 1589년(선조 22) 정여립의 모반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되었다. 이듬해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1등이 되어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에 책봉되면서 대제학大提學이 되었다. 이어 예조판서禮曹判書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역임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왕자 순화군順和君을 배종陪從하여 관동으로 피신하였다. 그곳에서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돌렸으나 왜군의 진격으로 회령에 들어갔다가 국경인鞠景仁의 모반에 의하여 왕자와 함께 포로가 되어 안변의 토굴에 감금되었다. 이때 왜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선조에게 보내는 항복 권유문을 쓰도록 강요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손자와 왕자를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아 아들 혁赫이 대신 썼다. 한편, 그는 항복 권유문이 거짓임을 밝히는 또 하나의 글을 썼으나 선조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듬해 왜군이 부산으로 철수할 때 석방되었으나 항복 권유문을 기초한 죄로 길주에 유배되었다. 1597년(선조 30) 왕의 특명으로 석방되었으나 복관되지 못한 채 죽었다. 문장, 시, 서예에 능하였다. 저서로 『지천집芝川集』이 있다. 후에 신원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탄현면 금승리에 묘가 있다.

황치신 黃致身 1397년(태조 6)~1484년(성종 1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는 맹충孟忠, 초명은 동董이다. 영의정領議政 희희의 아들이다.

음보로 공안부부승恭安府副丞이 되었고, 1415년(태종 15) 통례문봉례랑通禮門奉禮郎, 감찰監察, 호조좌랑戶曹佐郎을 거쳐 1432년(세종 14)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등을 역임했다. 1434년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이듬해 예조참의禮曹參議, 1437년 중추원부사中樞院府事, 한성부윤漢城府尹,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형조참판刑曹參判, 공조참판工曹參判 등을 역임하고, 1444년(세종 26)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올랐다. 1454년(단종 2) 중추원사中樞院事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1457년(세조 3)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1461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제수되었다. 같은 해 남의 노비를 빼앗은 혐의로 삭직되었다가 1466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院事로 복관되었으며 후에 판중추부사判中樞院事에 이르렀다. 사후 우의정右議政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호안胡安이다. 탄현면 금승리에 묘가 있다.

황혁 黃赫 1551년(명종 6)~1612년(광해군 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는 회지晦之, 호는 독석獨石이다. 아버지는 판서判書 정옥廷曷이며, 어머니는 조전趙詮의 딸이다. 기대승奇大升의 문인이다.

1570년(선조 3) 진사가 되고, 1580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집의執義, 사간司諫을 역임한 뒤 우승지右承旨가 되었다. 1591년 정철이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위리안치 될 때 그 일당으로 몰려 삭직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군護軍으로 등용되어 아버지 정옥과 함께 사위인 왕자 순화군順和君을 따라 강원도를 거쳐 회령을 갔다가 국경인鞠景仁에게 붙잡혀 왜군에게 인계되었다. 안변의 토굴에 감금되어 갖은 고초를 받다가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끌려 나가 선조에게 항복 권유문을 쓰라는 강요를 받고 이를 썼다. 1593년 부산에서 두 왕자와 함께 송환되었는데, 항복 권유문을 썼다고 탄핵을 받아 이산理山에 유배되었다가 신천으로 이배되었다. 1612년 이전에 이이첨을 시로 풍자한 일 때문에 미움을 받아 순화군의 아들 진릉군晉陵君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를 받고

투옥되어 옥사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이후 복관되어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장천군長川君에 봉하여졌다. 저서로 『독석집獨石集』이 있다. 탄현면 금승리에 묘가 있다.

황희 黃禧 1363년(공민왕 12)~1452년(문종 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초명은 수로壽老,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龐村이다. 자헌대부판강릉대도호부사資憲大夫判江陵大都護府使 군서君瑞의 아들이다.

1376년(우왕 2) 음보로 복안궁녹사福安宮錄事가 되었고, 1383년 사마시에, 1385년 진사시에, 1389년(창왕 1) 문과에 각각 급제하여 1390년(공민왕 2) 성균관학록에 제수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는데, 1394년(태조 3) 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동료들의 천거로 성균관학관成均館學官으로 제수되면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임하였다. 이후 직예문춘추관直藝文春秋館,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였다. 1398년 문하부우습유문下府右拾遺로 재직하던 중 언관으로서 사사로이 국사를 논의하였다고 문책되어 경원교수慶源教授로 나갔다가

1398년(정종 즉위년) 우습유右拾遺로 소환되었다. 이듬해 초 파직되었다가 2월경 문하부우보 궐門下府右補闕에 복직되었으나 또다시 파직되었다가 경기도도사京畿道都事를 거쳐 내직으로 소환되어 형조·예조·이조·병조의 정랑正郎을 역임하였다.

1401년(태종 1)경 도평의사사경력都評議使司經歷에 발탁되고 이어 병조의랑兵曹議郎에 제직되었다가 1402년 부친의 상으로 사직하였으나 그해 겨울 기복되어 대호군겸승추부경력大護軍兼承樞府經歷에 제수되었다. 1404년(태종 4)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를 거쳐 승정원좌부대언承政院左副代言에 오른 후 지신사知申事에 발탁되었다. 그 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형조판서刑曹判書,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대사헌大司憲, 병조판서兵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416년(태종 16) 세자의 실행失行을 옹호하여 파직되었다가 공조판서工曹判書, 평안도도순문사겸평양윤平安道都巡問使兼平壤尹 등을 거쳐 1418년(태종 18) 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에 제수되었다. 그해 세자 폐출의 불가함을 극간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사서

교하交河로 유배되고 곧 남원부에 이치移置되었다. 그 후 1422년(세종 4) 소환되어 직첩과 과전을 환급받고 참찬參贊으로 복직되었다.

1423년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오른 후 기근이 만연된 강원도에 관찰사로 파견되어 구휼하고 판우군도총제判右軍都總制에 제수되면서 계속 강원도관찰사를 겸하였다. 1424년 찬성贊成, 이듬해 대사헌大司憲을 겸하고, 1426년 이조판서吏曹判書, 우의정右議政에 발탁되면서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하였다. 좌의정겸판이조사左議政兼判吏曹事로 있다가 모친의 상으로 사직하고 기복되어 다시 좌의정左議政이 된 뒤 약산이 요충지라 하여 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를 설치하고 평안도도제절사의 본영으로 삼게 하였다.

1430년 좌의정으로서 감목監牧을 잘못한 태석균太石鈞의 일에 개입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된 뒤 파주 반구정伴鷗亭에 은거하였다. 1431년 복직되어 영의정부사領議政府使에 오른 뒤 1449년(세종 31)까지 18년 동안 왕을 도와 국정을 보살폈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종의 자문에 응하는 등 조선시대의 가장 명망 있는 재상으로 칭송되었다.

1452년(문종 2) 세종 묘에 배향되고, 1455년(세조 1) 아들 수신守身이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책록되면서 순충보조공신남원부원군純忠補祚功臣南原府院君으로 추증되었으며, 상주의 옥동서원玉洞書院과 장수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향되었다. 파주의 문산 사목리 반구정 아래 방촌영당影村影堂에 영정이 봉안되었다. 방촌영당은 1580년(선조 13) 황희의 5세손인 돈懋이 경상북도 상주시 중모면 수봉리에 영정당影楹堂을 창건하고 유상을 봉안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1632년(인조 10) 7세손인 수修가 유상을 모사模寫하여 반구정 아래에 영정각을 창건하여 봉안하였다. 저서로는 『방촌집影村集』이 있으며, 시호는 익성翼威이다. 탄현면 금승리에 묘가 있다. 방촌영당은 1976년 8월 27일 경기도기념물 제29호

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음력 2월 10일에 향사하고 있다.

효순왕후 孝純王后 1715년(숙종 41)~1751년(영조 27). 조선 후기 추존왕 진종眞宗의 비로, 본관은 풍양豐壤이고 성은 조씨趙氏이다. 좌의정左議政 조문명趙文命의 딸이다. 1727년(영조 3) 세자빈에 간택되어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孝章世子와 가례를 올렸으나 다음 해 효장세자가 죽었다. 1735년 현빈賢嬪에 봉하여졌다. 소생은 없었으나 죽은 뒤 1752년 효순孝純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776년 장헌세자의 장남(훗날의 정조)을 입양 받아 승통세자빈承統世子嬪의 호를 받았다가 정조의 즉위로 왕비로 추존되었다. 능은 파주삼릉 내에 있으며, 능호는 영릉永陵이다.